

**수능 직전에 풀어보는  
언어와 매체  
기출 모음집 2024  
21회차 220제**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과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산나물’, ‘바로잡다’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뽕죽구두’, ‘눅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르면, 합성어는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로 나뉜다. 대등 합성어는 ‘눅푸르다’처럼 두 어근의 의미가 동등한 관계를 보이는 합성어이다. 종속 합성어는 ‘산나물’처럼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의미상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이들 합성어의 의미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는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를 따지기 힘든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는 ‘손을 내밀어 그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그런데 여러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는 그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합성어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찬밥’은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종속 합성어이고,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융합 합성어이다.

이처럼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 간의 의미 관계, 그중에서도 상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찬밥’은 의미상 ‘밥’에 포함되므로 ‘밥’의 하의어이고, 이러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찬밥’은 종속 합성어이다. 그러나 ‘찬밥’이 융합 합성어일 때에는 ‘찬밥’과 ‘밥’이 상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논밭’과 같은 대등 합성어도,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이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35. ㉠, ㉡에 해당하는 예끼리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① 먹고살다 | 새색시  |
| ② 뛰놀다  | 떡거리  |
| ③ 갈라서다 | 척척박사 |
| ④ 걸어오다 | 큰아버지 |
| ⑤ 빛나다  | 돌다리  |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나는 그저께 막내딸을 보름 만에 만났다.  
 ㉡ 바깥에 오래 있었다니 손발이 차가워졌다.  
 ㉢ 며칠째 밤낮이 바뀐 날이 계속되고 있다.  
 ㉣ 시간만 잡아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가을이 되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갔다.

- ① ㉠의 ‘막내딸’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딸’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② ㉡의 ‘손발’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발’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 ③ ㉢의 ‘밤낮’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융합 합성어이겠군.
- ④ ㉣의 ‘잡아먹는’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먹다’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⑤ ㉤의 ‘날아갔다’는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가다’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3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수영: 내일이 방송부 아나운서를 선발하는 날인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진수: 너무 걱정 마. 내가 대본에다가 발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표시해 봤어. 확인해 봐.

[방송 대본]

어제는 책을 열심히 ㉠ 읽는[잉는] 친구에게 선물할 책을 사려고 ㉡ 서울역[서울력] 안에 있는 서점에 갔어요. ㉢ 복잡한[복짜판] 인파를 헤치고 서점 ㉣ 깊숙이[김쭈기] 들어가서 친구에게 줄 시집을 드디어 찾아냈지요. 시집을 펼쳐 마음에 드는 시를 ㉤ 읊다가[읍따가] 약속 시간에 늦었지만 친구는 제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수영: 그런데 왜 이 발음이 표준 발음이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배운 음운 변동과 관련이 있는 거야?  
 진수: 맞아. 각 단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모두 살펴보면,  
 \_\_\_\_\_ [A] \_\_\_\_\_  
 수영: 그렇구나. 고마워.

- ① ㉠에서는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잉는]으로 발음돼.
- ② ㉡에서는 한 번의 첨가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돼.
- ③ ㉢에서는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복짜판]으로 발음돼.
- ④ ㉣에서는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김쭈기]로 발음돼.
- ⑤ ㉤에서는 한 번의 탈락과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읍따가]로 발음돼.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각 기사의 본문 내용이, (나)는 표제의 크기가 독자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각 기사의 표제뿐만 아니라 부제의 내용과 표현도 독자의 주의를 끄는 요인이 된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기사의 배열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독자의 필요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기사마다 제공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독자가 언제 검색하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기사에 차이가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한 면에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적용된 '게이트 키핑'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세상의 모든 일이 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언론사는 뉴스를 생산할 때 '게이트 키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기자나 편집자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것을 기사로 쓸 것인지, 어떤 기사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신문의 경우, 비중 있게 다루려는 기사를 지면의 윗부분에 크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게이트 키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각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다시 게이트 키핑을 하여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해요.

- ① (가)의 언론사는 '가짜 뉴스' 관련 기사를 '지구 온난화'와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② (가)의 '지구 온난화',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가 (나)에 없는 것은 입력된 검색어와 상관없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게재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겠군.
- ③ (나)의 ㉠~㉣를 생산한 언론사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복수의 언론사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④ (나)의 ㉠은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는 정부의 정책을 사실적으로 보도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의 ㉢, ㉣ 기사를 낸 각 언론사들은 정부의 가짜 뉴스 대책과 관련된 기사를 생산할 때 서로 입장을 달리한 것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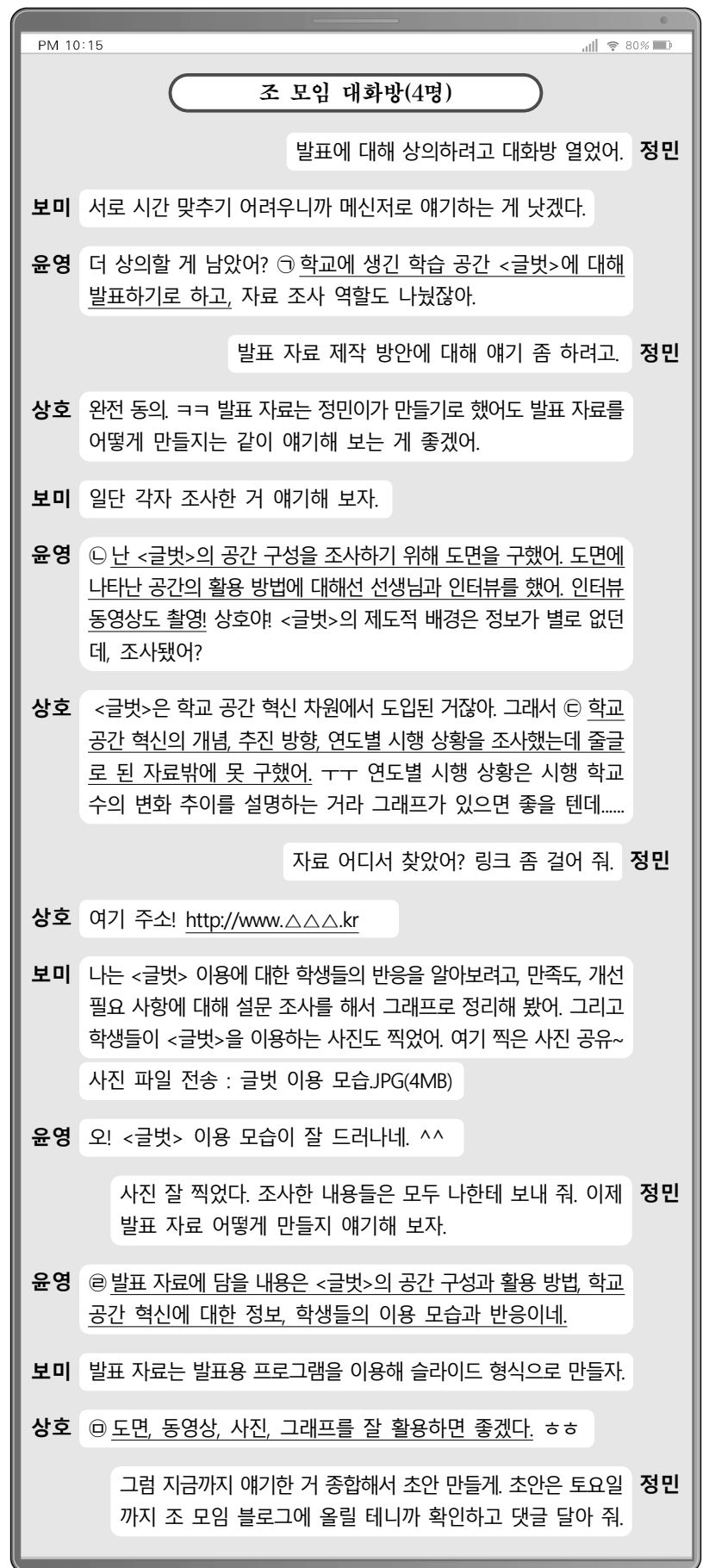
42.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 있다'를 써서 기사에서 주목하는 사건이 진행 중임을 표현하였다.
- ② ㉡: 피동 표현을 통해 '지적'한 주체는 드러내지 않고 '지적'된 내용을 기사에 제시하였다.

- ③ ㉢: 직접 인용 표현을 써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기사에서 사실적으로 전달하였다.
- ④ ㉣: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이 인과 관계로 이어짐을 기사에서 나타내었다.
- ⑤ ㉣: 지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사 내의 정보들을 응집성 있게 나타내었다.

[43~45] (가)는 학생들이 발표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정민'이 제작해서 블로그에 올린 발표 자료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제목: 발표 자료 초안**      글쓴이: 정민

댓글로 의견 달면 참고해서 수정할게,  
애들이 <글벗>이 왜 만들어졌는지 먼저 아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구성했어.

**1.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

**학교 공간 혁신의 개념**

- 미래를 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창의적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 획일화된 학교에서 벗어나 기존의 공간을 학생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

**학교 공간 혁신의 추진 방향**

- 체험형 놀이터, 창의적 학습 공간 등 공감형 공간 조성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연도별 시행 상황(단위: 교)**

연도	시행 교 수
2019년	170
2020년(예정)	270
2021년(예정)	360

자료 출처: 학교 공간 혁신 누리집(www.△△△.kr)

애들이 <글벗>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간을 중심으로 두 번째 슬라이드를 구성했어.

**2. <글벗>의 공간 구성과 활용 방법**

**<글벗>의 공간 구성(도면)**

50cm, 440cm, 840cm, 350cm, 250cm, 20cm, 830cm

**공간별 활용 방법(인터뷰 동영상)**

글벗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글벗> 이용 모습을 포함해서 구성했어.

**3. <글벗> 이용 현황과 학생들의 만족도**

**학생들의 <글벗> 이용 모습(사진)**

**학생 만족도(단위: 명)**

만족도	명수
만족	75
불만족	15
모르겠음	20

**개선 필요 사항(단위: 명)**

개선 필요 사항	명수
조명	20
스터디룸	30
소음	25

43.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 ② '정민'은 휴대 전화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점을 거론하며 해당 매체로 대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③ '윤영'은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④ '보미'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찍은 사진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 ⑤ '정민'과 '상호'는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44. ㉠~㉣을 바탕으로 '정민'이 세운 발표 자료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언급된 학습 공간의 명칭을 제목에 일관되게 포함하여 각 슬라이드 상단에 배치해야겠군.
- ② ㉡에서 언급된 두 자료는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앞뒤 슬라이드에 연속적으로 배치해야겠군.
- ③ ㉢에서 언급된 자료 중 연도별 시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그래프로 바꿔서 제시해야겠군.
- ④ ㉣에서 언급된 내용 중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배치하여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을 가장 먼저 제시해야겠군.
- ⑤ ㉤에서 언급된 자료를 문자 언어와 함께 배치하여 발표 내용을 복합 양식적으로 제시해야겠군.

45. <보기>는 (나)에 달린 '댓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를 수정한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윤영: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아?  
↳ 보미: 좋은 지적!  
↳ 정민: 그래, 수정해야겠다.

상호: 세 번째 슬라이드에 사진 대신 동영상을 넣는 건?  
↳ 윤영: 이용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좋네.  
↳ 보미: 좋아요^^ 동영상 내가 추가로 찍어서 올릴게.  
↳ 정민: 파일 올려 주는 대로 수정할게~~

상호: 개별 슬라이드 내에서 내용 제시 순서를 모르겠어.  
↳ 정민: 그럼 설명 순서에 맞게 번호를 붙일게.  
↳ 보미: 그러면 발표자와 듣는 애들 모두 편하겠다.

보미: 세 번째 슬라이드의 막대그래프 두 개는 원그래프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 상호: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선 필요 사항은 표에 구체적인 의견을 넣어서 제시하는 게 어때?  
↳ 보미: 개선 필요 사항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낫겠다.  
↳ 정민: 의견 종합해서 하나는 원그래프, 하나는 표로 수정할게.

**3. <글벗> 관련 만족도와 개선 필요 사항** ㉠

(1) 학생들의 <글벗> 이용 모습(동영상) ㉡

(2) 학생 만족도(단위: 명) ㉢

만족도	명수
만족	75
불만족	15
모르겠음	20

(3) 개선 필요 사항 ㉣

순위	내용	인원
1	스터디룸 예약이 너무 힘들어요.	30명
2	학습 공간에서 휴대 전화 통화를 해서 시끄러워요.	25명
3	조명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20명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정답표

<국어> 영역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④	2	18	④	3	35	①	2	35	①	2
2	②	2	19	①	2	36	③	3	36	⑤	2
3	③	2	20	②	2	37	②	2	37	②	3
4	①	3	21	④	3	38	③	2	38	④	2
5	⑤	2	22	②	2	39	⑤	2	39	⑤	2
6	①	2	23	⑤	2	40	③	2	40	③	2
7	①	2	24	④	2	41	④	3	41	②	2
8	④	3	25	④	3	42	③	2	42	③	2
9	③	2	26	②	2	43	④	2	43	④	2
10	③	2	27	④	2	44	①	2	44	②	2
11	⑤	2	28	⑤	2	45	②	2	45	①	3
12	③	2	29	④	3						
13	①	2	30	②	2						
14	⑤	2	31	②	2						
15	④	3	32	②	2						
16	②	2	33	③	3						
17	⑤	2	34	⑤	2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형용사 형성 파생법은 크게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은 ㉠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더하는 접사가 붙은 것이고,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은 대체로 ㉡ 명사 어근 뒤에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접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럼 아래를 참고하여, [학습 활동]을 해결해 볼까요?

[접두사] 새-, 시-  
[접미사] -롭다, -되다, -답다, -스럽다

[학습 활동] 다음에서 ㉠,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보자.

나는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바로 코끝에서 **시퍼런** 바닷물이 철썩거리고 있었다. 늘 걷던 길이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여기 머문 지도 어느새 삼 년이 되어 간다. 돌이켜 보면 **복된** 나날이었다. 이웃들과 매일 **정답게** 인사를 주고받았으며, 어디서든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① ‘시퍼런’은 접두사 ‘시-’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② ‘새롭게’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③ ‘복된’은 접미사 ‘-되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④ ‘정답게’는 접미사 ‘-답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⑤ ‘사랑스러운’은 접미사 ‘-스럽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3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우리는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렸다.  
㉡ 나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에 안도했다.  
㉢ 우유를 마신 아이가 마루에서 잠들었다.

- ①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과 달리 ㉠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과 달리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37. <보기>는 중세 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太子 | 앓겨 ㅁ스매 너교되 비들 만히 니르면 몸 삶가 흐야  
닐오되 金으로 짜해 식로물 ㅼ업게 흐면 이 東山을 프로리  
라 須達이 닐오되 尼르산 양으로 호리이다 太子 | 닐오되  
내 룡담흐다라 須達이 닐오되 太子 ㅅ 法은 거줏마를 아니  
흐 시는 거시니 구쳐 프르시리이다

[현대어 풀이]  
태자가 아껴 마음에 여기되 ‘값을 많이 이르면 못 살까.’ 하여 이르되 “금으로 땅에 갈음을 틈 없게 하면 이 동산을 팔겠다.” 수달이 이르되 “이르신 양으로 하겠습니다.” 태자가 이르되 “내가 농담하였다.” 수달이 이르되 “태자의 도리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것이니 하는 수 없이 파실 것입니다.”

- ① ‘金으로’와 ‘양으로’를 통해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ㅼ업’을 통해 단어 첫머리에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니르산’을 통해 주체인 수달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太子 ㅅ’을 통해 ‘ㅅ’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거줏마를’을 통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준 발음법 제5장에서는 ‘음의 동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동화는 음운 변동 중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로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ㅇ, ㄴ, ㅁ’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 ‘ㄴ’이 ‘ㄷ’의 앞 또는 뒤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유음인 ‘ㄷ’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유음화가 있다. 예컨대 ‘만물[만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실내[실래]’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한편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은 동화음, 동화음의 영향을 받는 음운은 피동화음이라고 하는데, 동화는 동화의 방향이나 동화의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하는 동화, ㉠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하는 동화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는 ㉡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과 같은 일부 특성만 닮는 동화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실내’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하며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나지만, ‘만물’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하며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조음 방법만 닮는 동화가 일어난다.

[A]



(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1. 표기 일람

(1)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a	o	u	i	ae	yeo	yo	wa

•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2) 자음

ㄱ	ㄷ	ㅂ	ㅅ	ㅁ	ㅇ	ㄹ
g, k	d, t	b, p	s	m	ng	r, l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2. 표기상의 유의점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38. (가)와 (나)를 참고해 <보기>의 ㉠~㉣를 로마자로 표기하려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대관령[대:꺠령]에서 ㉡ 백마[뱅마] 교차로까지는 멀다.
- ㉢ 별내[별래] 주민들은 ㉣ 삼목묘[삼몽묘]를 구입하였다.
- 작년엔 농장 주인은 ㉤ 물난리[물랄리]로 피해를 보았다.

\* ㉠~㉣는 지명임.

- ① ㉠: 종성 위치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나 [대:꺠령]으로 발음되므로 ‘Dae:kwallyeong’로 표기해야 한다.
- ② ㉡: 초성 위치에서만 비음화가 일어나 [뱅마]로 발음되므로 ‘Baengma’로 표기해야 한다.
- ③ ㉢: 초성 위치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나 [별래]로 발음되므로 ‘Byeollae’로 표기해야 한다.
- ④ ㉣: 초성 위치와 종성 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나 [삼몽묘]로 발음되므로 ‘sammongmyo’로 표기해야 한다.
- ⑤ ㉤: 초성 위치와 종성 위치에서 유음화가 일어나 [물랄리]로 발음되므로 ‘mullalri’로 표기해야 한다.

39. [A]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일어나는 동화의 양상을 분석할 때, ㉠과 ㉡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만을 골라 묶은 것은?

< 보 기 >

곤란[꺠란]	국민[꺠민]	읍내[읍내]
입문[입문]	칼날[칼랄]	

- ① 곤란, 입문
- ② 국민, 읍내
- ③ 곤란, 국민, 읍내
- ④ 곤란, 입문, 칼날
- ⑤ 국민, 입문, 칼날

[40~42] (가)는 인터넷 블로그이고, (나)는 텔레비전 생방송 뉴스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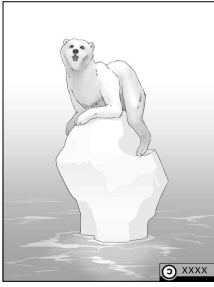
환경 파수꾼 ‘구르미’의 블로그

읽을거리    **생각 나누기**    자료 더하기    일상 기록

###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가 싫어요

구르미  
2021.02.06. 12:10


여러분은 ‘겨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추위? 얼음? 북극?  
오늘은 다큐멘터리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을 보고 든 생각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해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옆의 사진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옆의 사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북극곰이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북극곰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과 이산화 탄소 농도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 등이 있어요.



이 영상은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 홍보 영상인데,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시청하시면 북극곰의 아픔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자료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지구\_온난화    #북극곰\_멸종\_위기    #이산화\_탄소\_배출\_줄이기

댓글 7    공감 16

**사랑이** 북극곰에게 미안하네요. 이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게 좋겠죠? ..... ㉠

↳구르미 그럼요. 저도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로 결심했어요.

**초록곰** 저도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www.OOO.go.kr](http://www.OOO.go.kr) 여기서 이산화 탄소 배출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 ㉡

↳구르미 방문 감사합니다. 저도 주변 분들과 공유할게요.

**밤들이**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구르미 감사해요. 수정할게요.

**몽들이** 그래프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사진 속 작은 얼음 조각마저 사라져 북극곰은 살 곳이 없어지고 말겠어요. ㅠ.ㅠ

(나)



진행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국에 두 달째 가뭄이 이어지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현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 기자: 취재한 자료 영상을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것이 저수지 바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진행자: 가뭄이 이렇게나 심각하군요. 그에 따라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가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농민 한 분을 만나 봤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 간에 면 대 면 소통을 통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말투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특정 기호를 앞에 붙여 열거한 말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어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블로그 등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구체적 형태를 매체 자료라고 한다. 매체 언어는 음성,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이러한 복합 양식적인 매체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그 의미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놓여 있는 맥락 속에서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 자료의 수용은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 수용자의 관점이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창의적 생산자가 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 ① (가)에서 그래프와 동영상 등을, (나)에서 문자와 음성 등을 활용한 것은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몽돌이'가 쓴 댓글은 수용자가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구르미'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든 생각을 블로그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것은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창의적 생산자로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진행자와 윤 기자가 가뭄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문제의식을 수용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매체 자료를 생산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나)에서 진행자가 윤 기자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것은 생산자들 간에 놓여 있는 맥락이 같아도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4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매체 언어의 특성에 주목하여, 블로그를 통해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목적과 관련하여, 블로그에 제시된 정보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 ③ ㉠: 매체의 사용 습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
- ④ ㉡: 블로그에 제시된 의견에 동의를 나타내고 매체의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 ⑤ ㉡: 블로그에 제시된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하고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43~45] (가)는 학생들이 학생회장 후보자 홍보 동영상 제작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는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야기판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뒤로 학생회장 후보자 지원단 대화방(5명) 전송

경호: 애들아, 대화방 열었어. 서로 즉각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대화 내용이 남아 있어 그 내용을 참고하며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

한신: 학생회장 후보자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거지?

경호: 응, 맞아. 의견 좀래?

소희: 누리 소통망에 올릴 홍보 동영상은 우리의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을 잘 강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전에 만든 포스터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웠어.

연주: 좋은 생각이야.

한신: 누가 이야기판 만들래? 나한테 이야기판 양식이 있어. 공유할게.

파일 전송: 이야기판 양식.hwp(15.0KB)

지섭: 내가 이야기판을 만들어 볼게.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을 어떻게 구성할지 의견을 줘.

소희: ㉠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이 잘 드러나도록 소통에 관한 장면과 화합에 관한 장면을 하나씩 구성하자.

연주: ㉡ 소통 장면에서는 경청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하고, 화합 장면에서는 여럿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하자.





한신: ㉢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인터뷰와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는 인터뷰를 각각 다른 장면으로 제시하자.

지섭: ㉣ 공약 사항을 자막으로 제시할 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효과음을 넣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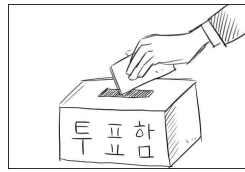
경호: 좋아. ㉤ 내레이션으로 자막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자.

지섭: 😊 잘해 볼게. ㄱ(^^)ㄴ

(나)

장면	장면 설명
S#1 	(우측 상단에 슬로건 제시) 학생들과 함께, 후보자가 힘찬 발걸음으로 등교한다. [자막] 기호 ×번 김□□
S#2 	후보자가 귀 옆에 양손을 가져다 댄다. [효과음] (자막이 나올 때) 빠밤 [자막] 학급별 소통함 제작 [내레이션]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
S#3 	세 학생이 어깨동무를 한다. [효과음] (자막이 나올 때) 빠밤 [자막] 한마음 축제 개최 [내레이션] 축제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고를 만들겠습니다.
S#4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한 학생의 인터뷰를 제시한다.

S#5



투표하는 손을 보여 준다.

[자막] 당신의 한 표를 기호 ×번에 행사하세요.

43.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신'은 동영상이 게재되는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을 언급하며 동영상의 구성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 ② '소희'는 매체 언어의 표현 전략을 비교하여 매체 언어를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연주'는 문자와 그림말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의미를 제시하여 동영상 제작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경호'는 휴대 전화 메시지의 특성을 언급하며 해당 매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지섭'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정보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동영상 제작의 절차와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4.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5. 다음은 (나)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판 검토 결과〉

S#1	후보자의 힘찬 발걸음을 부각할 수 있는 배경 음악이 필요함. 후보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막에 제시되어야 함.
S#2 ~ S#4	슬로건을 일관되게 노출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음.
S#4	인터뷰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여야 함.
S#5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인상적으로 제시하며 마무리해야 함.

- ① S#1에 밝고 역동적인 느낌의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제시한다.
- ② S#1의 자막을 '기호 ×번 김□□와 함께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됩니다.'로 수정한다.
- ③ S#2 ~ S#4에 S#1처럼 화면 우측 상단에 '소통과 화합'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④ S#4에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말들을 자막으로 제시한다.
- ⑤ S#5에 학생회장 후보자가 자막을 힘주어 읽는 내레이션을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과, 휴게 시설 정비 및 확충이 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원그래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나)의 2문단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이해한다.**

‘III’에서 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상위 항목인 ‘2. ○○숲 공원에 대한 인식’의 하위 항목으로 ‘가. ○○숲 공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나. ○○숲 공원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가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위계를 고려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점점 결과에서 (가)가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과를 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I’에서 조사의 목적을 ○○숲 공원 이용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된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② ‘II’에 조사 계획을 제시하면서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④ ‘III-2-나’에서 ○○숲 공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과 관련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각 항목에 응답한 주민의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 원그래프를 사용한 것은 조사 항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보고서에서 그래프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⑤ 현재 보고서에는 참고 문헌 항목을 설정하여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점검하고 고쳐 쓴다.**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A]에서는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조정해 제시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견해를 함께 제시했다.

**[오답풀이]** ④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A]에서 보고서에 사용된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부분은 없다. ⑤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A]에서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표지를 수정한 부분은 없다.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②	37	③	38	③	39	①
40	③	41	⑤	42	④	43	④	44	③
45	⑤								

**35. [출제의도] 형용사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새롭게’은 어근 ‘새’ 뒤에 접미사 ‘-롭다’가 붙어 형성된 말 ‘새롭다’의 활용형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시퍼런’은 어근 ‘피렇’ 앞에 접두사 ‘시-’가 붙어 형성된 말 ‘시퍼렇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복된’은 어근 ‘복’ 뒤에 접미사 ‘-되다’가 붙어 형성된 말 ‘복되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④ ‘정답게’는 어근 ‘정’ 뒤에 접미사 ‘-답다’가 붙어 형성된 말 ‘정답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사랑스러운’은 어근 ‘사랑’ 뒤에 접미사 ‘-스럽다’가 붙어 형성된 ‘사랑스럽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36.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새를 파악한다.**

㉠에서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은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 외에는 ㉠에 다른 안긴문장이 없으므로, ㉠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범이 어서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 ㉠에서 ‘우유를 마신’은 ‘아이’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의 안긴문장 ‘우유를 마신’ 속에는 부사어가 없다. ㉠의 안긴문장 ‘범이 어서 오기’ 속에는 ‘오기’를 수식하는 부사어 ‘어서’가 있다. ⑤ ㉠의 안긴문장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에는 주어 ‘그가’가 드러나 있고, ㉠의 안긴문장 ‘우유를 마신’에는 주어 생략되어 있다.

**37.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한다.**

‘니르산’을 통해 주제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때 높임의 대상은 수달이 아니라 태자이다.

**[오답풀이]** ① ‘금으로’와 ‘양으로’를 통해, ‘금으로’와 ‘양으로’에 쓰인 부사격 조사는 중세 국어에서 앞 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는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으로’로, 양성 모음일 때는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으로’로 달리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뽕’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ㅃ’과 같이 단어 첫머리에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太子’이 ‘태자’로 풀이됨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 ‘太子’에 관형격 조사로 ‘ㅅ’이 결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거죽말’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체언 ‘거죽말’에 조사 ‘을’이 결합할 때 앞말의 받침이 뒤의 초성으로 연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하는 방식인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 [출제의도] 음운 변동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이해한다.**

‘별내[별래]’에서는 초성 위치에 있는 ‘ㄴ’이 ‘ㄹ’의 뒤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유음인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나)를 고려할 때, ‘별내[별래]’의 로마자 표기는 ‘Byeollae’이다.

**[오답풀이]** ① ‘대관령[대궐령]’의 로마자 표기는 ‘Daegwallyeong’이다. ② ‘백마[백마]’에서는 초성 위치가 아닌 종성 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 ④ ‘삼목도[삼모도]’에서는 두 종성 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 ⑤ ‘물날리[물랄리]’의 로마자 표기는 ‘mullalli’이다.

**39. [출제의도] 동화의 유형을 이해한다.**

‘곤란[글:란]은 동화음 ‘ㄹ’이 피동화음 ‘ㄴ’에 후행하는 동화가 일어나며, 피동화음 ‘ㄴ’이 ‘ㄹ’로 바뀌어 동화음 ‘ㄹ’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입문[임문]은 동화음 ‘ㄹ’이 피동화음 ‘ㅃ’에 후행하는 동화가 일어나며, 피동화음 ‘ㅃ’이 ‘ㄹ’로 바뀌어 동화음 ‘ㄹ’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난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그 특성을 이해한다.**

(가)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몇몇 특정 핵심 어구의 앞에 기호를 붙여 열거하고 있다. 해당 기호를 통해 정보 수용자는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나)는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며,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특징이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에 대해 이해한다.**

(나)에서 진행자는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진행자와 기자는 가문에 따른 피해의 상황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자와 기자는 같은 맥락 속에 있고, 문제 상황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가)의 게시글에 ‘몽돌이’가 작성한 댓글은 그래프, 사진, 문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한 것이다. ④ (나)의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와 기자가 가문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강조한 것은 수용자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초록꿈’은 ㉠에서 블로그 게시글에 제시된 의견에 동의할 나타내고,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① ‘사랑이’가 쓴 댓글의 의문문은 블로그 게시글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경호’는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남아 있는 대화 내용을 참고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휴대 전화 메신저의 특성을 언급하며 휴대 전화 메신저를 통한 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한신’의 말에서 동영상이 게재되는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 ② ‘소희’가 포스터와 비교하며 새로 제작하는 동영상에서 슬로건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지만, 표현 전략을 비교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⑤ ‘지섬’이 이 야기판 제작을 위해 대화방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휴대 전화 메신저의 정보 전달 효과를 고려하며 동영상 제작의 절차와 역할 분담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에 대해 이해한다.**

(나)의 S#4에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인터뷰는 제시되어 있으나, (나)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는 인터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의 S#2는 소통에 관한 장면, S#3은 화합에 관한 장면이다. ② 소통에 관한 장면인 (나)의 S#2에는 후보자가 귀 옆에 양손을 가져다대는 모습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화합에 관한 장면인 (나)의 S#3에는 세 학생이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으로 여럿이 함께 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④ ‘학급별 소통할 제작’이라는 공약이 자막으로 제시된 (나)의 S#2와 ‘한마음 축제 개최’라는 공약이 자막으로 제시된 S#3에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자막이 나올 때 효과음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⑤ (나)의 S#2와 S#3에서 내레이션을 통해 자막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S#5에서 자막의 내용을 힌주어 읽는 것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인상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풀이]** ① 밝고 역동적인 느낌의 음악을 사용하면 후보자의 힘찬 발걸음을 부각할 수 있다. ② 자막에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후보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③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슬로건을 강조할 수 있다. ④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말을 자막으로 제시하면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 제 1 교시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용언의 활용이라 한다.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키고, 어미는 어간 뒤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요소를 가리킨다.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어말 어미는 용언의 맨 뒤에 오는 어미이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이다. 가령, “나는 물건을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들었다’는 어간 ‘들-’에 선어말 어미 ‘-았-’과 어말 어미 ‘-다’가 결합된 용언이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 관계를 기호화하여 어간을 X, 선어말 어미를 Y, 어말 어미를 Z라고 할 때, 어간에 하나의 어미만 결합된 용언은 ㉠ X+Z로 표현될 수 있고, 어간에 둘 이상의 어미가 결합된 용언은 ㉡ X+Y+Z 혹은 ㉢ X+Y<sub>1</sub>+Y<sub>2</sub>+Z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말 어미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종결 어미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며,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연결 어미는 두 문장을 나열, 대조 등의 의미 관계로 이어 주는 ㉣ 대등적 연결 어미,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 조건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 주는 ㉤ 종속적 연결 어미,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 보조적 연결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전성 어미는 용언이 서술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선어말 어미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문장의 시제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한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다음 주에 있을 전국 학생 토론 대회 준비는 마쳤니?  
**라온:** 아직이요. 내일까지는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해람:** 사실 이번 주제는 저희들끼리 준비하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방금 교무실로 들어가신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 보렴.  
**라온:** 창가 쪽에서 계신 분 말씀이죠?  
**해람:** 아, 수업 종이 울렸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자.

- ① ‘끝내겠습니다’는 ㉢에 속하며, 이때 Z는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② ‘준비하기’는 ㉠에 속하며, 이때 Z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군.
- ③ ‘들어가신’은 ㉢에 속하며, 이때 Y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④ ‘계신’은 ㉠에 속하며, 이때 Z는 용언을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군.
- ⑤ ‘울렸네’는 ㉢에 속하며, 이때 Y<sub>2</sub>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군.

36. <보기>의 ㉦ ~ ㉨를 윗글의 ㉠ ~ ㉢로 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 기 >

-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있다. ㉦
- 김이 습기를 먹어 녹록해졌다. ㉧
- 형은 빵을 먹고 동생은 과자를 먹었다. ㉨
- 우리는 상대방에게 한 꼴을 먹고 당황했다. ㉩
- 그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겁을 먹어 버렸다. ㉪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37.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 ㉤ 중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우리말 음성을 한글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쓴 일지의 일부이다.

**○ 프로그램의 원리**  
 사용자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자료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면, 프로그램은 그 발음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해 본래의 표기된 자료로 출력한다.

**○ 확인된 문제**  
 프로그램이 입력된 발음을 본래의 자료로 출력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아래의 잘못 출력된 사례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를 대조해 ㉡ 교체, ㉢ 탈락, ㉣ 첨가, ㉤ 축약 중 ㉠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

표기된 자료	표준 발음	출력된 자료
끊어지다	[끄너지다]	끄너지다
없애다	[업:쌌다]	업쌌다
피붙이	[피부치]	피부치
웃어른	[우더른]	우더른
암탉	[암탁]	암탁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8. <보기>는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탐구 개요**  
학생들은 형태가 동일한 두 형태소가 하나는 어근, 하나는 접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구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예시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사례**

- 마당 **한**가운데 꽃이 폈다. (㉠)
- 그가 이 책의 지은**이**이다. (㉡)
- 커다란 **알**밤을 주웠다. (㉢)

**○ 학생들의 반응**

사례	접사	어근
㉠	15	10
㉡	5	20
㉢	5	20

(단위: 명)

**○ 결과 분석 및 추가 예시 자료 제시**

[가]

- '사례 1'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에 따라 'A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한번'을 제시한다.
- '사례 1'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B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한복판'을 제시한다.
- '사례 2'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에 따라 'C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먹이'를 제시한다.
- '사례 2'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D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미단이'를 제시한다.
- '사례 3'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E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알사탕'을 제시한다.

39. <보기>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불휘 기픈 남근 **보**락매 아니 뵈썩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브**른 **ㅁ**래 아니 그썩썩 **내**히 이러 **바**래 가느니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장> -

- '불휘'와 '식미'를 보니,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동일한 형태의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보'락매'와 'ㅁ'래'를 보니, '애'가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하'느니'를 보니, '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브'른'과 '바'래'를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다음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내'히'를 보니,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체언의 끝소리 'ㅎ'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40 ~ 42] (가)와 (나)는 인쇄된 잡지에 실린 광고이고, (다)는 인터넷에 올려진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가장 가벼운 총**

전 세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 한 해 800만 톤. 사람들에게겐 편리한 작은 빨대 하나지만 바다 생물들에겐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 이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서 바다 생물과 함께 지구 환경도 살릴 때입니다.



(나)

**'미세 제로 공기 청정기'로 미세먼지 탈출하세요!**

CADR(시간당 공기 정화 능력) 95m³/h  
 CADR(Clean Air Delivery Rate)은 시간당 공기 정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공기 청정 기능에 있어 두 배 높은 CADR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평가단 만족도 (별 5개 만점)**  
 평점: ★★★★★ 다른 제품보다 저렴해요. ㉢ ㉣  
 - 닥네임 '하늘 나무' 님  
 평점: ★★★★★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어요. ㉤  
 - 닥네임 '좋은 열매' 님



(다)

생활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 '○○헬스' 출시**

▶ 감태 추출물 활용하여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  
 ▶ 하루 한 알로 피로 회복 효과까지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는 '○○헬스'를 이번 달 22일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숙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효과도 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헬스의 복용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이 효과는 감태 추출물 때문이다. 또 ○○헬스에는 비타민 B도 함유되어 있어 ○○헬스 한 알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 개선과 더불어 피로 회복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그래서 ○○헬스는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 홍보 담당자는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의 모든 소비자들이 ○○헬스를 필수적인 식품으로 여기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 나아가 ○○헬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므로, 곧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를 복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보 김△△ 기자(kim@○○news.co.kr)

전체 댓글 2개      최근 순      등록

↳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09:05

↳ 제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 기대되네요!      08:01

40.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글자 크기의 차이가 드러나므로 제목과 구체적인 정보를 구분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문자 언어와 이모티콘이 함께 나타나므로 수용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나)와 달리 (다)는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수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④ (다)와 달리 (가)는 동일한 이미지의 나열이 드러나므로 내용과 관련된 수용자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⑤ (다)와 달리 (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수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선택적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1. <보기>를 읽은 학생이 (가) ~ (다)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광고는 대중을 설득하는 활동으로서, 목적에 따라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한 상업 광고와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익 광고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사실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평가를 함께 활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는 상품 판매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기사문 형태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표제와 부제, 핵심 내용을 요약한 전문 등을 갖춰 일반적인 기사문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기사문 형태의 광고는 언론사 명칭과 작성자 이름을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부각하고자 하는데, 이를 접한 대중들은 제시된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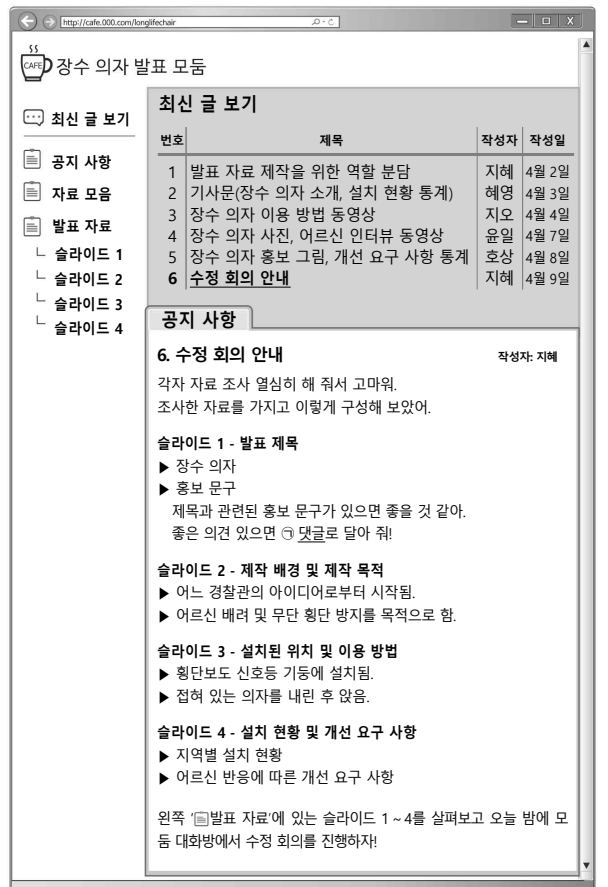
- ① (가)는 환경 문제의 대처와 관련된 가치의 실현을 위해 대중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공익 광고에 속하겠군.
- ② (나)는 특정 제품의 기능을 제시하여 제품의 판매가 촉진되도록 대중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상업 광고에 속하겠군.
- ③ (나)에서 특정 제품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와 기능적 특징을 제시한 부분은 사실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평가를 함께 활용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특정 언론사 명칭과 기사 작성자 이름이 제시된 부분을 보면 광고 내용의 신뢰성을 부각하려 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다)는 특정 제품의 출시 정보와 효능에 관한 내용을 표제와 부제, 전문의 형식을 갖춰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사문 형태의 광고에 해당하겠군.

42.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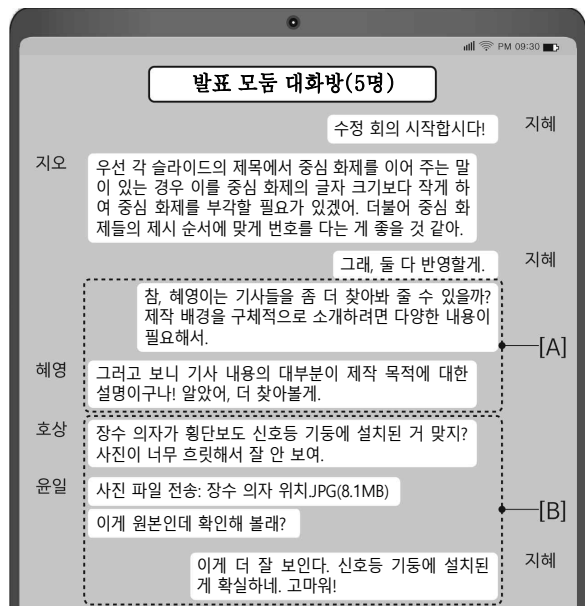
- ① ㉠: 보조사를 사용하여 '살릴'의 대상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수사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대상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의존 명사를 사용하여 '감태 추출물'이 '효과'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앞 문장과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대명사를 사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판매될' 제품을 지시하고 있다.

[43 ~ 45] (가)는 학생들이 발표를 위해 만든 온라인 카페이고, (나)는 발표 자료의 수정을 위해 휴대 전화 메시저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근데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은 슬라이드에 활용하기는 했는데, 여기에도 어르신께서 장수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담겨 있어서 지오가 올린 동영상과 내용이 겹쳐. 함께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호상 지오가 올린 동영상에는 어르신들께서 의자를 직접 내리고 앉으시는 모습까지 담겨 있으니 이용 방법을 제시할 때는 이걸 활용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지혜 그 부분을 강조하면 훨씬 효과적이겠다.

호상 그런데 내가 동영상 편집 방법을 잘 모르는데.....

지혜 그러면 편집은 내가 할게.

지혜 정말? 그럼 내가 너 대신 발표를 할게. 슬라이드를 제작한 사람이 내용의 흐름에 더 익숙할 테니까.

호상 고마워. 잘 부탁해!

혜영 그러면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서 어르신 반응에 따른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할 때 활용하면 좋겠어. 동영상은 또 제시할 필요는 없잖아.

윤일 그게 좋겠다.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하고, '무단 횡단 금지'가 '잠시 쉬어 가세요.'보다 더 크게 장수 의자에 적혀 있어서 인짱다고 하신 할머니 말씀은 글과 사진으로 정리할게. 내가 찍어 올린 사진 중에 할머니의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이 있으니, 이걸 함께 제시하면 할머니의 개선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혜 좋은 생각이야. 반영할게.

호상 참, 그런데 호상이 올린 두 자료의 출처가 모두 없더라. 통계 자료 출처는 내가 검색해서 찾았어. 그런데 장수 의자 홍보 그림의 출처는 못 찾았어. 혹시 그림을 찾은 인터넷 주소 좀 알려 줄래?

지혜 아, 미안해. 그 출처는 이거야. 여기 주소 보낼게. <http://www.◇◇.go.kr>

지오 그런데 개선 요구 사항이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워드 그래픽으로 바꿔 제시하는 게 시각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아.

지혜 응, 그렇게 해 볼게.

43. (나)를 바탕으로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2'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기사 문에는 장수 의자 제작 목적보다 제작 배경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 ② [B]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4'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사진은 (나)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된 사진보다 화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C]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3'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동영상에는 어르신께서 장수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등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D]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1'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역할 분담에는 '지혜'와 '호상'이 각각 슬라이드 제작자와 발표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5'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장수 의자 홍보 그림에는 (나)에서 제시된 인터넷 주소인 출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4. (나)를 고려하여 <보기 1>을 <보기 2>로 수정했다고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4. 설치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설치 현황

개선 요구 사항

순위	내용	인원
1	장수 의자 수량 확대	52명
2	장수 의자와 도로의 안전 거리 확보	32명
3	장수 의자 좌석 폭 확장	27명

자료 출처: <http://www.□□news.com>      자료 출처: <http://www.△△.go.kr>

〈보기 2〉

4. 설치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오: 홍보 문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좋을까?

호상: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

혜영: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것도 좋지.

지혜: 호상님과 혜영님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이제부터 홍보 문구를 만들어 보자.

㉠

㉡

- ① 호상: 나의 작은 관심, 지역의 큰 기쁨. 장수 의자에 대한 관심이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 ② 윤일: 장수 의자에 앉아 신호등을 기다려 보세요. 편안함을 위한 장수 의자, 안전함까지 드립니다.
- ③ 혜영: 장수 의자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웃어 보아요. 우리 지역의 공동체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 ④ 지혜: 안전을 위해 장수 의자에서 잠시 대기하세요. 장수 의자에 머물면서 당신의 삶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 ⑤ 지오: 힘겨운 기다림은 이제 그만, 편안한 기다림은 이제 시작. 장수 의자, 어르신들의 안전과 휴식을 책임집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을 수 있는 영역은 위치 탐지 패턴이 아니라 인코딩 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위치 탐지 패턴은 QR 코드가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어도 쉽고 빠르게 인식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타이밍 패턴은 다른 모듈들의 위치 정보와 QR 코드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정렬 패턴은 QR 코드가 곡면 등에 인쇄되어 일그러진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위치 탐지 패턴, 타이밍 패턴, 정렬 패턴이 기능 패턴에 속한다고 하였고, 기능 패턴이 QR 코드가 효율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진행자의 역할 이해하기**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는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생각을 유도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번 모임에서 ~ 이야기하기로 했잖아.'라고 하며 지난 활동에서 결정된 주제를 환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우선 한 명씩 ~ 먼저 이야기해 볼래?', 두 번째 발화에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얘기해 볼래?'라고 하며 발언자의 순서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다른 사람들 ~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세 번째 발화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 입장에서 나눠는구나.'라고 하며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오늘 나는 이야기를 ~ 다음 모임 때 발표해 보자'라고 하며 다음 모임의 활동 내용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의 '학생 3'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 모습을 응원했잖.', [B]의 '학생 2'는 '진정한 영웅이 ~ 말에는 동의'한다며 모두 상대방이 한 말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A]의 '학생 3'은 '하지만 법 또한 ~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B]의 '학생 2'는 '영웅의 정의로움을 ~ 정의로웠다고 생각해.'라고 하며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나)의 1문단에서 "영웅"이라고 하면 ~ 떠올릴 것이다.라고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영웅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영웅보다 정의로운 홍길동의 행동을 부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1문단에서 '부정부패한 권력층의 ~의적 활동을 펼쳐'라고 (가)의 '학생 2'와 '학생 3'이 언급한 내용을 활용하여 불의에 맞서 약자들을 돕는 홍길동의 영웅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에 드러나는 '나는 홍길동의 행동이 ~ 정의로웠다고 생각해.'라는 '학생 2'의 견해에 공감하며 홍길동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나)의 2문단에서 '그러나 친구들과 ~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예를 들어 재난 현장 ~ 영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오늘날의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이번 동아리 활동은 ~ 좋은 기회였다.'라고 (가)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며 홍길동의 영웅적 면모와 진정한 영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활동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고쳐쓰기**

초고는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마

무리 되어있는데 (나)에서는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로 수정되어 글쓴이의 다짐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결심한 내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때?'라는 조언이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초고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에서 의미가 중복되어 사용된 어휘 중 '수용하는'이 삭제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초고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고전을 읽으면 ~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이 삭제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글쓴이의 생각이 확장되었음을 드러내는 '나아가서'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제목과 관련해 글쓴이는 (나)의 3문단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으나, 초고에는 봉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조언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이 추가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작문 계획 이해하기**

(가)의 결론에는 본문에서 서술한 설문 조사 결과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으나, 수면 실태가 수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서론에 조사 대상,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로 항목을 나누어 조사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추가 질문을 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본문에서 설문 결과를 백분율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 3]에서 각성 효과는 카페인의 섭취로 인해 뇌의 활동이 억제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며 각성 효과로 인해 제시간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고, [자료 2]에서는 멜라토닌과 각성 효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책으로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②]는 국가별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을 보여주는 표이므로 외국 학생들과 비교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다. ② [자료 2]는 빛의 노출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량의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③ [자료 3]은 카페인으로 인해 제시간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자료 1-③]는 인체의 면역력과 관련된 T세포의 수치가 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자료 2]는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 면역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표현하기**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이 자는 잠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에서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

길입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수면의 양이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작문 맥락 고려하여 글 이해하기**

(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와 잠과 면역력과의 관계, 잠과 관련된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특징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에는 예상 독자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가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문제 상황에 대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나)에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은 (가)와 (나)에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제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에만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①	38	②	39	①
40	③	41	③	42	②	43	③	44	④
45	⑤								

**35.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 이해하기**

'울렀네'는 어간 '울리-'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네'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다. 따라서 '울렸네'는 ㉠에 속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끝내겠습니다'는 어간 '끝내-'와 선어말 어미 '-겠-',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종결 어미 '-습니다'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② '준비하기'는 어간 '준비하-'와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③ '들어가신'은 어간 '들어가-'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 '-시-', 어말 어미 '-니'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④ '계신'은 어간 '계시-'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니'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연결 어미 이해하기**

㉠의 '-고'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 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의 '-어'와 ㉢의 '-고'는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 주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의 '-고'와 ㉤의 '-어'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37.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확인된 문제'의 사례에서 '출력된 자료'는 '표기된 자료'의 '표준 발음'이 그대로 출력되어 있다. 따라서 '표기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을 알 수 있다. 먼저 '끊어지다[끄너지다]'에는 'ㅎ 탈락'이, '암탉[암탁]'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데, 프로그램은 음운의 탈락 현상을 분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없애다[업:애다]'에는 '된소리되기'가, '피붙이[피부치]'에는 '구개음화'가, '웃어른[우더른]'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데, 프로그램은 음운의 교체 현상을 분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은 ㉠, ㉡이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 파악하기**

'사례 1'에서 ㉠은 접사인데, 학생들의 반응에서 ㉡을 어근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접사로 알고 있는 학생들보다 더 적으므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복'은 접사 '한-'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다.

① '사례 1'에서 ㉠은 접사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한번'은 어근 '한'과 다른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사례 2'에서 ㉡은 어근으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하지만 '떡이'는 어근과 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어근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사례 2'에서 ㉢은 어근으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미닫이'는 어근과 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어근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사례 3'에서 ㉢은 접사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알사탕'은 어근 '알'과 다른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불휘'에는 받모음 'ㅣ'로 끝난 체인 '불휘' 뒤에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어 주격 조사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식미'에는 자음으로 끝난 체인 '실'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해 체인의 끝소리가 연음되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브르매'는 명사 '브름'에 조사 '애'가, '마르래'는 명사 '마를'에 조사 '애'가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애'는 현대어 풀이에서 부사격 조사 '에'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하느니'는 현대어 풀이에서 ' 많으니'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브르'에는 명사 '를'의 끝소리 'ㄹ'을 조사 '은'의 첫소리로, '바르래'에는 명사 '바를'의 끝소리 'ㄹ'을 조사 '애'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내히'에는 끝소리에 'ㅎ'을 가진 체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이'를 만나 'ㅎ'이 연음되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징 이해하기**

인터넷 매체인 (다)는 인쇄 매체인 (나)와 달리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댓글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와 (나) 모두 글자 크기의 차이를 통해 제목과 구체적인 정보를 구분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달리 (나)는 문자 언어와 이모티콘이 함께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동일한 이미지의 나열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와 달리 (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광고의 특성 이해하기**

공기 청정기의 기능과 관련된 용어인 'CADR'의 의미와, 이번에 출시된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두 배 높은 CADR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기능적 특징을 제시한 부분은 사실적인 정보만 활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 생물에 위협이 된다는 환경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이라고 설득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공기 청정기의 기능을 제시하여 상품의 판매를 촉진되도록 설

득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다)의 하단에는 '□□일보'라는 언론사 명칭과 '김△△'라는 기사 작성자 이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 '○○헬스' 출시'는 표제, '감태 추출물 활용하여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과 '하루 한 알로 피로 회복 효과까지'는 부제,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는 ~ 피로 회복 효과도 있다.'는 전문으로, (다)는 기사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광고문의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에서 '두 배'의 '두'는 수 관형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지구 환경도'의 보조사 '도'는 '살릴'의 대상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때문이다'의 의존 명사 '때문'은 '감태 추출물'이 '효과'의 원인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접속 부사 '그래서'는 앞 문장과 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이름'의 대명사 '이'는 앞에서 언급한 '판매될' 제품을 지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추론하기**

[C]에서 '지혜'의 '근데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 ~ 내용이 겹쳐.'를 보면, 지오가 올린 동영상에 어르신께서 장수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혜영'의 '그러고 보니 ~ 제작 목적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보면, '혜영'이 올린 기사문에는 장수 의자 제작 목적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호상'의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여.'와, '윤일'의 '이게 원본인데 확인해 볼래?'와, '지혜'의 '이게 더 잘 보인다.'를 보면, 실시간으로 공유된 사진보다 '윤일'이 올린 장수 의자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D]에서 '호상'의 '그러면 편집은 내가 할게.'와, '지혜'의 '그럼 내가 너 대신 ~ 익숙할 테니까.'를 보면, '지혜'가 올린 역할 분담에는 '지혜'와 '호상'이 각각 슬라이드 제작자와 발표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에서 '지혜'의 '그러면 장수 의자 홍보 그림의 출처는 못 찾았어.'와 호상의 '아, 미안해. 그 출처는 이거야. 여기 주소 보낼게. http://www.◇◇.go.kr'를 보면, '호상'이 올린 장수 의자 홍보 그림에는 인터넷 주소인 출처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분석하기**

(나)에서 '윤일'의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 있을 것 같아.'를 보면, ㉠에서 활용되어야 할 사진 속 장수 의자에는 '무단 횡단 금지'가 '잠시 쉬어 가세요.'보다 더 크게 적혀 있어야 하는데, <보기 2>에서 실제 활용된 사진에는 '잠시 쉬어 가세요.'가 '무단 횡단 금지'보다 더 크게 적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지오'의 '우선 각 ~ 필요가 있겠어.'를 보면, 중심 화제를 이어 주는 말을 중심 화제보다 글자 크기를 작게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지오'의 '더불어 중심 화제들의 ~ 좋을 것 같아.'를 보면, 제시 순서에 맞게 중심 화제에 번호를 달아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혜영'의 '그러면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서 ~ 제시할 필요는 없잖아.'와, '윤일'의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하고'를 보면, 할아버지는 그림으로,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지오'의 '그러면 개선 요구 사항이 ~ 효과적일 것 같아.'를 보면, 표제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을 원그래프로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매체 언어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장수 의자, 어르신들의 안전과 휴식을 책임집니다.'에서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힘겨운 기다림은 이제 그만, 편안한 기다림은 이제 시작.'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의 작은 관심, 지역의 큰 기쁨.'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편안함을 위한 장수 의자, 안전함까지 드립니다.'에서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제18항은 용언이 활용할 때의 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5항은 ‘웃다, 웃고, 웃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제18항은 ‘긋다, 그어, 그으니’처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글 맞춤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국어사전의 [활용]의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아래는 국어사전의 일부를 간추려 제시한 것이다.

**웃다**  
발음 [운:따]  
[활용] 웃어[우:서], 웃으니[우:스니], 웃는[운:는]

**긋다**  
발음 [근:따]  
[활용] 그어[그어], 그으니[그으니], 긋는[근:는]

동사 ‘웃다’와 ‘긋다’의 [활용]에서 각각 ‘웃다’와 ‘긋다’의 활용형과 그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 즉 ‘활용 정보’를 통하여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칙 활용 용언 중 동사 ‘벗다’는 ‘벗어, 벗으니, 벗는’처럼 활용하므로 ‘웃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고, 불규칙 활용 용언 중 ‘짓다’는 ‘지어, 지으니, 짓는’처럼 활용하므로 ‘긋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한편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다’의 활용 정보는 ‘자[자], 자니[자니]’처럼 제시되는데 이때의 활용형 ‘자’는 ‘자다’의 어간 ‘자-’가 어미 ‘-아’와 결합할 때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나 ‘자’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좋다’는 ‘좋아[조:아], 좋으니[조:으니]’가 활용 정보에 제시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즉 활용 정보에 나타나는 활용형 ‘자’와 ‘좋아’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5.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르다 - 잠그다
  - ② 흐르다 - 푸르다
  - ③ 뒤집다 - 끼입다
  - ④ 붙잡다 - 정답다
  - ⑤ 깨문다 - 엇듣다

36.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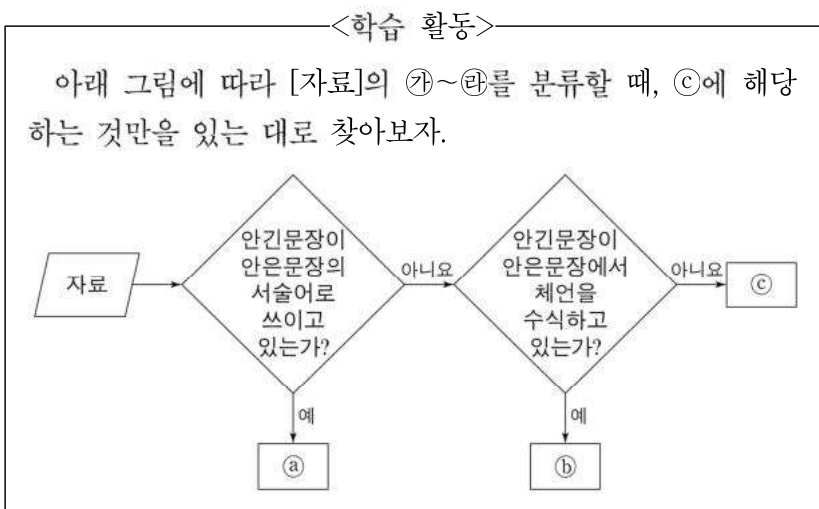
<보 기>

**국어사전의 표제어와 활용 정보**

㉠ 서다	[활용]	서, 서니 ...
㉡ 끄다	[활용]	꺼, 끄니 ...
㉢ 풀다	[활용]	풀어, 푸니 ...
㉣ 쌓다	[활용]	쌓아, 쌓으니, 쌓는 ...
㉤ 믿다	[활용]	믿어, 믿으니, 믿는 ...

- ①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 [자료]
- ㉠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다.
  - ㉡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
  - ㉢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 ㉣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3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후배 부원 둘과 선배 부원의 대화 장면)

선 배: ㉠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

후배 1: 네. 조금 전에 끝났어요.

선 배: 수고했어. ㉡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 안에 대해 뭐라고 해?

후배 2: 지난번에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선 배: ㉢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을 텐데.

후배 1: 그런데 학교에서는 ㉣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선 배: ㉥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고생했어. 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후배 2: 네. 그럼 ㉦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 ① ㉠과 ㉡은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군.
- ② ㉢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군.
- ③ ㉣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군.
- ④ ㉤은 ㉡의 '학교'와 ㉤의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이군.
- ⑤ ㉦은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쓰는 말이군.

39.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신체 관련 어휘는 ㉠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가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때 ㉢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러한 의미 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코<sup>1</sup>

-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
-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코<sup>2</sup>

-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

- ① ㉠: 묶은 코가 옷에 묻어 휴지로 닦았다.
- ② ㉠: 어부가 쳐 놓은 어망의 코가 끊어졌다.
- ③ ㉡: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 ④ ㉡: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
- ⑤ ㉢: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떠 나가셨다.

[40~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열람한 지역 신문의 웹 페이지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군민신문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폐교가 지역 관광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사진: ○○초등학교 시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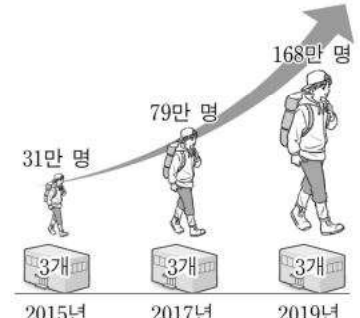
지난 1일 △△군은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군 특색 숙박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희 시설을 활용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시설은 ☆☆마을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건물 내부는 객실·식당·카페·지역 역사관 등으로 꾸미고, 운동장에는 캠핑장·물놀이장을 조성한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인접한 ☆☆마을은 2015년부터 캐릭터 동산, 어린이 열차 등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지역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A]



△△군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수 추이  
\*자료: △△군 문화관광체육과(2019)



여행 유형  
여행 1회당 지출액(2018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더 많다”며 “인근 수목원과 벚꽃 축제, 빙어 축제 등 주변 관광지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06:53:01 최초 작성 / 2021.06.03. 08:21:10 수정  
△△군민신문 이○○ 기자

좋아요(213)
싫어요(3)
SNS에 공유
스크랩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증가... 인근 주민들, “유희 시설로 방치되어 골칫거리”
-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 ④] ☆☆마을... 다섯 가지 매력이 넘치는 어린이 세상

**댓글**

방랑자: 가족 여행으로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나들이: 맞아요. 우리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도 즐기고요.  
↳ 방랑자: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40. 위 화면을 통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으니,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겠군.
- ②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 ③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기사가 문자, 사진 등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군.

4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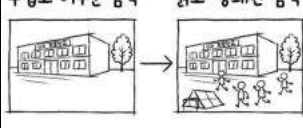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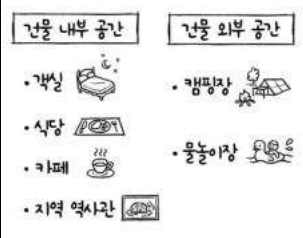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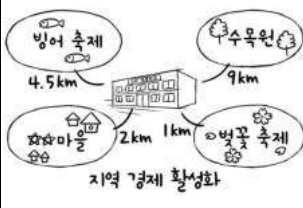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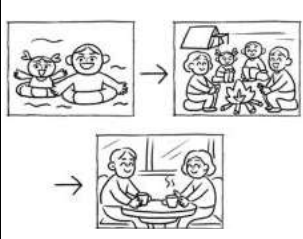
<보 기>

기사는 취재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 그중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한다. 따라서 기사를 분석할 때에는 기사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시각 자료의 이미지 활용 방식 등 정보가 제시되는 양상도 살펴봐야 한다.

- 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에 이어 시각 자료를 배치한 것이겠군.
- ② 지역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부각하기 위해 △△군 관광객 수 추이를 제시할 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겠군.
- ③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이미지로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겠군.
- ④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겠군.
- ⑤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겠군.

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를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행 과제: 우리 지역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 바탕 자료: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인터넷 기사와 댓글
- 영상 내용: 새로 조성될 숙박 시설 소개
  - 첫째 장면(#1): 기사의 제목을 활용한 영상 제목으로 시작
  - 둘째 장면(#2):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대비시켜 표현
  - 셋째 장면(#3): 건물 내부와 외부에 조성될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
  - 넷째 장면(#4):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이를 통한 기대 효과를 한 화면에 제시
  - 다섯째 장면(#5): 기사의 댓글을 참고해서 시설을 이용할 방문객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연속적으로 제시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장면 구상
① 	#1 ○○초등학교의 모습 위에 영상의 제목이 나타나도록 도입 장면을 구성.
② 	#2 무겁고 어두운 음악을 배경으로 텅 빈 폐교의 모습을 제시한 후,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으로 전환.
③ 	#3 숙박 시설에 대한 정보를 건물 내·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
④ 	#4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 자원의 위치를 표시하고, 관광 자원과의 연계로 기대되는 효과를 자막으로 구성.
⑤ 	#5 가족 단위 관광객이 물놀이장, 캠핑장, 카페 등을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을 제시. 앞의 그림이 사라지면서 다음 그림이 나타나도록 구성.

[43~45]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잡지에 실린 인쇄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면 1]

진행자: 더워지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장면 2]

박 기자: ㉡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 인기가 높은 휴대용 선풍기.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종류만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장면 3]

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을 살까 하다가, 이왕이면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맘에 드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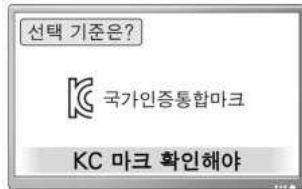


[장면 4]

박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선풍기 구매 기준을 설문한 결과, 풍력, 배터리 용량과 같은 제품 성능이 1순위였습니다. 이어 디자인, 가격 등 다양한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그런데 휴대용 선풍기는 안전 사고의 위험도 있는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면 5]

박 기자: ㉡ 그러면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KC 마크는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에만 부착됩니다. 간혹 광고로는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실물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호망의 간격이 촘촘하고 날이 부드러운 재질로 된 제품을 선택해야 손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면 6]

박 기자: 휴대용 선풍기 사고가 빈번한 여름철, ㉢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구성의 주체	• (가)는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정보의 성격	• (가)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나)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정보의 양과 질	• (가)는 제품 구매 기준이 다양함을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나)에 비해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가)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44.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묻고 있다.
- ② ㉡: 명사로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
- ③ ㉢: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뉴스의 중심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④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뉴스 내용에 따른 제품 선택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45. (가)를 본 학생이 (나)를 활용하여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이미지, 문구 등을 활용한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잡지에 실린 두 개의 인쇄 광고 비교하기

자료

**마음속 걱정도 날리는, 내 손 안의 태풍**

◇◇ 휴대용 선풍기

자사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

부상의 위험을 줄인 부드러운 날

안전을 보증하는 KC 인증

- ① (나)는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문구를 배치하여 제품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 ② '자료'는 기존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제품이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료'는 (나)와 달리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이미지와 문구로 표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자료'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② 38. ⑤ 39. ⑤ 40. ③ 41. ④ 42. ③ 43. ②  
44. ① 45. ⑤

[35~36] 언어

[35~36] 용언의 활용 양상과 표기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제18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어사전의 ‘활용’에서 각 용언의 활용형과 그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활용 정보’를 통해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면 이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와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사례를 통해 보이고 있다.

[주제] 용언의 활용 양상과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

35.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개묻다’는 ‘개묻고, 개묻어’ 등으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옛듣다’ 역시 ‘옛듣고, 옛듣어’ 등으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과 ㉡을 모두 만족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구르다’는 ‘구르니, 굴러’ 등으로 활용하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잠그다’는 ‘잠그니, 잠가’ 등으로 활용하는데, ‘-’가 탈락하는 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구르다’와 ‘잠그다’는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흐르다’는 ‘흐르니, 흘러’ 등으로 활용하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푸르다’는 ‘푸르니, 푸르러’ 등으로 활용하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은 만족하지만 ㉡을 만족하지 않는다. ③ ‘뒤집다’는 ‘뒤집고, 뒤집어’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껴입다’는 ‘껴입고, 끼입어’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은 만족하지만 ㉠을 만족하지 않는다. ④ ‘붙잡다’는 ‘붙잡고, 붙잡아’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정답다’는 ‘정답고, 정다워’ 등으로 활용하는 ‘ㅂ’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붙잡다’와 ‘정답다’는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 ‘쌍- + -으니’의 과정에서 ‘ㅎ’이 탈락하여 [짜으니]로 발음되는데 그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쌍으니’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교체가 나타나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 ‘서- + -어’의 과정에서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



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서’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㉔ ㉕ ‘끄- + -어’의 과정에서 모음 ‘ㅡ’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꺼’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㉖ ㉗ ‘풀- + -니’의 과정에서 ‘ㄹ’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푸니’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㉘ ㉙ ‘믿는’은 교체(비음화)가 일어나 [민는]으로 발음되는데, 그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믿는’으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37~39] 언어

37.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㉔에서 안긴문장은 명사절 ‘노래를 부르기’로, 안은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㉕는 서술어로 쓰이지도 않고 체언을 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㉔로 분류된다. ㉖에서 안긴문장은 부사절 ‘아무도 모르게’로, 안은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㉗는 서술어로 쓰이지도 않고 체언을 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㉔와 마찬가지로 ㉔로 분류된다. ㉘에서 안긴문장은 명사절 ‘동생이 오기’로, 안은문장에서 체언인 명사 ‘전’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㉘는 ㉕로 분류된다. ㉙에서 안긴문장은 서술절 ‘마음씨가 착하다’로, 안은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㉙는 ㉖로 분류된다.

정답 ㉔

38.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㉔의 ‘저희’에는 청자인 선배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자인 후배 2가 후배 1과 자신을 함께 낮추기 위해 ‘저희’를 사용한 것이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㉒의 ‘학교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부사어이고, ㉓의 ‘학교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는 주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주어이다. ㉔ 후배 2가 이전 발화에서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㉕의 ‘우리’에는 화자인 선배와 청자인 후배 1, 후배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㉖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가’라는 표현에서 ㉗의 ‘자신’은 ‘동아리’를 가리킨다. ㉘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한 학교와 동아리 간의 입장 차이라는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㉙의 ‘서로’에는 예산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㉓의 ‘학교’와 예산안을 제안한 동아리에 소속된 ㉕의 ‘우리’가 모두 포함된다.

39. 단어의 의미 관계

**정답해설** : ‘목도리를 한 코씩 뜨다’의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

답'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뭍은 코'의 '코'는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② '어망의 코'의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③ '긴 코'의 '코'는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④ '코를 다쳐서'의 '코'는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 [40~42] 매체

#### 40.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웹 페이지 화면 하단부에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꼭지를 제공하여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자는 제시된 기사 중에서 관심이 있는 기사를 선택하여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사의 아래에 'SNS에 공유' 기능을 제공하여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기능을 통해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기사의 아래에 '좋아요(213) 싫어요(3)' 기능을 제공하여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기능은 수용자들의 선호를 반영할 뿐 이를 바탕으로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는 없다. ④ 기사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과 그래프 등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사진,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지만, 청각을 결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⑤ 기사의 하단에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어 있지만, 이 정보는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과는 관련이 없다.

#### 41.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A]에는 '△△군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추이'와 '여행 1회당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왼쪽의 시각 자료는 △△군 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숙박 시설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오른쪽의 시각 자료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시각 자료를 통해 체류형 관광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 평가를 받아 왔다.'라는 내용 뒤에 시각 자료를 배치하여 ○○초등학교를 숙박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② 왼쪽에 배치된 시각 자료에서는 △△군 관광객 수가 늘어나

고 있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우상향하는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③ 오른쪽에 배치된 시각 자료에서는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지폐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프로 제시하여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고 있다. ⑤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고 있다.

####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학생이 작성한 메모 중 ‘셋째 장면(#3)’에서는 건물 내·외부에 조성될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상 제작 계획’의 셋째 장면(#3)에서는 메모의 내용과 달리 주요 시설을 건물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사의 제목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폐교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을 넣어 도입 장면을 구성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②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서로 대비가 되는 배경 음악과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④ 숙박 시설을 중심에 배치하고 숙박 시설과 인근 관광 자원과의 거리를 표시하여, ○○초등학교가 지리적으로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자막을 구성하여 기대 효과를 드러내는 계획은 적절하다. ⑤ 기사의 댓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겁게 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연속적인 그림으로 제시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 [43~45] 매체

####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가)에서 ‘진행자’의 ‘더워지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 휴대용 선풍기 인데요.’라는 말과 ‘박 기자’의 보도 내용을 통해 (가)가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장면 4]에서 다룬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기준을 알려 주고 있다.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었다는 점이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③ (나)에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이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의 [장면 3]에서 시민 인터뷰가 제시되고 있으나,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가 아닌 한 명의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만 제시되고 있다. ⑤ (나)는 제품의 디자인을 강조하

---

는 내용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담고 있는 정보의 양도 (가)에 비해 적다.

#### 44. 매체의 언어적 특성

**정답해설 :** ㉠은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진행자가 자신이 궁금한 내용을 시청자에게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에는 어떤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시청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진행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은 명사 ‘휴대용 선풍기’로 문장을 마무리하여 시청자가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인 휴대용 선풍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였다. ㉢ ㉠의 앞에서는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다양한 기준을 소개하고 있으며, ㉣에서는 제품을 선택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화제가 전환되고 있으므로 ‘그런데’라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였다. ㉤ ㉠에서 박 기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에 대해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 뉴스에서 박 기자는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뉴스의 마지막 발화인 ㉠에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현명한 선택’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여, 시청자들에게 보도 내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여야 함을 전달하고 있다.

####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나)가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가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의 이미지는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각 이미지를 통해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나)는 ‘디자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문구를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바람을 일으키는 휴대용 선풍기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한다. ㉡ ‘자료’는 ‘자사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이라는 문구로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의 풍력이 더 세졌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에서 소비자들이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언급한 풍력과 같은 제품 성능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품이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료’는 ‘안전을 보증하는 KC 인증’이라는 문구로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 ㉣ (나)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는 ‘내 손 안의 태풍’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제품이 지닌 강력한 풍력을 강조하고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중 단어 분류가 가지는 공통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주로 체언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구분된다.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같이’의 경우, ‘같이 가다’에서는 부사로, ‘소같이 일만 하다’에서는 조사로 쓰이고 있다.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에도 있었는데, 현대 국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가 중세 국어에서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를 살펴보자.

(ㄱ) 어느 뉘 講訢니(어느 누가 청한 것입니까?)  
 (ㄴ) 迷惑 어느 플리(미혹한 마음을 어찌 풀 것인가?)  
 (ㄷ) 이 두 말을 어늘 從訢시려뇨  
 (이 두 말을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중세 국어에서 ‘어느’는 (ㄱ)에서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ㄴ)에서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다. (ㄷ)에서 ‘어늘’은 ‘어느’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여기에서 ‘어느’는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가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사, 부사, 대명사로 두루 쓰인 것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과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ㄴ. 합격 소식을 듣고 그가 활짝 웃었다.  
 ㄷ. 학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 ① ㄱ의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이군.
- ② ㄱ의 ‘두’는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군.
- ③ ㄴ의 ‘웃었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군.
- ④ ㄷ의 ‘학생’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군.
- ⑤ ㄷ의 ‘는’은 체언에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이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가)에서 ‘이’는 두 개의 품사로, ‘새’는 하나의 품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 (나)를 통해 ‘이’와 ‘새’의 현대 국어에서의 품사를 알아보고 중세 국어와 비교해 봅시다.

[자료]

(가) 현대 국어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이 사과는 맛있다.
- 새 학기가 되다.

(나) 중세 국어

- 내 이를 爲訢야(내가 이를 위하여)
- 내 이 도늘 가져가(내가 이 돈을 가져가서)
- 새 구스리 나며(새 구슬이 나며)
- 이 나래 새를 맛보고(이날에 새것을 맛보고)
- 새 出家訢 사르미니(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 ① 현대 국어에서 ‘이’는 대명사로도 관형사로도 쓰이고 있군.
- ② 현대 국어에서 ‘이’의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 ‘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군.
- ③ 중세 국어에서 ‘새’는 대명사로도 부사로도 쓰였군.
- ④ 중세 국어에서 ‘새’는 현대 국어의 ‘새’와 동일한 품사로도 쓰였군.
- ⑤ 중세 국어에서 ‘새’는 다양한 품사로 두루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 ‘새’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지 않군.

37.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 음운이 다른 음운과 만날 때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그 양상에 따라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 ① ‘물약[물락]’에서는 첨가와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옴는[음는]’에서는 탈락과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값하다[가과다]’에서는 탈락과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요금[그괩뇨금]’에서는 탈락과 축약과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넓죽하다[넙쭈카다]’에서는 탈락과 교체와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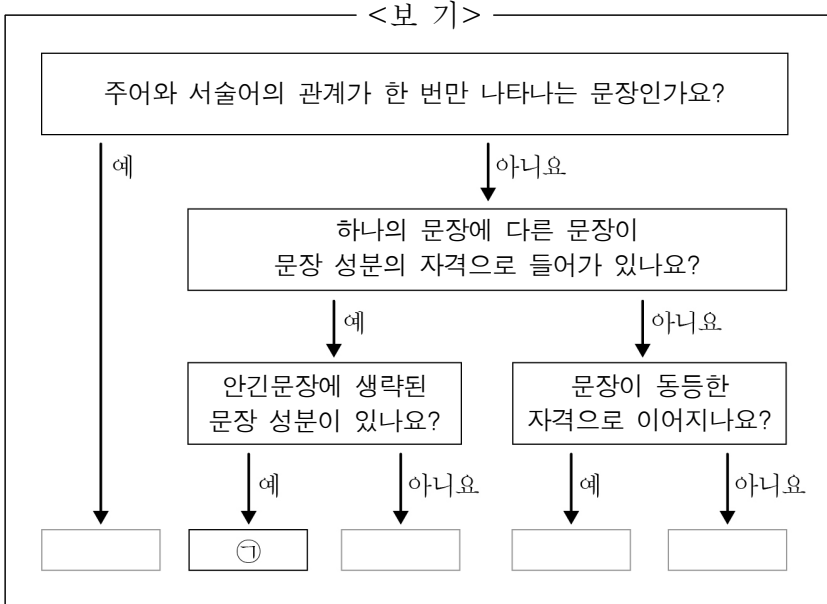
38.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건이다.’에서 ‘갖은’은 ‘가진’을 잘못 쓴 예이다. ‘갖다’는 본말 ‘가지다’의 준말로, ‘갖다’와 ‘가지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그런데 ‘갖다’는 ‘갖고’, ‘갖지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지만 ‘갖아’, ‘갖으며’와 같이 활용할 수는 없는데,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디디다/내딛다, 서투르다/서툴다,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건드리다/건들다’ 등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본말의 활용형만 쓴다.

- ① 그녀는 새로운 삶에 첫발을 내딛었다.
- ② 아저씨가 농사일에 서투른 줄 몰랐다.
- ③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서 쉴 생각이다.
- ④ 서두르지 않으면 출발 시간에 늦겠다.
- ⑤ 조금만 건드려도 방울 소리가 잘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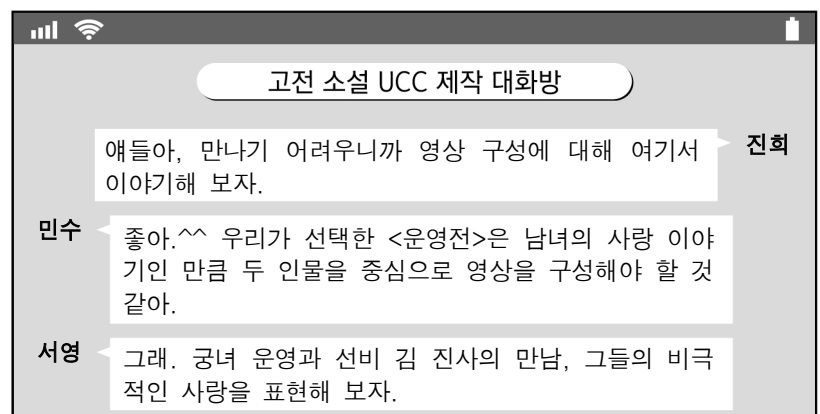
39.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
- ② 어머니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 ③ 그녀는 지난주에 고향 집으로 떠났다.
- ④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 ⑤ 형은 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

[40~42] (가)는 학생들이 ‘고전 소설 UCC’ 제작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진희’가 작성한 이야기판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호** 만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운영과 김 진사가 처음 만날 때 운영이 자기 손에 뿜 먹물 방울에 수줍어하는 모습에 나도 같이 설레더라.

**진희** 나도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런데 안평대군은 주인공들을 만나게도 했지만 가로막기도 했잖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때?

**민수** 그래. 안평대군도 포함해서 소개하고 인물 소개 장면에서 설명하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넣자. 그리고 전체 줄거리도 넣어야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진희** 그럴 것 같아. 그럼 영상을 소설 제목 소개,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소개로 구성하는 걸로 하자.

**민수** 우선 소설 제목을 소개할 때는 마주보는 주인공의 모습을 화면에 넣자.

**서영** 좋아. 그리고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면 좋겠어. 다들 내가 보낸 음악 한번 들어 봐.

**서영** [음악 파일 전송: 해금 연주.mp3]

**지호** 들어 보니까 정말 좋다. 줄거리 소개 부분에도 다른 배경 음악을 넣어 볼까?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레이션도 넣고.

**진희**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줄거리 소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호** 있잖아. 줄거리는 내가 정리한 게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볼래?

**지호** [문서 파일 전송: 운영전 줄거리.txt]

**진희** 정리 잘했다. 이 자료 보고 내가 줄거리 소개에 쓸 장면을 골라 볼게. 아, 그리고 영상에 우리 이름도 넣어줄래?

**민수** 물론이지. 영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넣자.

**진희** 알았어. 그럼 내가 이야기판 초안을 만들어 볼게. 나중에 조언 부탁해.

(나)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운영전

서영, 진희, 민수, 지호

---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운영 → 김 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운영	김 진사	안평대군
자막	자막	자막

---

**이야기판 3 - 줄거리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배경 음악: 사랑 노랫말의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줄거리 소개

**[화면 구성]**

장면 1	장면 2	장면 3
------	------	------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호'는 매체상에서 공유된 음악 자료를 자신이 수집한 음악 자료와 비교하고 있다.
  - ② '지호'는 자신이 정리한 문서 파일을 대화 참여자들 중 특정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진희'는 매체상에서 전송된 문서 파일 자료를 바로 확인한 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④ '진희'는 매체 자료의 특징을 활용하여 대화방을 만들고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영'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41.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을 때,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슬픈 해금 연주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군.
  - ②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 제목과 주인공에 주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상을 제작한 학생들의 이름을 화면 아래쪽에 넣었군.
  - ③ 이야기판 2를 보니 등장인물의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 자막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했군.
  - ④ 이야기판 3을 보니 주요 장면을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선정하고 차례대로 제시하며 줄거리를 소개했군.
  - ⑤ 이야기판 2와 3을 보니 영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레이션을 활용했군.

42. <보기>는 학생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이야기판이다. ㉠~㉢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 **운영 전**

- 역을 한 방울로 이어진 만남 -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 운영 → 김 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안평대군은 두 주인공 사이에 위치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운영	안평대군	김 진사
㉢ 자막	자막	자막

**이야기판 3 - 줄거리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배경 음악: 가사 없는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줄거리 소개

**[화면 구성]**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장면 6

- ① ㉠: 주인공들의 인연이 부각되도록 인상적인 장면을 담은 부제를 넣자.
- ② ㉡: 주인공을 가로막는 인물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등장인물의 등장 순서를 바꾸자.
- ③ ㉢: 등장인물의 모습을 가리지 않도록 자막 위치를 옮기자.
- ④ ㉣: 내레이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사 없는 음악으로 배경 음악을 바꾸자.
- ⑤ ㉤: 줄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의 개수를 늘리자.

[43~45] (가)는 인터넷 신문이고, (나)는 라디오에서 방송한 대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 2021년 7월 ○○일(○)

[연재] 지도와 세상 이야기②

### 우리 바다 '동해' 바로 알고, 지명 표기 방법 고민해야

입력 2021.7.○○. 오전 7:06 최종 수정 2021.7.○○. 오후 3:02

동해가 세계 지도에 단독 표기되었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지도상에는 일본해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기록을 살펴보면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단순히 '동쪽 바다'만 의미하지 않았고, 해가 뜨는 바다로서 신성함과 기원의 대상이었다. 또한 『고려사』에는 왕건이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글에서 "동해의 끊어진 왕통을 이어 나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왕건이 말한 동해는 고구려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동해가 국호와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검색창]

㉠ 동해가 세계 지도에 단독 표기되었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

현재 동해의 영문 표기는 'EAST SEA'이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간직한 동해에 대한 정서는 없고, 단순히 동쪽에 자리한 바다만을 가리킬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착 지명인 동해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를 'DONG HAE'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박물관장) 인터뷰 동영상

동해의 이름 되찾기 연구를 지속해 온 김 △△(◇◇박물관장)은 동해의 지명 표기를 'DONG HAE/EAST SEA'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ONG HAE/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자리한 동해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동해를 'EAST SEA'라고 주장했던 외교적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명은 담고 있는 의미가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에 각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본해가 아닌 우리 바다 '동해'를 세계 지도상에 올바르게 표기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 기자(news@ooo.com)

㉢ [관련된 뉴스]

- ▶ 동해 표기의 역사, 우리 정부와 시민 단체의 노력
- ▶ 국제수로기구, 동해나 일본해 대신 고유 번호 표기 논의



댓글 6개

---

○○○\*\*\*\* 2021.7.00. 9:03  
저희 학생 동아리에서도 동해 표기와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http://blog.○○○.com] 링크로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 주세요.  
[답글 3]      👍 6    🗨 2

---

△△△\*\*\*\* 2021.7.00. 16:57  
이런 기사 좋아요! 다음 기사도 기대할게요.  
[답글 1]      👍 1    🗨 0

(나)

**진행자:** (12시 정각을 알리는 음향 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12시 현재, ‘생방송 뉴스를 듣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도와 세상 이야기’라는 연재 기사를 쓰고 있는 최 □□ 기자를 모시고 ㉔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어제 신문에 두 번째 연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동해의 지명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기자:** 맞습니다.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되거나, 단순히 방위의 개념을 표현한 지명으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동해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청취자께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셨네요. “세계 지도에 우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표기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있었나요?

**기자:** 네. ㉕ 1919년 국제수로국을 창설하기로 결의한 후, 1923년 국제수로국 회의에서 일본이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등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고착된 것이지요.

**진행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뉴스 속보가 들어온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못 다한 이야기는 누리집의 다시 듣기 서비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전달 매체	인터넷	라디오
매체 자료 생산자	기자	진행자와 기자
매체 자료 수용자	신문 독자	대담 청취자

- ① (가)의 댓글을 보니 매체 자료 수용자인 독자가 또 다른 생산자가 될 수도 있군.
- ② (가)는 전달 매체 특성상 탑재와 동시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한번 생산한 매체 자료의 내용은 다시 수정할 수 없겠군.
- ③ (나)는 다른 매체를 추가로 활용하여 매체 자료 수용자와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군.
- ④ (나)는 송출할 수 있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듣기 서비스로 이를 보완하고 있군.
- ⑤ (가)는 문자, 도표, 영상으로, (나)는 음성, 음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44. (가)와 (나)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마지막 문장을 명령형으로 종결하여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가): 간접 인용 표현을 써서 『고려사』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가): 표제를 피동으로 표현하여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정보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 ④ (나): ‘기자’는 현재 시제만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나): ‘진행자’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거나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을 써서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㉑~㉕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체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한지, 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제시된 정보나 자료는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매체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매체 형식에 따라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하며, 매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어야 한다.

- ① ㉑: 검색을 통해 통계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판단해야겠어.
- ② ㉒: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 내용을 분석하며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타당한지 점검해 봐야겠어.
- ③ ㉓: 관련된 뉴스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 내용과 비교하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어.
- ④ ㉔: 매체 특성상 이야기의 세부 내용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해야겠어.
- ⑤ ㉕: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내용이므로 매체 자료에 담긴 관점이 공정한지 평가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②	36	③	37	④	38	①	39	①
40	⑤	41	④	42	②	43	②	44	⑤
45	⑤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의도] 품사의 분류 이해하기  
ㄱ의 '두'는 후행하는 명사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36. [출제의도]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 품사 통용 탐구하기  
현대 국어에서 '새'는 '새 학기가 되다.'의 '새'처럼 '학기'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만 쓰이고 있다. 반면 중세 국어에서 '새'는 관형사, 명사, 부사로 두루 쓰였다. '새 구스리 나며'의 '새'는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이 나래 새를 맛보고'의 '새'는 조사와 결합하여 '새로 나오거나 만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로, '새 出家혼 사르미니'의 '새'는 후행하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두루 쓰였다.

①, ② 현대 국어에서 '이'는 대명사로도 관형사로도 쓰이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의 '이'는 조사와 결합하여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이 사과를 맛있다.'의 '이'는 '사과'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쓰이고 있다. 중세 국어 '이' 또한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대명사와 관형사로 쓰였다. '내 이를 爲호야'의 '이'는 조사와 결합한 대명사로, '내 이 도늘 가져가'의 '이'는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쓰였다.

37.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급행요금[그깡노급]'에서는 '급'의 끝소리 'ㅂ'과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고 '급행'과 '요금' 사이에서 'ㄴ'이 첨가된다. 탈락의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① '물약'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첨가된 'ㄴ'이 '물'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② '웁는'에서 '웁'의 끝에 오는 두 자음 중 'ㄹ'이 탈락되고, 남은 'ㅍ'이 'ㅂ'으로 바뀌고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ㅍ]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③ '값하다'에서 '값'의 끝에 오는 두 자음 중 'ㅅ'이 탈락되고, 남은 'ㅂ'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된다. ⑤ '늪죽하다'에서 '늪'의 끝에 오는 두 자음 중 'ㄹ'이 탈락되고, 남은 'ㅂ'의 영향을 받아 뒤의 자음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발음이 바뀐다. '죽'의 끝소리 'ㄱ'과 뒤의 자음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어 발음된다.

38. [출제의도] 본말과 준말 활용형의 적절성 평가하기  
'내뉠다'는 '내디디다'의 준말로 '내뉠고, 내뉠지, 내뉠자' 등과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활용형에는 쓰지만, '내뉠어, 내뉠으며, 내뉠으니' 등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활용형에는 쓰지 않는다. '그녀는 새로운 삶에 첫발을 내뉠었다.'에서 '내뉠었다'는 '내디디었다(내디뉠었다)'로 써야 한다.  
② '서투르다'는 본말로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투러' 등과 같이 자음이나 모음으로 연결되는 어미의 활용형을 모두 쓸 수 있기에 '서투르'은 '서투르-'에 어미 '-ㄴ'이 결합된 단어로 그 활용형으로 적절한 예이다. ⑤ '건드리다'는 본말로 '건드리며, 건드리니, 건드리어' 등과 같이 자음이나 모음으로 연결되는 어미의 활용형을 모두 쓸 수 있기에 '건드려도(건드리어도)'는 단어의 활용형으로 적절한 예이다.

39.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는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와 '아버지가 책꽂이를 만들었다.'라는 두 문장이 결합한 문장이다. '아버지가 책꽂이를 만들었다.'가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에 안기면서 목적어 '책꽂이를'이 생략되었다. 따라서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 된다.

② '어머니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그 일이 끝나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때 '그 일이 끝나기'라는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③ '그녀는 지난주에 고향 집으로 떠났다'는 '그녀'라는 주어와 '떠났다'라는 서술어의 관계가 한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⑤ '형은 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는 '형은 개를 좋아한다.'와 '나는 개를 싫어한다.'라는 두 문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진문장이다.

40. [출제의도]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특성 파악하기  
'서영'은 소설 제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했다면 좋겠다며 다들 한번 들어 보라고 해금 연주 음악 파일을 대화 참여자에게 전송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 구성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에서 '진희'는 '지호'가 전송해 준 줄거리 정리 파일을 확인하고 줄거리 소개에 쓸 장면을 자신이 고르겠다고 했다. 따라서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주요 장면을 선정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서영'은 소설 제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관 1에 배경 음악으로 구슬픈 해금 연주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진희'가 영상을 만든 자신들의 이름을 넣자고 제안했고 '민수'는 영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넣자고 언급했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관 1의 화면 오른쪽 하단에 만든 이름을 작게 넣어 소설 제목과 주인공들의 모습에 주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민수'는 인물 소개 부분에 설명하는 자막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관 2에서 자막을 활용하여 등장 인물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 '민수'는 인물 소개 장면에서, '지호'는 줄거리 소개 부분에서 내레이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관 2와 3에 내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정 방안 추론하기  
㉑를 보면 인물 등장 순서에 변화가 없으므로 인물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등장인물의 등장 순서를 바꾸자는 조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① ㉑를 보면 (나)의 이야기관 1과는 달리 제목 아래 부제가 나타나 있고, 부제의 내용이 운영과 김 진사가 처음 만날 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③ (나)의 이야기관 2에서는 자막이 인물 그림을 가리는데, ㉑에서는 자막이 화면 아래에 위치하여 인물 그림을 가리지 않고 있다. ④ (나)의 이야기관 3을 보면 배경 음악으로 노랫말이 있는 음악이 쓰였으나 ㉑에서는 내레이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사 없는 음악을 쓰고 있다. ⑤ (나)의 이야기관 3에는 주요 장면이 3개 제시되어 있는데 ㉑를 보면 주요 장면이 6개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가)는 인터넷이라는 전달 매체 특성상 탑재 후에도 다시 수정할 수 있다. (가)의 표제 아래에 '입력' 시간과 '최종 수정' 시간이 나와 있는 것으로도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① 첫 번째 댓글을 쓴 매체 자료 수용자가 자신의 학생 동아리에서 동해 표기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며 링크를 남긴 것을 보아 또 다른 매체 자료 생산자로서도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취자가 누리집 게시판을 활용하여 올린 질문에 기자가 방송에서 답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디오는 매체 자료를 송출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긴급 뉴스 속보 때문에 전달하지 못한 내용이 생겼으며 이를 다시 듣기 서비스로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 파악하기  
(나)의 '진행자'는 '그런데', '하지만', '따라서'와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것', '이런'과 같이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을 써서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② '동해의~하는 것이다.'는 큰따옴표와 직접 인용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된 것이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㉑은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이므로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내용이라는 설명과 그에 따른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 도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출처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매체 요소인 검색창을 활용하여 출처를 확인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② 김△△(◇◇박물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사에 담겨 있으므로 해당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근거로서 타당한지 점검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다른 뉴스를 확인하고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의 노력으로 적절하다. ④ 청각 매체의 특성상 안내된 정보의 세부 내용을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절’은 발음의 단위이다. 음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도 있어서,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그러나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한다.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각 음절 유형은 표기 형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축하[추카]’와 같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초성에는 ‘ㅇ’이 올 수 없다. 또한 중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중성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발음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A] 중성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중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한편 음절 구조 제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도 있다. 예를 들어 ‘논일[논닐]’에서 ‘ㄴ’이 첨가되는 것은 음절 구조 제약과는 무관한 음운 변동이다.

3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따라 ‘싫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첫 글자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 예이다.
  - ② ㉡에 해당하는 예로 ‘복소리’와 ‘국물’을 들 수 있다.
  - ③ ㉢에 따라 끝말잇기를 할 때, ‘나뭇잎’ 뒤에 ‘잎새’를 연결할 수 있다.
  - ④ ㉣의 구분에 따르면 ‘강’과 ‘복’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지만, ‘목’과 ‘뭇’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 ⑤ ㉤에 해당하는 예로 ‘복어’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강변’을 들 수 있다.

36.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표기	발음
㉠	굳이	[구지]
㉡	옷만	[온만]
㉢	물약	[물락]
㉣	값도	[갑또]
㉤	활는	[할른]

- ①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②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③ ㉢: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④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난다.
- ⑤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37.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다음은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 들이요. ㉠~㉤에서 각각 확인되는 접사의 공통점을 설명해 보세요.

㉠ 넓이, 믿음, 크기, 지우개  
 ㉡ 끄덕이다, 출렁대다, 반짝거리다  
 ㉢ 울보, 낚시꾼, 멧쟁이, 장난꾸러기  
 ㉣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  
 ㉤ 부채질, 땀나물, 휘감다, 빼앗기다

**학생:** 예, 접사가 ㉣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① ㉠에서는 용언에 결합하여 명사를 만든다
- ② ㉡에서는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다
- ③ ㉢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
- ④ ㉣에서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 ⑤ ㉤에서는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든다

38.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높임 표현이 홀문장에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겹문장의 안긴문장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예문을 만들어 보자.

조건	예문
안긴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된 겹문장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안긴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겹문장	㉠
⋮	⋮

- ① 편찮으시던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
- ②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
- ③ 나는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를 아직도 기억해.
- ④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 ⑤ 형은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조사의 쓰임]

- ㉠ 주격 조사 ‘이’는 모음 ‘이’나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
- ㉡ 목적격 조사 ‘을’ 또는 ‘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 관형격 조사 ‘스’는 사물이나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 ㉣ 부사격 조사 ‘로’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 호격 조사 ‘하’는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 ① ㉠: 드리 즘든 ㄹ래매 비취요미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치는 것이]
- ② ㉡: 바블 머굼 대로 헤여 머굼과 [밥을 먹을 만큼 헤아려 먹음과]
- ③ ㉢: 그 나똥 불휘를 빼혀 [그 나무의 뿌리를 빼어]
- ④ ㉣: 물<sup>ㄹ</sup>곤 물<sup>로</sup> 모술 땡노라 [맑은 물로 못을 만드노라]
- ⑤ ㉤: 넙금하 아<sup>ㄹ</sup>쇼셔 [임금이시여, 아십시오]

[40~43] (가)는 인쇄 매체의 기사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만든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청소년의 사회 참여, 현주소는 어디인가?

청소년 사회 참여는 청소년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발표된 ○○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무려 88.3%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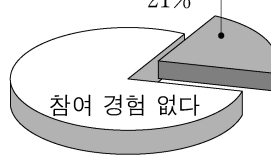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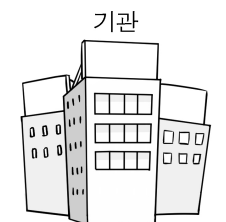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에게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을까? ○○ 기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 3학년 김 모 학생은 ㉤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활동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 사회학과 김◇◇ 교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은 사회성을 향상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박▽▽ 기자 -

(나)

카드 1	카드 2
<p>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p>  <p>청소년의 약 88%는 <b>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b>고 생각합니다.</p>	<p>참여 경험 있다 21%</p>  <p>참여 경험 없다</p> <p><b>그러나</b> 실제로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21%에 그쳤습니다. 왜일까요?</p>
카드 3	카드 4
<p>기관</p>  <p>청소년</p> <p>청소년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가 <b>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b>입니다.</p>	<p>기관 중심의 활동</p>  <p>청소년 주도적 활동</p> <p>이에 △△대 사회학과 김◇◇교수는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가 <b>함께</b>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p>

40. (가), (나)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론에 대한 왜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② (나)는 제시된 정보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 ③ (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편파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④ (가)와 (나)는 예상되는 반론에 반박하고 있으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⑤ (가)와 (나)는 작성자의 주장이 나열되고 있으므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1.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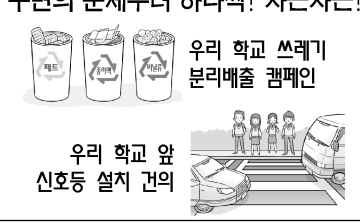
- ① '카드1'에는 (가)의 보고서에 담긴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보여 주기 위해 청소년이 말하는 이미지로 제시해야겠군.
- ② '카드2'에는 (가)의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해 본 청소년의 비율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내야겠군.
- ③ '카드3'에는 (가)의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경향을 드러내기 위해 기관의 이미지를 더 크게 그려야겠군.
- ④ '카드4'에는 (가)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의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제시해야겠군.
- ⑤ '카드4'에는 (가)의 청소년 사회 참여에 관한 교수 인터뷰 내용 중 활성화의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구로 제시해야겠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글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부사 '무려'를 사용하여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연결 어미 '-여'를 사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 기회에 대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 내용의 목적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의 대상인 '사회적 분위기'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 ⑤ ㉤: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학생의 소감을 전달하고 있다.

43. 다음의 '카드 뉴스 보완 방향'을 고려할 때, '카드 A', '카드 B'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카드 뉴스 보완 방향: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 (나)에 카드 A, B를 추가

카드 A		카드 B
왜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나요?		청소년 사회 참여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문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응답 내용	비율(%)	
사회 참여가 어렵게 느껴져서	63	
⋮	⋮	
우리 학교 학생 중 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① (나)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 이유를 보여 준다.
- ② (나)에서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회 참여 이유를 제시한다.
- ③ (나)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보여 준다.
- ④ (나)에서 사회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주변의 문제를 알려 준다.
- ⑤ (나)에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44~45] (가)는 웹툰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진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의 회의를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이 실린 누리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 08. 01.....

**하진** '마음을 그려 드려요' 게시판에 다음 주에 올릴 웹툰에 대한 제작진 회의를 시작할게! 학생들 사연을 받아서 연재하니 우리 웹툰에 관심이 높아졌어! 이번 사연 내용이야.

웹툰을 챙겨 보는 독자입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이라 사연을 올려요. 친구가 시험공부를 도와 달라 했는데, 바쁘니까 알아서 하라고 짜증을 냈거든요. 서운해하는 걸 보고 후회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사이는 더 멀어졌어요. 어떻게 말할지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게 잘 그려 주세요.

**우주**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난 건 어떻게 드러내지?

**주혁** 장면이 세로로 이어지니까, 이걸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하진**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좋게 양쪽으로 배치해 보면 어떨까?

**우주** 좋아.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건 둘 사이의 간격으로 보여 줄게.

**하진** 그러자. 대화는 말풍선에 쓰고,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에서 드러나게 해야겠지?

**주혁** 응. 그래도 사연을 보낸 학생이 느낀 감정들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줘.

**하진** 그리고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해서 유도해 줘.

**우주** 그래. 회의한 걸 토대로 그려 볼게! 아, 웹툰 끝에 사연 게시판 주소 링크도 올릴게.

-----20□□. 08. 12.-----

**하진** 댓글 봤어? 친구 입장에서 말해 보라는 의견도 있어.

**우주** 별점이 높은 것을 보니 독자들의 평가가 좋네.

**주혁** 그러게. 난 '좋은날' 님 댓글 보니 뿌듯했어. 수고했어.

+ 전송

(나)

동아리 소식 **마음을 그려 드려요** 사연 게시판

[열두 번째 사연] 20□□. 08. 08. 13:00 ^

시험공부 좀 도와줄래?  
내가 ...

바쁘니까  
알아서 해!

‘아, 후회돼.’

‘미안해서  
어쩌지.’

“여러분이라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떤 말로 전하겠어요? 댓글로 적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  
[http://www.○○○.com/board\\_03](http://www.○○○.com/board_03)

공감 ♥ 125 ★★★★★ 4.5

**냥냥이**: "많이 서운했지? 미안해."라고 친구 입장에서 말하기. 20□□. 08. 08. 15:32 👍 87

**파도**: "정말 후회되고 미안하더라."라고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것을 추천! 난 그렇게 해서 화해했어요. 20□□. 08. 09. 17:20 👍 55

↳ **숨사탕**: 맞아요. 먼저 말 걸기가 어려워도 솔직하게 중요해요. 20□□. 08. 09. 17:53

↳ **파도**: 그것도 맞는 말! 20□□. 08. 10. 19:12

**좋은날**: 작가님! 독자들의 고민 사연을 그려서 공유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왠지 제 얘기 같기도 하고. 20□□. 08. 11. 18:05 👍 33

4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웹툰 제작자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웹툰 제작자가 (나)의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웹툰의 독자가 보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나)는 웹툰의 독자가 댓글로 서로 공감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나)는 웹툰의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나)는 웹툰의 독자가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웹툰 제작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준다.

45. (가)의 웹툰 제작 계획을 (나)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기 위해 장면이 제시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숫자를 세로로 배열해 날짜 변화를 표현했다.
- ②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세로로 분할하여 인물의 행동 변화를 나란히 보여 주었다.
- ③ 멀어지는 친구 사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인물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점차 간격이 벌어지게 그렸다.
- ④ 속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으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도 적어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 ⑤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유도하기 위해 말풍선을 의도적으로 비우고 댓글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제시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② 37. ④ 38. ⑤ 39. ① 40. ② 41. ③ 42. ③ 43. ⑤ 44. ⑤  
45. ②

[35~36] 언어

[35~36] 우리말 음절 및 음절 구조에 대한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음절과 표기의 관계, 음절에 대한 관습적 오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음절이 발음의 단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음을 기준으로 한 우리말 음절의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표기 형태와 음절 유형의 일치·불일치 관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말 음절 구조 제약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기인한 음운 변동과 그렇지 않은 음운 변동을 일부 사례를 통해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주제] 한국어 음절의 특징과 음절 구조 제약

35. 음절의 이해

**정답해설** : ‘뭉’은 ‘[목]’으로 발음되므로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목’과 ‘뭉’은 ‘자음+모음+자음’의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싫증’은 ‘싫은 생각이나 느낌. 또는 그런 반응.’의 뜻을 나타내어 ‘싫다’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싫증’의 ‘싫’은 하나의 의미를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은 사례에 해당한다. ② ‘북소리’와 ‘국물’이 각각 ‘[북소리]’, ‘[궁물]’로 발음되므로 이는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나무잎’, ‘잎새’는 각각 ‘[나무닙]’, ‘[입새]’로 발음되어 발음을 기준으로 하면 ‘닙-입’이 연결되지 않지만,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로 인식하는 관습에 따라 ‘잎-잎’으로 끝말잇기를 할 수 있다. ⑤ ‘북어’는 ‘[부거]’로 발음되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이며, ‘강변’은 ‘[강변]’으로 발음되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옷만 → 온만 → [온만]’에서는, ‘ㅅ → ㄷ’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ㄷ → ㄴ’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굳’의 ‘ㄷ’은 종성에 올 수 있으므로 ‘굳이[구지]’의 구개음화(교체)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③ ‘물약 → 물낙 → [물락]’에서는 첨가와 교체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나는데, 둘 다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④ ‘값도’가 [갑또]로 소리 나는 현상에서는 ‘ㅃ → ㅈ’으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ㄷ → ㅌ’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



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⑤ ‘훤는 → 할는 → [할른]’에서는 ‘ㄹᄇ → ㄹ’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ㄴ → ㄹ’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37~39] 언어

37. 파생어의 형성

**정답해설** : ㉠에 쓰인 접사는 ‘-치-’, ‘-리-’, ‘-히-’, ‘-뜨리(다)’이다. ‘살리다’, ‘입히다’에 쓰인 접사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하지만, ‘밀치다’와 ‘깨뜨리다’에 쓰인 접사는 강조의 뜻을 더할 뿐 사동사를 파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 쓰인 접사는 ‘-이’, ‘-음’, ‘-기’, ‘-개’인데, 이들은 각각 용언 ‘뉘-’, ‘민-’, ‘크-’, ‘지우-’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한다. ② ㉢에 쓰인 접사는 ‘-이(다)’, ‘-대(다)’, ‘-거리(다)’인데, 이들은 각각 부사 ‘끄덕’, ‘출렁’, ‘반짝’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한다. ③ ㉣에 쓰인 접사는 ‘-보’, ‘-꾼’, ‘-쟁이’, ‘-꾸러기’인데, 이들은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파생한다. ⑤ ㉤에 쓰인 접사는 ‘-질’, ‘-끗-’, ‘-휘-’, ‘-기-’이다. ‘부채질’, ‘푹나물’에서는 접사가 명사 어근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하며, ‘휘감다’, ‘빼앗기다’에서는 접사가 동사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과 같은 품사인 동사를 파생한다.

38.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관형사절 ‘동생이 찾아뵈려던’에는 객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관형사절 ‘편찮으시던’에는 주체 높임의 대상인 ‘어르신’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주어로 실현되었다. ② 관형사절 ‘고향에 계신’에는 주체 높임의 대상인 ‘부모님’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③ 관형사절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에서 ‘할아버지’는 주체 높임의 대상이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관형어에 포함되었다. ④ 관형사절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에는 객체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가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실현되었다.

39.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ㄷ리’는 ‘ㄷ(달)+이’로 분석되는데, ‘ㄷ’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 ‘이’가 쓰인 것이다. 따라서 ‘ㄷ리’는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난 체언 뒤에서 ‘∅’가, 그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ㅣ’가 일반적으로 쓰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바블’은 ‘밥(밥)+을’로 분석되는데, 자음으로 끝난 체언 ‘밥’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쓰인 것이다. ㉠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 ‘을’ 또는 ‘을’이 쓰인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을’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을’이 쓰였다.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를/를’이 쓰이기도 했다. ㉡ ‘나뭇’은 ‘나모(나무) + ㅅ’으로 분석되는데, ‘나모’가 사물을 뜻하는 체언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ㅅ’이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앞 체언이 존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거나 동물과 같은 유정물일 때에 ‘이/의’가 쓰이기도 했다. ㉢ ‘물로’는 ‘물(물) + 로’로 분석되는데, ‘물’이 ‘ㄹ’로 끝난 체언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로’가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이나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으로/으로’가 쓰이기도 했다. ㉣ ‘님금하’는 ‘님금(임금) + 하’로 분석되는데, ‘님금’이 존재 대상인 체언이기 때문에 호격 조사 ‘하’가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호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존재 대상이 아닌 체언 뒤에서 ‘아/야’가 쓰이기도 했다.

**[40~43] 매체**

**40.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정답해설 :** (나)에서 ‘카드 1’과 ‘카드 2’는 각각 (가)에 제시된 ‘○○ 기관 보고서’와 ‘○○ 기관 통계 자료’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보의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자료를 수용할 때는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의 개념, 청소년 사회 참여에 관한 보고서 내용과 통계 자료, 전문가의 견해와 참여 학생의 소감 등이 제시되어 있다. 다양한 이론을 종합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실태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에서 예상되는 반론에 반박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는 보고서 내용과 통계 자료, 전문가의 견해와 참여 학생의 소감 등을, (나)에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실태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작성자의 주장은 나열되어 있지 않다.

**41.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가)에서 청소년이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카드 3’에서 기관의 이미지를 청소년의 이미지보다 더 크게 그린 것은,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는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청

소년이 88.3%에 달한다고 하였다. ‘카드 1’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청소년이 말하는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는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1%에 그쳤다고 하였다. ‘카드 2’에서는 이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 비율이 적은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3문단과 4문단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기관 중심의 참여와 청소년 주도의 참여로 나누어 진술하고 있다. ‘카드 4’에서는 악수하는 이미지를 통해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의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⑤ (가)의 4문단에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의 필요성과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에 관한 김◇◇ 교수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카드 4’에서는 김◇◇ 교수의 말 중에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만 문구로 제시하고 있다.

####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와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이 연결 어미 ‘-여’로 이어져 있다, 여기서 앞 절의 내용은 뒤 절 내용의 ‘까닭이나 근거’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 ‘-는가’를 활용하여 해당 기사문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의문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에서는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을 나타내는 부사 ‘무려’를 사용하여 88.3%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수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에서는 피동 표현 ‘-어지다’를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 즉 ‘누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가’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⑤ ㉠에서는 간접 인용격 조사 ‘고’를 통해 김 모 학생의 발화를 전달하고 있다.

####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과 ‘우리 학교 앞 신호등 설치 건의’와 같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드 A’에 제시된 설문 조사 자료는 학생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카드 3’과 ‘카드 4’를 통해 추측할 수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한 이유 또는 그 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카드 A’는 우리 학교 학생 중 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회 참

여 이유를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카드 3'에서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사회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카드 B'의 내용도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44~45] 매체**

**4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누리집은 매체의 특성상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웹툰의 독자와 웹툰 제작자가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직접 묻고 답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하진'의 첫 번째 발화 중 '학생들 사연을 받아서 연재하니'와 네 번째 발화 중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20□□. 08. 12' 대화 내용 중 '하진'과 '우주'의 발화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파도'와 '솜사탕'이 주고받은 댓글의 내용을 통해 웹툰의 독자가 댓글로 서로 공감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는 웹툰 끝에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를 클릭하면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을 통해 웹툰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웹툰 제작자가 지정한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가)에서 '하진'은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좋게 양쪽으로 배치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였고, '우주'는 '하진'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에서 화면을 세로로 분할한 것은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세로로 분할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주혁'은 '장면이 세로로 이어지니까, 이걸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장면이 제시되는 세로 방향으로 숫자를 달리한 달력 그림들을 배열하여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였다. ③ (가)에서 '우주'는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건 둘 사이의 간격으로 보여 줄게.'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물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점차 간격이 벌어지게 그렸다. ④ (가)에서 '하진'은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에서 드러나게 해야겠지?'라고 하였고, '주혁'은 '사연을 보낸 학생이 느낀 감정들은 다른 방법으로

---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해 달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친구의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만으로 표현하되, 사연을 보낸 학생의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뿐만 아니라 글로도 적어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⑤ (가)에서 '하진'은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해서 유도해' 달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을 의도적으로 비우고, 말풍선 밑에 댓글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않다’, ‘못하다’, ‘말다’, ‘아니다’, ‘없다’ 등의 부정 의미의 용언과 주로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다. 이러한 단어는 여러 품사에서 나타나는데, 단어에 따라 호응하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이 문맥적으로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에 쓰이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나는 그곳에 차마 가지 못했다(\*나는 그곳에 차마 갔다)’와 같이 ‘차마’는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가지 못했다’와 어울린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차마 가겠니?’와 같은 의문문이 ‘나는 그곳에 차마 갈 수 없다(가지 못한다/가지 않는다)’를 뜻함으로써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맥일 때에는 ‘차마’가 쓰일 수 있다.

한편, 부정문 형식의 문장에 함께 쓰여 그 문장의 의미를 강한 긍정으로 해석되게 하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부정문에 ‘이만저만’을 함께 써서 ‘문제가 이만저만 어렵지 않다’가 되면 ‘문제가 매우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이만저만’으로 인해 문장의 의미가 ‘어렵다’를 강조하는 긍정으로 해석된 것이다.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들은 그 의미나 형태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문맥에서도 쓰이던 단어가 현대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과거에는 용언의 어간에 ‘-지 아니하다’를 결합한 형태로 쓰이던 것이 시대에 따라 ‘-찮다’나 ‘-찮다’로 축약된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축약되기 전 형태의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A] ※ ‘\*’는 비문임을 나타냄.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ㄱ. \*그 일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있다.  
 ㄴ. 화단의 꽃들이 여간 탐스럽지 않다.  
 ㄷ. 나는 밤새도록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  
 ㄹ. 그 아이들이 좀처럼 제 말을 듣겠습니까?  
 ㅁ. \*나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움짱달싹했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 ① ㄱ의 ‘아무런’은 긍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는 문맥에서 사용될 수 없군.
- ② ㄴ의 ‘여간’은 ‘탐스럽지 않다’라는 부정 의미를 강조하고 있군.
- ③ ㄷ의 ‘밖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이고 있군.
- ④ ㄹ의 ‘좀처럼’은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문맥에서 쓰이고 있군.
- ⑤ ㅁ의 ‘움짱달싹했다’를 ‘움짱달싹하지 못했다’로 바꾸면 어법에 맞겠군.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했을 때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자 료 ]		
㉠	국어사 자료	○ 이거슨 <u>귀치 아니컨만</u> 은 보내는이다 [이것은 귀하지 아니하지마는 보내나이다]
	현대 국어	○ 그날은 몸이 아파 만사가 다 <u>귀찮았다</u> .
㉡	국어사 자료	○ 봉늑 밧외도 <u>별로</u> 먹을 거슬 주시며 [봉록 밖에도 특별히 먹을 것을 주시며] ○ <u>별로</u> 인스홀 테도 업스니 [특별히 인사할 모양도 없으니]
	현대 국어	○ 요즘은 공기가 <u>별로</u> 좋지 않다. ○ 나에게 그는 <u>별로</u> 매력이 없다.
㉢	국어사 자료	○ 무슨 말이든지 다 못드르면 <u>시원치 안니하여</u> [무슨 말이든지 다 못 들으면 시원치 아니하여]
	현대 국어	○ 대답이 <u>시원찮다</u> .

— < 보 기 > —

㉠ ㉠에서, 현대 국어 ‘귀찮다’는 ‘귀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임을 알 수 있다.

㉡ ㉡에서, 현대 국어 ‘별로’와 달리, 국어사 자료 ‘별로’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은 문맥에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에서, 현대 국어 ‘시원찮다’는 ‘시원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37.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문장에서 부사어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됩니다.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의 ㉠~㉢ 중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를 찾아볼까요?

○ 오늘의 행복은 ㉠ 내일의 성공만큼 중요하다.  
 ○ 이곳의 토양은 ㉡ 토마토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다.  
 ○ 너는 ㉢ 너에게 주어진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 형은 ㉣ 머리가 덜 마른 상태로 국어 교과서를 읽었다.  
 ○ ㉤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8.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탐구 주제: '훔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훔따]로 발음될까?  
[자료]

(1) 종성의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2)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면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만 발음한다.

(3) 종성의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4) 같다[갈다], 날겠다[날겐따], 거칠더라도[거칠더라도]

탐구 과정:

가설 1: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 후에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다.  
→ '[자료](4)'에서 확인되듯이, 어간이 ( ㉠ ) 끝날 때 그 어간 바로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음.

가설 2: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 후에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다.  
→ '[자료](1)'의 현상이 어간 종성에서 일어나 어간 종성의 'ㄷ'이 ( ㉡ ), '[자료](3)'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이후 '[자료](2)'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음.

탐구 결과: '가설 1'을 기각하고 '가설 2'를 받아들인다.

- |         |             |
|---------|-------------|
| ㉠       | ㉡           |
| ① 'ㄷ'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 ② 'ㄷ'으로 | 탈락하게 된 후    |
| ③ 'ㄷ'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 ④ 'ㄷ'으로 | 탈락하게 된 후    |
| ⑤ 'ㅌ'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39. <보기>의 ㉠과 ㉡이 모두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어의 높임 표현은 조사나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또한 국어에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도 존재한다. 겸양의 표현은 일부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 ① 저희가 어머니께 드렸던 선물이 여기 있네요.
- ②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걸어가신다.
- ③ 제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 ④ 이 문제는 아버지께 여쭙어보자.
- ⑤ 지나야, 가서 할머니 모시고 와.

[40~42] (가)는 동아리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채원'이 제작해 블로그에 올린 카드 뉴스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리 대화방(4명)

학교에서 준 가정통신문 봤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거 말아야. 채원

준형 그거 잃어버렸어. 혹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줄 수 있어?

현진 이거 말하는 거지?

사진 파일 전송: OO고 가정통신문(3MB)

응.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줄 몰랐어. 채원

수예 그래. 나도 그거 보고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ㅠㅠ

준형 이전에 내가 보낸 영상 봤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내용이야. 못 본 사람은 꼭 봐. 여기 주소 눌러 봐. <http://www.△△△.kr>

수예 나는 이미 봤는데 애니메이션이라 재미있더라.

현진 나도 지금 보내 준 주소로 들어가서 봤어. 짧지만 강렬하군!

준형 난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떠올랐어.

그래서 말인데, 이에 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해 학교 누리소통망에 올리자! 채원

수예 좋아. ㉠ 카드 뉴스는 사진, 이미지 등을 비중있게 사용하여 정보의 전달력을 높인 뉴스니까, 그 특성에 맞게 구성해야겠네.

현진 핵심 내용을 간단한 문구로 제시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적절히 배치해야지.

㉡ 카드 뉴스를 볼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채원

준형 그리고 ㉢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볼 거니까,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

좋아. 내가 카드 뉴스 초안 만들어서 동아리 블로그에 올릴게. 보고 댓글로 의견 줘. 채원

(나)

1/6

우리 학교 급식의 실태는?

급식을 남기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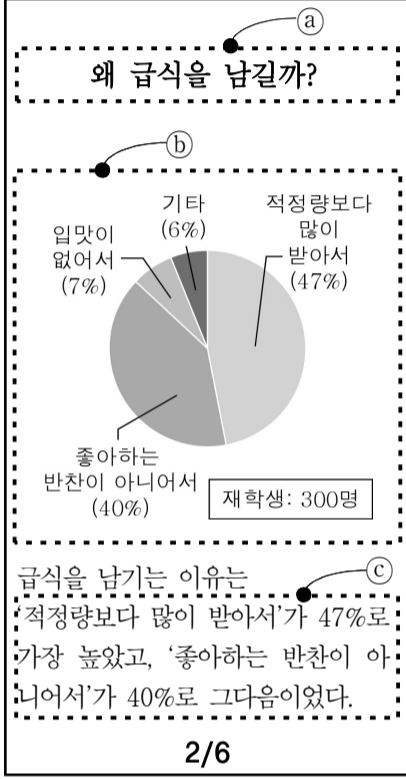
2/6

<p>우리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은?</p> <p>1,200 1,450 1,800 2018년 2019년 2020년</p> <p>○○고 급식 잔반 처리 비용(만 원)</p>	<p>우리 학교 급식 잔반을 30%만 줄여도?</p> <p>“잔반을 30%만 줄여도 연 5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요.”</p> <p>○○고 영양사</p>
<p>3/6 급식 잔반을 줄이는 방안은?</p> <p>딱 먹을 만큼만 받기!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기!</p> <p>5/6</p>	<p>4/6</p> <p>잔반을 줄이면</p> <p>○○고 급식의 질이 올라갑니다.</p> <p>6/6</p>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진’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문서 파일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수예’는 매체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전달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준형’은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④ ‘채원’은 카드 뉴스의 제작을 제안하며 매체가 가지는 정보 전달의 과급력을 밝히고 있다.
  - ⑤ ‘채원’과 ‘수예’는 그림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41. ‘채원’이 ㉠~㉥을 고려하여 세운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급식 메뉴의 종류를 사진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을 고려하여,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 정보의 전달력을 높여야겠어.
  - ③ ㉢을 고려하여, 이미지를 결합한 글자를 사용해 카드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어야겠어.
  - ④ ㉣을 고려하여, 우리 학교의 급식 잔반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 ⑤ ㉤을 고려하여, 잔반을 줄였을 때의 혜택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부각해야겠어.

42. 다음은 (나)에 달린 ‘덧글’이다. 다음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진: 두 번째 카드의 제목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준형: 맞아. 제목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그래프에 조사 대상의 인원과 각 항목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도 밝혀 주자.  
 ↳ 현진: 그래프에서 특별히 강조할 내용은 따로 정리해 주자.  
 수예: 고생 많았어. 그런데 네 번째 카드의 삽화는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 현진: 그게 좋겠다. 그리고 잔반 줄이기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3~45]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신문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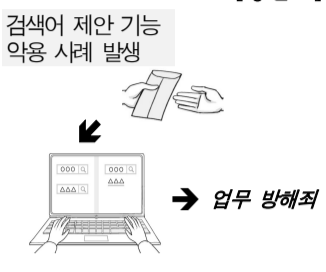
[장면 1] 진행자: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많으시죠?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 소식을 유 □□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장면 2]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은 전체 이용자의 검색 횟수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 어떤 방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면 3] IT 전문가: 이렇게 검색창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특정 업체명을 검색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수천 회 반복하면 특정 단어를 검색할 때 특정 업체가 검색어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장면 4]**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가를 받고 검색어 제안 기능에 특정 업체명이 제시되도록 하여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면 5]** 포털 사이트 관계자: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 검색어가 제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차단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해당 결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면 6]**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

6면 2021년 ×월 ×일 화요일      사회      제 1210호 ☆☆신문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토론회 열려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 차이 확인**

최근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 ㉔ 기관의 주관으로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언론 정보 전문가는 검색어 제안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검색어 제안 기능의 운영은 그 주체인 포털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한편 시민 단체 대표는 최근 부정한 방법에 의해 검색어가 제안됨으로써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㉔ 또한 선량한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㉔ 토론회를 방청한 한 시민은 “자율성과 공익적 가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고려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기자 0000@000.co.kr

43. (가)에 사용된 정보 제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 1]에서는 뉴스 수용자가 보도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화면의 하단에 자막으로 보도 내용의 요점을 제시한다.
- ② [장면 2]부터 [장면 5]까지는 뉴스 수용자가 중간부터 뉴스를 시청하더라도 보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 한쪽에 핵심 어구를 고정하여 제시한다.

- ③ [장면 3]에서는 뉴스 수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검색어 제안 기능의 악용 사례를 전문가의 시연을 통해 보여 준다.
- ④ [장면 4]에서는 보도 내용에서 제시하는 사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를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 ⑤ [장면 6]에서는 보도 내용에서 다른 다양한 정보를 뉴스 수용자가 효과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들을 요약한 화면을 보여 주며 마무리한다.

44. (가)와 (나)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㉑ ~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㉒: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③ ㉓: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보도 내용과 관련한 수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④ ㉔: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 내용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 ⑤ ㉔: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토론회에 다녀온 시민의 견해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뉴스 생산자는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서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선택한다. 그리고 뉴스 수용자가 문제 상황에 관심을 지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뉴스를 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한다. 또한 뉴스 생산자는 쟁점이 되는 화제를 다룰 때 공정성 있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 ① (가)에서 뉴스 생산자가 화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뉴스 생산자가 보도를 시작하며 수용자의 경험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뉴스 생산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입장을 모두 보도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뉴스 생산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가)와 (나) 모두에서 뉴스 생산자가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시의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2문단에서는 버락치기로 과제를 수행했을 때 집중력이 높아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의 생각과 관련하여, 과제의 완성도가 낮아져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ㄱ-2는 과제를 제출 시한에 임박해서 수행하는 편인 학생들에게 과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ㄴ은 짧은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면 과제 외의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는 터널 시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한 신문 기사이다. 이들 자료에서 학생과 교사의 과제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활용해 2문단에 학생과 교사의 평가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덧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ㄱ-1은 학생들에게 과제 제출 시한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편인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들이 78%에 이르므로 이를 활용해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마감 시한에 임박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ㄴ은 우리 뇌의 작용과 관련하여 짧은 시간에 한 가지 문제에 관심을 쏟다 보면 그 문제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 집중하지 못함을 언급한 신문 기사이다. 이를 활용해 짧은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려 할 때 과제 이외의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3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③ ㄷ은 시간에 쫓기면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고등 사고 능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다. 이를 활용해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면 과제의 완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2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⑤ ㄴ은 우리 뇌가 부족함을 인식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한정된 집중력을 몰아주게 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이다. 그리고 ㄷ은 과제를 수행할 때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다. 이를 활용해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4문단에 보충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②	37	④	38	③	39	①
40	③	41	①	42	⑤	43	⑤	44	⑤
45	④								

35. [출제의도] 부정 의미의 용언과 쓰이는 단어를 이해한다.

'여간'은 부정문 형식의 문장에 함께 쓰여 그 문장의 의미를 강한 긍정으로 해석되게 하는 단어로써, ㄴ에서 '여간'으로 인해 문장이 의미가 '탐스럽다'를 강조하는 긍정으로 해석된다.

[오답풀이] ③ ㄷ의 '밖에'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에서와 같이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인다. ④ '좀처럼'은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이는데,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문맥에서도 쓰일 수 있다. ㄹ의 '그 아이들이 좀처럼 제 말을 듣겠습니까?'는 '그 아이들이 좀처럼 제 말을 듣지 않는다'를 뜻하므로 '좀처럼'이 쓰일 수 있다. ⑤ '움짤달짝하다'는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인다. 따라서 ㄴ은 '나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움짤달짝하지 못했다'와 같이 수정하여야 어법에 맞는다.

36. [출제의도] 단어의 시대적 형태와 의미를 이해한다.

㉠의 국어사 자료의 '별로'는 긍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도 쓰이고,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별로'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만 쓰인다. [오답풀이] ㉠의 자료를 보면, 현대 국어의 '귀찮다'

는 국어사 자료 '귀치 아니컨만'에서 알 수 있듯이 '귀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이다. 현대 국어 '귀찮다'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괴롭거나 성가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의 자료를 보면, 현대 국어의 '시원찮다'는 국어사 자료 '시원치 아니하여'에서 알 수 있듯이 '시원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이다. 현대 국어 '시원찮다'는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을 이해한다.

㉠은 '상태'라는 명사에 '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또한 '상태'를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으므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이다.

[오답풀이] ㉡ 관형사절을 찾을 수 없다. ㉢ 관형사절을 찾을 수 없다. ㉣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지 않았다. ㉤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지 않았다.

38. [출제의도] 음운 변동을 이해한다.

㉠ '[자료] (4)'의 사례를 보면 어간이 'ㄱ'로 끝날 때 그 어간 바로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 1'은 합리적이지 않다. ㉡ '[자료] (1)'의 현상이 어간 중성에서 일어나 어간 중성의 'ㄷ'이 'ㄷ'으로 교체된 후, '[자료] (3)'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후에 어간 중성에서 탈락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를 통해 '흙다'가 [홀따]로 발음되는 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높임 표현과 겸양의 표현을 이해한다.

㉠ '저희'는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로, '드리다'는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연세'를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 '모시다'를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준형'은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상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오답풀이] ㉠ '현진'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문서 파일이 아니라, ○○고 가정 통신문을 찍은 사진 파일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에 대해 이해한다.

㉠을 고려하여, 이미지,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급식 메뉴의 종류를 보여주는 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 ㉠을 고려하여, 세 번째 카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을 쓰레기통 모양의 이미지와 화살표 이미지를 활용하여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을 고려하여, 첫 번째 카드와 마지막 카드에서 '올라갑니다'라는 글자에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결합하여 카드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 ㉢을 고려하여, 세 번째 카드에서 우리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 ㉢을 고려하여, 여섯 번째 카드에서 잔반을 줄이면 ○○고 급식의 질이 올라가는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수정된 네 번째 카드에서 ○○고 영양사는 잔반을 30% 줄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약 천 명의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잔반 줄이기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 두 번째 카드의 내용은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따라서 수정된 두 번째 카드에서 '왜 급식을 남길까?'로 제목을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 수정된 두 번째 카드에서 원그래프의 여러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카드의 아래쪽에 따로 정리해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장면 6]에서는 [장면 3]의 내용 중 전문가의 시연 장면을 다시 보여 주며 보도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보도 내용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뉴스 수용자가 효과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 주는 화면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 [장면 2]부터 [장면 5]까지의 화면 상단 한쪽에는 보도 내용과 관련한 핵심 어구를 고정하여 제시했다. 이를 통해 뉴스의 수용자는 보도 내용의 중간부터 뉴스를 시청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 [장면 3]에서는 전문가의 시연을 통해 검색어 제안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를 보여 주었다. 이는 시연을 통해 검색어 제안 기능이 악용되는 방식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 [장면 4]에는 대가를 받고 검색어 제안 기능에 특정 업체명이 제시되도록 하여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을 음성 언어로 설명하고 있고, 그 사건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화면 구성에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수용자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반영된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나)의 신문 기사는 토론회를 방청한 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인용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 ㉢에서 기자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도 내용과 관련한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에 대해 이해한다.

(나)의 뉴스 생산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직접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 뉴스 생산자는 쟁점이 되는 화제를 다룰 때 공정성 있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나)의 기사는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두 보도하였으므로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로 볼 수 있다. ㉤ (가)의 뉴스 생산자는 최근에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급증했다고 하고, (나)의 뉴스 생산자는 최근에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선택하여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소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전자로는 현대 국어에서 명사 ‘높이’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높이’에 쓰인 부사 파생 접사 ‘-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명사 파생 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놀이’에서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구두담이’에서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연필깎이’에서는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후자로는 현대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이’와 ‘-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파생 접사 ‘-이’가 존재하였다. 가령, 현대 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기리(길-+ -이)’의 ‘-이’는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또한 ‘-이’는 ‘사리(살-+ -이)’처럼 동사 어간에 붙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하는 사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도 쓰였는데,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또한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는데, 접사 ‘-이’는 중세 국어에서 ‘ㅣ’ 모음이 양성 모음도 아니고 음성 모음도 아니어서 모음 조화와는 무관하게 결합하였다.

[ 너비(넙-+ -의)도 7티 하고 [넓이도 같이 하고]  
 [ 노퍽(높-+ -의) 다섯 자히러라 [높이가 다섯 자였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 쓰였고,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다.

[ 버피(범+ 의) 뼈나 [범의 뼈나]  
 [ 사르미(사람+ 의) 무레 [사람의 무리에]  
 [ 무퇴(물+ 의) 든니논 [물에 다니는]  
 [ 바미(밤+ 의) 나디 아니흐느니 [밤에 나가지 아니하니]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다.
  - ② 현대 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중세 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 ③ 현대 국어 ‘길이’처럼 중세 국어 ‘기리’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접사 ‘-의’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王人 겨퇴 안젧다가 [왕의 곁에 앉아 있다기]
- ㉡ 曲江人 구벽에 7마니 든니노라 [곡강의 굽이에 가만히 다니노라]
- ㉢ 光明이 불기 비취여 [광명이 밝히 비치어]
- ㉣ 글지시에 위두호고 [글짓기에 으뜸이고]
- ㉤ 쓰리 일후문 [딸의 이름은]

- ① ㉠에서 ‘겨퇴’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격 조사 이군.
- ② ㉡에서 ‘구벽’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③ ㉢에서 ‘불기’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④ ㉣에서 ‘글지시’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명사 파생 접사이군.
- ⑤ ㉤에서 ‘쓰리’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관형격 조사 이군.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난 상황)

민수: 영이야, ㉠ 우리 둘이 뭐 하고 놀까? 이 강아지랑 놀까?  
 영이: (민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아, 애?  
 민수: 응, 애가 전에 말했던 봄이야. 봄이 동생 숨이는 집에 있고.  
 영이: 봄이랑 뭐 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해서 ㉡ 우리 둘은 실뭉치를 자주 가지고 놀아. 너네 강아지들도 그래?  
 민수: 실뭉치는 ㉢ 둘 다 안 좋아해. 그런데 공은 좋아해서 ㉣ 우리 셋은 공을 갖고 자주 놀아. 그래서 공을 챙겨 오긴 했어.  
 영이: 그렇구나.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다음에 내가 혼자 나오고 내가 별이랑 나오면 그때 ㉤ 우리 셋은 실뭉치를 갖고 놀면 되겠다.  
 민수: 그러자. 그럼 오늘 ㉤ 우리 셋은 공을 가지고 놀자.

- ①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②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38.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 ①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 ②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 ③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 ④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 ⑤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39.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제34항 [붙임 1] ‘ㄱ, ㅋ’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5항 모음 ‘ㅛ, ㅠ’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ㅛ/ㅛ어, ㅟ/ㅟ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5항 [붙임 2]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ㄹ’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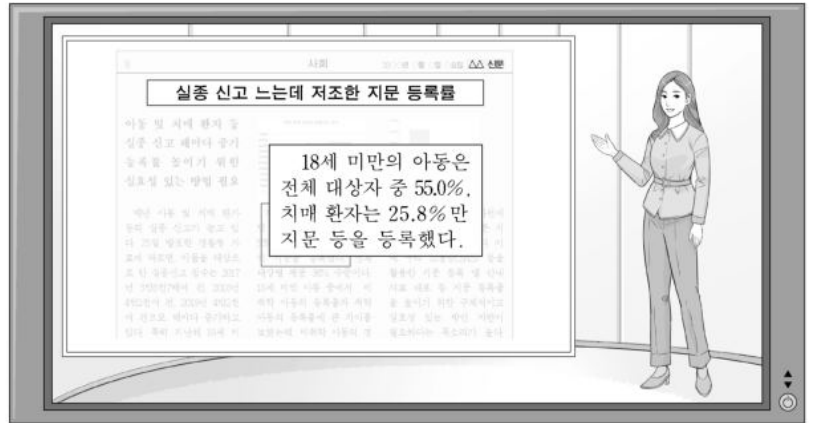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ㅝ’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7항 ‘ㅏ, ㅑ, ㅓ, ㅕ, ㅗ’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ㅝ, ㅞ, ㅟ, ㅠ, ㅡ’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① ㉠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꺾다’와 ‘베’로 적을 수 있다.
- ② ㉡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쑤었다’는 각각 ‘꽂다’와 ‘썰다’로 적을 수 있다.
- ③ ㉢을 적용할 때, 어간 ‘(발로) 차-’에 ‘-이-’가 붙은 ‘(발에) 차이-’에 ‘-었다’가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
- ④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벌이) 쏘-’에 ‘-이-’가 붙은 ‘(벌에) 쏘이-’에 ‘-어’가 붙으면 ‘썰’로 적을 수 있다.
- ⑤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이-’가 붙은 ‘(오줌을) 누이-’에 ‘-어’가 붙으면 ‘뉘여’로 적을 수 있다.

[40~43] 다음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 김 모 군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 군이 돌아온 데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역할이 컸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먼저 △△신문, 함께 보시죠.



진행자: 표제가 ‘실종 신고 하는데 저조한 지문 등록률’인데요, 기사 내용 일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55.0%, 치매 환자는 25.8%만 지문 등을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등록률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신문에서 언급한 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과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시에 이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문에서는 홍보가 부족해 지문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개인 정보 유출은 민감한 사안이니 정보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전문가: ㉢ 사전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는 ㉣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그래도 등록률을 높이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 있어야겠네요. △△신문을 더 살펴볼까요?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전문가: 지문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평균 56시간, 등록하면 평균 50여 분 정도 걸립니다.

진행자: 시간이 많이 단축되네요. 이제 다른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신문인데요,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는 지문 등 사전등록 스마트폰 앱이 소개되어 있네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신문

'지문 등 사전등록 앱'의 ㉠ '첫 화면'은 메뉴가 그림과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고정된 메뉴 화면을 한눈에 보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 '지문 등록' 메뉴를 누르면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대상자와 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을 언제 어디서든 등록할 수 있다.

㉢ '함께 있어요' 메뉴에서는 게시판에 올라온 인적 사항과 사진들을 보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 '같이 찾아요' 메뉴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글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다.

㉤ '보호소' 메뉴는 지도 앱과 연동되어 있어서 인근에 있는 보호소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진행자: ㉠ 필요하신 분들은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 화면으로 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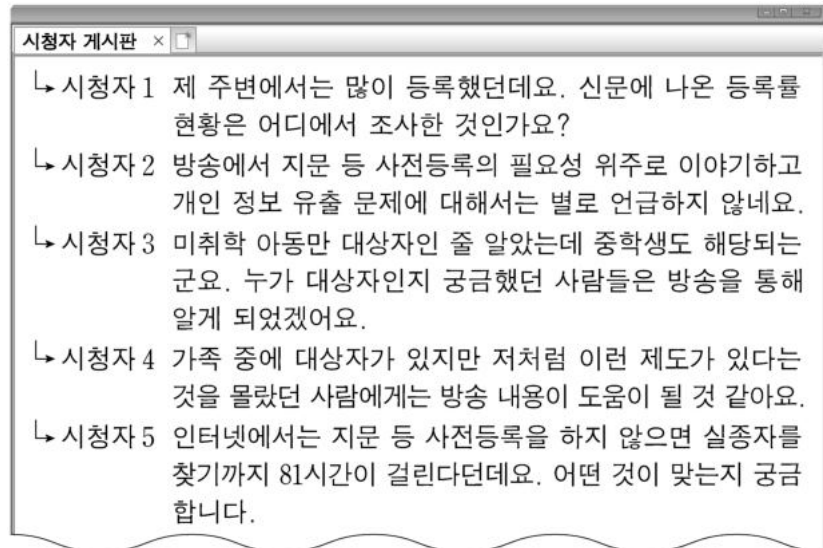
40. 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가 △△신문의 내용보다 □□신문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방송에서 어떤 기사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 드러내고 있군.
- ② 시의성 있는 화제를 다룬 신문 기사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 ③ △△신문 기사의 일부를 화면에 확대하여 제시함으로써 신문 기사의 특정 부분을 방송에서 선별하여 보여 주고 있군.
- ④ 진행자가 △△신문과 ○○신문의 기사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특정 화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군.
- ⑤ 전문가가 진행자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군.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 '-니까'를 통해 시청자를 높이며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고 있다.
- ② ㉡: 접속 부사 '그래서'를 통해 앞 문장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보조사 '는'을 통해 '사전등록 정보'가 문장의 화제임과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앞 절의 내용이 '사전등록 정보'가 '자동 폐기'되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보조 용언 '보다'를 통해 '앱'을 사용하는 것이 시험 삼아 하는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42.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시청자1과 2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등록률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 ② 시청자1과 4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③ 시청자2와 5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 ④ 시청자3과 4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 ⑤ 시청자3과 5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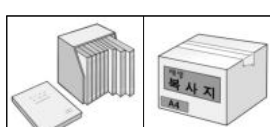
43. '○○신문'을 바탕으로 할 때,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대량의 정보를 요약하여 비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가 등록한 정보를 수용자가 변형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글과 이미지로 표현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둘 이상의 양식이 결합된 매체 자료에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서로 다른 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4~45] (가)는 학생의 개인 블로그이고, (나)는 발표를 위해 (가)를 참고하여 만든 스토리보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재생 종이, 왜 사용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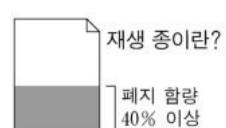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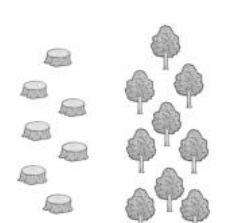
재생 종이를 아시나요? 재생 종이는 폐지를 활용하여 만든 종이인데요, 대체로 폐지가 40% 넘게 들어간 종이를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재생 종이는 책, 복사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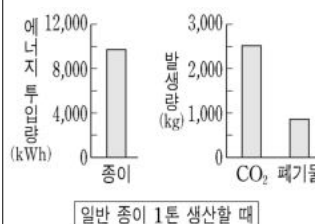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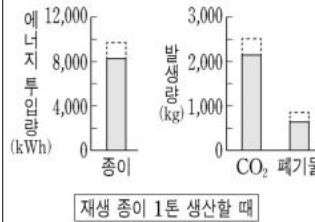
재생 종이를 사용하면 **숲을 지킬 수 있어요.** 20××년 한 해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종이를 만드는 데 2억 2천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해요. 엄청난 면적의 숲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반 종이를 복사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지의 45%가 출력한 그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복사지의 10%만 재생 종이로 바꿔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전 글 [숲의 힘](#)을 참고해 주세요.

또 재생 종이는 일반 종이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해요.** 일반 종이 1톤을 생산하면 2,541kg의 이산화탄소(CO<sub>2</sub>)와 872kg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같은 양의 재생 종이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는 2,166kg이, 폐기물은 735kg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 종이를 써야 할 때는 재생 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나)

#	화면 설명	화면	내레이션 및 배경 음악
#1	그림이 먼저 나오고 글이 나중에 덧붙여짐.		재생 종이는 폐지를 활용해서 만든 종이입니다. 여기서 폐지는 한번 사용한 종이를 말해요. (배경 음악) 잔잔한 느낌의 음악
#2	잘린 나무 밑동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옆에 나무 그림이 나타남.		종이를 만들기 위해 숲이 사라져요. 하지만 복사지의 10%만 재생 종이로 바꿔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어요. (배경 음악) 무거운 느낌에서 경쾌한 느낌의 음악으로 바뀜.

#3	그래프의 막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		일반 종이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과 발생하는 물질의 양입니다.
#4	자막이 '재생 종이 1톤 생산할 때'로 바뀌면서 그래프의 막대가 아래로 내려옴.		일반 종이 대신 재생 종이를 만들면 투입 에너지와 발생 물질의 양이 약 15% 정도 줄어듭니다.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생 종이의 활용 사례를 글자의 굵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했다.
- ② 재생 종子和 관련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소제목을 사용하여 부각했다.
- ③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는 숲의 면적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보여 주었다.
- ④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일반 종이의 양을 글과 사진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시했다.
- ⑤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룬 다른 게시물을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했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가 보강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외에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도 조사하여 추가해야지.
- ② 정보가 복합 양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 종이의 정의를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를 결합한 화면으로 표현하면서 내레이션으로 보완해야지.
- ③ 정보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드러나도록 (가)에서 두 문단으로 제시한 재생 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배경 음악과 내레이션을 모두 포함한 각각의 화면 두 개로 구성해야지.
- ④ 정보 간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가)에서 제시한 일반 종이와 재생 종이의 생산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양적 차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포함해야지.
- ⑤ 정보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 종이 사용에 따른 나무 보존에 대한 내용을 화면과 내레이션으로 표현하면서 이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나타내야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통계 자료이다.

정답 ③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② 37. ② 38. ① 39. ⑤ 40. ④ 41. ③ 42. ④ 43. ④ 44. ⑤  
45. ③

[35~36] 문법 형태소의 형태적·의미적 특성

지문해설 : 이 글은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문법 형태소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는 글이다. 먼저 1문단에서는 현대 국어의 '-이'가 명사를 파생하기도 하고 부사를 파생하기도 하며, 명사 파생 접사 '-이'가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이', '-음'이 명사를 파생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2문단에서는 중세 국어의 '-이' 역시 현대 국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설명하며, 3문단에서는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이'가 모음 조화에 따라 달리 쓰이는 양상을 예시를 통해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4문단에서는 조사 '의'가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제]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파생 접사 및 격 조사의 특성

35.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4문단의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라는 진술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이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36.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정답해설 : ㉠의 '구빅'는 '굽- + -의'로 분석되며, 3문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는 음성 모음 뒤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이다. 정답 ②

37.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은 영이와 별이(영이의 강아지)를 가리키며, ㉡은 민수, 영이, 별이(영이의 강아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가리키는 대상이 ㉠이 가리키는 대상을 포함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②

38. 서술어의 자릿수

정답해설 : <보기>에 쓰인 '유리하다'는 '이익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관계되어 딸리다'라는 뜻을 지니는 '속하다' 역시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정답 ①

39.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누-+ -이-+ -어’는 ㉠에 따라 ‘뉘어’로 적을 수도 있고, ㉡에 따라 ‘누여’로 적을 수도 있다. ㉠이 적용된 ‘뉘어’에 대해 다시 ㉡을 적용하여 ‘뉘여’로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 적용되는 예로는 ‘가지-+ -어’처럼 ‘ㅣ’ 뒤에 ‘-어’가 와서 ‘ㅋ’로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답 ⑤

[40~45] 매체

40.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다룬 △△ 신문과 □□ 신문, ○○ 신문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 신문과 ○○ 신문의 기사 내용을 종합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특정 화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정답 ④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에 쓰인 ‘사전등록 정보는’은 서술어 ‘저장하고 있습니다’의 목적어이다. 따라서 ‘사전등록 정보는’이 주어로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4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해설 : 시청자 3은 ‘누가 대상자인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한 방송 내용을 통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고, 시청자 4는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지만 저처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에게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시청자 3과 4는 모두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해 다룬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제도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다. 정답 ④

4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에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릴 수 있고(생산),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수용)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다고(생산) 하였다. 따라서 ㉠에서,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44~45]

4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 언급한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 이전 글 [숲의 힘](#)( 클릭)을 참고해 주세요.’에서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른 다른 게시물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

####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가)에서 재생 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2문단과 3문단이다. 2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은 (나)의 #2에서 배경 음악과 내레이션을 포함한 화면으로 구성하였고, 3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은 에너지 투입량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나)의 #3과 #4에서 배경 음악 없이 내레이션만 포함된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즉 (나)에서 재생 종이 사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구성한 화면은 배경 음악과 내레이션을 포함한 화면 #2와 배경 음악 없이 내레이션만 포함된 화면 #3과 #4로, 총 3개이다.      **정답 ③**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활동]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해보자.

훙이[홀치]	훙어[홀터]	엿는[언는]
끓고[끓코]	끓는[끓른]	

[자료]

-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 유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되거나 뒤의 자음과 그다음 음절의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음.
-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뒤의 자음이 연음되면 일어나지 않음.

- ① ‘훙이[홀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와서 ‘ㅈ’이 ‘ㅊ’으로 교체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군.
- ② ‘훙어[홀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와서 ‘ㅈ’이 연음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③ ‘엿는[언는]’은 ‘ㄴ’ 중 뒤의 자음인 ‘ㅈ’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난 것이군.
- ④ ‘끓고[끓코]’는 ‘ㅎ’과 그다음 음절의 ‘ㄱ’이 축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⑤ ‘끓는[끓른]’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남은 ‘ㄹ’로 인해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군.

36. <보기>를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언이 포함될 것.
-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될 것.

- ① 화단도 아닌 곳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 ② 대학생이 된 누나가 주인공을 맡았다.
- ③ 학생이었던 삼촌은 마흔 살이 되었다.
- ④ 큰언니는 성숙했지만 성인이 아니었다.
- ⑤ 나무로 된 책상을 나는 그에게 주었다.

3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준	분류
㉠	가변어, 불변어
㉡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자, 이제 아래 문장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

학생: \_\_\_\_\_ [A] \_\_\_\_\_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가변어 한 개, 불변어 네 개를 포함합니다.
- ② ‘나비 하나를’은 ㉡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두 개, 관계언 한 개를 포함합니다.
- ③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아홉 개의 품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 ④ ‘밝은’과 ‘잡았어’는 ㉡이나 ㉢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류로 분류됩니다.
- ⑤ ‘그’와 ‘또’는 ㉡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언이고, ㉢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관형사, 부사입니다.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널리 쓰이는 것에 ‘-(으)ㄴ’이 있다. 접미사 ‘-(으)ㄴ’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으며 ‘뉘음, 기쁨’과 같은 단어를 만든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간에 ‘-(으)ㄴ’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으)ㄴ’이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고 이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령 ‘무덤’이 기원적으로 ‘묻-’에 ‘-엄’이 붙어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므로 ‘무덤’에서 어간의 원형인 ‘묻-’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그런데 명사형 어미에도 ‘-(으)ㄴ’이 있어서,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 결합한 단어들 중에는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음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에서 앞에 나오는 ‘웃음’은 관형어 ‘시원한’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이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웃음’은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부사어 ‘크게’의 수식을 받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크게 웃음’을 ‘크게 웃었음’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미 ‘-(으)ㄴ’은 ‘-았/었-’, ‘-겠-’, ‘-(으)시-’ 등 대부분의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 파생 명사와 ㉡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 형태적으로 구별되었다. 예를 들어 ‘짜 그림과[땅을 그림과]’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그림’은 동사 ‘(그림을) 그리다’의 명사형인데, ‘그리다’의 파생 명사는 ‘그리-’에 ‘-ㄴ’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림’이었다.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으)ㄴ’과 명사형 어미 ‘-음/음’이 형태상으로 구분되었다.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접미사 ‘-(으)ㄴ’과 어미 ‘-음’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접미사 ‘-(으)ㄴ’과 어미 ‘-음’이 쓰였다. 그러다가 ‘·’가 소실되고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등 여러 변화를 입어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가 모두 ‘-(으)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8. 윗글을 통해 <보기>의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나이도 어린 동생이 고난도의 춤을 잘 춤이 신기했다.  
 ㄴ. 차가운 주검을 보니 그제야 그의 죽음이 실감이 났다.  
 ㄷ. 나는 그를 조용히 도움으로써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했다.  
 ㄹ.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아 오히려 감상을 방해하기도 한다.  
 ㅁ. 그를 전적으로 믿음에도 결과를 직접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

- ① ㄱ에서 ‘고난도의’의 수식을 받는 ‘춤’은 명사이고, ‘잘’의 수식을 받는 ‘춤’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 ② ㄴ에서 ‘죽음’은 접미사 ‘-음’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주검’과는 달리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③ ㄷ에서 ‘도움’은 동사의 명사형으로,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④ ㄹ에서 ‘알’의 ‘-ㄴ’은 ‘알-’에 붙어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었다.
- ⑤ ㅁ에서 ‘믿음’의 ‘믿-’과 ‘-음’ 사이에는 선어말 어미 ‘-었-’이 끼어 들 수 있다.

39.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중세 국어 용언들의 ㉠과 ㉡를 바르게 추정한 것은?

	㉠	㉡
① (물이) 열다	어름	어름
② (길을) 걷다	거름	거름
③ (열매가) 열다	여름	여름
④ (사람이) 살다	사름	사름
⑤ (다른 것으로) 곱다	꺾름	꺾름

[40~43] 다음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김 기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 기자: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을 수 없습니다.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일부를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진행자: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 여러 매립지의 포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행규칙은 그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바뀐 시행규칙에 맞추어 원활한 소각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매립지에 묻히는 생활 폐기물의 양을 지금의 2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감소하는 양이 크군요. 제가 볼 때는 매립지의 포화 시점을 늦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소각 시설은 충분한 편인가요?

김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소각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얼마 전, 소각 시설의 후보지로 선정된 △△ 지역 주민의 얘기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 이렇게 갑자기 우리 지역이 소각 시설의 후보지로 선정되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김 기자: 그리고 ㉠ 주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진행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네요. 이번에는 박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을까요?

박 기자: 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죠.

진행자: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곳은 공원이 아닌가요?

박 기자: 네, 맞습니다. 지상은 이렇게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동영상을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공원의 지하에는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소각 시설의 지하화로 주민들이 우려했던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소각 시설의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제 생각에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쳤나요?

박 기자: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주민들에게는 소각 시설 설치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주민들이 소각할 때 생기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어요?

박 기자: ○○시 소각 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생

기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시는 소각 시설과 관련한 앱을 만들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지금 그 앱을 확인할 수 있나요?

박 기자: 네, 화면 보시죠. 이렇게 ㉠ 앱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원하는 내용과 손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선 ㉡ 처리 공정을 누르면,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 대기 오염 농도를 누르면, 수시로 바뀌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소각 시설에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다면 ㉣ 시설 견학 신청을, 제안하려는 의견이 있다면 로그인 후 ㉤ 의견 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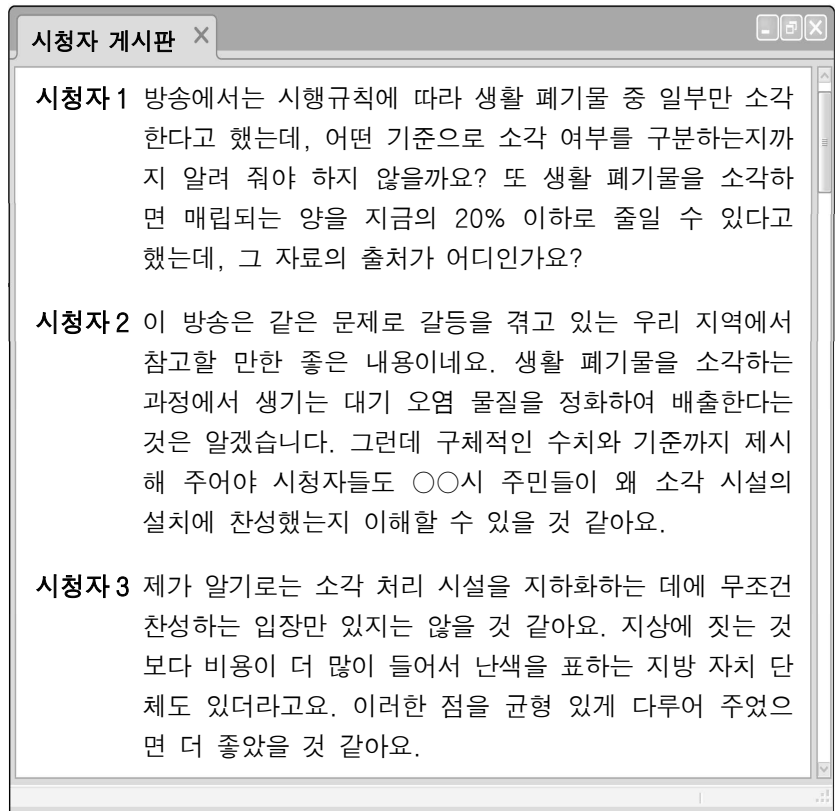
40. 위 프로그램을 시청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김 기자가 언급한 정보를 자신이 과거에 보도한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군.
- ② 김 기자는 인터뷰를 제시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군.
- ③ 박 기자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언급된 문제 상황이 해결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군.
- ④ 진행자는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군.
- ⑤ 진행자는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정보를 종합하여 해결 방안이 내재한 문제점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군.

41. 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할 때, ㉠ ~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는 생산자가 미리 정해 놓은 메뉴의 순서에 따라서만 정보 탐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생활 폐기물의 처리 공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수시로 바뀌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변화하는 정보에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시설을 견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미리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소각 시설에 대한 의견 제안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다음은 위 프로그램이 보도된 이후의 시청자 게시판 내용이 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청자 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효과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였다.
- ②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점검하였다.
- ③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의 지하화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점검하였다.
- ④ 시청자 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청자 2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가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⑤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 과정과 관련하여,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 지하화의 비용과 관련하여,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였다.

43.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지시 표현, 종결 표현 등에 변화가 일어난다. 가령 ㉠을 간접 인용이 포함된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주민들이 [A] 성토했습니다.

- ①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 ② 저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 ③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 ④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더라고
- ⑤ 저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44~45] (가)는 사진 동아리 학생들이 진행한 온라인 화상 회의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준영'이 만든 발표 자료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수: 드디어 다 모였네. 모임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니 참 편리하다.

가람: 맞아. 그런데 현수는 카메라를 안 켜네? 대면 회의 대신에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니 모두 카메라를 켜고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수: 앗, 그렇네.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켜게.



준영: 좋아. 내 목소리 잘 들려? (화면 속 학생들을 살피며) 다들 잘 들리는 것 같네. 오늘은 축제에서 사용할 동아리 활동 소개 자료에 대해 논의하자. 혹시 일정표 갖고 있니?

예나: 내가 파일로 가지고 있어. 지금 바로 파일 전송할게.

파일 전송: 동아리\_활동\_발표회\_일정표.hwp(256 KB)

준영: 고마워. 예나가 보낸 파일을 보니 발표 시간이 짧아서 올해 진행한 행사들만 슬라이드로 간단히 소개하면 될 것 같아.

예나: 그럼 계절에 따라 진행한 행사 사진을 각 슬라이드에 넣으면 어때?

현수: 좋은 생각인데, 나한테 봄에 '○○ 공원 사진 촬영'에서 찍은 동영상 있어. 잠시 내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 줄게. (화면을 공유한다.) 이게 괜찮으면 슬라이드에 사진 대신 삽입하면 어떨까?

가람: 오, 난 좋은데? 이걸 삽입하면 행사 모습을 사진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어. 여름 행사는 '사진 강연'이지?

현수: 맞아. 아까 예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행사부터는 사진을 슬라이드에 넣어서 청중에게 보여 주면 될 것 같아.

가람: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강연이었는데를 알 수 없잖아. 강연 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무슨 주제로 강연했는지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예나: 좋아. 나도 동의해. 그럼 가을에 한 '옛날 사진관' 행사도 설명을 간단히 제시하자.

준영: 근데 그 행사는 촬영한 사진들을 궁금해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동아리 블로그에 사진이 많이 있으니 블로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도 삽입하면 어떨까?

예나: 그게 좋겠다. 마지막 행사는 '장수 사진 봉사 활동'인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으니 슬라이드에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행사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가람: 그렇게 하면 슬라이드에 담긴 설명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 것 같아. 느낀 점은 발표자가 따로 언급만 하는 것으로 하자.

준영: 그러자. 내가 초안을 만들 테니 나중에 함께 검토해 줘.

(나)

<p>슬라이드 1</p> <p>사진 동아리 △△의 봄</p> <p>△△ 부원 모두가 함께한 '○○ 공원 사진 촬영'</p>	<p>슬라이드 2</p> <p>사진 동아리 △△의 여름</p> <p>김□□ 작가의 '사진 강연'</p> <p>· 강연 일시: 20××.××.××. · 강연 장소: 본교 소강당</p>
<p>슬라이드 3</p> <p>사진 동아리 △△의 가을</p> <p>복고를 주제로 많은 학생들을 촬영한 '옛날 사진관'</p> <p>← 사진 더 보기 (동아리 블로그로 이동)</p>	<p>슬라이드 4</p> <p>사진 동아리 △△의 겨울</p> <p>'장수 사진 봉사 활동'</p> <p>마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건강한 미소를 사진에 담아낸 재능 기부 활동</p>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수'는 대면 회의보다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장점을 들어 온라인 화상 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가람'은 회의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회의의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 ③ '준영'은 화면을 살피며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음성이 잘 전달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 ④ '예나'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⑤ '현수'는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며 슬라이드에 동영상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5. (가)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공원 사진 촬영' 행사 모습을 청중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슬라이드 1'에 행사 사진을 추가한다.
- ② '사진 강연'의 내용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슬라이드 2'에 강연 주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 ③ 진행한 행사를 청중에게 계절 순서에 맞게 제시하기 위해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3'에 제시된 행사를 맞바꾼다.
- ④ '옛날 사진관' 행사와 관련하여 청중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시하기 위해 '슬라이드 3'에 제시된 사진을 삭제한다.
- ⑤ '장수 사진 봉사 활동'이 동아리 부원들에게 주는 의미를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슬라이드 4'에 행사에서 느낀 점을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오답풀이]** ② 학생 3은 다목적실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운영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는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표현 전략을 파악한다.**

(나)의 2문단에서 제도의 취지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가 식품 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이 번거롭다는 점과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 이력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점으로 나누어서 소비자가 식품 이력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1문단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취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가 식품을 이력 정보 의무 등록 식품과 자율 등록 식품으로 나누고 이 중 자율 등록 식품의 등록률이 낮다는 점을 제도의 취지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식품을 의무 등록 식품과 자율 등록 식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나)의 3문단에 관계 기관에서는 식품 이력 정보의 조회 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 업체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나)의 3문단에서 관계 기관에서는 식품 이력 정보의 조회 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력 정보 조회의 간소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글쓰기의 내용을 점검하고 조절한다.**

(나)의 4문단과 <보기>를 비교하면, <보기>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비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보기>는 기회 연재 의도를 살려 글을 쓰면 좋겠다는 편집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III-1은 설문 조사 결과로, 소비자가 언론 매체, 교육 또는 홍보 등의 경로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3문단에는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III-1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I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를 식품 포장지에서 찾기도 어렵고 식품 이력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이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나)의 2문단에서 식품 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이 번거로워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I은 식품 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일부 기업이 QR 코드를 활용해 해결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활용해 (나)의 3문단에서 식품 이력 정보의 조회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QR 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③ II는 식중독 사건이 학교 급식에서 발생했는데, 문제가 된 식품은 자율 등록 대상으로 식품 업체가 해당 식품의 이력 추적을 위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나)의 1문단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초래된 문제점의 사례를 추가할 수 있다.

⑤ III-2는 식품 업체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인프라 미흡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나)의 3문단에 정부가 참여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인프라 확충, 인력 지원 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①	36	①	37	④	38	④	39	①
40	⑤	41	③	42	⑤	43	③	44	②
45	②								

**35. [출제의도] 접미법이 있는 단어의 발음에 대해 이해한다.**

‘홀이’는 ‘무엇을 훑는 데에 쓰는 기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홀-+-이’로 분석된다. 용언의 어간 ‘홀-’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결합된 경우로, ‘트’이 ‘ㅈ’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홀치]로 발음된다. 하지만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에 대해 이해한다.**

‘화단도 아닌 곳에 전달래꽃이 피었다.’에서 서술어 ‘피었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또한 관형사절인 ‘화단도 아닌’ 속에 보어 ‘화단도’가 포함되어 있다. 한 자리 서술어가 포함되면서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문장은 ①이다.

**37. [출제의도] 단어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밝은’은 ㉠에 따라 분류하면 용언, ㉡에 따라 분류하면 형용사이다. 한편 ‘잡았다’는 ㉢에 따라 분류하면 용언, ㉣에 따라 분류하면 동사이다. 따라서 두 단어를 ㉠이나 ㉣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류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명사 파생과 명사절을 이해한다.**

‘얇’은 해당 절에서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 부사어 ‘얇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동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얇’의 ‘-으’는 명사 파생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형 어미에 해당하므로, ‘-으’이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접미사와 어미를 이해한다.**

‘얼-’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는 ‘어름’으로,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활용형은 ‘어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③ ‘걸-’(걸-), ‘얼-’에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는 각각 ‘거름’, ‘어름’으로, ‘-음’이 결합한 활용형은 각각 ‘거름’, ‘어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⑤ ‘살-’, ‘굴-’에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는 각각 ‘사름’, ‘구름’으로, ‘-음’이 결합한 활용형은 각각 ‘사름’, ‘구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내용을 이해한다.**

제시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김 기자가 전달한 정보와 박 기자가 전달한 정보를 진행자가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④ 진행자는 김 기자가 전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그것이 매립지의 포화 시점을 늦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고, 박 기자가 전달한 동영상과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래도 소각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대기 오염 농도를 통해 정보의 수용자는 수치로 바뀌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 소각 시설’ 앱에서 정보의 수용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앱 메인 화면에서 정보의 수용자는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자가 미리 정해 놓은 메뉴의 순서에 따라서만 정보 탐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과정과 관련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 중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한다는 것은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 농도의 구체적인 수치 및 안전과 관련한 대기 오염 물질 농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려면 지상에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난색을 표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있다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균형 있게 정보를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달한 정보가 사실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한 정보가 충분한지를 점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에 사용된 표현을 이해한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지시 표현, 종결 표현 등에 변화가 일어난다. ‘주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를 간접 인용이 포함된 문장으로 바꿀 경우, ‘주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성토했습니다.’와 같이 바꿀 수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가람’은 온라인 화상 회의가 대면 회의를 대신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카메라를 켜고 회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카메라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가람’이 회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제한됨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현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화상 회의를 관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대면 회의에 비해 온라인 화상 회의가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③ ‘준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냐고 질문한 뒤 화면 속의 학생들을 살펴며 음성이 잘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④ ‘예나’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 발표회 일정을 ‘준영’에게 제공하고 있다. ⑤ ‘현수’는 ‘○○ 공원 사진 촬영’ 행사 동영상이 담긴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며 슬라이드에 사진 대신 동영상 상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가)에서는 ‘사진 강연’ 행사와 관련하여 슬라이드에 제시할 내용을 의논하며, 청중이 어떤 강연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강연의 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강연의 주제를 제시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나)의 ‘슬라이드 2’에는 강연 주제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 공원 사진 촬영’ 행사와 관련하여 슬라이드에 사진 대신 동영상을 삽입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슬라이드에 담긴 설명이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수 사진 봉사 활동’에서 느낀 점을 발표자가 따로 언급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슬라이드 4’에 동아리 부원들이 행사에서 느낀 점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 제 1 교시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발음되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꽃’이 조사 ‘이’, ‘만’, ‘도’와 결합한 것을 발음되는 대로 적으면 ‘꼬치’, ‘꼴만’, ‘꼴또’이므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이 ‘꽃’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적도록 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발음을 고려한 대표 형태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표기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언제나 어법에 따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표 형태로는 여러 발음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씨요], [인는데요], [인떠라고요]와 같이 발음한 것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기 위해 대표 형태를 선택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있-’, ‘인-’, ‘인-’ 중에 ‘인-’을 대표 형태로 본다면 [인는데요]는 비음화, [인떠라고요]는 된소리되기로 둘 다 교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씨요]는 설명할 수 없다. ‘인-’을 대표 형태로 본다면 [이씨요]와 [인떠라고요]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있-’을 대표 형태로 선택하면 [이씨요]는 음운 변동 없이 연음된 것으로, [인는데요]와 [인떠라고요]는 모두 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있-’을 대표 형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놓으니’, ‘놓다’는 [노으니], [노타]로 발음되는데 어간을 ‘놓-’이라는 대표 형태로 고정하여 적고 있다. 왜냐하면 대표 형태가 ‘노-’라면 [노타]를 설명할 수 없지만 ‘놓-’이라면 [노으니]는 탈락, [노타]는 축약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들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덥고, 장마의 시작과 끝이 언제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 ① ‘들어’를 발음할 때는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군.
- ② ‘더운’과 ‘덥고’는 어간의 의미가 같지만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적지 않은 경우이군.
- ③ ‘여름’, ‘장마’는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 것이군.
- ④ ‘끝이’를 ‘꼬치’로 적지 않은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때문이군.
- ⑤ ‘부릴’의 어간은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해 표기한 것이군.

36. ㉠을 고려하여 <보기>의 ㉠ ~ ㉢의 대표 형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 다음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의 발음이다.

어미	-고	-아서	-지만	-는
어간				
㉠	[깍꼬]	[까까서]	[깍찌만]	[깡는]
㉡	[달꼬]	[다라서]	[달치만]	[달른]
㉢	[싸꼬]	[싸아서]	[싸치만]	[싼는]
㉣	[할꼬]	[할타서]	[할찌만]	[할른]
㉤	[갑꼬]	[가파서]	[갑찌만]	[감는]

- ① ㉠: 대표 형태가 ‘깍-’이라면 [깍찌만]과 [깡는]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깡-’이라면 둘 다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꼬]와 [달치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③ ㉢: 대표 형태가 ‘싼-’이라면 [싸꼬]와 [싸아서]를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쌍-’이라면 둘 다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④ ㉣: 대표 형태가 ‘할-’이라면 [할꼬]와 [할찌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할-’이라면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⑤ ㉤: 대표 형태가 ‘갑-’이라면 [갑꼬]와 [감는]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갑-’이라면 둘 다 교체로 설명할 수 있겠군.

37. <보기 1>의 ㉠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연결 어미 ‘-고’의 쓰임은 다양하다. 먼저 ㉠ 앞 절과 뒤 절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경우가 있다. 또한 ㉡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보기 2>

- 그들은 서로 손을 쥐고 팔씨름을 했다. ㉠
-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
- 나는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가 벌레 쏘이고 통통 부었다. ㉣
- 그 책은 내가 읽을 책이고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

- ① ㉠: a, c                      ② ㉡: b, e                      ③ ㉢: d, e
- ④ ㉣: a, b                      ⑤ ㉤: c, d

38. <보기>의 ㄱ ~ ㄷ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ㄱ. 신중한 그는 고민을 가족들과 의논했다.  
 ㄴ. 너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좀 씻어!  
 ㄷ. 네가 들은 소문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 ① ㄱ의 '신중한'은 안은문장의 필수 성분이군.
- ② ㄱ의 '가족들과'와 ㄷ의 '정말'은 생략이 가능한 성분이군.
- ③ ㄴ의 '먹기'는 안긴문장의 부속 성분이군.
- ④ ㄴ의 '너는'은 안긴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군.
- ⑤ ㄷ의 '네가'와 '사실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39.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羅雲(나운)이 저머 노르술 즐겨 法(법) 드로물 슬히 너겨 허거 든 부테 즈로 니르샤도 從(중)흐습디 아니허더니 後(후)에 부테 羅雲(나운)이드려 니르샤디 부터 맞나미 𑖀𑖃𑖇𑖆 法(법) 드로미 𑖀𑖃𑖇𑖆네 네 이제 사르믹 모물 得(득)하고 부터를 만나 잇느니 𑖀𑖃𑖇𑖆 게을어 法(법)을 아니 듣는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나운이 어려서 놀이를 즐겨 법을 듣기를 싫게 여기니, 부처가 자주 이르셔도 따르지 아니하더니, 후에 부처가 나운이더러 이르시되, “부처를 만나기가 어려우며 법을 듣기 어려우니, 네가 이제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 어찌 게을러 법을 아니 듣는가?”

- ① '부테'를 통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니르샤도'를 통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從(중)흐습디'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어려브며'를 통해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사르믹'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 43] (가)는 라디오 방송을 위한 진행표이고, (나)는 라디오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지역 이야기】 492화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  
 초대 손님: 자율 주행 연구소장 최○○ 교수  
 #1. 시범 사업을 △△시에서 하는 이유는?  
 #2. 시범 사업의 성과는?  
 #3. 향후 달라질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은?

(나)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 지역 이야기' 492화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최○○ 교수님과 우리 △△시의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시는 관련 연구 시설이 있고, 도시의 도로 조건이 새로운 자율 주행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일반 대중교통의 운행이 힘든 시간대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리 지역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 적합하다는 말씀이지요?

**전문가:** 네, 맞습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 사전 체험단을 대상으로 운영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 네, 이번 사업을 통해 ㉢ 우리 연구소는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에 활용할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덕분에 운행 중 운전자의 개입 횟수를 줄여 자율 주행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사전 체험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10점 만점에 9.2점이더군요. ㉣ 시범 사업이 시민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네요. 교수님, '보이는 라디오'의 실시간 채팅창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 사전 체험단에 참여하신 분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직접 남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안전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군요. 자율 주행 버스에 안전 요원이 상시 탑승해 있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직접 운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다들 반가워하실 거예요.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을 소개해 주세요.

**전문가:** 네, 앞으로는 ㉤ 지역 주민 중 사전 체험단이 아니었던 주민도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원까지의 기존 노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청 정류장 등을 추가하여 노선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최 교수님의 도움으로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 남기실 의견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의 ㉥ 청취자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40.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며 확인하고 있군.
  - ② '#1'에서 전문가는 방송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두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군.
  - ③ '#2'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2'에서 전문가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고 있군.
  - ⑤ '#3'에서 진행자는 청취자들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군.

4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시범 사업을 운영한 주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격조사 '에'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하여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는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방송사 홈페이지 화면의 일부이다. (나)와 <보기>의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1. 다음은 ㉠의 일부이다. 청취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취자 게시판

**청취자 1** 자율 주행 기술 수준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자율 주행 버스가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오늘 방송에 안 나왔네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청취자 2** 다음 달부터는 저도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공원에 갈 때 이용하면 무척 편리할 것 같아요. 버스 탑승 시간이 궁금했는데, 버스 시간표를 알려 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청취자 3** 자율 주행 버스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시간에 귀가하는 우리 지역의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자율 주행 기술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 ① 청취자 1은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였다.
- ② 청취자 2는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③ 청취자 3은 방송에서 특정 내용이 강조된 의도를 추론하였다.
- ④ 청취자 1과 3은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요청하였다.
- ⑤ 청취자 2와 3은 방송에서 제시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 보기 >

- ① (나)에서 언급된 시범 사업 성과가 <보기>에서는 자막으로 요약되어 있다.
- ② (나)에서 언급된 노선 정보가 <보기>에서는 시각 기호가 표시된 지도로 보충되고 있다.
- ③ (나)에서 언급된 정류장 추가에 대한 정보가 <보기>에서는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 ④ (나)에서 언급된 사전 체험단 경험에 대한 반응이 <보기>에서는 실시간 채팅창에 제시되어 있다.
- ⑤ (나)에서 언급된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지난 방송 내용이 <보기>에서는 다시 보기 하이퍼링크로 제공되고 있다.

# 4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44 ~ 45] (가)는 환경 동아리 블로그이고, (나)는 (가)를 참고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 제작 계획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화면 구성	화면 설명
1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하여 시작 화면을 제시함.
2		구체적 항목들을 제시하여 자신의 실천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자신의 실천 일지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후 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강조하였다.
- 기후 행동의 국가 간 차이를 글자의 굵기와 크기를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 인근 학교 동아리의 페트병 수거 현황을 소재목을 사용하여 부각하였다.
-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건수의 양적 변화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 기후 행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사진 자료를 사용하여 보여 주었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작자가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에 제시된 개인의 일상적 실천 사례를 참고하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기후 행동의 개념을 참고하여,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이미지와 문구로 시작 화면을 구성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꾸준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참고하여, 자신의 성공적인 실천 결과를 누적할 수 있는 일지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실천이 이어지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동아리의 정책 제안 활동을 참고하여, 청소년이 관련 기관에 제안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기후 행동에 참여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기후 행동 확산의 중요성을 참고하여, 자신의 실천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개인의 실천이 다른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겠어.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기가 나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 3]에서 '나무 돌보미' 캠페인의 활동 내용과 참여 학생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나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②	37	④	38	④	39	③
40	④	41	⑤	42	②	43	①	44	④
45	④								

#### 35.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

'부릴'의 어간은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는 형태인 '부리-'를 대표 형태로 선택해 표기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들어'의 발음은 [드러]로, 음운 변동 없이 연음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더운'과 '덤고'는 어간의 의미가 같지만 어간을 '더우-'와 '덤-'의 두 가지 형태로 적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어름'과 '장마'는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끝이'를 '끄지'로 적지 않고 '끝'이라는 대표 형태를 선택하여 표기한 것은 의미 파악을 위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 36.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파악하기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고]와 [달치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고]와 [달치만]을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37. [출제의도] 연결 어미 이해하기

③과 ⑥는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③에 해당하는 예이다.

#### 38. [출제의도] 문장 구조 파악하기

ㄴ의 '너는'은 안근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므로 적절하다.

####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從(종)흐 습디'에서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부테'에서 '부터'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니르샤도'에서 두 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어러브머'에서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인 '브'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사르믹'에서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 '익'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40. [출제의도] 정보의 전달 방식 이해하기

(가)의 '#2'에 해당하는 (나)의 전문가의 말 중 전문가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에 해당하는 (나)의 진행자의 말 중 '우리 지역에 기반 시설이 ~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지요?'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며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1'에 해당하는 (나)의 전문가의 말 중 '연구자의 입장에서 ~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와 '시의 입장에서 ~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에서 전문가가 방송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두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2'에 해당하는 (나)의 진행자의 말 중 '사전 체험단의 만족도 ~ 9.2점이더군요.'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에 해당하는 (나)의 진행자의 말 중 '마지막으로 다음 ~ 소개해 주세요.'에서 진행자가 청취자들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1. [출제의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분석하기

'청취자 2'는 '공원에 갈 때 ~ 편리할 것 같아요.'에서

방송에서 제시한 자율 주행 버스에 관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고, '청취자 3'은 '자율 주행 버스가 ~ 도움이 되겠네요.'에서 자율 주행 버스에 관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2. [출제의도]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에서 '운영된'의 피동 접사 '-되다'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 주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작년부터'의 보조사 '부터'는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의 격조사 '에'는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의 의존 명사 '만큼'은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사전 체험단이 아니었던 주민들'의 보조사 '도'는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3. [출제의도] 매체에 따른 정보 전달 양상 이해하기

(나)에 언급된 시범 사업 성과가 <보기>의 자막에 요약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 언급된 노선 정보가 <보기>의 노선도에 시각 기호가 표시된 지도로 보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 언급된 시청 정류장 추가에 대한 정보가 <보기>의 화면에 전문가의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에 언급된 사전 체험단 경험에 대한 반응이 <보기>의 실시간 채팅창에 메시지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 언급된 지난 방송 내용이 <보기>의 지난 방송 다시 보기에 하이퍼링크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4. [출제의도] 매체 표현 방식 분석하기

(가)에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건수 증가 추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으므로 적절하다.

####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구성 추론하기

(가)의 2문단 '인근 학교의 ~ 정책을 제안했습니다.'에 동아리의 정책 제안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만 (나) '4'의 '화면 구성'에 청소년이 관련 기관에 제안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3문단 '실내 적정 ~ 전등 끄기'에 개인의 일상적 실천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나) '2'의 '화면 구성'에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1문단 '이러한 기후 변화의 ~ 기후 행동입니다.'에 기후 행동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고, (나) '1'의 '화면 구성'에 기후 위기를 보여 주는 이미지와 문구로 시작 화면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3문단 '꾸준히 실천하고 ~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에 꾸준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나) '3'의 '화면 구성'에 자신의 성공적인 실천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일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문단 '무엇보다 기후 행동은 ~ 가장 중요합니다.'에 기후 행동 확산의 중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나) '3'의 '화면 구성'에 자신의 실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 ‘ㅅ’과 ‘ㅆ’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음운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뤄야 하는데 음절의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 영어는 ‘spring[sprɪŋ]’처럼 한 음절 내에서 자음군이 형성될 수 있다.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한다. 이때 ㉠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음운 규칙이 관여한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국물[궁물]’처럼 ‘파열음-비음’ 순의 음운 배열이 만들어지면,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런 음운 규칙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영어에서는 ‘nickname[nɪkneɪm]’처럼 ‘파열음(k)-비음(n)’이 배열되어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말을 들을 때도 작동한다. 이들은 말을 할 때는 발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재료, 구조, 방법이 되고, 말을 들을 때는 말소리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틀이 된다. 예컨대 ‘국’과 ‘밥’이 결합한 ‘국밥’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늘 [국빳]으로 발음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빳’이 아니라 ‘빳’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국빳]을 들을 때 된소리되기가 인식의 틀로 작동하여 된소리되기 이전의 음운 배열인 ‘국밥’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어를 듣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다. 영어 단어 ‘bus’를 우리말 음절 구조에 맞게 2음절로 바꾸고, ‘b’를 ‘ㅃ’ 또는 ‘ㅍ’으로 바꾸어 [버쓰]나 [빠쓰]로 인식하는 것이 그 예이다.

35.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뫼[목]’의 발음에서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국어 음운 ‘ㄹ’은 그 자체에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ㄹ’은 어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뜻을 가진 최소 단위가 되겠군.
  - ③ 국어에서 ‘밥만 있어’의 ‘밥만[밤만]’을 듣고 ‘밤만’으로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했겠군.
  - ④ 영어의 ‘spring’이 국어에서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어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이겠군.
  - ⑤ 영어의 ‘vocal’이 국어에서 ‘보컬’로 인식되는 것은 영어 ‘v’와 가장 비슷한 국어 음운이 ‘ㅃ’이기 때문이겠군.

36. ㉠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            |          |
|----------|------------|----------|
| ㉠ 앞일[암닐] | ㉡ 장미꽃[장미꼴] | ㉢ 냥고[너코] |
| ㉣ 걱정[걱쩍] | ㉤ 굳이[구지]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7.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객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목적어나 부사어로 지시되는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어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으로써 객체를 높이 대우하는 것이다. 전자는 **객체 높임의 동사**(‘송-, ‘아뢰-’ 등)를 쓰는 방법이고, 후자는 **객체 높임의 조사**(‘씨’, ‘께’)를 쓰는 방법과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송-’ 등)를 쓰는 방법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는다. 다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 다 **송**고 부터**씨** 禮數**호**송고  
 [이 말 다 **아뢰**고 부쳐**께** 절 올리고]

- <보기 2>
- ㉠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니를 보송고져 호노니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니]
  - ㉡ 須達이 舍利弗의 가 [수달이 사리불께 가서]
  - ㉢ 내 이제 世尊의 송노니 [내가 이제 세존께 아뢰니]
  - ㉣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어머님 모시고 갔었어?
  - ㉤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친 덴 없는지 여쭈 보셨다.

- ① ㉠: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② ㉡: 문법적 수단으로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③ ㉢: 조사 ‘씨’와 동사 ‘송노니’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④ ㉣: 조사 ‘께’와 동사 ‘모시고’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⑤ ㉤: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사 ‘여쭈’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립성의 유무 의미의 유형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X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 ㉡, ㉢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 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에 속한다.
- ② '비를'와 '길을'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에 속한다.
- ④ '바람에'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⑤ '찾아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과 일정한 문법적 관련을 맺는다. 그중 피동문의 서술어는 능동문의 서술어에 피동의 문법요소를 결부하여 만드는데, 국어에서는 ㉠ 동사 어근에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는 방법(접-/접히-), ㉡ 접사 '-하-'를 접사 '-받-', '-되-',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사랑하-/사랑받-), ㉢ 동사 어간에 '-아지-/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주-/주어지-) 등이 쓰인다. 단, '날씨가 풀리다'에서처럼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편 '없어지다'나 '거긴 잘 가지지 않는다'처럼 ㉣ '-아지-/어지-'는 형용사나 자동사에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용법일 때는 피동문을 이루지 않는다.

- ① ㉠: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 ② ㉡: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받았다.
- ③ ㉢: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졌다.
- ④ ㉣: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 ⑤ ㉣: 모두가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40~43] (가)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생활 속 유용한 경제 뉴스를 알려 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록, 김 기자. ㉠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 주신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〇〇공단에서 실시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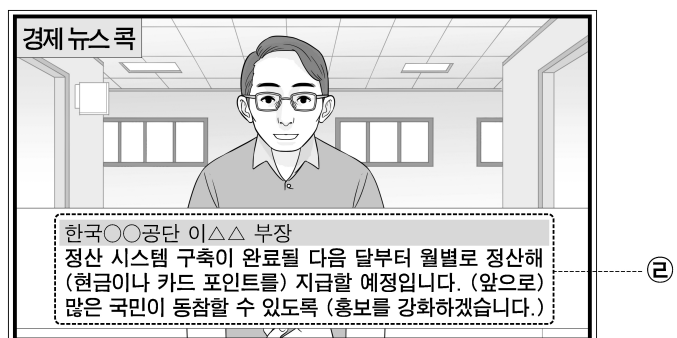


제도 실시 후 석 달 만에 가입자 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려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았던 뜻이겠죠. ㉢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칠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면 백 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일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천 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 다시 채우면 이천 원, 무공해차를 대여하면 오천 원이 적립됩니다. ㉣ 한국〇〇공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관계자: 정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다음 달부터 월별로 정산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자: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와 더불어 이 제도가 국민들의 탄소 줄이기 생활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㉔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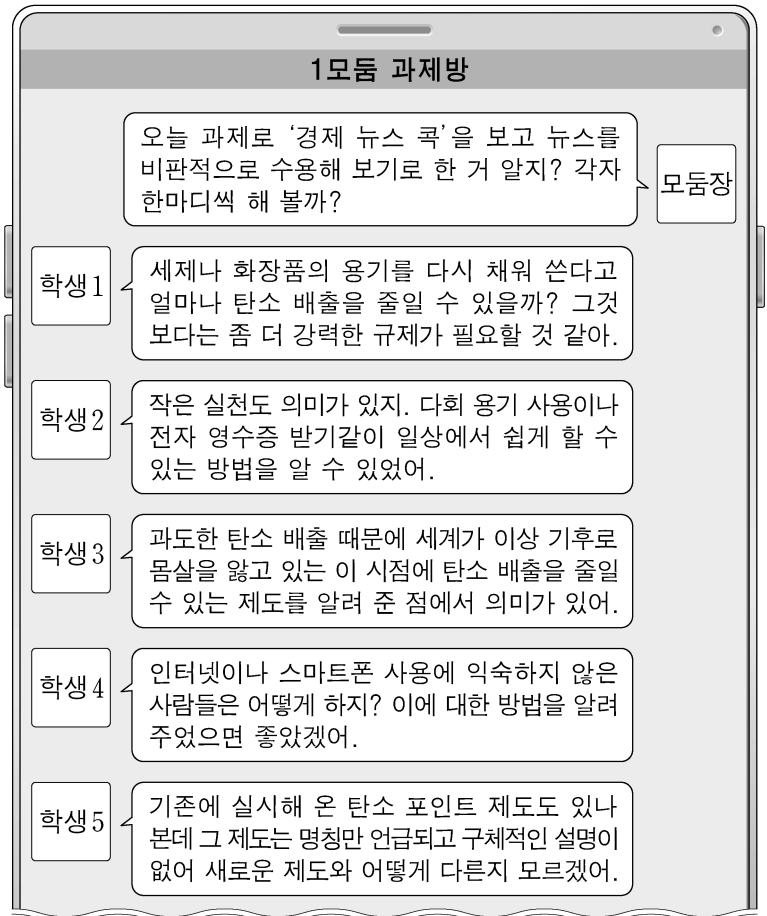


(나)



40.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보도의 주요 제재를 부각하였다.
  - ② ㉒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③ ㉓은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 ④ ㉔은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 ⑤ ㉔은 이후에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41. ㉕~㉗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㉕: 보조 용언 '있다'를 사용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하였다.
  - ② ㉖: 보조사 '도'를 사용해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③ ㉗: 감탄사 '자'를 사용해 시청자의 해당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④ ㉕: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해 제도 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을 표현하였다.
  - ⑤ ㉖: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였다.

42.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의 내용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실천 항목의 효과에 주목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주목해 제도의 실천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제도의 시행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의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④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주목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⑤ 학생 5는 기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43. (나)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군.
- ②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코드를 제시하여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하였군.
- ③ (가)에 제시된 제도의 개인적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돈과 저금통의 이미지를 활용하였군.
- ④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하여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하였군.
- ⑤ (가)에 제시된 수용자보다 수용자 범위를 한정하고 생산자를 명시하여 메시지 전달의 주체와 대상을 표현하였군.

[44~45]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문화 지킴이들, 안녕!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문화 지킴이 방송의 진행자, 역사임당입니다. 오늘은 과거 궁중 연회에서 장식 용도로 사용되었던 조화인 궁중 채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 주세요.

**빛세종:** 채화? '화'는 꽃인데 '채'는 어떤 뜻이죠?

**[A]** 빛세종님, 좋은 질문! 채화의 '채'가 무슨 뜻인지 물으셨네요. 여기서 '채'는 비단을 뜻해요. 궁중 채화를 만드는 재료로 비단을 비롯한 옷감이 주로 쓰였기 때문이죠.

(사진을 보여 주며) 주로 복사꽃, 연꽃, 월계화 등을 만들었대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어떤 꽃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햇살가득:** 월계화?? 월계화 만들어 주세요!

**[B]** 좋아요! 햇살가득님이 말씀하신 월계화로 결정!

그럼 꽃잎 마름질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단을 두 겹으로 겹쳐서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잘라 줍니다. 꽃잎을 자를 때 가위는 그대로 두고 비단만 움직이며 잘라야 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비단만 움직여서. 그래야 곡선은 곱게 나오면서 가위 자국이 안 남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크기의 꽃잎을 여러 장 만들어요. 자, 다음은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힌 후, 마름질한 꽃잎에 대고 이렇게 살짝 눌러 주세요. 보셨나요? 녹인 밀랍을 찍어서 꽃잎에 입혀 주면 이렇게 부피감이 생기죠.

**꼼꼬미:** 방금 그거 다시 보여 주실 수 있어요?

**[C]** 물론이죠, 꼼꼬미님! 자, 다시 갑니다.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혀서 꽃잎 하나하나에, 이렇게, 누르기. 아시겠죠?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걸 계속하면 정말 지루하겠죠? (미리 준비해 둔 꽃잎들을 꺼내며) 짜잔! 그래서 꽃잎을 이만큼 미리 만들어 뒀지요! 이제 작은 꽃잎부터 큰 꽃잎 순서로 겹겹이 붙여 주면 완성! 다들 박수! 참고로 궁중 채화 전시회가 다음 주에 ○○시에서 열릴 예정이니 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은맘:** ○○시에 사는데, 전시회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어요. 아이랑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ㅎㅎㅎ

**[D]** 아, 전시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아은맘님 감사! 자,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혼자서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려니 미흡한 점이 많았겠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영롱이:** 저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ㅠ 언니 방송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 오늘부터 언니 팬 할래요. 사랑해요♥

**[E]** 와, 영롱이님께서 제 팬이 되어 주신다니 정말 힘이 납니다.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저도 사랑해요!

다음 시간에는 궁중 채화를 장식하는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 지킴이, 역사임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44. 위 방송에 반영된 기획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접속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하니, 꽃잎을 미리 준비해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해야겠군.
- ② 소규모 개인 방송으로 자원에 한계가 있으니, 제작진을 출연시켜 인두로 밀랍을 묻히는 과정을 함께해야겠군.
- ③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편집을 할 수 없으니, 마름질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군.
- ④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매체이니, 방송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해야겠군.
- ⑤ 방송 도중 접속한 사람은 이전 내용을 볼 수 없으니, 마무리 인사 전에 채화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야겠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A]~[E]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수용자는 방송 중 채팅을 통해 이어질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미 제시된 방송의 내용을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① [A]: '빛세종'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B]: '햇살가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생산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 ③ [C]: '꼼꼬미'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D]: '아은맘'은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진행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⑤ [E]: '영롱이'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② 37. ① 38. ⑤ 39. ③ 40. ② 41. ⑤ 42. ④ 43. ④ 44. ①  
45. ③

[35~36] 언어

[35~36]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의 개념 및 양상'

**지문해설** : 이 글은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작동되는지를 국어와 영어의 비교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1문단에서는 영어와 국어의 음운 체계 및 음절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2문단에서는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음운 규칙 역시 영어와 국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비음화를 통해 예시하고 있다. 끝으로, 3문단에서는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에 대한 이러한 차이가 말을 할 때뿐 아니라 말을 들을 때에도 작동됨을 설명하는데, 특히 영어를 듣는 과정에서 국어의 음절 구조에 부합하게 바꾸어 듣는다는 점과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들으면 국어에서 가장 유사한 음운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의 인식 및 작동 양상

35. 음운의 이해

**정답해설** : '밤만'을 듣고 '밥만'을 복원했다면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한 결과이겠지만, '밤만'으로 복원했다면 음운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첫째 문단의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을 통해 '몹 → [목]'의 자음군 단순화를 추론할 수 있다. ② 둘째 문단의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라는 설명을 통해 음운 'ㄹ'이 그 자체로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ㄹ'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쓰이는 뜻의 최소 단위가 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의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를 통해 영어 'spring'을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국어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작동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셋째 문단의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다.'를 통해 영어 'v'를 국어 'ㅂ'로 인식하는 양상을 추론할 수 있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 '앞일 → [암닐]'에서는 음절 말 평파열음화,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음절 말 평파열음화는 '앞'이라는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고, ㄴ 첨가와 비음화

는 ‘앞’과 ‘일’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 ‘넣고 → [너코]’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넣-’과 ‘-고’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 ‘굳이 → [구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굳-’과 ‘-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장미꽃 → [장미꼐]’에서는 음절 말 평파열음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음운 변동은 ‘장미’와 ‘꽃’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라는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한다. ㉣ ‘걱정 → [걱뽁]’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만, ‘걱정’은 단일어이므로 이러한 음운 변동이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37.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보습고저’에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이 쓰였다. 따라서 문법적 수단을 통해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舍利弗씩’에는 객체 높임의 조사 ‘씩’이 쓰였다. 따라서 문법적 수단을 통해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는 것이다. ③ 조사 ‘씩’과 객체 높임의 동사 ‘습다’는 둘 다 객체인 ‘世尊(세존)’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 ④ 조사 ‘께’는 ‘이모님’을 높이는 데 쓰이고, 동사 ‘모시다’는 ‘어머님’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 ⑤ ‘선생님’이 주체이고, ‘그 아이’가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의 동사 ‘여쭙다’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8. 형태소의 종류

정답해설 : ‘찾아냈다’는 ‘찾- + -아 + 내- + -었- + -다’로 형태소 분석이 되며, ‘찾-’과 ‘내-’는 ㉠에 속하고 ‘-아’, ‘-었-’, ‘-다’는 ㉡에 속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명사 ‘우리’와 부사 ‘드디어’는 ㉠에 속한다. ② ‘비’, ‘길’은 ㉡에 속하고, ‘를’, ‘을’은 ㉢에 속한다. ③ ‘맞다’의 어간 ‘맞-’은 ㉢에, ‘맞서다가’의 접두사 ‘맞-’은 ㉣에 속한다. ④ ‘바람’은 ㉡에 속하고, ‘에’는 ㉢에 속한다.

### 39. 피동 표현

정답해설 : ‘밝혀졌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 ‘밝히다’에 ‘-어지-’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입히다’는 동사 ‘입다’에 ‘-히-’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이때의 ‘-히-’는 피동 접사가 아니라 사동 접사이다. ② ‘건네받다’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이다. ④ 이 문장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아닐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다.'처럼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다. '존경받다'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이루다'는 타동사이므로 '-어지-'가 결합한 '이루어지다'는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40~43] 매체

40.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에서 '가입자 10만 명 돌파'는 기자의 발화 내용 중 '제도 실시 후 ~ 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를 요약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문형으로 표현된 '나도 가입해 볼까?'는 기자의 발화 내용을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 가입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보도의 주요 제재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부각하기 위해서 해당 글자를 다른 글자에 비해 더 크고 굵게 제시하였다. ③ ㉢에서는 '전 국민 누구나'와 같이 제도에 가입 가능한 대상과 누리집 주소를 추가로 제시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④ ㉣은 관계자의 발화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를)',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와 같이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은 뉴스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뉴스 방송이 끝난 이후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에 쓰인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에서는 '만큼'을 통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보조 용언 '있다'는 '화제가 되고 있는'에 쓰이기 때문에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함'에 더해 '포인트를 받음'도 가능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자'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남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감탄사'로,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니다. ④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

말 어미이다. '-겠-'이 추측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해당 문장에서는 추측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 42.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정답해설** :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보다는 더 많은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 제시 여부의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를 다시 채워' 쓰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② 학생 2는 '다회 용기 사용이나 전자 영수증 받기'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③ 학생 3은 '과도한 탄소 배출 때문에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보도 내용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았다. ⑤ 학생 5는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에 제시된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다회 용기 선택!',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는 다시 채워 쓰기!', '물건 살 때 전자 영수증 받기!'는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수용자인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는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 이외에 QR코드를 함께 제시하여 수용자가 좀 더 쉽게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나)는 돼지저금통과 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인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수용자로 삼는 (가)와 달리 (나)는 '◇◇고 친구들'로 수용자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나)에는 '◇◇고 등학교 환경 동아리'라는 생산자가 명시되어 있다.

[44~45] 매체

#### 44.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

**정답해설** : 진행자의 발화 중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 이만큼 미리 만들어 뒀지요!’를 통해서 접속자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기획 내용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숫자만큼 꽃잎을 만들어야 하지만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경우 접속자들이 지루함을 느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진행자의 발화 중 ‘혼자서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려니’를 통해서 제작진을 출연시켜 인두로 밀랍을 묻히는 과정을 함께해야겠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진행자의 발화에서 마름질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진행자의 발화에서 방송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진행자의 발화에서 마무리 인사 전에 채화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45. 수용자 특성

**정답해설** : [C]에서 ‘꿈꼬미’는 방송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을 다시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빛세종’은 ‘채화’ 중 ‘채’의 뜻을 질문하여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B]에서 ‘햇살가득’은 만들 꽃을 골라 달라는 진행자의 발화에 대해 ‘월계화’를 만들어 달라고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④ [D]에서 ‘아은맘’은 진행자가 ‘궁중 채화 전시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시회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어요’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⑤ [E]에서 ‘영롱이’는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 방송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접속 조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이다. 접속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며, 이때 나열된 단어나 구들이 하나의 명사구가 되어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

접속 조사에는 ‘와/과, (이)랑, (이)며, 하고’ 등이 있다. 이 중 ‘와/과, (이)랑, (이)며’는 ‘봄에 개나리와 철쭉꽃과 진달래가 핀다.’에서처럼 결합하는 체언의 음운 환경에 따라 바뀌어 나타난다. 즉,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면 ‘와, [A] 랑, 며’가 쓰이고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면 ‘과, 이랑, 이며’가 쓰인다. ‘(이)랑, 하고’는 체언이 나열될 때 마지막 체언에까지 결합할 수 있어서 ‘삼촌하고 이모하고 다 직장에 갔어요.’와 같이 쓰일 수 있다. 그런데 부사격 조사에도 ‘와/과’가 있기 때문에 접속 조사 ‘와/과’와 구분해야 한다. ‘나는 꽃과 나무를 사랑한다.’에서 접속 조사 ‘과’가 쓰인 ‘꽃과’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이와 달리 ‘나는 누나와 눈이 닮았다.’에서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 ‘누나와’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로, 생략할 수 없다.

중세 국어에서도 접속 조사는 현대 국어의 접속 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 접속 조사에는 ‘와/과, 하고, (이)며, (이)여’ 등이 있는데 ‘와/과’의 결합 양상은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ㄱ. 나모와 곳과 果實와는 [나무와 꽃과 과실은]

ㄴ처럼 중세 국어에서 ‘와’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고 ‘과’는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한다. ㄱ의 ‘果實와’에서처럼 ‘와/과’는 마지막 체언에까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마지막 체언과 결합한 ‘와/과’ 뒤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며, (이)여’는 ‘열거’의 방식으로, ‘하고’는 ‘첨가’의 방식으로 접속의 기능을 나타내었다.

35. [A]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시와 음악을 좋아한다.’에서 ‘시와 음악’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다.
  - ② ‘네가 벼루와 먹을 가져오너라.’에서 ‘벼루와’를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된다.
  - ③ ‘친구랑 나랑 함께 꽃밭을 만들었다.’에서 ‘랑’은 체언들을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④ ‘가방과 신발을 샀다.’에서 ‘과’는 부사격 조사로서 ‘가방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된다.
  - ⑤ ‘수박하고 참외하고 먹자.’와 같이 ‘하고’는 결합하는 체언의 끝 음절의 음운 환경이 달라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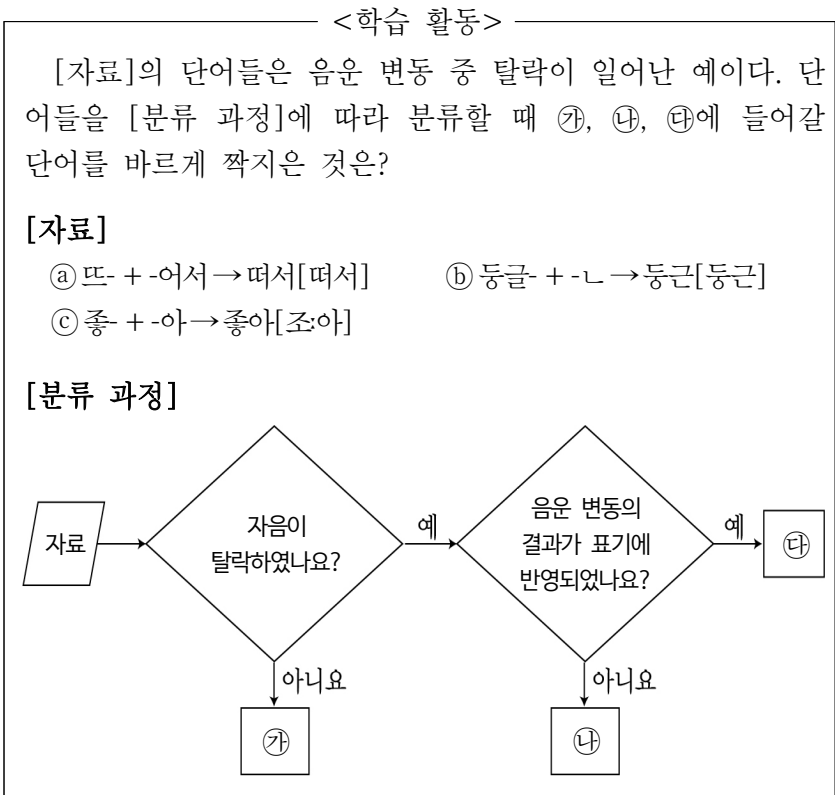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옷과 뵤와로 佛像을 꾸미스바도  
[옷과 베로 불상을 꾸미었어도]
- ㉡ 子息이며 좋이며 집안 사르물 다 眷屬이라 흐느니라  
[자식이며 좋으며 집안의 사람을 다 권속이라 하느니라]
- ㉢ 밤과 낮과 法을 니르시니  
[밤과 낮에 법을 이르시니]
- ㉣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도흐며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 ① ㉠에서 ‘옷과 뵤와’는 접속 조사에 의해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있군.
- ② ㉡에서 ‘이며’는 열거의 방식으로 ‘子息’과 ‘좋’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③ ㉢를 보니, 접속되는 마지막 체언에 ‘와/과’가 결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과 ㉣를 보니, ‘와/과’ 뒤에 격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와 ㉣를 보니,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은 ‘과’와,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은 ‘와’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   |   |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38.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탐구 과제]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이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으로 바뀌었을 때의 높임 표현, 지시 표현, 인용 조사 등의 변화 탐구하기

[탐구 자료]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그가 어제 나에게 “내일 서울에 갑니다.”라고 말했다.	⇒	그가 어제 나에게 오늘 서울에 간다고 말했다. ... ㉠
희수가 민주에게 “힘든 일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했다.	⇒	희수가 민주에게 힘든 일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 ㉡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이곳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말했다.	⇒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그곳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 ㉢

- ① ㉠: ‘오늘’을 보니, 직접 인용절의 시간 부사가 간접 인용절에서는 바뀌어 나타났군.
- ② ㉠: ‘간다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에서 ‘그’가 ‘나’를 고려해 사용한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절에서는 바뀌어 나타나는군.
- ③ ㉡: ‘맡기라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이 명령문일 때 간접 인용절의 인용 조사는 ‘고’가 사용되었군.
- ④ ㉢: ‘그곳이’를 보니, 직접 인용절의 발화자인 ‘친구’의 관점으로 지시 표현이 바뀌어 나타나는군.
- ⑤ ㉢: ‘아름답다고’를 보니, 직접 인용절의 감탄형 종결 어미는 간접 인용절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로 바뀌어 나타났군.

39.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는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구성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지혜: 쉬고 있는 걸 보니 안무를 다 ㉠ 짚나 본데?

세희: 아니야, 잠시 쉬고 있어. 춤이 어려워서 친구들이 공연 중에 동작을 ㉡ 잇을까 싶어 걱정이야.

지혜: 그렇구나. 동작은 너무 멋있던데?

세희: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구성까지 어려우니까 몇몇 친구들은 그만 ㉢ 포기해 버리더라고.

지혜: 그럼 내가 내일 좀 ㉣ 고쳐 줄까?

세희: 괜찮아. 고맙지만, 오늘까지 ㉤ 마쳐야 해.

학생: [A]

- ① ㉠에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에 대해 추측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 ② ㉡에는 화자가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③ ㉢에는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화자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 ④ ㉣에는 화자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베푸는 심리적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⑤ ㉤에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0~43] (가)는 도서관에서 주관한 실시간 인터넷 강연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다매체 시대, 듣기는 또 하나의 독서’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할 △△학회의 이□□입니다. 강연에 앞서 독서 실태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하나 해 볼게요. 지금 보내 드리는 ㉠ 링크를 누르시면 답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 화면을 가리키며) 자, 결과가 나왔네요. 한 달 평균 3시간 이내로 독서한다고 답하신 분들이 많군요.

최근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은 ㉡ 지난 10년 사이에 약 20%나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채팅창의 답변을 확인하며)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정보를 얻는 전통적 방식인 종이책은 읽는 데에 오랜 시간과 강한 몰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을 읽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 독서가 정보 습득의 중요한 수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휴대성 및 편의성을 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에만 활용하지 말고, 독서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최근 발표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일상 속의 독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한 독서 방식으로 자리 잡기도 했죠.

아, 방금 채팅창에 ‘너무 바빠요’라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성인의 독서 저해 요인 중 ‘시간이 없어서’가 두 번째로 높아요. ㉣ 그래서 제가 기존의 종이책이나 전자책 이외에 다른 독서 방식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디오북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우리는 주로 활자를 보고 읽으면서 독서를 하지만, 이는 소리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신경과학자들은 단어를 읽거나 듣거나 상관없이 ㉤ 뇌의 인지와 감정 영역이 모두 유사하게 자극된다고 말합니다.

오디오북은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한 독서 방식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책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자투리 시간도 독서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앱에서도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출근길이나 산책 중에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독서가 가능한 것이죠. 휴식 시간이나 잠자리에서 편안히 이야기를 즐길 수도 있어요. 또한 오디오북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독서 동기를 높여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종이책과는 다르게 훼손 위험이 낮고 손쉽게 저장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기 쉽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장시간 청취 시 청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라든지, 불법 복제로 인한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

그룹채팅 5

[ ‘동욱’ 님이 ‘다정’, ‘수예’, ‘해찬’, ‘형준’ 님을 초대하였습니다. ]

애들아, 이번에 들은 인터넷 강연 내용을 학술제 때 발표하기로 했잖아. 만나기 어려우니 우리 발표 자료에 대한 회의는 여기서 할까?

다정: 맞아, 우리 너무 바빠. ㅎㅎ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수예** 지난 번 회의에서 오디오북을 소개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도와주자고 했었지? 일단 종이책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면 어떨까?

**해찬** 독서율이 감소한 것은 다 아니까 그보다는 [슬라이드 1]에 독서 저해 요인을 그래프로 제시하여 한눈에 보여 주자.

**수예** 알겠어. 그런데 강연자님은 성인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셨는데 발표를 들을 대상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니 학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제시하면 어떨까? 내가 찾은 자료인데 한번 볼래?

**수예** 사진 파일 전송: 독서 저해 요인 분석 그래프(학생).jpg

**동욱** 와, 훌륭하네!^^ 그럼 [슬라이드 2]에서는 스마트폰이 독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전달하자. 이런 내용을 문구로 만들고, 효과음도 넣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때?

**형준** 그러자. 그리고 [슬라이드 3]에는 오디오북의 장점을 제시하자. 화면을 분할해서 장점을 항목화하여 표현해 볼까?

**다정** 멋진 생각이야. 그런데 오디오북이 독서 동기를 유발한다는 강연 내용은 정확한 근거를 보여 줘야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 오디오북 독자의 39%가 종이책이나 전자책 독서량도 늘었다는 자료를 찾았거든.

**해찬**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슬라이드 4]에는 강연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보여 주자. 화면 아래에는 자막을 넣어 강연 내용도 정리해 주고.

**형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5]에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가 담긴 도서를 제공하는 오디오북 플랫폼을 소개할까? 이전 내가 골라서 정리해 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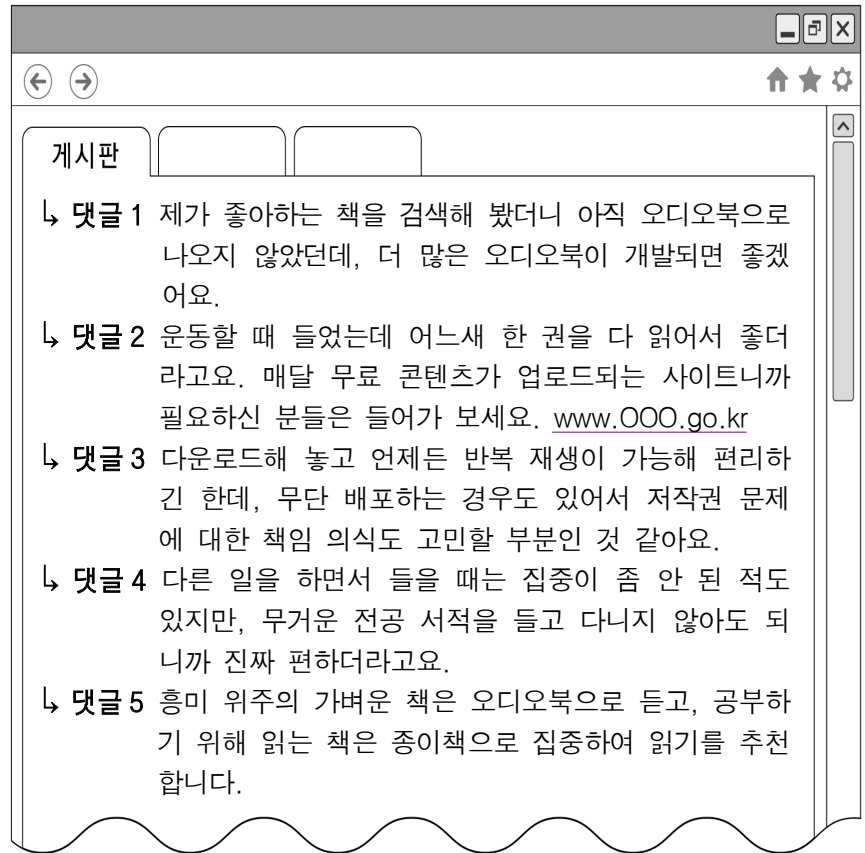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정보 생산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용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수용자가 또 다른 정보 생산자가 되어 정보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특수 문자와 한글의 자음자로 된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 생산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 짓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연결 어미 '-면'을 활용하여 앞 절의 내용이 '답'을 할 수 있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보조사 '나'를 활용하여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의 감소 정도가 크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관용 표현 '두말할 나위가 없다'를 활용하여 독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접속 부사 '그래서'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⑤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뇌의 인지와 감정 영역'이 행위의 주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42. 다음은 오디오북 앱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가)를 들은 후 도서관 게시판에 단 댓글이다. 댓글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1은 오디오북 앱을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을 언급하며 더 많은 오디오북이 제작되기를 바라고 있군.
- ② 댓글 2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내용에 공감하며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댓글 3은 오디오북이 지닌 편의성이 초래할 수도 있는 윤리적 문제를 떠올리고 있군.
- ④ 댓글 4는 오디오북이 지닌 휴대성이 일상 속 독서 접근 기회를 높인다는 강연자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⑤ 댓글 5는 독서의 목적에 따라 오디오북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군.

43.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수예'는 발표의 목적과 청중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1]에 강연을 통해 얻은 정보와 함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
- ② '동욱'은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슬라이드 2]에서 전달 내용을 문구로 제시할 때 음향 효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 ③ '다정'은 발표 자료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3]에 오디오북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다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④ '해찬'은 발표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슬라이드 4]를 문자와 영상을 결합한 복합 양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⑤ '형준'은 발표 자료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5]를 자신이 선별한 정보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44~45] (가)는 OO고등학교 학생회 블로그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회가 제작한 앱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을 담다!**  
 ○○고등학교 학생회 2022. 7. 00. 08:3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회에서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을 담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학생회는 우리 학교 숲의 사진과 텃밭의 탐구 자료를 정리하여 '생태 환경 자료집'을 e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숲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100여 가지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숲을 거닐면서 꽃과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찍어 놓으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그 사진들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학생회에서도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모아 숲의 세계절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사진을 모아 이와 같은 영상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 사진을 올리려면 여기를 클릭!]**

우리 학교에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텃밭도 있습니다. 텃밭에는 10여 가지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 식물들에 대해 탐구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번 자료집에는 텃밭의 식물들을 탐구한 자료들도 함께 실고자 합니다. 과학 동아리에서 작성한 식물 관찰 일지를 첨부하니 이 예시를 참고하여 자료를 작성해서 업로드해 주세요.

식물 관찰 일지.pdf

숲 사진과 텃밭 탐구 자료를 많이 업로드해 주실수록 자료집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텃밭 자료를 올리려면 여기를 클릭!]**

여러분! 이 프로젝트에 공감하신다면 '공감하기'를 눌러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댓글 52 공감하기 102

김○○: 블로그 자료들을 모은 우리 학교 숲과 텃밭에 대한 기록을 앱으로 만들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 학생회장: 좋은 생각이네요. 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우리 학교 프로젝트**

- 학교 숲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학교 텃밭
  - 1학년
  - 2학년
  - 3학년
- 묻고 답하기
  - 들어가기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내용에 반응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 ②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한 파일을 첨부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③ 학교 숲 사진으로 만든 동영상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자료를 올리려는 학생들이 해당 게시판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⑤ '공감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45. <보기>는 학생회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앱이다. 회의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OO고등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간의 기록!**

- 학교 숲 '사진'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학교 텃밭 '탐구 자료'
  - 꽃 식물
  - 줄기잎 식물
  - 뿌리잎 식물
- 자료 더하기
  - 숲 사진
  - 식물 관찰 일지

- ① 프로젝트의 제목을 반영하여 앱의 제목을 바꾸고, 학교 이름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② 항목별로 모은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여 알려 주고, 구분되어 있지 않던 항목도 '학교 숲'과 '학교 텃밭' 항목으로 나누자.
- ③ '학교 텃밭' 항목의 메뉴를 나누는 기준을 학년에서 식물의 종류로 바꾸어 탐구 자료를 식물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
- ④ '학교 숲' 항목은 사진을 연도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계절별로 확인할 수 있게 메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⑤ '묻고 답하기' 항목을 '자료 더하기' 항목으로 바꾸어 숲 사진과 식물 관찰 일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④	36	③	37	①	38	④	39	②
40	⑤	41	⑤	42	④	43	③	44	②
45	②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접속 조사 파악하기

‘가방과 신발을 샀다.’에서 ‘과’는 ‘가방과 신발’을 명사구로 만드는 접속 조사로, ‘가방과’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① ‘나는 시와 음악을 좋아한다.’에서 ‘시와 음악’은 접속 조사 ‘와’에 의해 하나의 명사구가 되어 동일한 문장 성분, 즉 목적어로 기능한다. ② ‘네가 베투와 떡을 가져오너라.’에서 접속 조사와 결합한 ‘베투와’를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된다. ③ ‘친구랑 나랑 함께 꽃밭을 만들었다.’에서 ‘랑’은 체언 ‘친구’와 ‘나’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⑤ ‘수박하고 참외하고 먹자.’에서 ‘하고’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수박’,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참외’와 결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접속 조사 파악하기

㉠의 접속되는 마지막 체언인 ‘낮’은 ‘과’와 결합하였다.

① ㉠의 체언 ‘웃’, ‘뵈’는 접속 조사 ‘와/과’에 의해 이어져서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었다. ② ㉡의 ‘子息’, ‘종’은 접속 조사 ‘이며’에 의해 이어졌는데 이때 ‘이며’는 열거의 방식으로 쓰였다. ④ ㉢의 ‘뵈와로’는 체언과 접속 조사가 결합한 ‘뵈와’에 격조사 ‘로’가 결합하였으며, ㉠의 ‘니왜’는 체언과 접속 조사가 결합한 ‘니와’에 격조사 ‘이’가 결합하였다. ⑤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인 ‘밤’, ‘낮’, ‘엄’은 ‘과’와 결합하였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인 ‘혀’, ‘니’, 그리고 ‘르’로 끝나는 체언인 ‘입시술’은 ‘와’와 결합하였다.

37. [출제의도] 음운의 탈락 파악하기

‘떠서’는 용언의 어간 말음 ‘-’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었으며, 이는 모음 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좋아[조:아]’는 용언의 어간 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었으며, 이는 자음 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둥근’은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이 ‘-’앞에서 탈락되었으며, 이는 자음 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38. [출제의도] 인용절 파악하기

‘이곳이’는 직접 인용절의 발화자인 친구의 입장에서 기술된 지시 표현이고,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이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으로 바뀔 경우 ‘이곳이’는 ‘나’의 입장에서 기술된 ‘그 곳이’로 바뀌어 나타난다.

39. [출제의도] 보조 용언이 드러내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에서 ‘잇을까 싶다’는 보조적 연결 어미 ‘-을까’와 보조 용언 ‘싶다’의 구성으로 쓰여 친구들이 동작을 잇을까 걱정하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가)는 인터넷 강연 중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나)는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한 대화를 통해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와 (나) 모두 정보 생산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용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수용자

가 또 다른 정보 생산자가 되어 정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특수 문자(^ ^)와 한글의 자음자로 된 기호(ㅎㅎ)를 사용하여 정보 생산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나)이다. ④ (나)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이 5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표현 파악하기

(가)의 ‘강연자’는 피동 표현 ‘-되다’를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자극하다’의 대상인 ‘뇌’의 인지와 감정 영역’에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다.

① ‘링크를 누르시면’의 종속적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앞 절의 내용이 ‘답’을 할 수 있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나’는 수량이 많거나 정도를 넘거나 한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지난 10년 사이 성인의 독서율 감소 정도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접속 부사 ‘그래서’를 활용하여 뒤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에 이어지는 내용임을 드러냄으로써 강연 내용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댓글 4는 ‘전공 서적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 다며 오디오북의 장점인 휴대성을 언급하며 ‘진짜 편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독서 접근 기회가 높아진다는 강연 내용에 공감했다고 볼 수 있다.

① 댓글 1은 현재 오디오북으로 제공되고 있는 책의 수가 적어서 아쉬웠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 댓글 2는 운동할 때 오디오북을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독서가 가능하다는 강연 내용에 공감하며, 무료 오디오북이 제공되는 사이트를 알려 주고 있다. ③ 댓글 3은 오디오북이 지닌 편의성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⑤ 댓글 5는 흥미 위주의 책을 읽는 경우와 공부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로 독서의 목적을 나누어, 오디오북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 구성의 적절성 파악하기

‘다정’은 오디오북이 독서 동기를 유발한다는 강연 내용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들어 설득력을 높이자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오디오북 독자의 39%가 종이책이나 전자책 독서량도 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발표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발표 자료의 공정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제시하고자 하는 근거 자료가 오디오북의 장단점을 다른 자료도 아니다.

① ‘수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도와주자’는 발표 목적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는 청중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1]에 성인의 독서 저해 요인 그래프 외에 학생의 독서 저해 요인 분석 그래프를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② ‘동욱’은 [슬라이드 2]에 스마트폰이 독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중심 문구를 효과음과 함께 제시하여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자 한다. ④ ‘해찬’은 [슬라이드 4]를 영상과 문자를 활용한 복합적 양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⑤ ‘형준’은 발표 자료의 청중인 ‘우리 학교 학생들’, 즉 청소년에게 유의한 정보가 담긴 오디오북 플랫폼을 찾아 정리하여 [슬라이드 5]를 구성하려 한다. 이는 발표 자료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며, 많은 정보들 중 유용한 것을 선별하려는 것이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가)의 블로그에 첨부한 파일은 과학 동아리에서 작성한 관찰 일지를 예시 자료로 제공한 것이지,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한 것은 아니다. 또한 추가 자료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인터넷 매체 특성상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댓글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 공감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학교 숲의 사진으로 만든 동영상에 제시되어 실제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④ 학교 숲 사진과 텃밭 자료를 올리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제시되어 있다. ⑤ ‘이 프로젝트에 공감하신다면 ‘공감하기’를 눌러 주시고’에서 ‘공감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앱의 구성 요소를 수정할 때, (나)에서는 ‘학교 숲’과 ‘학교 텃밭’으로 항목을 나누고 각각 연도와 학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보기>에서는 ‘학교 숲 사진’과 ‘학교 텃밭 탐구 자료’로 항목을 나누고, 각각 계절과 식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수정하기 전인 (나)에서도 ‘학교 숲’과 ‘학교 텃밭’ 항목은 구분되어 있었다.

① (나)의 ‘우리 학교 프로젝트’ 앱의 제목은 수정 후, ‘우리 학교 숲과 텃밭의 365일을 담다!’라는 프로젝트 제목을 활용하고 ‘○○고등학교’라는 학교명을 기재하여 앱 제목을 변경하였다. ③ (나)의 학년별로 나눈 ‘학교 텃밭’ 항목의 메뉴는 수정 후 식물의 종류로, 그 기준이 바뀌었다. ④ (나)의 연도별로 구분한 ‘학교 숲’ 항목은 수정 후, 계절별로 메뉴를 구성하였다. ⑤ (나)의 ‘묻고 답하기’ 항목은 ‘자료 더하기’ 항목으로 바꾸어 자료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와 차례대로 결합하여 ‘손잡다’와 같은 합성 동사나 ‘쓸모없다’와 같은 합성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합성 동사와 합성 형용사를 묶어 합성 용언이라고 한다. 합성 용언은 크게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들이 맺는 문법적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쓸 만한 가치가 없다.’를 뜻하는 ㉠ ‘쓸모없다’는 명사 ‘쓸모’와 형용사 ‘없다’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주고, ‘손을 마주 잡다.’를 뜻하는 ㉡ ‘손잡다’는 명사 ‘손’과 동사 ‘잡다’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거리로 하다.’를 뜻하는 ㉢ ‘자랑삼다’는 명사 ‘자랑’과 동사 ‘삼다’가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한편 의미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가령 ‘쓸모없다’는 구성 요소인 ‘쓸모’와 ‘없다’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주름 잡다’는 구성 요소인 ‘주름’과 ‘잡다’의 의미를 벗어나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이다. ‘주름잡다’의 이와 같은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롭게 획득되었다는 사실은, ‘나는 바지에 주름 잡는 일이 너무 어렵다.’의 ‘주름 잡는’의 의미를 고려하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언 중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불타다’가 ‘나는 지금 학구열에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의욕이나 정열 따위가 끓어오르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는 ‘학구열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은 ‘불타다’가 ‘장작이 지금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해진다.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시장에서 책가방을 값싸게 샀다.’의 ‘값싸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② ‘나는 눈부신 태양 아래에 서 있었다.’의 ‘눈부신’은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③ ‘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뒤돌아 앉았다.’의 ‘뒤돌아’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④ ‘언니는 밤새워 숙제를 다 마무리했다.’의 ‘밤새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⑤ ‘큰형은 앞서서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의 ‘앞서서’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그는 학문에 대한 깨달음에 ㉠ 목말라 있다.
- 그는 이 과자를 간식으로 ㉡ 점찍어 두었다.
- 그녀는 요즘 야식과 ㉢ 담쌓고 지내고 있다.
- 그녀는 노래 실력이 아직 ㉠ 녹슬지 않았다.
- 그녀는 최신 이론에 마침내 ㉢ 눈뜨게 됐다.

- ①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②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③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④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⑤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37.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어진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제나 높임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선어말 어미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머무시는 동안 ㉠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 이 부분에서 물이 ㉡ 끓을 가능성이 높다.
- ㉢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 주세요.
-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싹 ㉠ 가셨구나.
- 항구에 ㉢ 다다른 배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다.

- ①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 선어말 어미 없이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 선어말 어미 세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38.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의 부정에는 ‘안’이나 ‘-지 않다’를 사용하는 ‘의지 부정’과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능력 부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이나 ‘-지 않다’가 사용된 부정문이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단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안’이나 ‘-지 않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형용사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에는 주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안’이나 ‘-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또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고 주어가 유정물이더라도 ‘나는 깜빡 잊고 약을 안 먹었다.’에서와 같이 ‘안’이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 ① [ ㉠: 옛날엔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 주문한 옷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 ② [ ㉠: 이 문제집은 별로 어렵지 않다.  
㉡: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 ③ [ ㉠: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다.  
㉡: 동생이 오늘 우산을 안 가져갔어.
- ④ [ ㉠: 내 얘기에 고모는 놀라지 않았다.  
㉡: 이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 ⑤ [ ㉠: 밤바다가 그리 고요하지는 않네.  
㉡: 아주 오래간만에 비가 안 온다.

39.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학생:** 선생님, 표준 발음법 제18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조항에서 ‘ㄱ, ㄷ, ㅂ’ 옆의 괄호 안에 다른 받침들이 포함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ㅓ, ㅕ, ㅖ, ㅘ))’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받침이 ‘ㄱ, ㄷ, ㅂ’이 아니더라도, 음운 변동의 결과로 그 발음이 [ㄱ, ㄷ, ㅂ]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학생:** 아, 그렇다면 [A]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거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밖만[방만]’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② ‘폭넓다[퐁널따]’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③ ‘값만[감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④ ‘겉늬다[건늬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⑤ ‘호박잎[호방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40~42] (가)는 학습 활동이고, (나)는 학생이 (가)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 전자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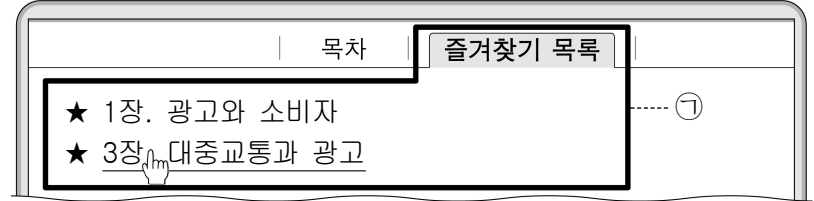
(가)

[학습 활동]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구청 관계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광고 방안을 발표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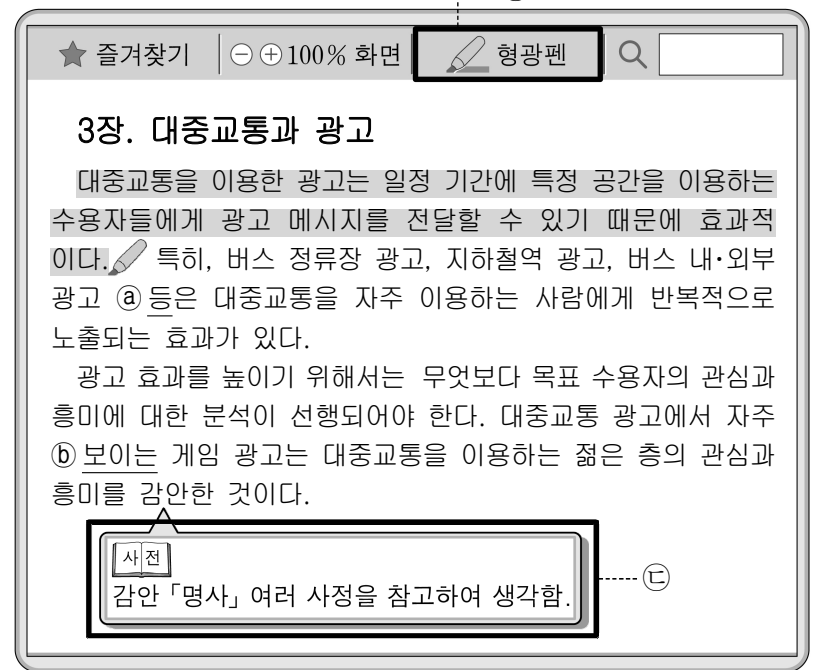
○○구청에서 ‘청소년 문화 한마당’을 기획하면서, ○○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중교통 광고의 효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하여 광고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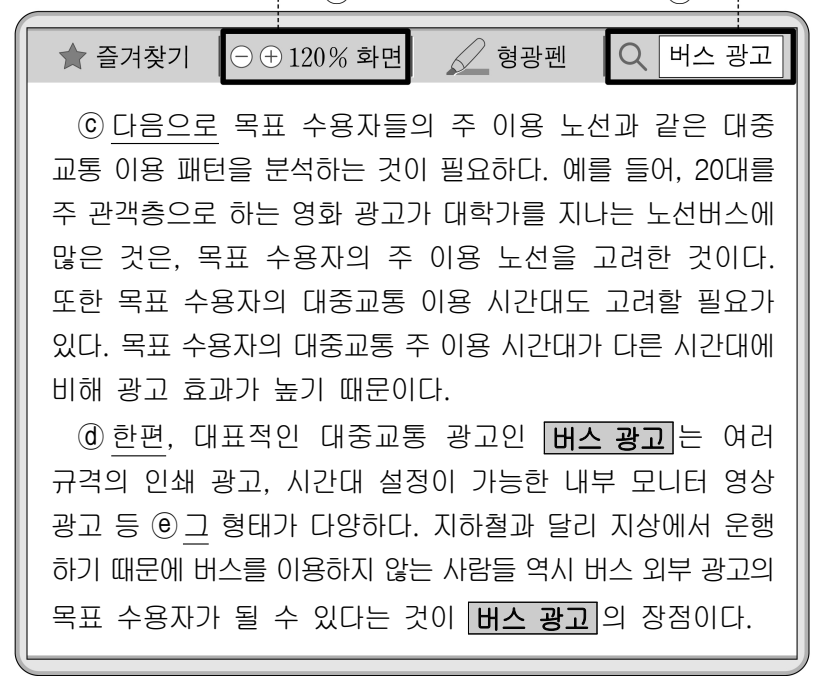
[화면 1]



[화면 2]



[화면 3]



40. <보기>는 (나)의 전자책을 활용한 학생의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자책은 중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종이 책과 비슷했어. 하지만 다시 봐야 할 내용을 선택해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거나 어구를 검색해 원하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종이 책과 달랐어. 책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본 결과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내용을 빠르게 이해했어. 또 화면 배율을 조정해 글자 크기를 조절하니 읽기에 편했어.

- ① ㉠에 1, 3장이 포함된 것은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 ② ㉡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 강조 표시가 된 것은 학생이 해당 문장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 ③ ㉢의 '감안'에 대한 사전 찾기 결과는 [화면 2]에서 본문과 함께 제시되어 학생의 글 읽기에 도움을 주었군.
- ④ ㉣을 통해 [화면 3]의 글자 크기가 [화면 2]보다 커진 것은 학생의 읽기 편의성을 높여 주었군.
- ⑤ ㉤의 결과가 [화면 3]에 표시된 것은 학생이 '버스 광고'를 쉽게 찾아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군.

41. 다음은 학생이 (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메모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메모 1:**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광고에서 강조 하면 효과적이겠다.

**메모 2:**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 하고, ○○구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10번이나 12번 버스에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

**메모 3:**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 버스 내부의 모니터 영상 광고를 이용하고, 도보 통학 학생들 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버스 외부의 옆면과 뒷면에도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

- ① '메모 1'에서, 광고에서 부각할 내용을 선정한 것은 (나)에 제시된 목표 수용자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할 요소를 고려한 것이겠군.
- ② '메모 2'에서,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은 (나)에 제시된 반복 노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③ '메모 2'에서, 버스 노선 중에서 특정 노선을 선택한 것은 (나)에 제시된 영화 광고의 예처럼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④ '메모 3'에서, 광고 게시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는 광고 형태를 제안하려는 것은 (나)에 제시된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메모 3'에서, 버스 옆면과 뒷면 광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나)에 제시된 버스 외부 광고의 장점을 고려한 것이겠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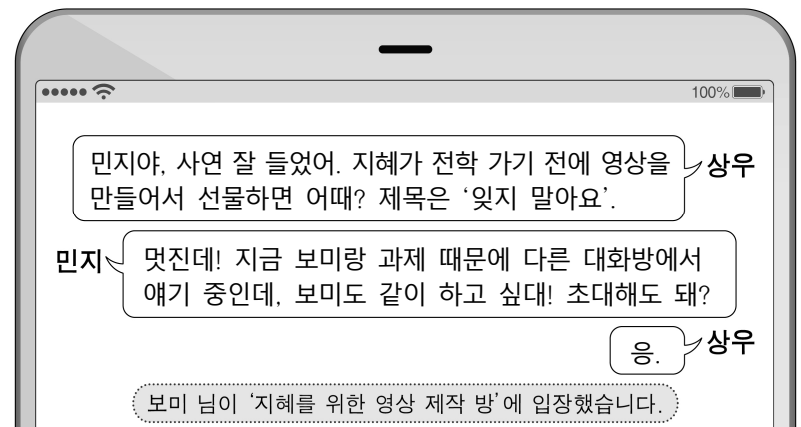
- ① ㉠: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의 종류가 여럿임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② ㉡: 젊은 층의 게임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나타 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③ ㉢: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더 존재 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④ ㉣: 목표 수용자 분석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⑤ ㉤: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대신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43~45] (가)는 교내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들은 학생 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방송을 듣고 계신 ○○고 여러분, 매주 수요일 마지막 순서는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이지요. 어제까지 많은 사연이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잔잔한 배경 음악) "3학년 1반 이민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 운동장에서 다쳤을 때 우리 반 지혜가 응급 처치를 해 줬어요.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곧 전학을 가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의 노래 <다시 만날 우리들>을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신청곡 들려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나)



우리 셋이 계속 얘기 나눠야 하니까 대화방 목록에서 찾기 쉽게 방 이름을 붙였어. 보미야, 어서 와. 상우

보미 응. ^^ ㉠ 민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 상우야, 어떤 장면 찍을 거야?

지혜가 학교에 얽힌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 학교의 여러 공간을 담으면 좋겠어. 민지야, 네가 출연하면 어때? 상우

민지  (㉡)

그럼 첫 장면으로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걸어가는 네 모습을 찍어서 찍을게.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 상우

민지 알겠어.

그 다음에 교실로 올라가서 지혜가 즐겨 보던 운동장을 찍자. 지혜가 5층에서 운동장 바라보는 걸 좋아했거든. 상우

보미 그럼 운동장에 ♡를 크게 그리고, 민지가 사연으로 신청했던 노래의 제목을 그 안에 적어 놓자.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

오, 그렇게 찍자. 상우

민지 ㉢ 아까 학교에 얽힌 추억을 지혜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운동장에서는 지혜가 날 도와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혜한테 얘기하듯이 말하면 되겠지?

좋아. 마지막에 우리가 지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장면을 넣자. 영상 제목과 어울리게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말할까? 상우

보미 그래, 우리가 세 글자씩 말하고, 화면에는 그 말이 한 문장으로 보이도록 하면 어때? 자막은 내가 넣을게.

응. 근데 민지야, 생각해 보니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네가 운동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빼고 찍자. 교문과 운동장에서 각각 찍고 편집해서 이어 붙이자. 상우

민지 알겠어. ㉣ 대화 내용을 다시 보니까 장면 구상이나 각자 역할은 얘기했는데 촬영 날짜는 안 정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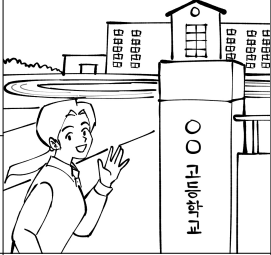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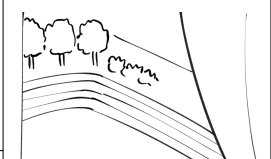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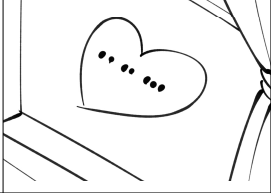

㉤ 그럼 아래 투표함에 날짜를 몇 개 올릴 테니까 각자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줘. 상우

투표 제목: 촬영 날짜 선택

43. (가), (나)에 드러나 있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대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온라인 대화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음성 언어에 음향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고 있다.

44. ㉠~㉤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새롭게 대화에 참여한 '보미'는 공유된 맥락을 기반으로 '상우'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② ㉡: 동의의 뜻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상우'의 제안을 수락하고 있다.
  - ③ ㉢: '상우'의 이전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영상 제작에 관한 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④ ㉣: 진행된 대화 내용을 점검하여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⑤ ㉤: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촬영 날짜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①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 지혜가 여러 공간에 얽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연출해야겠어.	
② 학교 공간을 촬영할 때, 민지가 지혜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드러내야겠어.	
③ 지혜가 바라보던 운동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교실에서 촬영해야겠어.	
④ 운동장에 그린 하트 모양의 그림에 '다시 만날 우리들'이라는 글자가 적힌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겠어.	
⑤ 우리가 다 같이 등장해서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나눠서 말한 내용이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게 자막을 삽입해야겠어.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③ 37. ④ 38. ⑤ 39. ④ 40. ⑤ 41. ② 42. ② 43. ① 44. ③  
45. ①

[35~36] 언어

[35~36] 합성 용언의 특성

지문해설 : 이 글은 ‘명사+동사’, 명사 + 형용사’로 구성된 합성 용언의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 따른 특성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구성 요소 간의 문법적 관계에 따라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 ‘부사어-서술어’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적 측면에서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합성 용언과 본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합성 용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언 중에는 ‘나는 학구열에 불타다’의 ‘불타다’와 같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제]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 따른 합성 용언의 분류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뒤돌아’는 ‘뒤로 돌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값싸게’는 ‘값이 싸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② ‘눈부신’은 ‘눈이 부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④ ‘밤새워’는 ‘밤을 새우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⑤ ‘앞서서’는 ‘앞에 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36.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의 ‘담쌓다’는 ‘담을 쌓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관계나 인연을 끊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야식과’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목말라’는 ‘목이 마르다.(물 따위가 몹시 먹고 싶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이다. ② ㉢의 ‘점찍어’는 ‘점을 찍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어떻게 될 것 이라고 또는 어느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간식으로’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④ ㉤의 ‘녹슬지’는 ‘녹이 슬다.(쇠붙이가 산

화하여 빛이 변하다.)’라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고 버려두어 낡거나 무디어지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그녀는 노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가 성립하는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㉔의 ‘눈뜨게’는 ‘눈을 뜨다.(감았던 눈을 벌리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잘 알지 못했던 이치나 원리 따위를 깨달아 알게 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최신 이론에’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37. 용언

**정답해설** : ㉔의 ‘(갈증이) 가셨겠구나’는 ‘가시- + -었- + -겠- + -구나’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었-’, ‘-겠-’은 선어말 어미이고 ‘-구나’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㉔의 ‘즐거우셨길’은 ‘즐겁- + -(으)시- + -었- + -기 + ㄹ’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으)시-’, ‘-었-’은 선어말 어미이고 ‘-기’는 전성 어미이다. 이때의 ‘ㄹ’은 목적격 조사이다. ② ㉔의 ‘됐을’은 ‘새- + -었- + -을’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었-’은 선어말 어미이고 ‘-을’은 전성 어미이다. ③ ㉔의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번거롭- + -(으)시- + -겠- + -지만’으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으)시-’, ‘-겠-’은 선어말 어미이고 ‘-지만’은 연결 어미이다. ⑤ ㉔의 ‘다다른’은 ‘다다르- + -ㄴ’으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ㄴ’은 전성 어미이다. ㉔에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 38. 부정 표현

**정답해설** : ㉔의 ‘고요하지 않다’는 형용사 ‘고요하다’가 서술어로 쓰이며 ‘-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㉔의 ‘비가 안 오다’는 부정물 ‘비가’ 주어로, 동사 ‘오다’가 서술어로 쓰이며 ‘안’이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㉔, ㉔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은 동사 ‘발달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㉔은 부정물 ‘옷’이 주어로, 동사 ‘도착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② ㉔은 형용사 ‘어렵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㉔은 유정물 ‘저’가 주어로, 동사 ‘잇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③ ㉔은 형용사 ‘궁금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㉔은 유정물 ‘동생’이 주어로, 동사 ‘가져가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④ ㉔은 동사 ‘놀라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㉔은 부정물 ‘전기’가 주어로, 동사 ‘통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 39.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겉늬다[건늬다]’에서는 ‘겉’의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ㄷ’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ㄴ’으로 발음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밖만[방만]’에서는 ‘밖’의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ㄱ’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② ‘폭넓다[퐁널따]’에서는 ‘폭’의 ‘ㄱ’이 비음화 현상의 영향으로 ‘ㅇ’으로 발음된다. ③ ‘값만[감만]’에서는 ‘값’의 ‘ㅍ’이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을 받아 ‘ㅂ’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⑤ ‘호박잎[호방닙]’에서는 ‘호박 + 잎’의 과정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이 ‘ㄴ’의 영향으로 ‘호박’의 ‘ㄱ’에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40~42] 매체

#### 40. 뉴 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화면 3]에는 ‘버스 광고’라는 어구를 검색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보의 내용 중 검색 어구가 버스 광고와 같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으며, 버스 광고의 다양한 형태와 버스 광고의 장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검색의 결과가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학생이 자신이 다시 보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해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즐거찾기 목록’에 있는 1장과 3장은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중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는 기능이다. [화면 2]에서 학생은 ㉡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였다. ③ ㉢은 책의 내용 중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용한 사전 찾기 결과이다. 사전 찾기 결과가 본문과 한 화면에 제시되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④ ㉣은 화면 배율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화면 2]에서는 ‘100% 화면’이 [화면 3]에서는 ‘120%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글자의 크기가 커져서 읽기 편의성을 높여 주고 있다.

#### 41. 매체 자료의 생산

정답해설 : (나)의 [화면 2]에서는 버스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는 모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메모 2’에서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 반복 노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메모 1’에서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하려고 한 것은 [화면 2]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메모 2’에서 ○○구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10번이나 12번 버스를 선택한 것은 [화면 3]의 ‘목표 수용자들의 주 이용 노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메모 3’에서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 버스 내부의 모니터 영상 광고를 이용하겠다고 한 것은 [화면 3]의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메모 3’에서 도보 통학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버스 외부의 옆면과 뒷면에도 광고를 게시하려는 것은 [화면 3]의 ‘지하철과 달리 지상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버스 외부 광고의 목표 수용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⑥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사이다. 이는 행동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대상인 ‘게임 광고’를 부각하고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짧은 층의 게임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 앞에 열거된 내용을 고려할 때, ㉠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의 종류가 여럿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의 뒤에서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추가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더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의 앞에는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에 대한 설명이, ㉢의 뒤에는 버스 광고의 다양한 형태와 장점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가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그’는 지시 대명사로서 앞에 나온 ‘버스 광고’를 가리킨다. 따라서 ㉣가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대신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43~45] 매체

#### 4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가)의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라는 말을 고려할 때, (가)에서는 교내 방송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불특정 다수’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많은 수’를 뜻한다. (나)에서는 ‘민지’, ‘상우’, ‘보미’라는 특정된 개인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 ‘민지’의 발화 중 ‘지금 보미랑 과제 때문에 다른 대화방에서 얘기 중인데’라는 내용을 통해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대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온라인 대화 공간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진행자는 ‘잔잔한 배경 음악’과 함께 청취자의 사연을 읽어 주고 있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음성 언어에 음향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와 (나)에서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44.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정답해설 :** ㉠에서 ‘아까 학교에 얽힌 추억을 지혜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는 ‘상우’의 이전 발화 중 ‘지혜가 학교에 얽힌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를 재진술한 것이다. ‘민지’는 이를 바탕으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라는 ‘상우’의 의견에 대해 ‘운동장에서는 지혜가 날 도와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혜에게 얘기하듯이 말하면 되겠지?’와 같이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우’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민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라는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새롭게 대화에 참여한 ‘보미’는 ‘민지’를 통해 대화 맥락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은 두 팔을 들어 큰 원을 만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동의의 뜻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이다. ‘민지’는 ㉢을 활용하여 ‘민지야, 네가 출연하면 어때?’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④ ㉣에서 ‘대화 내용을 다시 보니까 장면 구상이나 각자 역할은 얘기했는데’는 진행된 대화 내용을 점검한 것이고, ‘촬영 날짜는 안 정했네’는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⑤ ㉤에서는 ‘상우’가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들에게 촬영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45. 소통 목적 고려

**정답해설 :** (나)에서는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 교문과 운동장에서 각각 찍고 편집해서 이어 붙이자.’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민지’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는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민지’가 동의하고 있다. ②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상우’의 발화 중 ‘그 다음에 교실로 올라가서 지혜가 즐겨 보던 운동장을 찍자.’라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

(나)에서 '보미'의 발화 중 '그럼 운동장에 ♡를 크게 그리고 ~ 우리 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와 (가)에서 '민지'가 신청한 노래 제목 '다시 만날 우리들'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혜에게 ~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말할까?'라는 '상우'의 발화와 '그래, 우리가 세 글자씩 말하고 ~ 자막은 내가 넣을 게.'라는 '보미'의 발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 변동은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이다. 음운 변동 중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경음화가 있는데, 이들은 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에서 적용 양상의 차이가 있다. 우선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다른 하나의 자음이 오면 평파열음인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밖→[박]’, ‘꽃→[꼇]’, ‘잎→[입]’이 그 예이다. 한편 15세기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ㄱ, ㄷ, ㅂ, ㅅ’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으로, ‘곶→곶’, ‘빋→빋’이 그 예이다. 이는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비음화는 평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국물→[궁물]’, ‘받는다→[반는다]’, ‘입는다→[임는다]’은 현대 국어에서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15세기 국어에서 비음화는 현대 국어에서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ㄷ’의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노라→문노라’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ㄷ’의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한편 15세기 국어에서 비음화는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 실현되기도 했다. ‘붙는다→븐는다→븐는다’, ‘낳는다→날는다→난는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ㄷ’, ‘ㅎ’이 ‘ㄷ’으로 바뀐 후 비음화가 실현된 예이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ㅂ’의 비음화는 드물게 확인되고, ‘ㄱ’의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음화는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현대 국어의 경음화에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어간 끝 ‘ㄴ, ㄹ’ 뒤의 경음화,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ㄹ’ 뒤의 경음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등이 있다. ‘국밥→[국뻬]’, ‘더듬지→[더뎡지]’, ‘발달→[발뎡]’, ‘할 것을→[할꺼슬]’이 그 예이다. 한편 15세기 국어에서는 ‘갈 띠→갈 띠’에서 처럼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가 흔히 일어났다.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되나 표기에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한자어에서 유음 뒤의 경음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의 ‘견는다→건는다’는 ‘ㄷ’의 비음화가 일어난 예일 것이다.
  - ②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의 ‘막-+-노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③ 현대 국어의 ‘ㄱ-ㅇ’, ‘ㄷ-ㄴ’, ‘ㅂ-ㅁ’은 동일한 조음 위치의 ‘평파열음-비음’에 해당하는 쌍일 것이다.
  - ④ 15세기 국어의 ‘안-+-계’, ‘굽-+-고’에서는 모두 어미의 평음 ‘ㄱ’이 경음 ‘ㄱ’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 ⑤ 15세기 국어의 ‘장-+-노라’, ‘빋+나다’에서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36.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다음 제시된 현대 국어 자료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설명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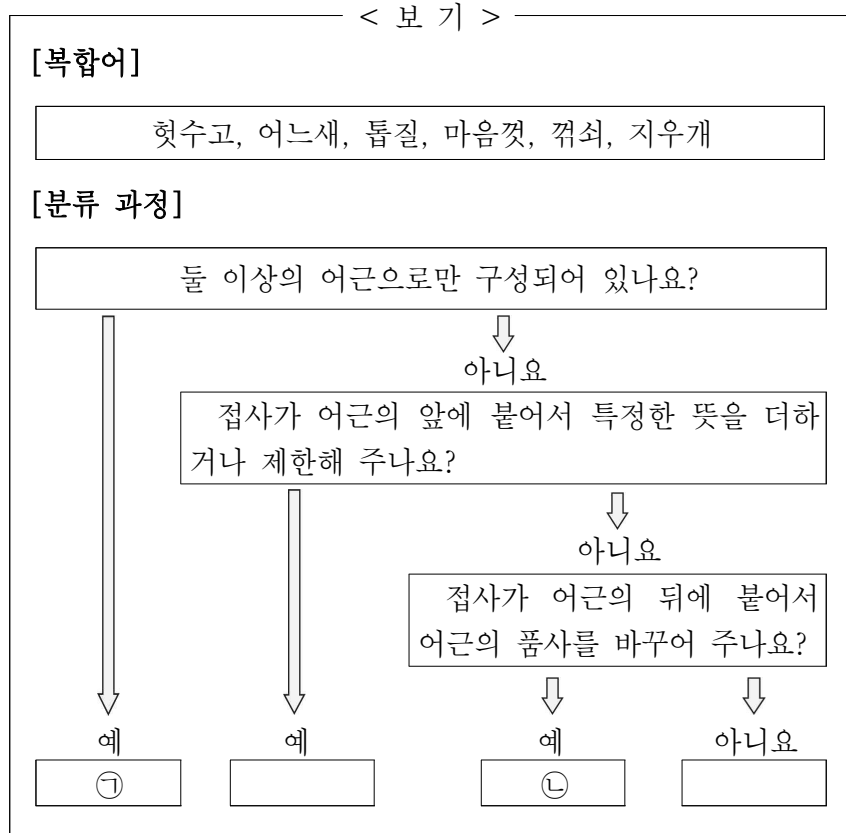
㉠ 겉멋만 → [건면만]      ㉡ 꽃식물 → [꼇쌩물]

㉢ 낮잡는 → [날짱는]

학생: \_\_\_\_\_ [A] \_\_\_\_\_

- ①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났습니다.
- ②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 ③ ㉡, ㉢에서 일어난 경음화는 평파열음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 ④ ㉠과 달리 ㉡,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습니다.
- ⑤ ㉢과 달리 ㉠, ㉡에서는 ‘ㄱ’으로 인해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37. <보기>의 ‘복합어’를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               |          |
|---------------|----------|
| ㉠             | ㉡        |
| ① 어느새, 꺾쇠     | 마음껏, 지우개 |
| ② 헛수고, 어느새    | 지우개      |
| ③ 툇질, 꺾쇠      | 헛수고, 마음껏 |
| ④ 툇질, 마음껏, 꺾쇠 | 헛수고      |
| ⑤ 어느새, 툇질, 꺾쇠 | 지우개      |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어머니는 아들이 비로소 대학생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 파수꾼이 경계 초소에서 본 동물은 늑대는 아니었다.  
 ㉢ 감독이 그 선수를 야구부 주장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 ① ㉠에는 안긴문장에 보어가 있고, ㉡에는 안은문장에 보어가 있다.
- ② ㉠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사용된다.
- ③ ㉡과 달리 ㉢의 안긴문장의 서술어는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 ④ ㉢과 달리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은 모두 안긴문장의 주어와 안은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39.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습 활동]**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용언의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다.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을 생각해 보면서 용언의 활용 양상을 설명해 보자.

**[예문]**

	㉠ 규칙 활용의 예	㉡ 불규칙 활용의 예
㉠	형은 교복을 <u>입어</u> 보았다.	꽃이 <u>아름다워</u> 보였다.
㉡	나는 언니에게 죽을 <u>썩어</u> 주었다.	오빠는 나에게 밥을 <u>떠</u> 주었다.
㉢	누나는 옷을 벽에 <u>걸어</u> 두었다.	삼촌은 눈길을 <u>걸어</u> 집에 갔다.
㉣	동생은 그릇을 <u>씻어</u> 쟁반에 놓았다.	이 다리는 섬과 육지를 <u>이어</u> 주는 역할을 한다.
㉤	우리는 짐을 <u>쌓아</u> 놓았다.	하늘이 <u>파래</u> 예뻐다.

- ①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ㅂ'이 달라졌다.
- ②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ㅌ'가 없어졌다.
- ③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ㄷ'이 달라졌다.
- ④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ㅅ'이 없어졌다.
- ⑤ ㉤: ㉠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ㅎ'과 어미가 모두 없어졌다.

[40~42] (가)는 지역 신문사의 웹 페이지 화면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만든 홍보 인쇄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본문 듣기   SNS로 전달

**〇〇군민일보**


**〇〇군청, 못난이 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개최**  
(최초 입력 2022.09.16. 09:37:53 / 수정 2022.09.16. 10:12:34)  
 김△△ 기자


㉠ 〇〇군청에서 지역에 있는 배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〇〇군청은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〇〇군 배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 달간 진행되며, 〇〇군 소재 배 재배 농가의 70%가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태풍과 이상 기온 현상으로 〇〇군에서 수확한 배 중 규격 외 배(이하 못난이 배)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 못난이 배는 크기나 모양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흠집이 있어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배를 말한다. 일반 상품과 비교하여 맛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 이것은 판매가 어려워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〇〇군청에서는 일반 배뿐 아니라 못난이 배와 못난이 배로 만든 가공식품의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다.


캠페인을 앞두고 〇〇군 내 배 재배 농가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배 재배 농민 최□□ 씨는 "좀 못나도 다 제 자식 같은 배입니다. ㉣ 맛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 안심하고 못난이 배도 많이 사 주세요."라고 말했다. ㉤ 〇〇군수는 배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처인 '〇〇 온라인 알뜰 장터' 운영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특히 이곳에서는 못난이 배를 일반 상품의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〇〇군 배와 배 가공식품은 특산물 직판장과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 <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 > .....

  
 좋아요 27

  
 유용해요 17


  
 슬퍼요 1

  
 후속 기사 원해요 9

**■ 관련된 기사로 바로 가기(클릭)**

- 기관지염, 고혈압 등에 효능이 좋은 배
- [현장 스케치] 〇〇군 배 공동 선별 센터 작업 현장에 가다

(나)



좀 못나도 다 제 자식 같은 배입니다. 〇〇군 못난이 배 많이 사 주세요.

맛은 그대로

가격은 절반으로

**못난이 배란?**  
 크기나 모양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흠집이 있는 배를 말합니다.


**못난이 배를 구입하는 방법**  
 〇〇군 특산물 직판장에 방문하거나

〇〇 온라인 알뜰 장터

🔍

검색해 접속하여 구입

배 가공식품 소개 웹 페이지



40. (가)의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본문 듣기'가 있는 것을 보니, 수용자가 기사의 내용을 음성 언어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SNS로 전달'이 있는 것을 보니, 수용자가 기사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최초 입력'과 '수정' 시간이 있는 것을 보니, 생산자가 기사를 입력한 이후에도 기사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이 있는 것을 보니,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기사의 유통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관련된 기사로 바로 가기'가 있는 것을 보니, 수용자가 기사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1.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품의 온라인 판매처를 소개하기 위해, (가)에 언급된 못난이 배의 온라인 판매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시해야지.
- ② 상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에 언급된 못난이 배의 맛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배의 모양을 활용하여 도안된 그림으로 제시해야지.
- ③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가)에 언급된 배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웹 페이지 주소를 QR코드로 제시해야지.
- ④ 상품의 소비를 촉구하기 위해, (가)에 제시된 농민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말풍선의 문구로 제시해야지.
- ⑤ 상품의 의미를 밝혀 주기 위해, (가)에 제시된 못난이 배의 뜻을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야지.

4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격 조사 '에서'를 활용해 배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가 '○○군청'임을 나타냈다.
- ② ㉡: 연결 어미 '-거나'를 활용해 못난이 배의 판정 기준과 흠집에 관한 내용이 인과적으로 연결됨을 나타냈다.
- ③ ㉢: 지시 대명사 '이것'을 활용해 앞에서 언급한 '일반 상품'을 가리키고 있음을 나타냈다.
- ④ ㉣: 보조사 '도'를 활용해 판매하는 상품이 못난이 배로 한정됨을 나타냈다.
- ⑤ ㉤: 관형사형 어미 '-르'를 활용해 ○○군수가 오래전부터 온라인 알뜰 장터의 운영을 지원해 왔음을 나타냈다.

[43~45] 다음은 안전 교육을 위한 교내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험실 안전 교육을 위해 △△ 안전연구소의 김○○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교육을 잘 듣고 앞으로는 안전한 실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학교 실험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76%는 학생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먼저 영상을 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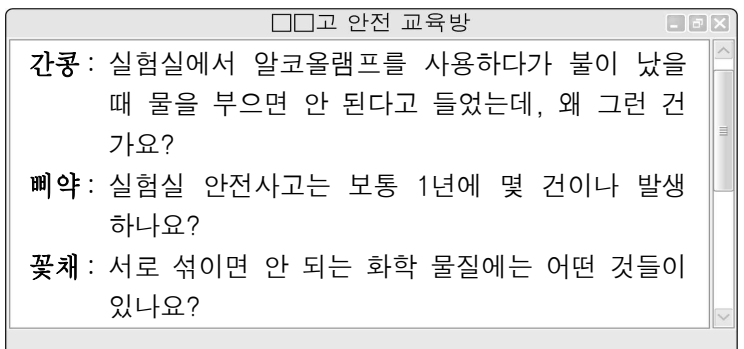


이 영상은 어느 대학 실험실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실험을 하다가 얼굴에 부상을 입은 학생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험복, 보안경, 보호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 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실험실에서의 부주의한 행동이 큰 화재로까지 이어진 사례를 보도한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 사례는 학생이 실험 중에 서로 섞이면 안 되는 두 화학 물질을 임의로 섞다가 폭발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험실에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것이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병 안에 든 것은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데,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실에서는 작은 실수나 방심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험을 할 때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진행자:** 알려 주신 내용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 안전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학생들의 질문은 채팅방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누리 소통망의 검색창에 '□□고 안전 교육방'을 검색하여 참여해 주세요.



많은 분이 채팅방을 통해 참여하고 계시네요. '간콩' 님이 알코올램프 화재와 관련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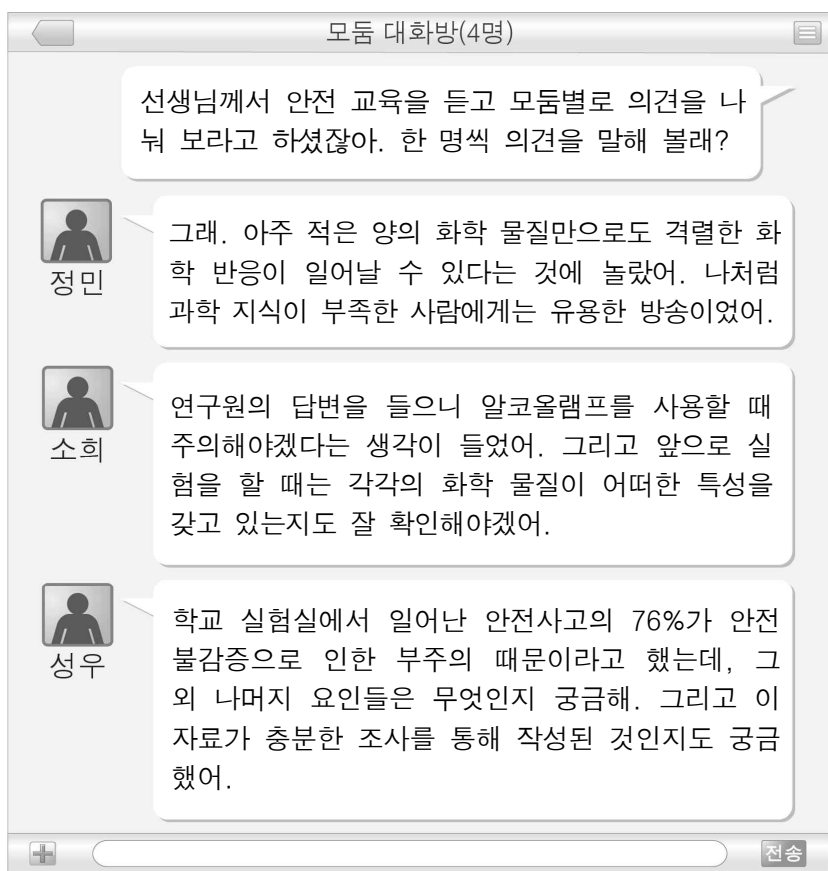
**연구원:** 불이 붙은 알코올에 물을 부르면 두 물질이 섞여 불이 더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불이 붙으면 모래나 소화기를 이용해서 끄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삐약' 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43. 위 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상 자료를 활용하며 실험실 안전사고의 실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통계 자료를 활용하며 학교 실험실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활용하며 안전사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 ④ 채팅방을 활용하며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진 의문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 ⑤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활용하며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44. 다음은 위 방송을 시청한 학생들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민'은 연구원이 언급한 사례와 관련하여, 응급 상황에서의 조치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 ② '소희'는 연구원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험할 때의 유의 사항에 관한 정보가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③ '소희'는 연구원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타당한지 점검하였다.
- ④ '성우'는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와 관련하여,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 ⑤ '성우'는 연구원이 활용한 자료와 관련하여, 학생을 위주로 한 예방 대책의 장단점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45. 다음은 위 방송을 본 후 과학 실험 동아리 학생이 신입생 교육용으로 만든 발표 자료의 초안이다.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제시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초안>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p><b>1 첫 번째 수칙</b></p> <p>안전 장비를 잘 갖추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험복과 보안경을 착용하세요.</li> <li>2) 보호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세요.</li> <li>3) 실험실에 비상 샤워기를 설치하세요.</li> </ol>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p><b>2 두 번째 수칙</b></p> <p>화학 물질을 다룰 때는 주의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학 물질을 함부로 혼합하지 마세요.</li> <li>2) 화학 물질의 냄새는 직접 맡지 마세요.</li> <li>3) 실험실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세요.</li> </ol>	<p><b>III. 세 번째 수칙</b></p> <p>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알코올램프 관련 화재는 모래나 소화기를 이용해 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li> <li>2) 응급 상황 시 정해진 처리 과정에 따라 조치하세요.</li> </ol>

<검토 의견>

슬라이드 1	㉠ - 발표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
슬라이드 2	㉡ - 학교에 요청할 사항임.
슬라이드 3	㉢ -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임.
슬라이드 4	㉣ - 다른 슬라이드와 형식이 다름.
	㉤ - 내용과 어울리는 이미지가 필요함.

- ① 슬라이드 1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을 '안전한 실험을 위한 세 가지 수칙'으로 수정해야겠군.
- ② 슬라이드 2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를 삭제해야겠군.
- ③ 슬라이드 3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를 슬라이드 2로 이동해야겠군.
- ④ 슬라이드 4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를 슬라이드 2, 3의 형식과 통일하여 제시해야겠군.
- ⑤ 슬라이드 4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미지로 교체해야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전문]에서 '친해지길 바라' 행사가 언제, 어디에서, 왜 진행되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육하원칙을 모두 지켜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는 점검 결과 '예'는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고쳐 쓴다.**

[A]를 고쳐 쓴 <보기>는 학생회장이 행사를 통해 바라는 점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내용은 (나)의 앞 부분에서 행사를 통해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학생회장의 말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 그리고 <보기>에 '친해지길 바라' 행사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43. [출제의도] 내용 조직 방법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초고의 3문단에서 숲 가꾸기의 방법을 나열을 끊어 내는 것, 낮은 위치의 나뭇가지를 쳐 내는 것, 생장이 나쁜 나무를 솎아 내어 큰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것으로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1문단에서 산불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면적이 넓어지고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② 초고의 2문단에서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나누어 산불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산불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초고의 2문단에서 수관화의 개념을 사물에 빗대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초고의 3문단에서 산불 확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숲 가꾸기와 내화 수림대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비의 방식으로 산불 확산을 해결하는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초고의 2문단에서는 산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바람과 지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II는 신문 기사로 사례를 통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림과 토양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여 준다. III-2는 침엽수인 소나무와 활엽수인 떡갈나무에 불이 붙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자료로, 소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떡갈나무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II와 III-2에서는 산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토양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2문단에 산불을 확산시키는 요인에 바람과 지형 외에 토양과 수종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I은 전문가 인터뷰로 수관화가 발생하면 불기운이 강하고 비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산불이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수관화가 발생하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다는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II는 신문 기사로 사례를 통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를 1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 III-2는 침엽수인 소나무와 활엽수인 떡갈나무에 불이 붙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자료로 소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떡갈나무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를 활용해 내화 수림대 조성에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사용된다는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④ I은 전문가 인터뷰로 수관화가 침엽수림에서 많이 일어나므로 산림 정책을 펼칠 때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합된 혼효림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산림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III-1은 우리나라의 나무 종류별 산림 면적을 보여 주는 자료로 침엽수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 준다. I과 III-1을 활용해 산불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산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숲 가꾸기와 내화 수림대 조성은 산불 확산 방지 방법인데, 이를 '방패'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그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 확산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산불로부터 우리의 자연과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①	38	⑤	39	⑤
40	④	41	②	42	①	43	③	44	④
45	③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의 음운 변동을 이해한다.**

15세기 국어의 '찰--노라'(진노라)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빛+나다(빛나다)'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나고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36.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사례를 적용한다.**

'결맞만→[건만만]', '꽃식물→[꼇식물]', '낫잡는→[난잡는]' 모두에서 음절 끝의 자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방식을 파악한다.**

㉠ '어느새'는 어근 '어느'와 어근 '새'로 구성되어 있다. '겪쇠'는 어근 '겪-'과 어근 '쇠'로 구성되어 있다. ㉡ '마음껏'은 어근 '마음'과 접미사 '-껏'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접미사 '-껏'은 명사인 어근 뒤에 붙어서 품사를 부사로 바꾸어 준다. '지우개'는 어근 '지우-'와 접미사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접미사 '-개'는 동사인 어근 뒤에 붙어서 품사를 명사로 바꾸어 준다.

**[오답풀이]** '헛수고'는 접두사 '헛-'과 어근 '수고'로 구성되어 있다. '툭질'은 어근 '툭'과 접미사 '-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접미사 '-질'은 어근의 뒤에 붙지만 품사를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38.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

㉠에서 안근문장의 주어는 '아들'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어머니'이다. ㉡에서 안근문장의 주어는 '과수꾼'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동물'이다. ㉢에서 안근문장의 주어와 안은문장의 주어는 모두 '감독'이다.

**39.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 양상을 이해한다.**

㉤에서 '파랗다'가 '파래'가 된 것은 불규칙 활용이지만, 어간의 'ㅎ'과 어미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어간 '입-'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 '아름답-'의 'ㅂ'이 달라졌다. ② ㉡에서는 어간 '쭈-'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 '푸-'의 'ㄷ'가 없어졌다. ③ ㉢에서는 어간 '걸-'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 '결-'의 'ㄷ'이 달라졌다. ④ ㉠에서는 어간 '씻-'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 '씻-'의 'ㅅ'이 없어졌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기사 아래에는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이 있어, 수용자는 기사를 본 자신의 반응을 표시할 수 있고 생산자는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가 기사의 유통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가)에 언급된 못난이 배의 맛에 대한 정보는 (나)에

사각형 안의 문구로 제시되어 있다. (나)에는 배의 이미지가 담긴 그림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그림에 못난이 배의 맛과 영양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나)에는 '○○ 온라인 알뜰 장터'가 입력된 인터넷 검색창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못난이 배의 온라인 판매처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④ (나)에는 농민 최○○ 씨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말풍선 안의 문구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못난이 배의 소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⑤ (가)에 제시된 못난이 배의 뜻은 (나)에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못난이 배의 의미를 밝혀 주기 위한 것이다.

**42. [출제의도] 매체에 사용된 표현을 이해한다.**

격 조사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낸다. ㉠에 사용된 '에서'는 격 조사로, 배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가 ○○군청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활용하여 실험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를 보여 주며, 실험을 할 때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활용하며 안전사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실험실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실험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실제 사례의 영상과 실험실에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폭발 사고의 실제 사례를 다룬 영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며 학교 실험실 안전사고의 76%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연구원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보여 주며, 화학 물질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실험할 때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수용자의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성우'는 연구원이 학교 실험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가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인지 궁금해하며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오답풀이]** ① '정민'은 방송에서 다른 내용이 자신에게 유용한지를 점검하고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의 조치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소희'는 연구원의 답변을 듣고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실험할 때의 유의 사항에 관한 정보가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⑤ '성우'는 연구원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나, 학생을 위주로 한 예방 대책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는 상위 항목인 '화학 물질을 다룰 때는 주의하세요'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슬라이드 4'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슬라이드 2'로 이동해야겠다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슬라이드 2~4의 제목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에 적합하게 ㉤를 '안전한 실험을 위한 세 가지 수칙'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는 실험 도구의 이미지이다.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이므로 내용에 어울리는 이미지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합성 명사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합성 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갈비찜’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갈비’와 ‘찜’이다. 그런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갈비’, ‘찌-’, ‘-ㅁ’이라는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합성 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를 세밀히 알 수 있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 한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합성 명사의 두 어근에도 ㉡ 중심적 의미나 ㉢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뜻하는 합성 명사 ‘도끼눈’은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합성 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이는 ‘비바람’, ‘이슬비’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벼락공부’, ‘물벼락’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 일부는 합성 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주로 관찰된다. 가령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에는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꿀’의 이러한 의미는 합성 명사의 선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에는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바다’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바다’는 합성 명사의 후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35. ㉠에 따를 때, <보기>에 제시된 ㉡~㉣ 중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은?

<보 기>

- 동생은 오늘 ㉡ 새우볶음을 많이 먹었다.
- 우리는 결코 ㉢ 집안싸움을 하지 않겠다.
- 요즘 농촌은 ㉣ 논밭갈이에 여념이 없다.
- 우리 마을은 ㉡ 탈춤놀이가 참 유명하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6. 윗글의 ㉡, ㉢와 연관 지어 <자료>에 제시된 합성 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료>

합성 명사	뜻
칼잠	옆으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
머리글	책의 첫 부분에 내용이나 목적을 간략히 적은 글
일벌레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입꼬리	입의 양쪽 구석
꼬마전구	조그마한 전구

- ① ‘칼잠’과 ‘구름바다’는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② ‘머리글’과 ‘물벼락’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는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④ ‘입꼬리’와 ‘도끼눈’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 ⑤ ‘꼬마전구’와 ‘꿀잠’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다음은 중세 국어의 문자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 보자.

- ㉠ 乃냉終중ㅍ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중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 ㉡ ㅅ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셔 쓰면 입시울 가비야쁜 소리 드외느니라  
[ㅇ을 순음 글자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 글자가 된다]
- ㉢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굴바 쓰라 乃냉終중ㅍ소리도 혼가지라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나란히 쓰라 중성 글자도 마찬가지로이다]
- ㉣ ㅍ와 ㅑ와 ㅓ와 ㅕ와 ㅗ와 ㅛ와란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ㅍ, ㅑ, ㅓ, ㅕ, ㅗ, ㅛ는 초성 글자 아래에 붙여 쓰고]
- ㉤ ㅁ와 ㅂ와 ㅅ와 ㅈ와 ㅊ와란 울흔너기 브터 쓰라  
[ㅁ, ㅂ, ㅅ, ㅈ, ㅊ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붙여 쓰라]

**자료**    ㅁ니, ㅂ, 사비, 스ㅍ불, ㅍ, ㅎ

- ① ㉠: ㅂ, ㅍ, ㅎ                      ② ㉡: 사비, 스ㅍ불
- ③ ㉢: ㅁ니, ㅍ, ㅎ                      ④ ㉣: ㅂ, 스ㅍ불, ㅎ
- ⑤ ㉤: ㅁ니, 사비, ㅍ



38. 다음은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를 알아보시다. ‘(신발을) 신고[신:꼬]’처럼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지막 소리가 ‘ㄴ, ㄹ’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ㄱ, ㄷ, ㅅ, ㅈ’이 ‘ㄴ, ㄹ’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선생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ㄴ, ㄹ’ 뒤에 ‘ㄱ, ㄷ, ㅅ, ㅈ’이 있는 경우에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음 ㉠~㉡의 밑줄 친 말에서 ‘ㄴ’이나 ‘ㄹ’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 ㉠ 피로를 푼다[푼다]
- ㉡ 더운 여름도[여름도]
- ㉢ 대문을 잠가[잠가]
- ㉣ 품에 안겨라[안겨라]
- ㉤ 학교가 큰지[큰지]

학생: 그 이유는 [A] 때문입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의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② ㉡의 ‘ㄹ’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③ ㉢의 ‘ㄹ’과 ‘ㄱ’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④ ㉣의 ‘ㄴ’과 ‘ㄱ’이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⑤ ㉤의 ‘ㄴ’과 ‘ㅈ’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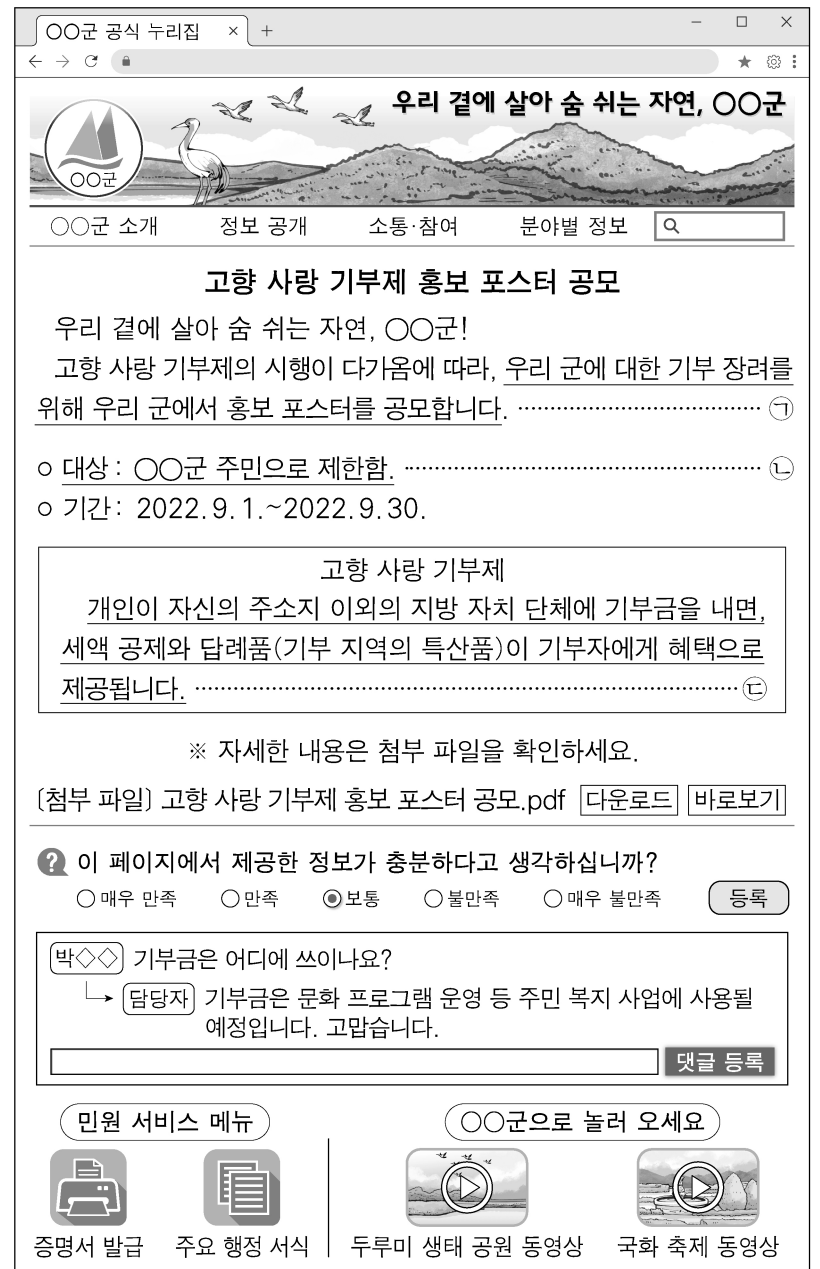
3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 ㉡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 ㉣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 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③ ㉠과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40~43] (가)는 ○○군 공식 누리집 화면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들의 온라인 화상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해운: 이제 화상 회의 시작하자. 내 말 잘 들리지?  
 설아: 해운아,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이크 좀 확인해 줄래?  
 해운: 어? 내 마이크 음량을 키워 볼게. 이제 잘 들리지?  
 설아: 응. 근데 오늘 나연이는 참석 못 한대. 내가 회의를 녹화해서 나중에 보내 주려고 해. 동의하지?  
 해운, 종서, 수영: 응,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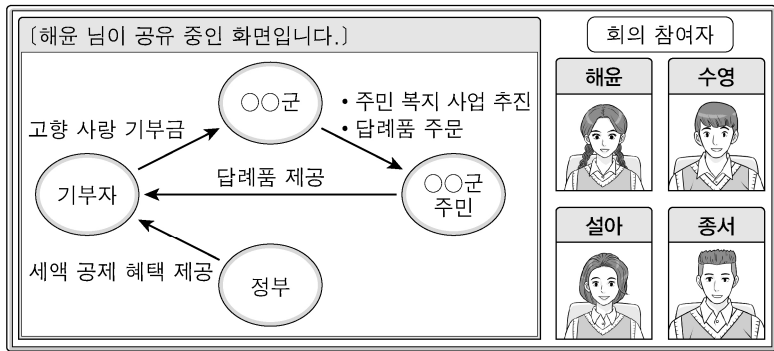
채팅: 설아님이 회의 녹화를 시작합니다.

해운: 오늘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기로 했잖아. 우리 ○○군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 봤니?  
 종서: 미안해. 나는 아직 못 봤어.  
 수영: 음, 직접 말로 설명하려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첨부 파일 보내 줄게. 파일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읽으면서 들어.

채팅: 수영님이 종서님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파일명: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공모.pdf

종서: 고마워.  
 해운: 그럼 이어서 얘기할게. 내가 만들어 온 그래픽 자료를 보면서 포스터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야기하자.

채팅 해운 님이 화면 공유를 시작합니다.



**해운:** 정부, 기부자, ○○군, ○○군 주민으로 구분해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타낸 거야.  
**수영:** 좋은데, 포스터에 정부까지 그려 넣으면 너무 복잡할 거 같으니까, 나머지 셋으로만 구성하자.  
**설아:** 그리고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부자가 부각되도록 기부자를 가운데에 두자.  
**수영:** 화살표를 곡선으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하면 기부자가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걸 포스터에 드러낼 수 있을 거 같아.  
**해운:** 좋아. 그런데 포스터에 정부가 없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은 어떻게 나타내지?  
**종서:** 음, 고민해 보자. 그리고 첨부 파일을 읽어 보니 기부자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면 어디든 기부할 수 있대. 우리 지역에 기부하게 하려면 담레품을 알려 줘야 할 거 같은데?  
**해운:** 담레품 정보가 있는 누리집 주소 불러 줄게. 디, 에이, 엠... 아, 그냥 채팅 창에 링크로 올리는 게 편하겠네.

채팅 해운 https://damnyepum.○○○○.go.kr  
 종서 고마워.

**종서:** 찾아보니 인삼이 우리 지역 담레품이네. 이걸 그려 넣자.  
**해운:** 그리고 우리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니까, ○○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나타내 보자.  
**수영:** 응, 좋아.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세액 공제는 두루미가 말을 전해 주듯 설명하면 되겠다.  
**해운:**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만들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무리하자.

40.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 이용자가 작성한 질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 ②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군.
- ③ 민원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증명서나 행정 서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군.
- ④ 누리집 상단에 홍보 문구와 풍경 그림을 제시하여 지역이 부각하고자 하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지역의 관광 명소와 축제를 홍보하는 동영상은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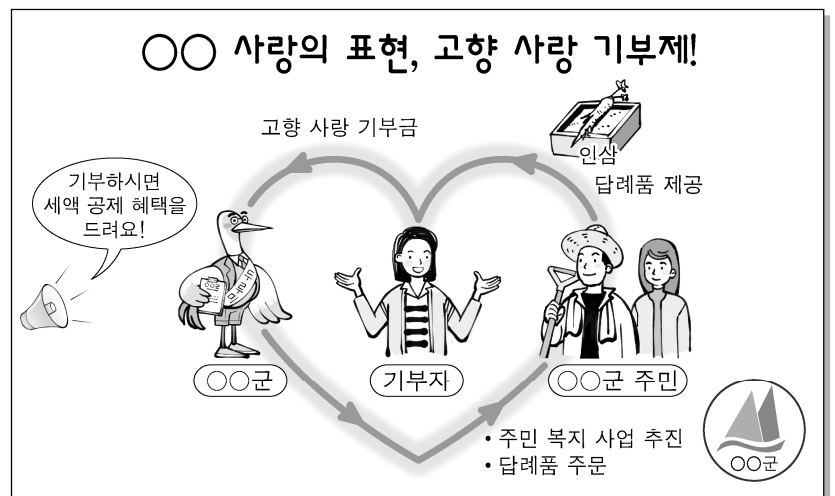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포스터를 공모하는 주체가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여 ○○군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공손하게 높이고 있다.
- ③ ㉢은 명사형 어미 '-고'를 사용하여 포스터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기부 대상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42.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운'은 음성 언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
- ② '해운'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 하며 그래픽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 ③ '수영'은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의 중에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종서'에게 전송하였다.
- ④ '설아'는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나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였다.
- ⑤ '설아'는 특정 참여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참여자의 음량을 조절하였다.

43. (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할 때, 포스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설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부자를 중심에 배치했다.
- ②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부 행위에 담긴 긍정적인 마음을 연상시키는 기호의 모양을 사용했다.
- ③ '종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에 기부했을 때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담레품을 그려 넣었다.
- ④ '해운'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이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표현했다.
- ⑤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내용을 직접 알려 주듯이 말풍선을 제시했다.

[44~45] 다음은 온라인 카페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1] ([게시판]에서 '1인 미디어 방송'을 클릭한 화면)

[화면 2] ([화면 1]에서 17번 게시물을 클릭한 화면)

1인 미디어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의 태도  
작성자: 재원

최근 많은 사람들이 1인 미디어 방송 제작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는 1인 미디어 방송들이 등장하고 있다. 내가 즐겨 보는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 역시 밀림을 혼자 돌아다닌다든가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참신함이 돋보인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여 시청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나처럼 여행 탐험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어디서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 1인 미디어 방송 가운데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를 담은 방송이 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이 드러나는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에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하다.

↳ **민수** 나도 그 방송 봤어. 내가 모르던 낯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많이 나와서 좋았어. 그런데 갑자기 특정 상표를 언급하며 칭찬할 때에는 상업성이 짙어 보이더라. 그런 상업적인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 **혜원** 어떤 1인 미디어 방송인은 특정 성분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 성분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었어. 방송에 나오는 정보라도 믿을 수 있는지 잘 따져 봐야 해.

↳ **영진** 1인 미디어 방송들은 소재가 한정적이고 다 비슷비슷하지. 그리고 내가 보는 1인 미디어 방송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도, 고정 시청자 수가 적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늘지도 않더라. 그래서 1인 미디어 방송이 발전해도 사회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 **지수** 난 1인 미디어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따라가기' 방송이 인기를 많이 끌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잖아.

댓글 등록

44. <보기>를 바탕으로 [화면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매체통’ 동아리 카페 활동 규칙**

**개설 목적:** ‘매체통’ 동아리원들이 다양한 매체 자료 비평 활동을 통해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규칙 1.** 동아리 활동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매체 자료 비평을 위한 글만 작성하고 각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올린다.

**3.**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① ㉠을 보니, ‘개설 목적’을 고려하여 동아리 성격이 드러나도록 카페의 활동 주제와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군.
- ② ㉡을 보니, ‘규칙 2’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 유형에 따라 게시판을 항목별로 나누어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군.
- ③ ㉢을 보니, ‘규칙 1’을 고려하여 동아리 활동 계획을 상기할 수 있도록 비평 활동 결과의 제출 기한을 제시하였군.
- ④ ㉣을 보니, ‘규칙 2’를 고려하여 사건 보도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링크를 제시하였군.
- ⑤ ㉤을 보니, ‘규칙 3’을 고려하여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이 동아리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게시물을 삭제하였군.

45. [화면 2]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혜원’은 증명되지 않은 정보를 접했던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③ ‘재원’과 ‘민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재원’은 ‘영진’과 달리, 자신이 본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의 소재가 다양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영진’은 ‘지수’와 달리, 고정 시청자 수가 늘지 않는 1인 미디어 방송 사례를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④ 37. ① 38. ④ 39. ① 40. ② 41. ① 42. ③ 43. ⑤ 44. ④  
45. ③

[35~36] 언어

[35~36]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

지문해설 : 이 글은 합성 명사의 구성 요소인 어근들이 지니는 구조적, 의미적 특성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 글이다. 1문단에서는 ‘갈비찜’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면 그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합성 명사를 이루는 어근들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특정 단어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중심적 의미만 지니다가 그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에는 새로운 주변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합성 명사의 어근이 합성 명사 내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꿀잠’, ‘구름바다’의 사례를 통해 일부 어근들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 경향성을 지닌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주제] 합성 명사의 구조적, 의미적 특성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과 ㉡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각각 ‘(집+안)+(싸우--+口)’과 ‘(눈+밭)+(갈--+이)’로 분석되어 ‘(어근+어근)+(어근+접사)’의 내부 구조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새우+(볶--+음)’으로 분석되고, ㉣는 ‘[탈+(추--+口)]+(놀--+이)’로 분석되기 때문에 ㉠, ㉡와 내부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정답 ②

36.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입꼬리’와 ‘도끼눈’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꼬리’와 ‘도끼’로, 그 위치가 서로 다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칼잠’과 ‘구름바다’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잠’과 ‘구름’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② ‘머리글’과 ‘물벼락’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글’과 ‘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벌레’와 ‘벼락’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⑤ ‘꼬마전구’와

‘꿀잠’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꼬마’와 ‘꿀’로, 그 위치가 같다.

### 37. 한글의 창제

정답해설 : ‘분, 짝, 흙’ 외에 ‘스그불’에서도 중성 글자 ‘ㄹ’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⑥는 ㅂ 순경음의 표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빰, 스그불’에서 ‘빙’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④는 초성과 중성 자리에 쓰이는 병서에 대한 내용으로, ‘삐니, 짝, 흙’에서 각각 ‘ㅍ, ㅂ, ㄹ’을 확인할 수 있다. ④ ④는 초성 글자 아래에 쓰이는 중성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 ‘분, 스그불, 흙’에서 ‘ㄴ, ㅡ, ㆍ’를 확인할 수 있다. ⑤ ⑥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쓰이는 중성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 ‘삐니, 사빰, 짝’에서 ‘ㅣ, ㅏ’를 확인할 수 있다.

### 38.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의 ‘안겨라’는 ‘안- + -기- + -어라’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기-’는 피·사동 접사이다. 즉,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푼다’는 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ㄴ다’가 결합한 경우로,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② ⑥의 ‘여름도’는 체언 ‘여름’과 조사 ‘도’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③ ④의 ‘잠가’는 ‘잠그- + -아’로 분석되는데, ‘ㄹ’과 ‘ㄱ’이 모두 ‘잠그-’라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⑥의 ‘큰지’는 용언 어간에 어미 ‘-ㄴ지’가 결합한 경우로,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39.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의 관형사절 ‘내 친구가 보낸’에는 ‘누군가에게 혹은 어디에’ 정도의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고, ㉡의 명사절 ‘테니스 배우기’에는 ‘내가’ 정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명사절은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 기능을 한다. ③ ㉠의 명사절만 ‘받다’의 주체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의 안긴문장은 관형사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이며,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④ ㉡의 안긴문장은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며, ㉢의 안긴문장 ‘신이 닳도록’은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한다. ㉣에서의 보어는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이다. ⑤ ㉡의 관형사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지 않았으며, ㉢의 관형사절 ‘아름다운’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40~43] 매체

40.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정답해설 : (가)에서는 누리집의 특정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가 충분한지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의 충분성에 대한 누리집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댓글 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 이용자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누리집 하단에 ‘민원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증명서 발급’과 ‘주요 행정 서식’을 선택하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④ 누리집 상단에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군’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군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림을 제시하여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누리집 하단에 ‘○○군으로 놀러 오세요’에서 ○○군의 관광 명소인 ‘두루미 생태 공원’과 축제인 ‘국화 축제’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의 ‘우리 군에서 홍보 포스터를 모집합니다.’에 쓰인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군’이라는 단체 명사 뒤에 결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스터 공모 주체가 ‘우리 군’이라는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모집합니다’에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 ‘-습니다’가 쓰였으나, 이는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을 높이는 것이다. ③ ㉠의 ‘제한함’에 명사형 어미 ‘-ㅁ’이 쓰였으나, 포스터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모의 대상이 ○○군 주민으로 한정됨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④ ㉠의 ‘기부금을 내면’에 연결 어미 ‘-면’이 쓰였으나, 제공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의 ‘제공됩니다’에 피동 접사 ‘-되다’가 쓰였으나, 오히려 피동 표현이 쓰임으로써 혜택 제공의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4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해설 : ‘수영’의 발화 중 ‘직접 말로 설명하려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첨부 파일 보내 줄게.’라는 내용과 이어지는 채팅창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영’은 회의 시간을 절

약하기 위해 회의 중에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종서’에게 전송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학생들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는 장면으로, 회의 참가자들은 음성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있다. ② 회의 중간에 ‘해윤’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만든 그래픽 자료를 함께 보며 포스터의 구성 방식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래픽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설아’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나연’을 위하여 ‘회의를 녹화해서 나중에 보내 주려고 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화면 녹화를 하였다. 따라서 ‘나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설아’는 첫 번째 발화에서 ‘해윤’에게 소리가 너무 작다며 마이크 음량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해윤’은 ‘설아’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 음량을 키웠다. 따라서 ‘설아’가 특정 참여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참여자의 음량을 조절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수영’의 마지막 발화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의 제시 방법에 대해 ‘세액 공제는 두루미가 말을 전해 주듯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포스터에는 ‘수영’의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두루미가 아닌 스피커 모양의 그림에 말풍선을 제시하여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설아’는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 기부자를 가운데에 두자.’라고 말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설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자를 중심에 배치하였다. ② ‘수영’은 ‘화살표를 곡선으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수영’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 행위에 담긴 긍정적인 마음을 연상시키는 하트 모양을 사용하였다. ③ ‘종서’는 ‘찾아보니 인삼이 우리 지역 답례품이네. 이걸 그려 넣자.’라고 말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종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인 인삼을 그려 넣었다. ④ ‘해윤’은 ‘우리 지역은 ~ 두루미 캐릭터로 나타내 보자.’라고 말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해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표현하였다.

[44~45] 매체

#### 4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㉞은 ‘개설 목적’과 ‘규칙 2’를 고려하여 언론사에서 생산한 매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도록 링크를 제시한 것으로 사건 보도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

을 기르게 하기 위해 링크를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는 카페의 활동 주체인 '□□고 동아리 매체통'과 활동 내용인 '매체 자료 비평'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활동 주체와 활동 내용을 밝힌 '개설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매체 자료 유형에 따라 게시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는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매체 자료 비평 글을 올리도록 정한 '규칙 2'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에는 비평 활동 결과 제출 기한이 공지되어 있는데, 이는 활동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정한 '규칙 1'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는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규칙 3'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5.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해설 : '재원'과 '민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재원'은 1인 미디어 방송 가운데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를 담은 방송이 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으며, '민수'는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재원'과 '민수'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재원'은 '나처럼 여행 탐험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이 어디서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는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혜원'은 1인 미디어 방송인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했던 특성 성분이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1인 미디어 방송의 소재에 대하여 '재원'은 '기존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영진'은 이와 달리 '소재가 한정적이고 다 비슷비슷하'다고 판단하였다. ⑤ '영진'은 '고정 시청자 수가 적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늘지도 않더라.'라고 하면서 1인 미디어 방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지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따라가기' 방송의 파급력을 예로 들면서 '1인 미디어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준말은 본말 중 일부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말이다. 한글 맞춤법은 준말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담고 있는데, 그중 제34항에서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열매를) 따-+-아→따/\*따아’, ‘따-+-았-+-다→따따/\*따았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간 끝 자음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는 경우에는, 원래 자음이 있었음이 고려되어 ‘ㅏ, ㅑ’가 줄어들지 않는다. ‘(꿀물을) 젓-+-어→저어/\*저’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제34항 [붙임 1]에서는 어간 끝 모음 ‘ㅙ, ㅞ’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준 대로 적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손을) 떼-+-어→떼어/떼’에서 보듯이 본말과 준말 모두로 적을 수 있다. 다만 모음이 줄어들어서 ‘ㅙ’가 된 경우에는 ‘-어’가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컨대 ‘차-’와 ‘-이-’의 모음이 줄어든 ‘채-’의 경우 ‘(밭에) 채-+-어→채어/\*채’에서 보듯이 모음이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것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표준어 규정 제14항에서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음을, 제16항에서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음을 제시하고 있다. ‘온갖/\*온가지’는 전자의 예이고, ‘(일을) 서두르다/서둘다’는 후자의 예이다. 다만 후자에서 용언의 어간이 줄어든 일부 준말의 경우, 준말이 표준어로 인정되더라도 준말의 활용형은 제한되는 예도 있다.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 준말의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두르다’의 준말 ‘서둘다’는 자음 어미 ‘-고, -지’가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 ‘서들고’, ‘서들지’가 표준어로 인정되지만, 모음 어미 ‘-어, -었-’이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 ‘\*서들어’, ‘\*서들었다’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규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밭을) 매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된 형태인 ‘매어’의 경우, 준말인 ‘매’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② ‘(병이) 낫-+-아’의 경우, ‘ㅏ’가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므로 ‘나아’로만 적고, ‘나’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③ ‘(땅이) 패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될 경우, ‘패다’의 ‘ㅙ’가 모음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패’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④ ‘(잡초를) 베-+-었-+-다’와 ‘(베개를) 베-+-었-+-다’의 경우, 준말의 형태인 ‘뻬다’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⑤ ‘(강을) 건너-+-어’와 ‘(줄을) 서-+-어’의 경우, ‘ㅑ’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리므로 본말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 ~ ㉣을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A]에 들어갈 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탐구 과정]

○ 답지를 ㉠ 걸다(←거두다)    ○ 가사를 ㉡ 외다(←외우다)  
 ○ 일에 ㉢ 서툴다(←서투르다)    ○ 집에 ㉣ 머물다(←머무르다)

↓

모음이 줄어들고 남은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입니까?

아니요  
→

↓ 예

모음 어미 ‘-어, -었-’이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입니까?

아니요  
→

↓ 예

[A]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37. <보기>의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주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주체, 곧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조사나 특수한 어휘 등을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또한 객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사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ㄱ.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할머니께 여쭙러 가거라.  
 ㄴ. (점원이 손님에게)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ㄷ. (동생이 형님에게) 저 기다리지 마시고 형님은 먼저 주무십시오.

- ① ㄱ에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② ㄴ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ㄱ과 ㄴ에서는 모두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④ ㄴ과 ㄷ에서는 모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조사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ㄱ~ㄷ에서는 모두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38. <보기>에 제시된 ㉠~㉣의 발음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웃고름[온꼬름]    ㉡ 색연필[생년필]    ㉢ 꽃망울[꼰망울]  
 ㉣ 벽난로[병날로]    ㉤ 벼훅이[벼훅치]

- ① ㉠: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음운 변동이 첫째 음절의 중성 위치와 둘째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각각 한 번씩 일어난다.
- ② ㉡: 첨가된 자음으로 인해 조음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 첫째 음절의 중성 위치에서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 ④ ㉣: 둘째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둘째 음절의 중성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을 통해 중세 국어의 격 조사가 실현된 양상을 탐구해 보자.

- ㉠ 太子(태자+ㅅ) 벉들 사ㅁ샤 時常 겨퇴(결+의) 이셔  
(현대어 풀이: 태자의 벉을 삼으시어 늘 곁에 있어)
- ㉡ 衆生의(중생+의) ㅁ스물(ㅁ슴+을) 조차  
(현대어 풀이: 중생의 마음을 따라)
- ㉢ 니르고져 훅 배(바+ㅣ) 이셔도 ㅁ츨내 제 ㅁ들(ㅁ+을)  
(현대어 풀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 ㉣ 바르래(바를+애) 브르미(브름+이) 자고  
(현대어 풀이: 바다에 바람이 자고)
- ㉤ 그르세(그릇+에) 담고 벉의 고기란 도기(독+의) 다마  
(현대어 풀이: 그릇에 담고 벉의 고기는 독에 담아)

비교 자료	탐구 결과
① ㉠의 '太子' / ㉡의 '衆生의'	체언이 무정 명사이냐 유정 명사이냐에 따라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② ㉢의 '겨퇴' / ㉣의 '도기'	체언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③ ㉡의 'ㅁ스물' / ㉢의 'ㅁ들'	체언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의 '배' / ㉣의 '브르미'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의 '바르래' / ㉣의 '그르세'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40~42]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다음 화제인 쇼트폼(short-form)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자막 기능을 켜 주세요. 쇼트폼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쇼트폼은 짧게는 15초에서 60초, ㉠ 길어도 최대 10분을 넘지 않는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말합니다. 쇼트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진행자: (시청 후) 현재 기준으로 무려 조회 수가 100만 회 가까이 되는데, ㉡ 지금도 조회 수가 올라가고 있군요. 이렇게 쇼트폼이 인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 ㉢ 쇼트폼은 짧고 재미있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게 이유지요. 이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는 현대인의 성향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실시간 채팅'에 '셋별' 님이 '1분짜리 요리 과정 영상을 자주 보는데, 이것도 쇼트폼인가요?'라는 질문을 방금 올려 주셨네요.



전문가: 예, 쇼트폼입니다. 쇼트폼을 통해 요리뿐 아니라 패션, 경제, 과학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기존 미디어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설문에서 쇼트폼을 통해 뉴스를 시청한다고 28%나 응답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기업들이 쇼트폼을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문가: 쇼트폼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파급력이 있고 소비자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이 쇼트폼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제 블로그에 쇼트폼 마케팅 사례를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화면 아래의 '더 보기'를 클릭하면 블로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보일 테니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세요.

진행자: ㉣ 쇼트폼을 시청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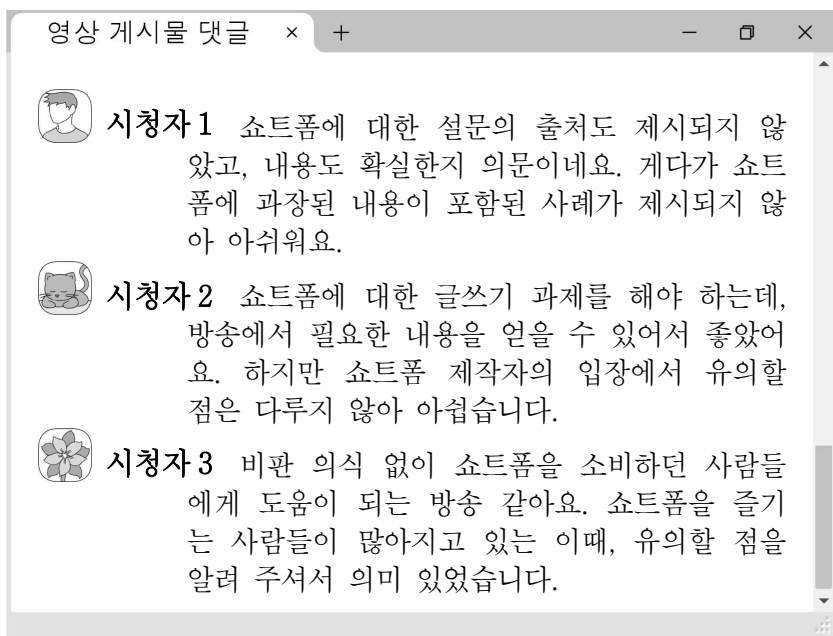
전문가: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조회 수를 높이려다 보니, 쇼트폼에는 자극적인 장면이나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쇼트폼의 장면을 선불리 따라하거나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비판적 시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시간 채팅' 아래에 관련 영상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시청해 보셔도 좋겠네요.

진행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도록 공개해 두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 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자의 크기와 글꼴을 달리하여 방송에서 다루는 중심 화제를 부각하고 있군.
- ② ㉡: 전문가의 발언에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청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고 있군.
- ③ ㉢: 방송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 있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군.
- ④ ㉣: 방송 중 언급된 블로그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⑤ ㉣: 방송에서 송출되는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보여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군.

41. 다음은 시청자들이 올린 댓글의 일부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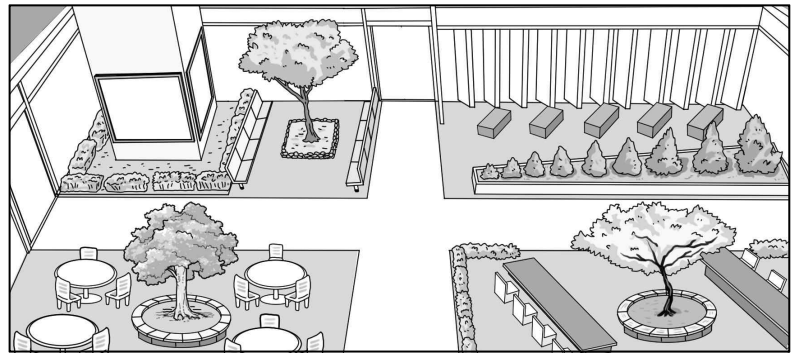
- ① 시청자 1과 시청자 2는 모두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시청자 1과 시청자 3은 모두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시청자 1과 달리, 시청자 2는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④ 시청자 1과 달리, 시청자 3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⑤ 시청자 2와 달리, 시청자 3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시의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42.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부정 표현을 활용해 쇼트폼의 재생 시간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 ② b: 진행상을 활용해 현재 쇼트폼의 조회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대등적 연결 어미를 연속적으로 활용해 쇼트폼이 인기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④ d: 설명 의문문을 활용해 쇼트폼 시청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⑤ e: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를 활용해 쇼트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43~45] (가)는 학생회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이고, (나)는 학생회 학생들의 온라인 화상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이 우리 학교에 친환경 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정원의 벤치, 테이블, 화단 틀 등을 보셨나요? 그것들은 모두 폐현수막과 폐의류를 재활용한 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친환경 정원 조성의 취지를 알리고 친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친환경의 의미를 담은 시화 관람, 물품 나눔, 친환경 생활을 위한 한 줄 다짐 쓰기, 재활용품으로 물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https://○○○.hs.kr/66193/subMenu.do>

★ 참여 신청 및 문의 사항은 학생회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좋아요 댓글 읽기 메시지 보내기

○○\_art 님 외 67명이 좋아합니다.

17시간 전

댓글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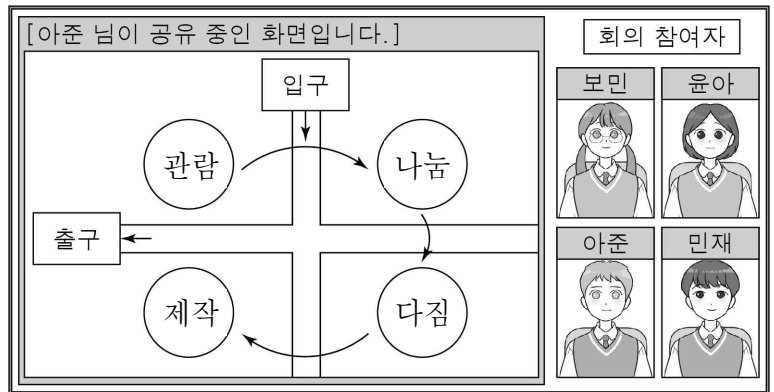
게시

(나)

보민: 지난 회의에서 친환경 체험 행사의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행사 안내도를 만들기로 했잖아. 회의를 시작해 볼까?

아준: 정원의 조감도를 이용해 안내도 초안을 만들면서 활동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 봤어. 화면을 봐 줘.

채팅 아준 님이 화면 공유를 시작합니다.



윤아: 화면에서는 시화 관람, 물품 나눔, 한 줄 다짐 쓰기, 재활용품으로 물품 만들기 순으로 체험 순서를 제시했는데, 체험 순서를 정하면 학생들의 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겠어.

민재: ‘관람’, ‘나눔’, ‘제작’에서의 활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고, ‘다짐’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면 좋겠어. 아준이가 안내도 초안을 만들기로 했잖아. 그걸 보면서 얘기해 볼까?

아준: 모두 첨부 파일을 확인해 줘.

채팅                    아준 님이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파일명: ㉠ 학교 체험 행사 안내도.pdf

민재: 안내도 초안에도 화살표가 있네. 체험 순서와 출입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모두 지우면 좋겠어.

보민: 한 줄 다짐 쓰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려면 ‘제작’과 ‘다짐’의 활동 공간을 서로 바꾸면 좋겠어. 이에 대한 의견 줘.

아준: ‘다짐’의 활동 공간을 출구 가까이에 배치해 학생들이 그 활동에 참여한 후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윤아: 나도 그게 좋아. 그런데 ‘제작’이 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 ‘재생’으로 바꾸면 어떨까? 동의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줘.

보민: 모두 동의하는구나. 그럼 이제는 환경 단체에서 주최한 체험 행사 안내도를 참고해서 안내도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파일을 전송할게.

채팅                    보민 님이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파일명: ㉡ 환경 단체 체험 행사 안내도.pdf

민재: 환경 단체의 안내도에서는 조감도에 각 공간의 이름을 번호와 함께 표시하고 그에 대한 범례를 따로 두어 활동을 안내했네. 이에 비해 우리 초안은 조감도에 글자가 많아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

아준: 우리도 범례를 환경 단체의 안내도처럼 따로 두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행사 일시와 장소도 추가하는 것이 어때?

윤아: 행사명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행사명을 안내도 상단에 제시하고 그 아래 행사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자.

보민: 좋은 의견들을 줘서 고마워. 오늘 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함께 안내도를 완성해 보자.

43.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수용자의 반응을 숫자로 제시하여 매체 자료에 대한 수용자의 선호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어 정보 전달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언어와 시각 자료를 결합한 복합 양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44. ㉠, ㉡과 관련하여 (나)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안내 효과를 바탕으로 ㉡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 ② ㉡의 구성 방식을 참고하여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③ ㉡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의 불필요한 구성 요소를 삭제했다.
- ④ ㉠과 ㉡의 차이점을 근거로 ㉡의 구성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 ⑤ ㉠과 ㉡을 비교하여 안내 효과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45. (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안내도’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고등학교 친환경 체험 행사 안내도**

○ 일시: 20××년 3월 23일 14:00  
○ 장소: 친환경 정원

<범례>

- ① 관람: 친환경의 의미를 담은 시화 관람하기
- ② 나눔: 물품 서로 나누기
- ③ 재생: 재활용품으로 물품 만들기
- ④ 다짐: 친환경 생활을 위한 한 줄 다짐 쓰기

- ① 윤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내도 상단에 행사명을 제시했다.
- ② 보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짐’의 활동 공간을 출구 가까이 배치했다.
- ③ 민재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구와 출구에 출입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 ④ 아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을 범례로 안내했다.
- ⑤ 윤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활용품으로 물품을 만드는 활동 공간의 이름을 ‘재생’으로 정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조언을 반영하였다. ③ 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보기>의 세 번째 문장을 삭제하였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고려해 해당 문장을 삭제하라는 조언을 반영하였다. ⑤ <보기>의 다섯 번째 문장을 치유 농업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더 깊이 이해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구체화하였으므로, 해당 문장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조언을 반영하였다.

**40. [출제의도] 발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A]의 대화에서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는 학생 3의 발화를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여행을 통해 학업에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는 소감문의 내용을 홍보하는 글에 포함하자는 의미인지 학생 3에게 확인하고 있다. [B]의 대화에서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는 학생 2의 발화를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여행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홍보하는 글에 제시하자는 의미인지 학생 2에게 확인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대화 맥락에 맞게 내용을 정리한다.**

(나)에서 학생 3은 다음번 모임을 위해, 학생회 게시판에 올라온 소감문에서 지난번 치유 농업 여행의 부족한 점이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논의할 사항을 메모해 오겠다고 하였다. 소감문에는 안전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참가자 안전 교육과 관련한 검토는 학생 3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쓰기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학생 2가 작성한 초고에는 소 겨안기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고 했는데, (나)의 학생들 대화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오답풀이]** ② 치유 농업 여행에서 학업에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는 소감문의 내용을 학생 2의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치유 농업 여행이 준 만족감을 표현한 소감문의 내용을 홍보하는 글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치유 농업 여행 후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내용을 학생 2의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설문 조사의 만족도 결과를 홍보하는 글에 간단하게 언급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1문단에서 캠핑장에서의 화재와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생명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2문단, 3문단에서 문제의 원인을 이용객의 캠핑 용품 사용 안전 수칙 미준수, 캠핑장 사업자의 소방 시설 미비, 관계 당국의 감독 소홀, 부주의한 난방 기기 사용 등으로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②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이나, 그에 대한 반박을 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캠핑장에서의 화재와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심각하다는 문제 상황은 있지만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캠핑장에서의 화재와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캠핑장 이용객, 사업자, 관계 당국이라는 문제 해결의 주체와 관련지어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때 사고 없는 안전한 캠핑이 이뤄진다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가-2)는 캠핑 용품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로, 화재, 물리적 충격, 일산화 탄소 중독 관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신문 기사로 캠핑 중 발생하는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증가한다는 점과 소방 시설의 미비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캠핑장 사고 사례를 보여 준다. (가-2)와 (나)를 활용하여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와 화재 사고가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보다 많다는 1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없다. 또한 1문단에서는 캠핑장에서의 화재나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생명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이 크지만, 캠핑장 안전 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화재,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보다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더 많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와 화재 사고가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보다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1)은 통계 자료로 캠핑장 안전사고 중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4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캠핑장에서의 안전사고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는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가-2)는 통계 자료로 캠핑 용품 관련 안전사고 중 화재와 관련된 사고가 58.1%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캠핑 용품 관련 안전사고 중 화재 관련 사고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는 2문단의 내용에 58.1%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추가할 수 있다. ③ (나)는 소방 시설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캠핑장 사고 사례를 보여 주는 신문 기사이다. 이를 소방 시설의 미비와 관리 감독의 소홀은 화재의 조기 진화를 어렵게 하여 인명 피해를 키운다는 2문단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⑤ (나)의 신문 기사에는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예년보다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다. (다)의 전문가 인터뷰에는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의 경우 다른 사고보다 인명 피해율이 높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를 활용하여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는 인명 피해율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함에도 캠핑 중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3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③	37	①	38	④	39	⑤
40	②	41	④	42	⑤	43	①	44	②
45	③								

**35.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이해한다.**

‘(잡초를) 베-+-있-+-다’와 ‘(베개를) 베-+-있-+-다’가 어울려 줄 적에는 한글 맞춤법 제34항 [붙임 1]의 적용을 받는다. 즉 어간 끝 모음 ‘내, 귀’ 뒤에 ‘-어, -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준말의 형태인 ‘뻗다’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표준어 규정을 적용한다.**

‘서툴다’(←서투르다)는 모음 ‘-’가 줄어들고 남은 자음 ‘르’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다. 그리고 모음 어미 ‘-어, -있-’이 결합된 형태의 준말의 활용형 ‘\*서툴어, \*서툴었다’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머물다’(←머무르다)는 모음 ‘-’가 줄어들고 남은 자음 ‘르’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다. 그리고 모음 어미 ‘-어, -있-’이 결합된 형태의 준말의 활용형 ‘\*머물어, \*머물었다’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37. [출제의도] 높임 표현의 실현 양상을 파악한다.**

ㄱ에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한 조사 ‘께’와 특수한 어휘 ‘여쭙러’가 사용되었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발음 사례를 탐구한다.**

‘벽난로’에서는 중성 위치의 ‘ㄱ’에서 ‘ㅇ’으로의 음운

변동이, 중성 위치의 ‘ㄴ’에서 ‘ㄹ’로의 음운 변동이 각각 일어난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격 조사를 이해한다.**

‘바르래’는 체언 ‘바랄’의 모음이 양성 모음으로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고, ‘그르세’는 체언 ‘그릇’의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다. 즉,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실시간 채팅’은 방송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시청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실시간 채팅’에서 ‘셋별’이 전문가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매체 수용자의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시청자 1은 설문의 출처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쇼트폼의 사례가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다고 언급하였다. 이로 볼 때, 시청자 1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시청자 3은 방송이 비판 의식 없이 쇼트폼을 소비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유의할 점을 알려 주어 의미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시청자 1과 달리, 시청자 3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에는 ‘고’가 있다. ‘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에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가)에서 게시물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용자의 수가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선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나)의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어 정보 전달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하이퍼링크를 사용하고 있다. ④ (가), (나) 모두에서 시간 제한을 생각해서 정보량을 조절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는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음성 언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수용자의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민재는 환경 단체 체험 행사 안내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학교 체험 행사 안내도 초안과 비교했다. 이어서 아준은 환경 단체 체험 행사 안내도를 참고하여 범례를 따로 구성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참고해서 ㉡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민재는 두 번째 말에서 체험의 순서를 나타내는 화살표와 출입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모두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오답풀이]** ① 윤아의 마지막 말에 행사 이름과 위치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민은 ‘제작’과 ‘다짐’의 공간 위치를 서로 바꿀 것을 제안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아준은 마지막 말에서 환경 단체 안내도에서 범례를 따로 둔 것처럼 학교 체험 행사 안내도에서도 범례를 따로 두자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윤아는 두 번째 말에서 ‘제작’이 활동 의미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생’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 제 1 교시

1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는 같으나 의미에 연관성이 없는 단어의 관계를 동음이의 관계라 하고, 이러한 관계를 가진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부른다. 동음이의어는 소리와 표기가 모두 같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리는 같고 표기가 다른 것도 있다. 전자를 동형 동음이의어, 후자를 이형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신을 벗다.’의 ‘신’과 ‘신이 나다.’의 ‘신’은 동형 동음이의어이고 ‘걸음’과 ‘거름’은 이형 동음이의어이다.

한편, 동음이의어를 절대 동음이의어와 부분 동음이의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절대 동음이의어는 품사 등의 문법적 성질이 동일하면서 단어의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 이때 형태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은 동음이의어가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거나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동일한 용언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모자를 쓰다.’의 ‘쓰다’와 ‘편지를 쓰다.’의 ‘쓰다’는 품사가 동사로 동일하고, ‘쓰고, 써, 쓰니’ 등과 같이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서로 동일하므로 절대 동음이의어이다.

부분 동음이의어는 문법적 성질이 동일하나,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가의 두 가지 기준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령 ‘날아가는 새’의 ‘새’와 ‘새 신발’의 ‘새’는 형태가 언제나 동일하지만 각각 명사와 관형사로, 문법적 성질은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김치독을 땅에 묻다.’의 ‘묻다’와 ‘길을 묻다.’의 ‘묻다’는 둘 다 동사이지만 각각 ‘묻고, 묻어, 묻으니’, ‘묻고, 물어, 묻으니’와 같이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앞에서 말한 ㉠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동음이의어도 존재하는데, 이는 동음이의어가 각각 동사와 형용사이면서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은 경우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의 ‘반드시’와 ‘반듯이 앉아 있다.’의 ‘반듯이’는 소리는 같고 표기가 다르므로 이형 동음이의어에 해당하겠군.
- ② ‘그 책을 줘.’의 ‘그’와 ‘그는 여기 있다.’의 ‘그’는 모두 대명사이고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므로 절대 동음이의어에 해당하겠군.
- ③ ‘전등을 갈다.’의 ‘갈다’와 ‘칼을 갈다.’의 ‘갈다’는 모두 동사이고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므로 절대 동음이의어에 해당하겠군.
- ④ ‘커피를 건다.’의 ‘건다’와 ‘비를 맞으며 건다.’의 ‘건다’는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부분 동음이의어에 해당하겠군.
- ⑤ ‘한 사람이 왔다.’의 ‘한’과 ‘힘이 닿는 한 돕겠다.’의 ‘한’은 각각 관형사와 명사로 품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부분 동음이의어에 해당하겠군.

36.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옳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 기 〉		
누르다	1	우리 팀이 상대 팀을 누르고 우승했다.
	2	먼 산에 누르고 붉게 든 단풍이 아름답다.
이르다	1	약속 장소에 이르니 그의 모습이 보였다.
	2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니 다시 도전하자.
	3	그에게 조심하라고 이르니 고개를 끄덕였다.
바르다	1	생선 가시를 바르고 살을 아이에게 주었다.
	2	방에 벽지를 바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 ① 누르다 1과 2, 이르다 1과 2
- ② 누르다 1과 2, 이르다 1과 3
- ③ 누르다 1과 2, 바르다 1과 2
- ④ 이르다 1과 2, 바르다 1과 2
- ⑤ 이르다 1과 3, 바르다 1과 2

37. 다음은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활동>**

- 카드에는 한 개의 단어와 그 단어의 표준 발음이 적혀 있다.
- 카드에 적힌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과 유형별 횟수가 같은 카드끼리는 짝을 이룬다.
- 단, 음운 변동 유형은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만 구분하고, 음운 변동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흙빛[흑뵤]’이 적힌 카드는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카드와 짝을 이룬다.

국화꽃  
[구과꽃]

옆집  
[엽집]

침낭쿨  
[칭낭쿨]

삿일  
[상닐]

호박엿  
[호:방년]

㉠
㉡
㉢
㉣
㉤

- ① ‘백합화[배카화]’가 적힌 카드는 축약이 두 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과 짝을 이룬다.
- ② ‘삿살이[삿싸치]’가 적힌 카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과 짝을 이룬다.
- ③ ‘값없이[가법씨]’가 적힌 카드는 교체와 탈락이 한 번씩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과 짝을 이룬다.
- ④ ‘뭉뭉이[몽뭉씨]’가 적힌 카드는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과 짝을 이룬다.
- ⑤ ‘백분율[백뵤닐]’이 적힌 카드는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과 짝을 이룬다.



## 2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8. <보기>의 ㉠이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의미 단위를 절이라 한다. 문장에서 부속 성분으로 쓰인 절은 수식의 기능을 하여 생략될 수 있지만, ㉠ 부속 성분이면서도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여 생략될 수 없는 절도 있다.

- ① 우리는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하였다.
- ② 나는 그가 있는 가게로 저녁에 갔다.
- ③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 버렸다.
- ④ 부지런한 동생은 나와는 달리 일찍 일어난다.
- ⑤ 저기 서 있는 아이가 특히 재주가 있게 생겼다.

39. <보기>의 자료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 부텃 덩바깃뻬 노퍽샤 뽀머리 ㄱㅌ실췌  
[현대어 풀이] 부처님의 정수리뻬가 높으시어 튼 머리 같으시므로

[중세 국어] 大臣이 이 藥 ㄹᄇ라 大王의 ㅁᄇᄇ대 王이 ㅈᄇᄇ고  
[현대어 풀이] 대신이 이 약을 만들어 대왕께 바치니 왕이 드시고

- ① ‘부텃’을 보니, 높임의 대상에 관형격 조사 ‘ㅁ’이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군.
- ② ‘노퍽샤’를 보니, 대상의 신체 일부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ㄱㅌ실췌’를 보니, 현대 국어와 같은 형태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④ ‘ㅁᄇᄇ대’를 보니,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⑤ ‘ㅈᄇᄇ고’를 보니, 높임의 의미를 갖는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0 ~ 43] (가)는 ○○군 공식 블로그이고, (나)는 영상 제작을 위해 휴대 전화 메시저로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군 공식 블로그 × +  
← → ↻ ⏏ <https://blog.○○.go.kr/12345> :  
○○군 홍보 연재 3탄! <치유농업을 아시나요?>

㉠ 오늘은 일상에 지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치유농업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이나 산업을 의미합니다. ㉡ 농업 활동은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면서 운동 능력을 강화해 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치유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지역이 개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 그중 원예 체험 행사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열고 있습니다. ㉣ 이 행사에 참여한 A씨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져서 만족스러워요. 딸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 많은 사람들이 치유농업에 대해 잘 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치유농업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파일: 치유농업 홍보 영상 공모전 안내.hwp

댓글

↳ [서연] 치유농업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고등학생인데, 팀으로 영상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나요?  
↳ [블로그 관리자] 네, 팀별 참가도 가능합니다. 영상 공모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해요.^^

(나)

PM 08:45 2023년 4월 ○○일 수요일 73%

학교에서 말한 영상 공모전에 대해 회의하려고 우리 모두 대 서연  
회방 열었어. 우선 내가 본 ○○군 블로그 글 공유할게.  
<https://blog.○○.go.kr/12345>

수진 서연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치유농업을 다룬 뉴스를 찾아 봤  
어. 이 영상 한번 봐 봐. 치유농업이 인지적 기능까지도 향상  
시켜 준다고 하더라고  
<https://△△△news.com/7890>

태준 "치유농업" 효과 탁월

태준 추가적인 것까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자료네. 📎

다들 이제 치유농업이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됐을 서연  
것 같아. 그럼 영상 제작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내가 미리 간단한 영상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 봤어.

파일 전송: 치유농업 홍보 영상 제작 계획서.hwp(7.0MB)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해 줘.

**지훈** 서연에게 답장  
내가 미리 간단한 영상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 봤어.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어? 대단하다!  
역시 철저한 준비생!

**태준** '치유농업의 개념-개인에게 미치는 효과-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 세 부분으로 나누었네. 다들 어떻게 생각해?

**수진** 좋아. 그런데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아.

**태준** 그럼 개인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한 장면에 배치하고 마지막 장면에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제시하자.

**서연** 좋은 생각이야. 그럼 영상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첫 장면은 농촌 풍경을 보여 주면서 치유농업의 개념을 내레이션으로 처리했는데 어때?

**지훈** 높은 곳에서 멀리 내려다보는 각도로 마을을 촬영해서 고즈넉한 농촌 풍경을 담아내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풍경과 어울리는 배경 음악도 삽입하자.

**수진** 그런데 개념을 내레이션으로만 제시하기보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함께 제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태준** 찬성. 그다음 장면으로 두 종류의 열매 이미지 안에 치유농업이 개인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넣어서 제시하면 시각적인 전달력이 높아질 거야.

**지훈** 그래. 열매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효과음을 함께 제시하자. 그다음에 열매를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치유농업을 통해 결실을 얻는다는 의미도 살릴 수 있어.

**수진** 마지막 장면은 참여를 권유하는 말을 다양한 사람들이 외치게 하여 참여 대상에 제한이 없음을 드러내자.

**서연** 의견 제시해 줘서 고마워. 너희 의견 반영해서 영상 제작 계획서 수정해 볼게.

**태준** 그럼, 촬영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

**수진** 투표로 결정하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투표해 줘.  
투표하러 가기 >

**지훈** 응. 알았어.

40. (가)와 (나)에 드러나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가 불특정한 다수의 정보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가)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용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서 소통하고 있다.
- ④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생산한 정보의 내용을 정보 수용자가 직접 수정하고 있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결합한 형태로 정보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41. (나)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연'은 문서 파일을 공유하며 대화 참여자들에게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진'은 동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 ③ '지훈'은 답장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자료 준비 태도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태준'은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준비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수진'은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들에게 의사 결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4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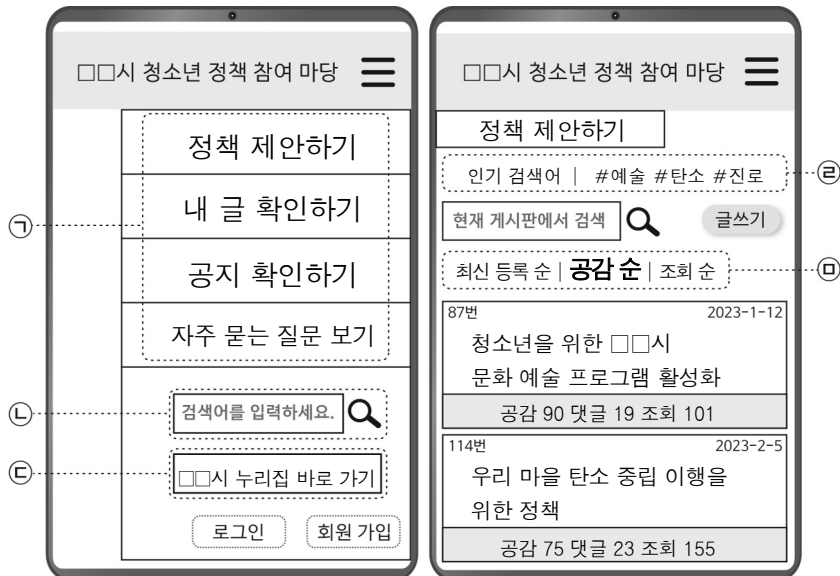
- ① ㉠: 연결 어미 '-려고'를 사용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를 준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운동 능력 강화의 조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원예 체험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행사 참여자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 ⑤ ㉤: 연결 어미 '-아서'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43. (나)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서연'이 수정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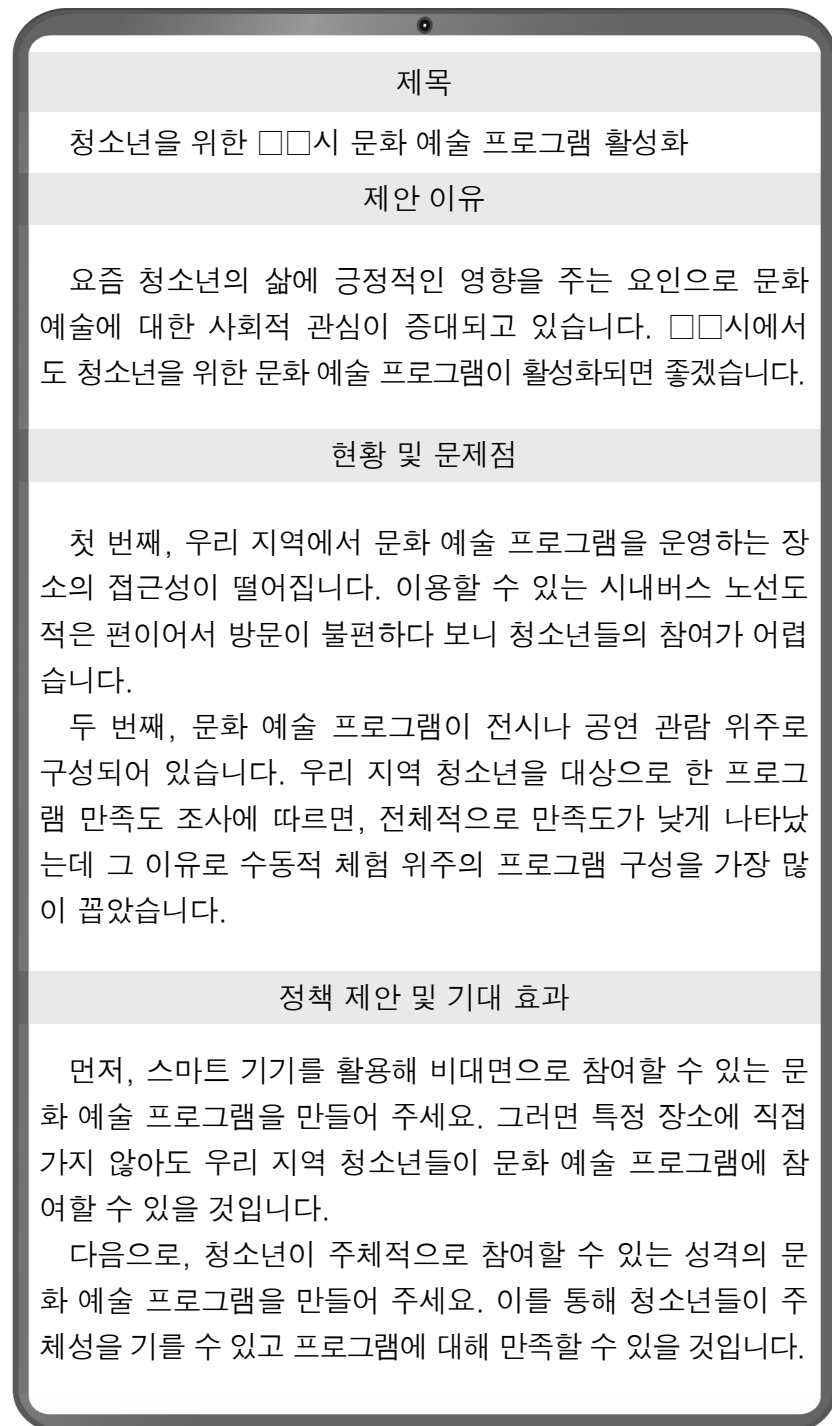
영상 제작 계획	
장면 구상	장면 스케치
① 산 위에서 촬영한 마을의 정경과 잔잔한 배경 음악을 함께 제시하여 평화로운 농촌의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연출해야겠어.	
② 치유농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레이션과 함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자막을 제시하여 전달 효과를 높여야겠어.	
③ 사과와 포도 모양의 이미지 안에 개인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기록하여 치유농업의 효과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연출해야겠어.	
④ 농부가 열매를 하나씩 수확할 때마다 효과음을 삽입하여 치유농업을 통해 얻는 결실의 의미를 시각뿐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강조해야겠어.	
⑤ '치유농업 함께해요'를 외치는 인물들의 성별과 연령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치유농업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연출해야겠어.	

[44 ~ 45]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1] ('□□시 청소년 정책 참여 마당'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화면 2] ([화면 1]에서 87번 게시물을 클릭한 화면)



44. [화면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니,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분류하여 제시하였군.
- ② ㉡을 보니, 이용자가 찾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제시하였군.
- ③ ㉢을 보니,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 지정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시하였군.
- ④ ㉣을 보니, 사용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화제를 알 수 있도록 인기 검색어를 열거하여 제시하였군.
- ⑤ ㉤을 보니,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게시물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게시물의 정렬 기준을 제시하였군.

45. 다음은 [화면 2]에 대한 학생들의 댓글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1 최근 문화 예술 경험이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시기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 2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까지 시내버스 말고도 셔틀버스가 운영돼서 쉽게 방문할 수 있으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 학생 3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수동적인 체험 방식 때문에 만족도가 낮았다고 하셨는데, 출처가 없어서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학생 4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니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실제로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학생 5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기르고 싶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① '학생 1'은 '제안 이유'에서 언급한 사회적 관심에 주목하여, 최근 문화 예술 경험의 영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정책 제안의 시의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현황 및 문제점'에서 언급한 접근성 문제에 주목하여, 실제로는 다른 교통편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현황 및 문제점'에서 제시한 만족도 조사 자료에 주목하여,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④ '학생 4'는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에서 제안한 비대면 프로그램의 개설에 주목하여, 스마트 기기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⑤ '학생 5'는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의 성격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언어와 매체]**

35	㉔	36	㉑	37	㉓	38	㉕	39	㉗
40	㉒	41	㉔	42	㉒	43	㉔	44	㉕
45	㉔								

**35. [출제의도] 동음이의어의 유형 이해하기**

‘그 책을 쥐.’의 ‘그’는 관형사이고 ‘그는 여기 있다.’의 ‘그’는 대명사로, 두 단어는 모두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지만 품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반드시’와 ‘반듯이’는 모두 [반드시]로 발음되어 소리가 같지만 표기가 다르므로 적절하다. ③ ‘전등을 같다.’의 ‘같다’와 ‘칼을 같다.’의 ‘같다’는 모두 동사로 품사가 동일하고, 모두 ‘같고, 같아, 가니, 가오’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므로 적절하다. ④ ‘커피를 건다.’의 ‘건다’는 ‘건고, 건어, 건으니’와 같이 활용하고 ‘비를 맞으며 건다.’의 ‘건다’는 ‘건고, 건어, 건으니’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적절하다. ⑤ ‘한 사람이 왔다.’의 ‘한’은 관형사이고, ‘힘이 닿는 한 돕겠다.’의 ‘한’은 명사로 품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과 품사 이해하기**

‘누르다 1’은 동사이고 ‘누르니, 눌러’와 같이 활용하며, ‘누르다 2’는 형용사이고 ‘누르니, 누르러’와 같이 활용하여, 두 단어는 품사가 다르고 활용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또 ‘이르다 1’은 동사이고 ‘이르니, 이르러’와 같이 활용하며, ‘이르다 2’는 형용사이고 ‘이르니, 일러’와 같이 활용하므로 두 단어는 품사가 다르고 활용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르다 1’과 ‘이르다 3’은 모두 동사이고 ‘이르니, 일러’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 양상이 동일하며, ‘바르다 1’과 ‘바르다 2’ 또한 모두 동사이고 ‘바르니, 발라’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따라서 ㉔에 해당하는 예는 ‘누르다 1과 2, 이르다 1과 2’이다.

**37.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 이해하기**

‘값없이[가법씨]’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 ㉔의 ‘침녕굴[칭녕굴]’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일어나 모두 탈락과 교체 각 한 번씩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① ‘백합화[백카피]’는 거센소리되기 두 번 일어나 축약이 두 번, ㉕의 ‘국화꽃[구과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 일어나 교체와 축약이 각각 한 번씩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살살이[산사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일어나 교체가 세 번, ⑥의 ‘열집[열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일어나 교체가 두 번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뭇뭇이[뭇목씨]’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일어나 탈락이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나고, ⑥의 ‘살일[상닐]’은 자음군 단순화, ‘ㄹ’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탈락, 첨가, 교체가 각 한 번씩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백분율[백뽀율]’은 된소리되기 ‘ㄹ’첨가가 일어나 교체와 첨가가 각 한 번씩 일어나고, ㉔의 ‘호박엿[호:방닐]’은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ㄹ’첨가가 일어나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부사절 ‘재주가 있께’는 서술어 ‘생겼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① 부사절 ‘밤이 세도록’은 서술어 ‘하였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② 관형절 ‘그가 있는’은 서술어 ‘갔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부사절 ‘말도 없이’는 서술어 ‘떠나 버렸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관형절 ‘부지런한’과 부사절 ‘나와는 달리’는 서술어 ‘일어난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받초분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대왕’을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부텨’는 높임의 대상인 ‘부터’에 관형격 조사 ‘사’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적절하다. ② ‘노프샤’는 ‘부터’의 신체 일부인 ‘덩바깃뻬’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구트실썩’은 현대 국어와 같은 형태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적절하다. ④ ‘좌시다’는 높임의 의미를 갖는 특수 어휘로서 주체인 ‘왕’을 높이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 이해하기**

(가)는 ○○군 공식 블로그로 정보 생산자가 불특정 다수의 정보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나)는 휴대 전화 메신저로 정보 생산자가 ‘우리 모뎀 대화방’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매체 활용 방식 분석하기**

‘수진’은 치유농업을 다룬 뉴스 동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치유농업이 인지적 기능까지도 향상시켜 준다’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서연’은 ‘치유농업 홍보 영상 제작 계획서.hwp’를 공유하며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들에게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지훈’은 답장 기능을 활용하여 ‘서연’에게 ‘언제 이런 걸~ 철저한 준비성!’이라고 하며 상대방의 자료 준비 태도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태준’은 ‘추가적인 것까지~ 좋은 자료네.’라고 하며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반응을 ‘수진’에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수진’은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투표해 줘.’라고 하며 대화 참여자들에게 의사 결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㉔에서 ‘주면서’의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서 ‘드리려고’의 ‘-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를 준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서 ‘지역 초등학교에서’의 ‘에서’는 앞말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원에 체험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서 ‘라고’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행사 참여자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에서 ‘물라서’의 ‘-아서’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분석하기**

‘지훈’의 세 번째 말을 보면 ‘열매가 하나씩 나올 때

마다 효과음을 함께 제시하자.’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지훈’의 두 번째 말을 보면 ‘높은 곳에서~배경 음악도 삽입하자.’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수진’의 세 번째 말을 보면 ‘그런데 개념을~좋은 것 같아.’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태준’의 네 번째 말을 보면 ‘그다음 장면으로~높아질 거야.’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수진’의 네 번째 말을 보면 ‘마지막 장면은~없음을 드러내자.’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특성 이해하기**

㉔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최신 등록 순, 공감 순, 조회 순’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게시물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지 게시물의 개수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하기, 내 글 확인하기, 공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기’로 게시판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에는 이용자가 찾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는 이용자가 ‘□□시 청소년 정책 참여 마당’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 지정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시 누리집 바로 가기’ 링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는 ‘예술, 탄소, 진로’와 같이 이용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화제를 알 수 있는 인기 검색어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분석하기**

‘학생 4’는 [화면 2]의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에서 ‘스마트 기기를~만들어 주세요’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스마트 기기를~많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의~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스마트 기기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화면 2]의 ‘제안 이유’에서 ‘요즘 청소년의~증대되고 있습니다.’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최근 문화 예술 경험~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정책 제안의 시의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화면 2]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우리 지역에서~접근성이 떨어집니다’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시내버스 말고도 서들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화면 2]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우리 지역~많이 품었습니다.’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출처가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다. ⑤ ‘학생 5’는 [화면 2]의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만들어 주세요’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자기 주도적인~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여 정책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살던’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나타내는 특이한 구조이다. 이처럼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聖人의(聖人+의) ᄃᆞ치산 法[성인의 가르치신 법]의 경우, ‘聖人’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용언인 ‘ᄃᆞ치산’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의’가, 무정 체언 또는 존칭의 유정 체언에는 ‘스’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스’이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기 때문이다.

중세 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예외는 부사격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을 기준으로, 모음 조화에 따라 ‘나중애’(나중+애), ‘므래’(믈+애)에서처럼 ‘애/에’가 쓰인다. 단, 끝음절이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날 때에는 ㉠ ‘뉘예’(뉘+예)에서처럼 ‘예’가 쓰였다. 그런데 ‘애/에/예’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인 ‘의/의’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외는 ‘봄’, ‘나조ᄃᆞ[저녁], ㉡ ‘우희’[위], ‘밀’ 등의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 확인된다. 가령, ‘나조ᄃᆞ’에는 ‘의’가 결합하여 ㉢ ‘나조ᄃᆞ의’(나조ᄃᆞ+의)로, ‘밀’에는 ‘의’가 결합하여 ‘미티’(밀+의)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 가령, ‘익그에’는 관형격 조사 ‘의’에 ‘그에’가 결합된 형태이고 ‘스기’ 역시 관형격 조사 ‘스’에 ‘기’가 결합된 부사격 조사다. 이들은 ㉣ ‘늑미그에’(늑+익그에)나 ‘어마넛기’(어마님+스기)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평칭의 유정 명사 ‘늑’에는 ‘익그에’가, 존칭의 유정 명사 ‘어마님’에는 ‘스기’가 쓰인다. 중세 국어의 ‘익그에’와 ‘스기’는 각각 현대 국어의 ‘에게’와 ㉤ ‘께’로 이어진다.

35.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부사격 조사 ‘예’와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에서 반모음 ‘ㅣ’가 확인된다.
  - ② ㉡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우희’가 된다.
  - ③ ㉢은 현대 국어로 ‘저녁의’로 해석되어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
  - ④ ㉣의 ‘익그에’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가 분석된다.
  - ⑤ ㉤이 현대 국어에서 존칭 체언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스’와 관련된다.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자 료>

- ㉠ 수풀(수풀+스) 神靈이 길헤 나아  
[현대어 풀이: 수풀의 신령이 길에 나와]
- ㉡ 늑미(늑+익) 말 드러사 알 씨라  
[현대어 풀이: 늑의 말 들어야 아는 것이다]
- ㉢ 世界(세계+스) 일을 보샤  
[현대어 풀이: 세계의 일을 보시어]
- ㉣ 이 사르미(사름+익) 잇는 方面을  
[현대어 풀이: 이 사람의 잇는 방면을]
- ㉤ 孔子(孔子+의) 기티신 글워리라  
[현대어 풀이: 공자의 남기신 글이다]

- ① ㉠: ‘神靈(신령)’이 존칭의 유정 명사이므로 ‘수풀’에 ‘스’이 결합한 것이군.
- ② ㉡: ‘늑’이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익’이 결합한 것이군.
- ③ ㉢: ‘世界(세계)스’이 ‘보샤’의 의미상 주어이고, ‘스’은 예외적 결합이군.
- ④ ㉣: ‘이 사르미’가 ‘잇는’의 의미상 주어이고, ‘익’은 예외적 결합이군.
- ⑤ ㉤: ‘孔子(공자)의’가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37.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 현재 시제만 쓰일 것.
- ㉡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 안긴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실현 조건	예문
㉠, ㉡	㉠
㉠, ㉢	㉡
㉡, ㉢	㉢

- ① ㉠: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 ② ㉡: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지요?
- ③ ㉢: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 ④ ㉣: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 ⑤ ㉤: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38.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음운의 변동 가운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를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적용 유무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그럼, 표준 발음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들을 분류해 보죠.

분류 전	㉠	㉡	㉢	분류 후
넓디넓다, 높푸르다, 늦깎이, 닭갈비, 썩대밭, 앞장서다, 읊다, 있다, 짓밟다, 흙빛	○	○	○	㉠
	○	×	○	㉡
	○	×	×	
	×	○	○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

- |   | ㉠    |  | ㉡    |  |
|---|------|--|------|--|
| ① | 짓밟다  |  | 늦깎이  |  |
| ② | 넓디넓다 |  | 있다   |  |
| ③ | 읊다   |  | 높푸르다 |  |
| ④ | 흙빛   |  | 썩대밭  |  |
| ⑤ | 닭갈비  |  | 앞장서다 |  |

39.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희철, 민수, 기영이 ○○서점 근처에서 만난 상황)

희철: 애들아, 잘 지냈어? 3일 만에 보니 반갑다.

민수: 동해안으로 체험 학습 다녀왔다면? ㉠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발표 준비하자. 기영인 어떻게 생각해?

기영: ㉡ 네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정수도 부를까?

희철: 그러자. ㉢ 저기 저 ○○서점에서 오전 10시에 만나서 다 같이 도서관으로 가자. ㉣ 정수한테 전할 때 서점 위치 링크도 보내 줘. 전에도 헤맸잖아.

민수: 이제 아냐. ㉤ 어제 나랑 저기서 만났는데 잘 ㉥ 왔어.

희철: 그렇구나. 어제 잘 ㉦ 왔었구나.

민수: 아, 기영아! ㉧ 우리는 회의 가야 돼. ㉨ 네가 ㉩ 우리 셋을 대표해서 정수에게 연락을 좀 해 줘.

- ① ㉠은 ㉡과 달리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 ② ㉢은 ㉣과 달리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 ③ ㉤은 ㉥과 달리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 ④ ㉤은 ㉥과 달리 화자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 ⑤ ㉧은 ㉨과 달리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40~43] (가)는 보이는 라디오의 본방송이고, (나)는 이 방송을 들은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매주 수요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앱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여행가 안○○님을 모셨습니다.

여행가: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진행자: 지난주부터 등대 스탬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중 ‘재미있는 등대’라는 주제를 소개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여행가: 네, 오늘은 ‘풍요의 등대’입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16개 등대와 □□ 생물 자원관을 돌아보면서 풍요로운 해산물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입니다.

진행자: 이제부터 ‘풍요의 등대’에 속한 등대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곳이 있나요?

여행가: 저는 천사의 섬이라는 모티브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 등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등대에 설치된 LED 조명이 켜지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곳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먹는 전복 라면은 정말 맛있죠.

진행자: 정말 맛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로 지난주에 안내했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를 물으시네요. 예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여행가: ㉢ 우선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모바일 여권은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종이 여권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고 사진을 촬영하시는 겁니다. 사진을 다 모으시면 누리집에서 완주 인증을 하시는 거죠.

진행자: ㉣ 실시간 댓글로 6789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보을까요?

여행가: ㉤ 네,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엔 스탬프로 완주 인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스탬프를 찍기 원하는 여행자들이 많아 여전히 스탬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기쁨향 등대처럼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자: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잠시만요, 나머지 등대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2부에서 계속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풍요의 등대’의 완주 기념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행가: (테이블에 오르골을 올리며) 바로 이 등대 오르골입니다.

**진행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르골이 귀엽다는 반응이 많네요.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 모양이 궁금하시죠? 작고 예쁜 등대가 나무 상자 안에 있고, 오른쪽에 태엽을 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뵙게요.

(나)

등대 스탬프 여행을 여행 지리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겠어. ㉠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되 여행의 순서가 잘 나타날 수 있게 표현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지. ㉡ ‘△△ 등대’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고,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지.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므로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②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 ③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방송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한다.
- ④ 청각적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수용자가 있으므로 방송 중에 제공한 시각적 정보를 음성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다.
- ⑤ 수용자들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조정한다.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의 청취자 게시판이다.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취자 게시판

새달: 행복도 등대나 기쁨항 등대와 같이 등대 스탬프가 없는 곳도 있다는데요. 그 등대는 스탬프를 찍을 수 없군요.

↳ 알콩: 저는 일반적인 등대와는 달리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스탬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사슴: 알콩 님 말씀과 같이 스탬프가 있긴 해요. 행복도 등대는 행복도 역사관 내에, 기쁨항 등대는 선착장 앞에 있어요. 모두 찾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 새달: 사슴 님 좋은 정보 감사해요.

- ①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의 잘못된 이해가 ‘알콩’과 ‘사슴’의 댓글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 ② 방송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공통된 생각에 ‘사슴’이 동조하고 있다.
- ③ 방송을 듣고 ‘새달’이 느낀 감정을 ‘알콩’ 및 ‘사슴’과 공유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방송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서로 다른 생각이 ‘사슴’에 의해 절충되고 있다.
- ⑤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긍정적 감정이 ‘사슴’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발표 자료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풍요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 및 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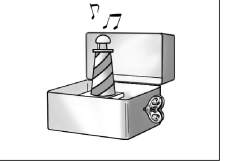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택1 하여 참가 신청하기



등대를 방문하여 스탬프 찍고 사진 촬영하기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완주 인증하기



- 인증은 스탬프가 아닌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  
- 사전에 스탬프 위치 확인

△△ 등대 -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등대

특징: LED 조명이 만드는 이국적인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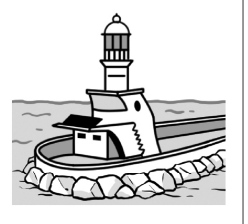
주소: ▽▽도 ◇◇군 △△면

스탬프 위치: 등대 앞

볼거리: ◇◇ 철새 전시관, ◇◇산 전망대

먹을거리: 전복 라면, 복어 튀김, 소금 사탕

재밌거리: 자전거 여행, 조개 잡기 체험



- ①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기로 한 ㉠은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자.
- ② 여행의 순서를 나타내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게 화살표를 사용하자.
- ③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의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
- ④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자.
- ⑤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은 여행가의 말을 가져와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달자.

43.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종결 어미 ‘-니디다’를 사용하여, 방송을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다.
- ② ㉡: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여행가를 높이고 있다.
- ③ ㉢: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 ④ ㉣: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궁금증이 있는 주체인 ‘6789 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⑤ ㉤: ‘말씀’을 사용하여, 화자인 여행가의 말을 높이고 있다.



[44~45]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나눈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기기 구성 정보

전원 버튼, 액정 화면, 블루투스 연결 버튼, 측정 센서

2. 기기 연결 방법

- 1단계 [체중계] 전원 버튼을 눌러 체중계를 작동하세요.
- 2단계 [체중계]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 3단계 [휴대 전화] **설정-블루투스-기기 찾기**를 선택하세요.
- 4단계 [휴대 전화]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에서 ○○ 체중계를 선택하세요.
- 5단계 [휴대 전화] ○○ 체중계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세요.
- 6단계 [휴대 전화] 앱에서 기록을 선택한 후 성별, 키 등 사용자 정보를 기록하세요(기록한 정보는 개인 데이터 분석에 활용).

3. 기기 기능 안내(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능을 클릭)

몸무게 측정 개인 데이터 분석 자동 누적 기록 기타 기능

4. 기타 안내

- 1) 앱 설치 바로 가기 : <https://jgsw.com/app>
- 2)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 : <https://jgsw.com/set>
- 3) 사용 설명서 다운로드 : <https://jgsw.com/exp001>

사용 설명서 정보 : 한국어 버전 2.1(2022. 10. 수정)

(나)

2023년 4월 15일

할머니 시윤아, 혹시 너도 이런 체중계 쓰니?

네!!! 저도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시윤

할머니 잘됐다.

할머니 혈압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해야 해서 하나 구입했어.

오! 할머니, 파이팅이에요! 시윤

할머니 이거 단순한 체중계가 아닌 거 같더라. 설명서를 다운 받아서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너도 봐 볼래?

<https://jgsw.com/exp001>

이거 기능 정말 많아요. 시윤

4. 기타 안내에 두 번째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따라 하세요. 시윤

2023년 5월 6일

할머니, 체중계 잘 쓰고 계세요? 시윤

할머니 어, 잘 쓰고 있지. 매일 아침 기록하고 있어.

혹시 예전처럼 달력에다 손으로 직접 쓰고 계세요? 시윤

그거 다 이렇게 자동으로 앱에 기록돼요. 시윤

할머니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설명서에 이런 게 있었나?

이거 단순한 체중계가 ... <https://jgsw.com/exp001> 시윤

↳ [답장] 이게 저번에 할머니께서 저한테 보내 주신 설명서 링크예요. 이거 다시 보고 계시면 제가 이따가 전화해서 알려 드릴게요.

44.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기 구성 정보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했다.
- ② 기기를 휴대 전화와 연결하는 방법을 조작 순서에 맞추어 안내했다.
- ③ 기기 연결 방법에서 앱에 기록할 정보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했다.
- ④ 기기 기능 안내에서는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의 항목을 나열하여 배치했다.
- ⑤ 사용 설명서의 버전 정보를 수정 시점과 함께 제공했다.

45.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군.
- ② (나)의 사용자들이 서로 교환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의 수정 과정을 점검할 수 있군.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여 요청할 수 있군.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교류한 이력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불러와 상대방에게 이전 내용을 환기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자고 하였다. <3편> 부제에서는 학생 주도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㉓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㉓는 편집부장이 주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학습 공간 외에 사색의 공간, 어울림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내용은 <2편> 초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므로, ㉑는 적절하다. ㉒ 공간의 변화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2편> 초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므로, ㉒는 적절하다. ㉔ 국내외의 많은 학교들이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3편>의 표제와 부제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㉔는 적절하다. ㉕ 학생들이 공간 개선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3편>의 부제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㉕는 적절하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㉓ 36. ㉕ 37. ㉒ 38. ㉔ 39. ㉔ 40. ㉒ 41. ㉑ 42. ㉕ 43. ㉕ 44. ㉓  
45. ㉑

[35~36] 언어

[35~36]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

지문해설 : 이 글은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 및 부사격 조사가 쓰이는 일반적인 양상과 예외적인 양상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선행 체언에 따라 달리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에 대해 다루는데, 특히 후행하는 용언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어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일반적인 결합 원칙에서 벗어나서 쓰인 사례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선행 체언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달리 쓰이는 양상을 설명하며, 특히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는 '애/에/예'가 아닌 '이/의'가 부사격 조사로 쓰인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부사격 조사가 있음을 '이그에(에게)'와 '스그(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예외적 사용 양상

35.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㉓의 '나조히(나조ㅎ + 이)'는 '저녁의'가 아니라 '저녁에'로 해석된다. 이때의 '이'는 일부 특수한 체언들과 결합하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이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㉒은 '뉘'의 끝음절 '궤'에서 반모음 'ㅣ'가 확인되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로 ‘애/에’가 아닌 ‘예’가 쓰인 경우이다. 참고로, 중세 국어의 ‘개, 꺀, 꺀, 꺀’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중 모음이었다. ㉔ ㉕의 ‘우ㅎ’는 모음 조화에 따라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우희’가 된다. ㉔ ㉕의 ‘이그에’는 관형격 조사 ‘이’에 ‘그에’가 결합되어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경우라고 3문단에서 설명하였다. ㉕ ㉕의 ‘께’는 중세 국어 ‘스꺀’가 현대 국어로 이어진 것임을 중세 국어에서 존칭의 유정 명사 ‘어마님’에 ‘스꺀’가 쓰였다는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존칭의 유정 체언에는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다는 1문단의 설명을 통해서도 ‘께’가 현대 국어에서 존칭 체언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스’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칭의 유정 체언과 결합하는 ‘이그에(에게)’에서 평칭의 유정 체언과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 ‘이’가 분석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 36.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공자의 남기신 글’은 ‘공자가 남기신 글’이라는 의미이므로 ‘孔子(공자)의’는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다. ‘孔子(공자)’가 존칭의 유정 체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스’이 결합하여야 하지만 ‘의’가 결합하였다. 따라서 예외적 결합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㉑ ‘수플’이 무정 체언이기 때문에 ‘스’이 결합한 것이다. ㉒ ‘눔’이 평칭의 유정 체언이고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가 결합한 것이다. ㉓ ‘世界(세계)스’를 ‘보샤’의 의미상 주어로 볼 수 없다. 또한 ‘世界(세계)’가 무정 체언이기 때문에 ‘스’이 결합한 것이어서 예외적 결합으로 볼 수도 없다. ㉔ ‘이 사꺀미’가 ‘잇논’의 의미상 주어이기는 하지만, ‘사꺀미’가 평칭의 유정 체언이고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가 결합한 것이어서 예외적 결합이 아니다.

### 37.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

**정답해설 :** ‘선생님께서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는 현재 시제가 쓰인 문장이고, ‘살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㉑, ㉒가 모두 실현되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㉑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는 ‘-나다’를 통해 현재 시제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란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㉒는 실현되지 않았다. ㉓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는 현재 시제가 쓰인 문장이다. 그러나 연결 어미 ‘-으므로’가 쓰인 이어진문장으로, 안긴문장은 없다. 따라서 ㉔는 실현되지 않았다. ㉕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에서는 안긴문장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가 전체 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한다. 그러나 ‘-었-’을 통해 이 문장에는 과거 시제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는 실현되지 않았다. ㉕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에서 안은문장 전체의 서술어 ‘슬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참고로 안긴문장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의 서술어 ‘받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안긴문장은 전체 문장의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로 기능한다.

### 38.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제시된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 단어[표준 발음]	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㉕ 자음군 단순화	㉖ 된소리되기
넓디넓다[널띠널따]	×	○	○
높푸르다[놉푸르다]	○	×	×
늦깎이[늘까끼]	○	×	×
닭갈비[닥갈비]	×	○	○
쑥대밭[쑥대밭]	○	×	○
앞장서다[압짱서다]	○	×	○
웁다[읍따]	○	○	○
있다[일따]	○	×	○
짓밟다[질뽱따]	○	○	○
흙빛[흑뽱]	○	○	○

따라서 ㉔, ㉕, ㉖가 모두 일어나는 ㉗로 분류되는 단어는 ‘웁다[읍따], 짓밟다[질뽱따], 흙빛[흑뽱]’이고, ㉔, ㉖가 일어나는 ㉘로 분류되는 단어는 ‘쑥대밭[쑥대밭], 앞장서다[압짱서다], 있다[일따]’이다.

정답 ④

### 39.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㉔의 ‘왔어’는 정수가 화자인 민수가 있던 장소로 이동했음을 나타내지만 ㉕의 ‘왔었구나’는 정수가 화자인 희철이 있던 장소로 이동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㉗의 ‘내일’과 ㉔의 ‘어제’는 둘 다 발화 시점에 따라 언제인지가 결정된다. ② ㉔의 ‘네 말’은 이전 발화를 가리킴에 비해 ㉔의 ‘저기 저’는 ‘○○ 서점’을 가리킨다. ③ ㉔의 ‘정수’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지시 대상이 고정되지만 ㉕의 ‘네’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결정된다. ⑤ ㉔의 ‘우리’는 ‘민수, 희철’을 가리키고 ㉕의 ‘우리’는 ‘기영, 민수, 희철’을 가리킨다.

[40~43] 매체

#### 40.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

**정답해설** : 주로 음성 언어로 전달되는 라디오 방송의 특성상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자는 이러한 청취자를 위하여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행자의 두 번째 발화 ‘지난주부터 ~ 소개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를 통해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진행자의 여섯 번째 발화 중 ‘나머지 등대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 완주 기념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를 통해 시간상의 제약으로 방송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진행자의 일곱 번째 발화 중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 손잡이가 있습니다.’를 통해 청각적 정보만 접하는 수용자를 위해 시각적 정보를 음성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행자의 네 번째 발화 중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로 ~ 물으시네요. ~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와 다섯 번째 발화 중 ‘실시간 댓글로 ~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보을까요?’를 통해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여행가의 다섯 번째 발화 중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를 듣고 진행자는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라고 하였다. 따라서 행복도 등대나 기쁨항 등대에서는 스탬프를 찍을 수 없다는 글을 쓴 ‘새달’은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달’이 이해한 바를 ‘알콩’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스탬프가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댓글로 수정해 주고 있으며, ‘사슴’은 스탬프가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내용의 댓글로 수정해 주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공통된 생각과 ‘사슴’이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새달’이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아쉬운 마음을 담아 글을 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감정에 ‘알콩’과 ‘사슴’이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새달’이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콩’이 바로 잡아주고 있으며, ‘사슴’은 ‘알콩’의 말에 동조하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⑤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긍정적 감정은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긍정적 감정이 ‘사슴’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 42.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은 여행가의 말 중에서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 등대’를 가져와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이 제목은 △△ 등대의 특징과 주소, 스탬프 위치, 볼거리, 먹을거리, 재밌거리를 다룬 ㉡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는 여행가가 말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이 모두 담겨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② ㉠에는 여행가가 말한 여행 순서가 화살표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게 화살표를 사용하자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③ ㉠에는 여행의 순서가 글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림으로도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의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④ ㉡에는 △△ 등대의 특징과 주소, 스탬프 위치, 볼거리, 먹을거리, 재밌거리 등 여행에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자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의 ‘말씀드린’에 쓰인 ‘말씀’은 화자인 여행가가 자신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와 같이 남의 말을 높여 이를 때에도 ‘말씀’이 쓰이지만 ㉡의 ‘말씀’은 이러한 경우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시작합니다’에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가 쓰였다. 하십시오체는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다. 따라서 진행자가 방송을 (보고) 듣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모셨습니다’에는 특수 어휘 ‘모시다’가 쓰였는데, 이는 객체인 ‘여행가 안○○ 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③ ㉣의 ‘선택하셔서’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는데, 이는 ‘선택’의 주체가 방송을 보고 듣는 청자들임을 고려한 높임 표현이다. ④ ㉤의 ‘있으시답니다’에는 ‘있으시다’가 쓰였는데, 이는 높임 대상과 관련되는 ‘궁금증’을 높임으로써 주체인 ‘6789 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44~45] 매체

#### 44. 매체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

---

**정답해설 :** (가)의 ‘2. 기기 연결 방법’에서는 휴대 전화의 메뉴 중에서 선택해야 할 내용을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였다. 따라서 앱에 기록할 정보(성별, 키 등)의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 기기 구성 정보’에서는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기기의 구성 정보를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다. ② ‘2. 기기 연결 방법’에서는 기기를 휴대 전화와 연결하는 방법을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하였다. ④ ‘3. 기기 기능 안내’에서는 ‘몸무게 측정, 개인 데이터 분석, 자동 누적 기록, 기타 기능’의 항목을 나열하여 배치하고, 궁금한 내용은 해당 기능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사용 설명서의 하단에는 사용 설명서의 버전 정보와 수정 시점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 45.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과 활용

**정답해설 :** (나)의 ‘2023년 4월 15일’ 대화에서 ‘시윤’은 ‘할머니’에게 (가)의 내용 중 ‘4. 기타 안내’에 있는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를 누르고 따라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023년 5월 6일’ 대화에서 ‘시윤’은 (가)의 내용 중 ‘3. 기기 기능 안내’의 ‘자동 누적 기록’과 관련한 기능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할머니’와 ‘시윤’이 주고받은 내용에서 (가)의 수정 과정과 관련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③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성을 지닌 매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의 특성에 해당한다. ④ (가)의 ‘3. 기기 기능 안내(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능을 클릭)’과 ‘4. 기타 안내’를 통해, (가)도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2023년 5월 6일’ 대화를 보면 ‘시윤’이 ‘2023년 4월 15일’ 대화 중 ‘할머니’가 쓴 글의 내용을 불러와 그 글에 ‘[답장]’을 다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작성하여 이전 내용을 환기하였다. (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부정문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다. ‘안’ 부정문은 주어의 의지에 의한 의지 부정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못’ 부정문은 주어의 능력 또는 상황에 의한 부정을 나타낸다. ‘안’ 부정문에는 부정 부사 ‘안(아니)’이나 용언 ‘아니다’, 보조 용언 ‘아니하다(않다)’를, ‘못’ 부정문에는 부정 부사 ‘못’이나 보조 용언 ‘못하다’를 사용한다. 그리고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에는 보조 동사 ‘말다’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안’ 부정문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서술어가 ‘체언+이다’로 된 경우에는 체언에 보격 조사 ‘이/가’를 붙여 ‘체언+이/가 아니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서술어가 용언인 경우에는 서술어 앞에 ‘안’을 놓거나 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 ‘-지’를 붙여 ‘-지 아니하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전자를 ‘짧은 부정문’, 후자를 ‘긴 부정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짧은 부정문은 용언에 따라 부정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다.

ㄱ. \*밥이 안 설익다. / ㄴ. \*내가 너를 안 앞서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안’ 부정문은 ㄱ, ㄴ과 같이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인 경우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된다. 그러나 사동사, 피동사, 접미사 ‘-하다’로 파생된 일부 용언이나 ‘돌아가다, 들어가다’와 같이 보조적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한 합성 동사는 어떤 제약도 없이 짧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의 ‘안’ 부정문은 현대 국어와 달리 수식어인 관형사와 부사의 앞에 ‘아니’가 위치하는 부정도 나타났다. 서술어가 용언인 경우에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모두 사용되었는데, 짧은 부정문은 서술어 앞에 ‘아니’를 사용하고, 긴 부정문은 보조적 연결 어미 ‘-디’를 사용하여 ‘-디 아니하다’의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동사의 어근이 명사나 한자어일 경우에는 어근과 접미사 ‘-하다’ 사이에 ‘아니’를 넣어 짧은 부정문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짧은 부정문인 ‘그가 모기에 안 뜯기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뜯기다’가 합성 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② 짧은 부정문인 ‘이 자동차가 안 값싸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서술어인 ‘값싸다’가 합성어이기 때문이겠군.
- ③ 짧은 부정문인 ‘그가 약속 시간을 안 늦추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늦추다’가 사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④ 짧은 부정문인 ‘보따리가 한 손으로 안 들리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들리다’가 피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⑤ 짧은 부정문인 ‘할아버지 댁 마당이 안 드넓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서술어인 ‘드넓다’가 파생어이기 때문이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敢히 노티 아니하더라 [감히 놓지 아니하더라]
- ㉡ 비록 아니 여러 나라라도 [비록 여러 날이 아니더라도]
- ㉢ 妙法이 둘 아니며 세 아닐찌  
[묘법이 둘 아니며 셋이 아니므로]
- ㉣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변방 밖의 북쪽 오랑캐인들 아니 오겠습니까]
- ㉤ 나도 現在 未來 一切 衆生을 시름 아니 호리라  
[나도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에 대해 시름 아니 하리라]

- ①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용언과 체언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와 ㉤을 보니, ‘안’ 부정문이 관형사와 부사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 —

다음은 국어의 음운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 보자.

-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종성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종성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종성에 놓일 때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한다.
- ㉣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자료] 겉웃[거돋], 국밥만[국뺨만], 백분율[백뽀늘]  
색연필[생년필], 헛일[헌닐]

- ① ㉠: 국밥만, 색연필, 헛일      ② ㉡: 국밥만, 백분율
- ③ ㉢: 겉웃, 헛일                  ④ ㉣: 겉웃, 백분율
- ⑤ ㉤: 백분율, 색연필, 헛일



38.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우리말에서 ‘새-, 셋-, 시-, 시트-’은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붙어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이 접두사들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과 첫음절의 모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데요,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 셋-, 시-, 시트-’에 대해 탐구해 보세요.

자료	㉠	㉡
㉠	새까맣다	시꺼멓다
㉡	새파랗다	시퍼렇다
㉢	새하얗다	시허옇다
㉣	셋노랗다	시트누렇다
㉤	셋말갈다	시트멀갈다

학 생 : \_\_\_\_\_ ㉠

- ① ㉠을 보니, ‘새-’와 달리 ‘시-’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이 된소리일 때에 붙었어요.
- ② ㉡를 보니, ‘셋-’과 달리 ‘새-’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에 붙었어요.
- ③ ㉢를 보니, ‘시-’와 달리 ‘시트-’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에 붙었어요.
- ④ ㉣와 ㉤를 보니, ‘새-, 셋-’과 달리 ‘시-, 시트-’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이 거센소리일 때에 붙었어요.
- ⑤ ㉠~㉢와 ㉣~㉤를 보니, ‘새-, 시-’와 달리 ‘셋-, 시트-’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이 울림소리일 때에 붙었어요.

39. <보기 1>은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제35항** 모음 ‘ㄱ, ㅌ’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나/거, 났/렸’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5항 [붙임2]**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냈’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제38항** ‘ㄱ, ㄴ, ㄷ, ㄹ’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보기 2>

- 새끼줄을 열심히 ㉠ 꼬았다.
- 올해도 큰집에서 설을 ㉡ 쇠었다.
- 자전거 앞바퀴에 돌을 ㉢ 꺾어 놓았다.
- 그의 표정에서 지친 기색이 ㉣ 보이어 안타까웠다.
- 산 정상에 올라가니 시야가 탁 ㉤ 트이어 상쾌했다.

- ① ㉠: 모음 ‘ㄱ’로 끝난 어간에 ‘-았-’이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꿘다’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② ㉡: 모음 ‘ㄴ’ 뒤에 ‘-었-’이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췘다’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③ ㉢: 모음 ‘ㄴ’ 뒤에 ‘-어’가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뻘’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④ ㉣: 모음 ‘ㄱ’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뻘어’로도 적을 수 있겠군.
- ⑤ ㉤: 모음 ‘ㄹ’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들 수 있는 경우로, ‘퉁어’로도 적을 수 있겠군.

[40~43] (가)는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의 일부이고, (나)는 라디오 방송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스마트 시티**

이 문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라일락 님이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편집함.

**목차**

- 1. 개요
- 2. 관련 기술
- 3. 사례
- 4. 외부 링크
- 5. 참고 자료

▼ 1. 개요 [편집]

도시에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 모델을 의미한다.

▼ 2. 관련 기술 [편집]

교통, 환경, 주거 등의 분야에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들을 접목한다. 스마트 시티의 관련 기술로는 모바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있다.

사물인터넷(영어: Internet of Things, 약어로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

▼ 4. 외부 링크 [편집]

스마트 시티 누리집(<https://△△△.go.kr/>)

▼ 5. 참고 자료 [편집]

김모, 스마트 시티의 기술적 기반, 인터넷 협회, 2021.6월호.

(나)

**진행자** : (시작을 알리는 음악)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상식 특특 시간입니다. ㉠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 대담의 주제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방송국 앱으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도시 공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진행자** : 반갑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스마트 시티란 무엇인지 여쭙보겠습니다.

**전문가** :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수거함이 가득 차 불편했던 적 있으시지요? 센서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거함에 센서를 부착하면 이 센서는 수거함이 일정 수준 만큼 찼을 때 담당 직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 신호를 받은 직원은 수거 차량에 수거함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수거를 위한 최적 경로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불편함 없이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도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아이디어입니다.

**진행자:** 데이터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나요?

**전문가:** 네, 센서가 정보 수집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에는 수많은 센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차량 등이 모두 센서입니다. ㉔ 그동안은 센서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가 한곳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 흐름과 같은 정보들을 한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하면 건물 간에 남는 에너지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흥미롭네요. 말씀하신 것 중에 남는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어떤 건물에 태양광 전지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㉕ 그것을 통해 해당 건물은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한 후에는 남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지요? 만약 건물에 에너지를 보관하는 저장고와 에너지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에너지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네요. 지금 앱을 통해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건데요, 스마트 시티 기술이 이미 적용된 도시가 있을까요?

**전문가:** 해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A 지구에는 스마트 가로등이 있습니다. ㉖ 이 가로등은 무선 인터넷의 공유기 역할을 하면서 소음 수준과 공기 오염도까지 분석합니다. 가로등에 설치된 센서가 인구 밀집도까지 파악하여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스마트 시티의 기술들이 현재 많은 도시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방금 △△ 시내에 통제되는 도로가 있다고 해서요, 그곳을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전해 드리고 대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는 음악)

4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구성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는 문자와 이미지가 쓰였다는 점에서, (나)는 음성과 음악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①</li> <li>○ (가)와 (나)는 모두 선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하며 정보 제시 순서를 조정한다. .... ②</li> </ul>
정보 유통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는 (나)와 달리 시의성을 지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③</li> <li>○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④</li> <li>○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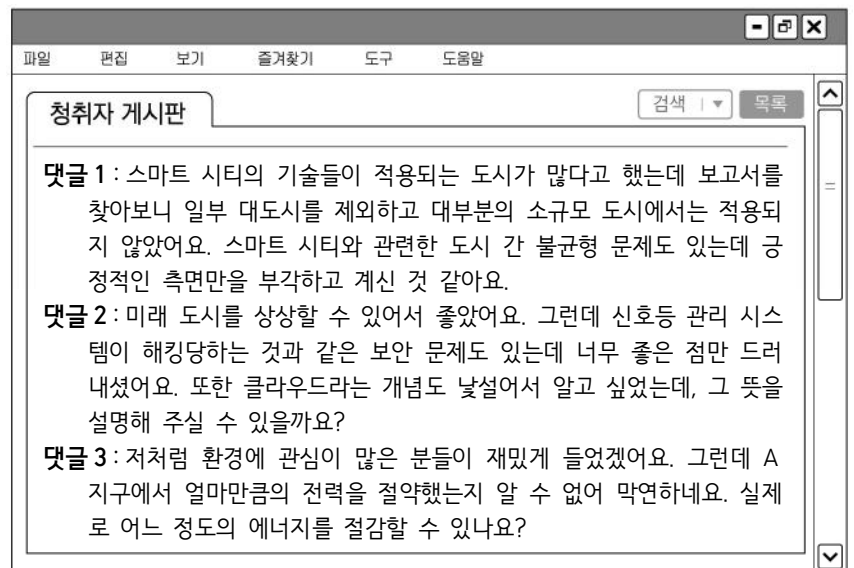
4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 수용자가 문서의 내용 중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차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정보 수용자가 문서 내용과 관련된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③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서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④ 정보 생산자가 제공한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⑤ 정보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들의 문서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문서가 작성된 이력을 제공하고 있다.

42. ㉑~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의존 명사 ‘대로’를 사용하여 청취자에게 예고한 것과 같이 ‘스마트 시티’가 대담의 주제임을 밝히고 있다.
- ② ㉒: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하여 수거함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수거 차량’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피동사 ‘모이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의 대상인 ‘데이터’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 ④ ㉔: 지시 대명사 ‘그것’을 사용하여 직전 발화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인 ‘태양광 전지판’을 가리키고 있다.
- ⑤ ㉕: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공유기 역할’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기능도 수행함을 드러내고 있다.

43. 다음은 (나)를 들은 청취자들이 청취자 게시판에 남긴 내용이다. 청취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댓글 1은 자신이 추가로 수행한 탐색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대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② 댓글 2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대담에서 제공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질문의 형식으로 요청하고 있다.
- ③ 댓글 3은 교수가 제시한 사례와 관련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댓글 1과 댓글 2는 모두 대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언급하며 대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댓글 2와 댓글 3은 모두 대담이 특정 관심사를 지닌 청취자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밝히며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44~45] (가)는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준업'이 제작해 인터넷 공유 문서에 올린 발표 초안이고, (나)는 (가)의 세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친구들에게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보았어.**

**1. 거북목 증후군이란?**  
**거북목 증후군의 정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사람들의 목이 거북이의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  
**정상목과 거북목 비교**  
**거북목 증후군 현황**  
 거북목 증후군 환자 중 연령대별 비율  
 5% 13% 18% 19% 21% 24%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거북목 증후군은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두 번째 슬라이드를 구성해 보았어.**

**2. 거북목 증후군의 원인 및 증상**  
**거북목 증후군의 원인**  
 ① 고개를 숙이고 컴퓨터 사용  
 ② 어깨를 구부리고 스마트폰 사용  
 ③ 턱 괴고 앉기  
 ④ 옆드려 책 읽기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  
 ① 거북목은 목, 어깨 근육을 뻣뻣하게 긴장시켜 근육 통증 유발  
 ② 목뼈가 비틀어져 경동맥이 눌러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 유발  
 전문가 인터뷰 동영상: 목시 당신도 거북목 증후군?! 03-25

**거북목 증후군의 진단 방법과 예방법을 세 번째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았어.**

**3.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 및 진단 방법**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일반적으로 거북목 증후군은 등이 굽었거나 뒷목이 아픈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어깨가 틀어졌고 경직되었거나, 옆에서 볼 때 목이 쪽 빠져 있으면 거북목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  
 ● 올바르게 앉은 자세 유지하기  
 ● 적절한 휴식 시간 보내기 (예: 1시간 공부, 10분 휴식)  
 ● 자주 스트레칭 하기 (예: 목 뒤로 젖히기)

(나)

**거북목 증후군 발표 단체 대화방**  
 [ '준업'님이 '유준', '한비', '세현', '민수', '가영'님을 초대하였습니다. ]

준업: 애들아, 안녕! 인터넷 공유 문서에 올린 발표 자료 초안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단체 대화방을 열었어.

유준: 세 번째 슬라이드에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어떨지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

한비: 오~ 그렇게 하면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어. 그리고 친구들이 거북목의 정도를 3단계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세현: 좋은 방법이야! 올바른 자세에 대한 시각 자료도 추가하는 건 어때? 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되거든.

민수: 동의해. 올바른 자세를 알려줄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 친구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

유준: 그리고 애들아, 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이 소재목의 내용 순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어색하지 않아?

가영: 맞네. 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을 제시된 내용 순서에 맞게 수정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

한비: 두 번째 슬라이드와 형식적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내용도 번호를 붙여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민수: 정말 좋은 생각이다.

세현: 그러면 발표 자료 형식이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아. 준업아, 수정할 수 있지?

준업: 당연하지. 조언해 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서 수정해 볼게.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비되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정상목과 거북목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북목 증후군 환자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글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중요한 정보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모든 슬라이드에서는 각 슬라이드의 중심 내용을 항목화하여 안내하고 있다.

45. (나)를 참고하여 (가)의 세 번째 슬라이드를 수정한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및 예방법**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예	아니요
등이 굽었다.	
뒷목이 항상 아프다.	
어깨가 틀어졌고 경직됐다.	
옆에서 볼 때 목이 쪽 빠져 있다.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

- ① 올바르게 앉은 자세 유지하기
- ② 적절한 휴식 시간 보내기 (예: 1시간 공부, 10분 휴식)
- ③ 자주 스트레칭 하기 (예: 목 뒤로 젖히기)

모니터 높이 = 눈높이  
 최대한 모니터와 멀리 (40cm 이상)  
 골개 편 허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①	36	④	37	④	38	⑤	39	④
40	①	41	⑤	42	⑤	43	⑤	44	②
45	③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의도] ‘안’ 부정문

‘그가 모기에 안 뜯기다.’의 ‘뜯기다’는 어근 ‘뜯-’과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로 합성 동사가 아니다.

② ‘이 자동차가 안 값싸다.’의 ‘값싸다’는 명사 ‘값’과 동사 ‘싸다’가 결합된 합성어로, 합성어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된다. ③ ‘그가 약속 시간을 안 늦추다.’의 ‘늦추다’는 어근 ‘늦-’과 사동 접미사 ‘-추-’가 결합된 사동사로, 사동사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 때는 제약이 없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④ ‘보따리가 한 손으로 안 들리다.’의 ‘들리다’는 어근 ‘들-’과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사로, 피동사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 때는 제약이 없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⑤ ‘할아버지 맥 마당이 안 드넓다.’의 ‘드넓다’는 접두사 ‘드-’와 형용사 ‘넓다’가 결합된 파생어로, 파생어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된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에서 부정 부사 ‘아니’는 관형사 ‘여러’를 부정하고 있지만, ㉡에서 부정 부사 ‘아니’는 부사가 아닌 용언 ‘호리라’를 부정하고 있다.

① ㉠에서 보조 용언 ‘아니하다’는 용언 ‘노티(놓-+ -디)’를, ㉡에서 용언 ‘아니며’, ‘아닐씩’은 체언인 ‘들’, ‘세’를 부정하고 있다. ② ㉠에서는 보조 용언 ‘아니하다’가 평서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에서는 부정 부사 ‘아니’가 의문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③ ㉠에서는 ‘노티 아니하다’의 긴 부정문이, ㉡에서는 ‘호리라’ 앞에 ‘아니’를 놓은 짧은 부정문이 사용되고 있다. ⑤ ㉠에서는 ‘묘법’이 둘이나 셋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에서는 시름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에 의한 부정이 나타나고 있다.

37. [출제의도] 국어의 음운 변동

‘겉웃’은 ‘겉’의 ‘ㄷ’이 ‘ㄷ’으로 바뀐 후 실질 형태소인 ‘웃’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고, ‘웃’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기 때문에 [거둔]으로 발음된다. ‘국밥만’은 ‘밥’의 첫소리 ‘ㅂ’이 ‘ㄱ’ 뒤에서 발음되기에 ‘ㅃ’으로 발음(㉢)되고, ‘밥’의 중성 ‘ㅂ’이 ‘ㄱ’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국빡만]으로 발음된다. 파생어인 ‘백분율’은 ‘분’의 ‘ㅂ’이 ‘ㄱ’ 뒤에서 발음되기에 ‘ㅃ’으로 발음(㉤)되고, ‘울’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늘]로 발음(㉥)되므로 [백뽀늘]로 발음된다. 합성어인 ‘색연필’은 ‘연’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년]으로 발음(㉦)되며, ‘색’의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생년필]로 발음된다. 파생어인 ‘헛일’은 ‘일’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닐]로 발음(㉨)되고, ‘헛’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데, 이때 ‘ㄷ’은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므로 [헛닐]로 발음된다.

38. [출제의도] 형태에 관한 조항 - 제27항

‘새-, 셋-, 사-, 시-’는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과 첫음절의 모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데,

‘새-, 사-’는 어두음이 ‘된소리, 거센소리, ㅎ’일 때 사용하고, ‘셋-, 시-’는 어두음이 ‘ㄴ, ㄹ’과 같은 울림소리일 때 사용한다. 또한 ‘새-, 셋-’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음절의 모음이 ‘ㅏ, ㅑ’와 같은 양성 모음일 때 사용하고, ‘사-, 시-’는 ‘ㅓ, ㅕ’와 같은 음성 모음일 때 사용한다.

39. [출제의도] 형태에 관한 조항 - 제35, 38항

한글 맞춤법 제38항에 의하여 ‘보이어’는 ‘보-’ 뒤에 ‘-이어’가 어울려 ‘뵤어’ 또는 ‘뵤여’로 줄어들 수 있다.

① ‘뵤었다’는 ‘뵤-’에 ‘-았-’이 어울려 ‘뵤다’로 줄어들 수 있다. ② ‘뵤었다’는 ‘뵤-’에 ‘-었-’이 어울려 ‘뵤다’로 줄어들 수 있다. ③ ‘뵤어’는 ‘뵤-’에 ‘-어’가 어울려 ‘뵤’로 줄어들 수 있다. ⑤ ‘트이어’는 ‘트-’ 뒤에 ‘-이어’가 어울려 ‘티어’ 또는 ‘트여’로 줄어들 수 있다.

40. [출제의도] 정보 구성 언어

(가)는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문자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라디오 대담으로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작을 알리는 음악’과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는 음악’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는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정보 제공 방식이 선조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순차적인 검색을 허용한다. ③ (나)는 대담을 진행하다가 ‘시내에 통제되는 ~ 바랍니다’는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성을 지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청취자의 질문을 문자 메시지나 방송국 앱을 통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방향의 소통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 양상을 보인다. ⑤ (나)는 라디오 방송 대담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가)의 ‘라일락’님이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편집함.’에서 최종적으로 문서가 작성·편집된 이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다른 수용자들의 문서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정보 수용자가 문서의 내용 중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차’가 제시되어 있다. ② 정보 수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는 ‘외부 링크’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③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문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와 ‘[편집]’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④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은 정보 생산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할 때 근거로 삼은 자료의 출처를 ‘참고 자료’ 항목에서 밝히고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나)의 전문가는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스마트 가로등이 공유키 역할을 하는 것과 소음 수준과 공기 오염도를 분석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① 진행자는 의존 명사 ‘대로’를 사용하여 청취자에게 예고한 바와 같이 스마트 시티가 대담의 주제임을 밝히고 있다. ② 전문가는 부사격 조사 ‘예’를 사용하여 센서 신호를 받는 대상이 ‘수거 차량’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전문가는 피동사 ‘모이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인 ‘데이터’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④ 전문가는 지시 대명사 ‘그것’을 사용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인 ‘태양광 전지판’을 가리키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댓글 3은 ‘저처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었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특정 관심사를 지닌 청취자들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댓글 2와 댓글 3 모두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① 댓글 1은 ‘보고서를 찾아보’었다는 점에서 추가로 탐색 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소규모 도시에는 스마트 시티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스마트 시티의 기술들이 현재 많은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언급이 사실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② 댓글 2는 ‘클라우드라는 개념도 낯설어서 알고 싶었는데’라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대담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음을 언급한 후 ‘그 뜻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며 질문의 형식으로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③ 댓글 3은 ‘얼마만큼의 전력을 절약했는지 알 수 없어 막연하’다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댓글 1은 ‘도시 간 불균형 문제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댓글 2는 ‘보안 문제도 있는데 너무 좋은 점만 드러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가)의 첫 번째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통해 10대에서 2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거북목 증후군 환자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30대부터 60대까지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비되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정상목과 거북목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③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글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친구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올바르게 앉은 자세’, ‘휴식 시간’, ‘스트레칭’의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중요한 정보를 부각하고 있다. ⑤ 모든 슬라이드에서는 각 슬라이드의 중심 내용을 항목화하여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정보 전달과 설득

(나)에서 한비는 ‘거북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정한 슬라이드에는 3단계 척도가 아닌 ‘예, 아니요’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유준이 ‘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이 소제목의 내용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슬라이드의 제목을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및 예방법’으로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유준이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어떨’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한비가 ‘두 번째 슬라이드와 형식적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내용도 번호를 붙여 제시하’자고 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순서 번호를 추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세현이 ‘올바른 자세에 대한 시각 자료도 추가하’자고 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시각 자료를 추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합어는 합성과 파생을 통해 형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의미를 고려하여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이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A] 어근과 접사인 단어이다. 그리고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꿀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꿀’과 ‘벌’이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그리고 ‘꿀’과 ‘벌’은 각각 한 개의 형태소이다.

일반적으로 합성과 파생을 통해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그 구성 요소의 형태가 유지된다. 그런데 단어가 형성될 때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먼저 ㉠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대뉘’는 ‘뉘싯대를 써서 하는 뉘싯질’을 뜻하는 ‘대뉘시’의 일부가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이다. 다음으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처음절끼리 결합한 경우가 있다. ‘고법(高法)’은, ‘고등(高等)’과 ‘법원(法院)’이 결합하여 형성된 ‘고등 법원’이라는 말의 ‘고(高)’와 ‘법(法)’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또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가 있다.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에 나가 교육 실습을 하는 학생’을 뜻하는 ‘교생(敎生)’은 ‘교육(敎育)’의 앞부분과 ‘실습생(實習生)’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이처럼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는, 그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과 여러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뉘’와 ‘대뉘시’는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서로 유의 관계를 맺고, ‘고법’은 ‘법원’의 일종이므로, ‘고법’과 ‘법원’은 상하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고법’이 형성될 때 사용된 ‘고등’은 ‘고법’과 의미 관계를 맺지 않는다.

35.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군.
  - ② ‘뽕밭’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군.
  - ③ ‘뿔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군.
  - ④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군.
  - ⑤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을 뜻하는 ‘꽃고무신’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고무’와 ‘신’으로 분석할 수 있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형성된 단어	뜻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
㉠ 흰자	알 속의 노른자위를 둘러싼 흰 부분	흰자위
㉡ 공수	공격과 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공격, 수비
㉢ 직선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	직접, 선거
㉣ 민자	민간이나 사기업이 하는 투자	민간, 투자
㉤ 외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영화	외국, 영화

- ①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과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② ㉡는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유의 관계를 맺는다.
- ③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 ④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⑤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을 탐구해 보면, 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나기도 한다.

- 한 단어에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난 예  
예 빗[빗], 여덟[여덜], 맨입[맨닙], 축하[추카]
- 한 단어에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  
예 밝는[밤:는], 닭장[다짱]
- 한 단어에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난 예  
예 앞날[암날], 벚꽃[번꼇]

- 이를 참고하여 ㉠~㉥에 해당하는 예를 두 개씩 생각해 보자.
- ㉠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한 번, 축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① ㉠: 재밋는[재민는], 엽매는[엵매는]
  - ② ㉡: 불이익[불리익], 견인력[겨닌력]
  - ③ ㉢: 똑같이[똑까치], 파문헌[파무친]
  - ④ ㉣: 읊조려[읍조려], 걸뉘어[건늘거]
  - ⑤ ㉤: 버들잎[버들립], 덧입어[던니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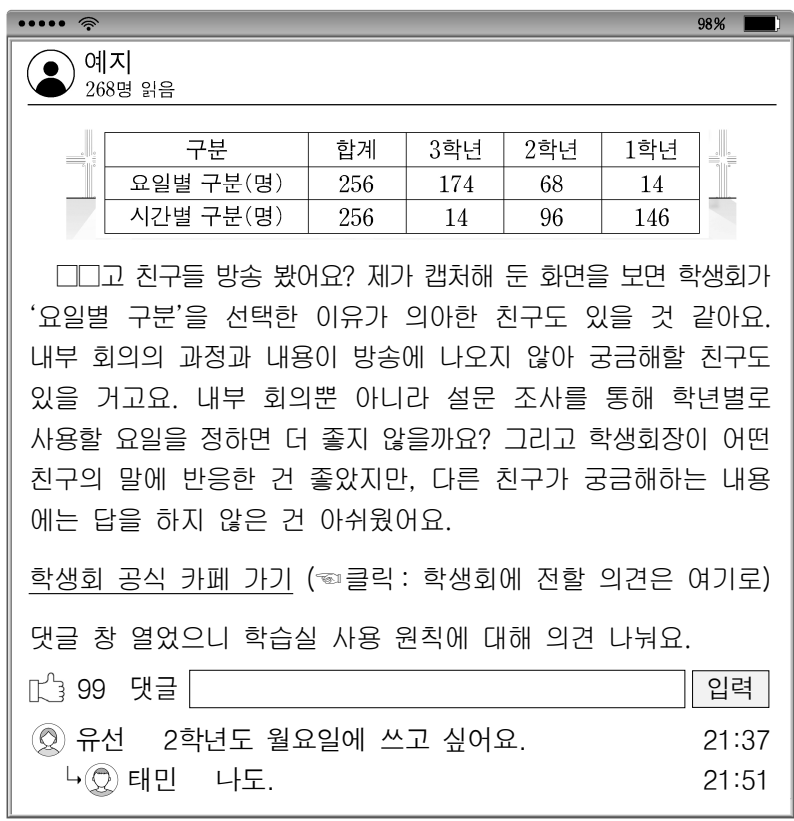


진행자: 그럼 ㉔ 언제부터 새로운 사용 원칙에 따라 학습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생회장: ㉔ 네, 다음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번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저희 학생회 공식 카페로 보내 주시면, 참고하여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카페 주소를 참고해 주세요!

진행자: ○○고 학생들, 다음에 만나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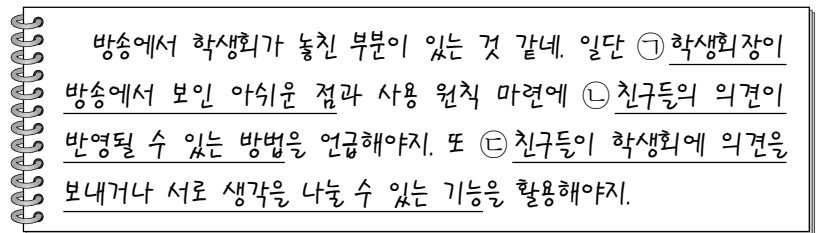
40.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방송의 시작에 학교명을 언급하며, 소식을 들을 수용자를 밝히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접속자 수를 언급하며, 두 번째 방송과의 접속자 수 차이를 알려 주고 있다.
- ③ 학생회장은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학생회장은 발화와 관련한 보충 자료로 표를 제시하며,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학생회장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화면을 설명하며,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

41. [A]~[C]에서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동주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학생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② [B]: 다예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학생회의 결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 ③ [B]: 재호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④ [C]: 현지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발언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하였다.
- ⑤ [C]: 연수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42.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이다. ㉑~㉔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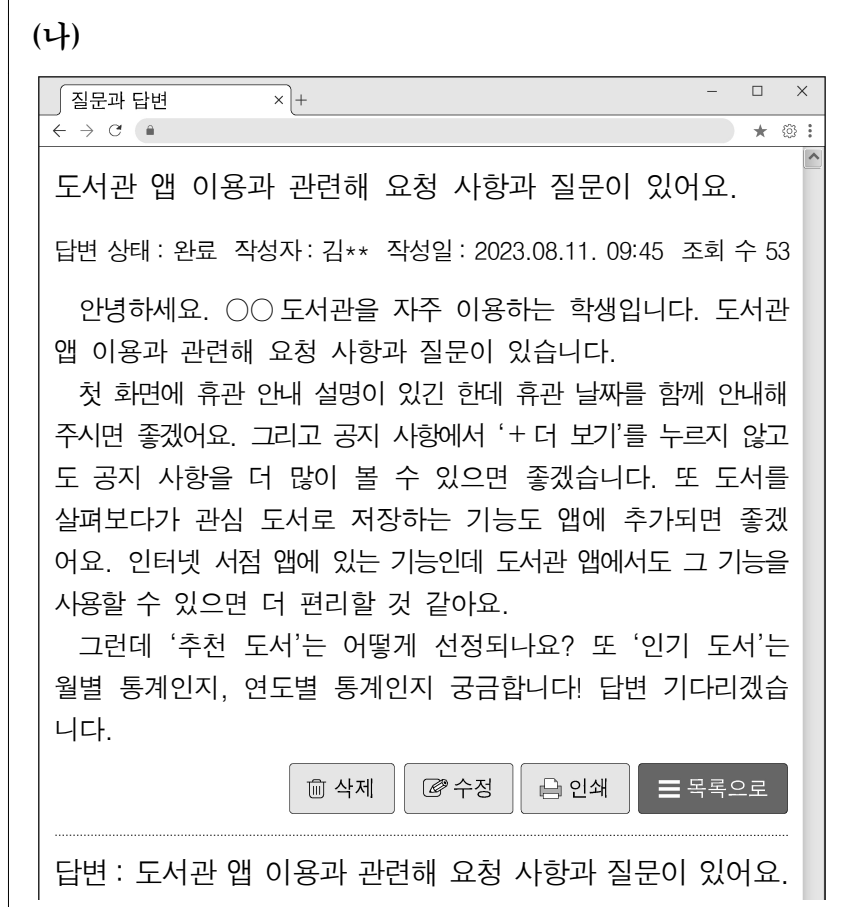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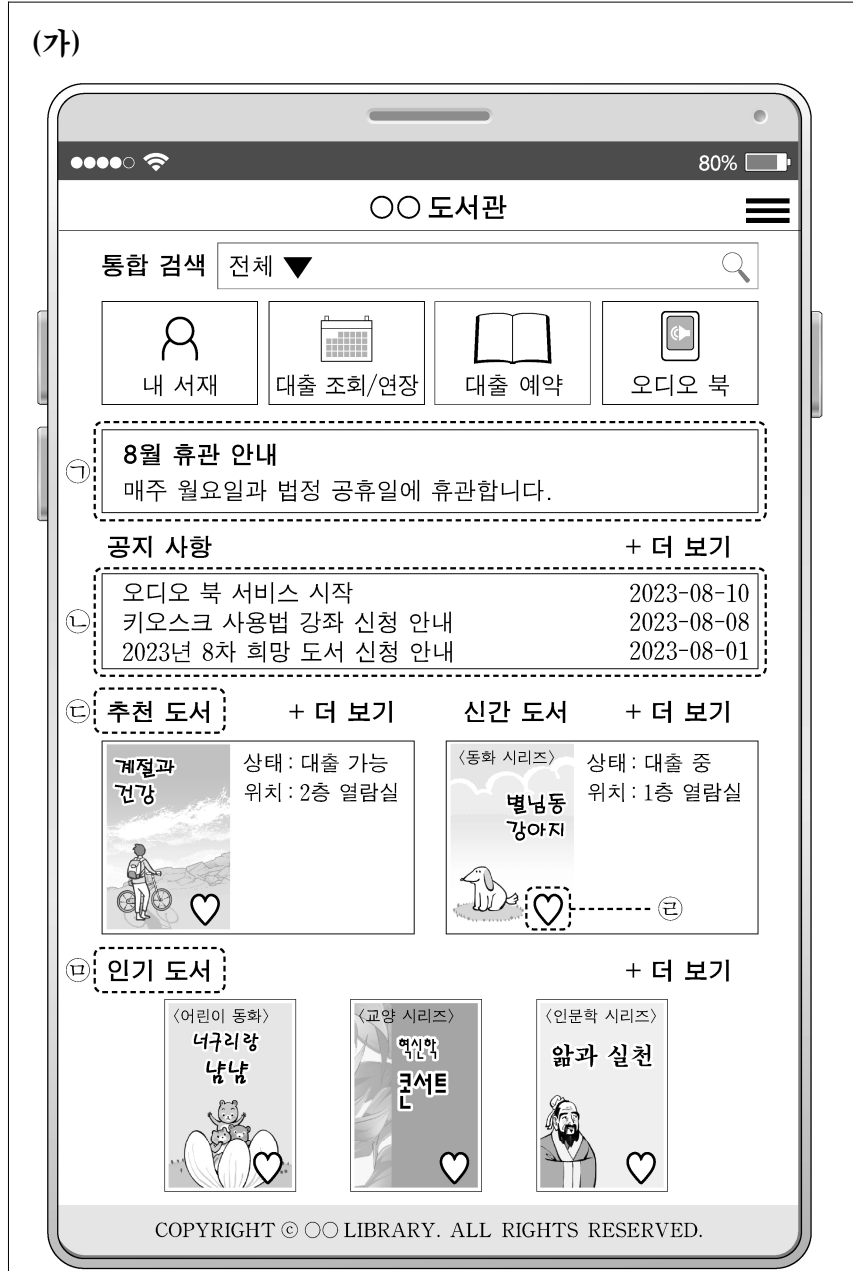
- ① ㉑: '요일별 구분'을 원칙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저장한 방송 화면의 일부를 보여 주었다.
- ② ㉑: 실시간 대화 창에서 학생회를 응원하는 말에는 호응하며 답을 들려주었지만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던 모습을 이야기 하였다.
- ③ ㉔: 내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 하며, 학년별 사용 요일 결정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④ ㉔: 자막으로 제공된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가 어려우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였다.
- ⑤ ㉔: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이 사용 원칙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을 활성화 하였다.

43.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부사 '직접'을 사용하여, 학생회장이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㉑: 어미 '-어서'를 사용하여, 학습실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㉑: 어미 '-겠-'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학습실 사용의 불편에 공감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㉑: 보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이 질문은 학습실 사용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㉑: 어미 '-면'을 사용하여, 사용 원칙이 적용되기 전에 갖춰져야 할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44~45] (가)는 ○○도서관 앱의 첫 화면이고, (나)는 이 앱을 사용한 학생이 도서관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서의 답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8.11. 15:53

안녕하세요. ○○ 도서관 사서입니다.

먼저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휴관 안내에 대한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날짜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지 사항 목록이 늘어나면 앱의 특성상 첫 화면이 너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을 드릴 것 같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를 눌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앱의 '추천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정보나루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의논하여 선정합니다. '인기 도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누적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또 '인기 도서'의 '+ 더 보기'를 누르면, 기간, 연령,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순위에 따라 배열된 도서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의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된다.
  -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된다.
  -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 대출 상태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 ⑤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45. ㉠~㉣과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은 정보의 구체성을 고려하여 ㉠에 추가 정보를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사서는 앱 화면의 구성을 고려하여 ㉡에서 보이는 정보의 양을 늘리지 않겠다며 학생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③ 사서는 정보 선정에 활용된 자료를 고려하여 ㉢의 선정 방식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학생은 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사서는 정보의 추가 제공을 고려하여 ㉤을 여러 조건으로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안내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45.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ㄱ-2를 통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된 불량 식품 적발 건 중 이물 검출 유형의 건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4문단에서 이를 활용하여 이물 보고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4문단에서는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이유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ㄱ-2와 ㄴ을 활용하여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ㄱ-2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된 불량 식품 적발 건 중 이물 검출 유형의 건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ㄱ-2는 (나)의 4문단에서 ‘불량 식품 적발 유형 중 이물 검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를 구체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ㄴ에서는 A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ㄴ은 (나)의 2문단에서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에게 유해한 불량 식품’이라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ㄷ에서는 불량 식품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ㄷ은 (나)의 1문단에서 ‘불량 식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라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ㄱ-1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식품 위생 및 안전 점검 결과에서 ‘위반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ㄷ은 ‘전담 관리원의 활동으로 위반 업소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ㄱ-1과 ㄷ은 (나)의 3문단에서 ‘이 제도는 어린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③ 37. ⑤ 38. ② 39. ① 40. ⑤ 41. ② 42. ⑤ 43. ① 44. ③  
45. ④

[35~36] 언어

[35~36] 다양한 단어 형성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합성과 파생을 포함한 다양한 단어 형성 방식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으로만 이루어졌는지, 접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가 구분됨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2문단에서는 단어 형성 시에 구성 요소의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를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처음절끼리

결합한 경우’,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의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3문단에서는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와 그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 사이의 의미 관계에 대해 ‘대낚’과 ‘고법’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복합어와 형태가 줄어들며 형성되는 단어

###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놀이방’은 직접 구성 요소가 ‘놀이’와 ‘방’이다. ‘놀이’는 ‘놀-’과 ‘-이’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단맛’은 직접 구성 요소가 ‘단’과 ‘맛’이다. ‘단’은 ‘달-’과 ‘-ㄴ’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용꿈’은 직접 구성 요소가 ‘용’과 ‘꿈’이며, 이 중에서 ‘꿈’은 ‘꾸-’와 ‘-ㅁ’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 아니다. ② ‘망치질’은 직접 구성 요소가 ‘망치’와 ‘-질’이며, ‘-질’은 접사이므로 ‘망치질’은 파생어이다. 그러나 ‘봄날’은 직접 구성 요소가 ‘봄’, ‘날’이기 때문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지은’과 ‘이’이며, ‘이’는 자립 형태소이다. 그러나 ‘짓- + -은’으로 분석되는 ‘지은’에는 자립 형태소가 없다. ⑤ 의미를 고려할 때 ‘꽃고무신’의 직접 구성 요소는 ‘꽃’과 ‘고무신’이다.

### 36. 단어의 이해

**정답해설** : ‘직접’과 ‘선거’의 첫음절끼리 결합한 ‘직선’은 ㉠에 해당한다. 또한, ‘직선’이 여러 선거 방식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직선’은 ‘선거’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흰자’는 ‘흰자위’의 일부가 줄어들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또한, ‘흰자’와 ‘흰자위’는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서로 유의 관계를 맺는다. ② ‘공격’과 ‘수비’의 첫음절끼리 결합한 ‘공수’는 ㉠에 해당한다. 또한, ‘공수’는 ‘공격과 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공격’, ‘수비’ 각각과 상하 관계를 맺는다. ④ ‘민간’의 앞부분과 ‘투자’의 뒷부분이 결합한 ‘민자’는 ㉠에 해당한다. 또한, ‘민자’가 여러 투자 방식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민자’는 ‘투자’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⑤ ‘외국’의 앞부분과 ‘영화’의 뒷부분이 결합한 ‘외화’는 ㉢에 해당한다. 또한, ‘외화’가 영화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외화’는 ‘영화’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 37.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버들잎 → [버들립]’에서는 ‘버들’과 ‘잎’ 사이에 ‘ㄴ’이 첨가되며, 첨가된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된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표’이 ‘ㅃ’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덧입어 → [던니버]’에서는 ‘덧’과 ‘입어’ 사이에 ‘ㄴ’이 첨가된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ㅅ’이 ‘ㄷ’으로 교체되며, 교체된 ‘ㄷ’은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둘 다 ㉠에 해당하는 예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재밌는 → 재미는 → [재민는]’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엄매는 → 억매는 → [영매는]’에서는 탈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불이익 → 불니익 → [블리익]’에서는 첨가가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견인력 → [겨닌력]’에서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똑같이 → 똑같이 → [똑까치]’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파묻힌 → 파무틴 → [파무친]’에서는 축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옴조려 → 옴조려 → 옴쪼려 → [옴쪼려]’에서는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겉늬어 → 겉늬어 → [건늘거]’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 38.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정답해설** : ㉠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 책을 읽혔다.’가 된다. 책을 ‘읽히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읽혔다’에 ‘-시-’를 넣을 수 없다.

정답 ㉡

**[오답피하기]** ㉠ ㉡, ㉢에서 ‘형’을 ‘어머니’로 바꾸면 각각 ‘어머니께서 동생을 업으셨다.’, ‘동생이 어머니께 업혔다.’가 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시게 하였다.’가 된다. ‘읽는’ 주체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읽게’에 ‘-으시-’를 넣어야 한다. ㉣ ㉡, ㉢은 각각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와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다.’가 된다. 이 중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는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지만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다.’는 **진행상**으로만 해석된다. ㉤ ㉡, ㉢은 각각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와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히고 있다.’가 되고, 둘 다 진행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9.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에서는 체언 ‘바를’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바르래’가 부속 성분인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에서는 체언 ‘나라ㅎ’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나라랏’이 부속 성분인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또한, 체언 ‘中國’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中國애’가 부속 성분인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에서는 체언 ‘生人’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한 ‘生人이’가 부속 성분인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에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것은 ‘子息이’와 ‘양지’인데 둘 다 주성분인 주어로 쓰이고 있다. ㉕에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것은 ‘내’와 ‘네’인데 둘 다 주성분인 주어로 쓰이고 있다.

[40~43] 매체

40. 매체의 소통 방식

정답해설 : 학생회장의 발언 내용 중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사용 원칙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자막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회장이 화면에 대해 따로 설명하며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진행자는 ‘□□고 학생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방송을 시작하여, 소식을 들을 수용자가 ‘□□고 학생들’임을 밝히고 있다. ② 진행자는 ‘현재 접속자 수가 253명’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방송보다 100명 더 입장했’다는 정보도 함께 제시하여 접속자 수 차이를 알려 주고 있다. ③ 학생회장은 실시간 대화 창에 글을 올린 학생들 중 ‘동주’와 ‘다예’라는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④ 학생회장은 학습실 사용과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를 제시하며,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4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B]에서 다예는 학생회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원칙을 마련했다는 학생회장의 발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라는 반응을 보이며 학생회의 결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동주는 학습실의 자리를 맡느라 종례에 늦을 뻔했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학생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학습실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는 학생회장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B]에서 재호는 방송에서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을 뿐,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④ [C]에서 현지는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한 학생회장의 발화를 듣고 개인적인 아쉬움을 표현했을 뿐, 발언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⑤ [C]에서 연수는 학생회장이 말한 사용 원칙 중 제시된 자료만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원칙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질문하고 있을 뿐,

---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 42.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정답해설** : (나)에서 댓글 기능을 활성화한 것은 학생회의 결정에 대해 친구들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학생회에 전할 의견은 학생회 공식 카페를 통해 전달하도록 안내하며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회장은 두 번째 발언 중, '다음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학습실 사용자들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을 반영하여, 방송에서 캡처해 둔 표를 제시하면서 '요일별 구분'을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와 관련한 내용이 방송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을 반영하여, 학생회장이 실시간 대화 창에서 학생회를 응원하는 '다예'의 말에는 호응하고 있지만, '연수'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을 반영하여, 내부 회의뿐 아니라 설문 조사를 통해 학년별로 사용할 요일을 정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을 반영하여, 화면에 자막으로 제시한 카페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학생회에 의견을 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클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직접' 알리는 내용은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이 아니라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를 통해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인기가 많은 이유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추측의 의미를 지니는 선어말 어미 '-겠-'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실 사용의 불편에 공감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④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부터'를 통해 '언제부터 ~ 신청할 수 있나요?'가 학습실 사용 신청의 시작 시점을 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뒤의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을 통해 '대의원회에서의 안건 통과'가 '사용 원칙에 따른 학습실 사용 신청'의 선행 조건임을 드러내고 있다.

[44~45] 매체

4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가)에서는 '대출 조회/연장'이나 '대출 예약' 등과 같이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는 게시물에 대하여 '조회 수 53'과 같이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되지만, (가)에서는 게시물의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② (나)에서는 '수정' 버튼을 통해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추천 도서'와 '신간 도서'의 도서 이미지 옆에 '상태'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각각의 대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정보 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에서는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도서를 검색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

45.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 학생은 '도서를 살펴보다가 관심 도서로 저장하는 기능도 앱에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사서는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를 눌러 사용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학생이 요청한 기능은 이미 ㉠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학생이 ㉠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은 휴관 안내 설명에 휴관 날짜를 함께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② '공지 사항'에서 '+ 더 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공지 사항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의 요청에 대해서, 사서는 첫 화면이 너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학생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③ '추천 도서'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묻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사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정보나루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의논하여 선정'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⑤ '인기 도서'가 월별 통계인지, 연도별 통계인지 궁금하다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사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누적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더 보기+'를 누르면, 기간, 연령,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순위에 따라 배열된 도서 목록을 볼 수 있다'는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다른 말이 올 수 있는 말들의 관계를 결합 관계라 한다. 현대 국어의 의존 명사와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유형에는 관형사, 체언,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은 것, 용언의 관형사형 등이 있다. 의존 명사 중에는 ㉠ 다양한 유형의 선행 요소와 결합하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즉 ‘것’과 같이 ‘어느 것, 언니 것, 생각한 것’ 등 다양한 유형의 선행 요소와 두루 결합하는 의존 명사가 있는 반면, ‘가 본 데’의 ‘데’나, ‘요리할 줄’의 ‘줄’과 같이 ㉡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만 결합하는 의존 명사도 있다.

의존 명사와 결합하는 후행 요소로는 격 조사와 용언 등이 있다. 의존 명사 중에는 ㉢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도 있으나, ㉣ 특정 격 조사와만 결합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데’는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이지만, ‘만난 지(가) 오래되었다’의 ‘지’는 주격 조사와만 결합하여 주어로 쓰인다. ‘요리할 줄(을) 몰랐다’, ‘그런 줄(로) 알았다’의 ‘줄’은 주로 목적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나 부사어로 쓰이고 주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또한 ‘뽀’는 ‘읽을 뽀이다’처럼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거나 ‘그럴 뽀(이) 아니라’처럼 보격 조사와만 결합하여 쓰인다. 한편 의존 명사가 용언과 결합할 때는 ㉤ 다양한 용언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것과 ㉥ 특정 용언과만 결합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것’은 다양한 용언과 두루 결합하지만, ‘줄’은 주로 ‘알다, 모르다’와 결합한다.

중세 국어에서도 선행 요소나 후행 요소와 결합할 때 제약 없이 두루 결합하는 의존 명사와 그렇지 않은 의존 명사가 있었다. 가령 중세 국어 ‘것’은 ‘어느 거시 이 가운데 가물[어느 것이 이 가운데 감을]’, ‘奇異한 거슬 머구며[기이한 것을 머구어]’ 등과 같이 여러 유형의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와 두루 결합하여 쓰였다. 반면 현대 국어의 ‘지’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디’는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었다. 즉 ‘물 들여 든니건 디 스물 히니[말 달려 다닌 지 스물 해니]’, ‘여회연 디 흐마 다숫 히로되[헤어진 지 벌써 다섯 해로 되]’와 같이 ‘디’는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만 결합할 수 있었고, 문장에서는 주어로만 쓰였다.

35. ㉠ ~ ㉥ 중 <보기>의 ‘바’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의존 명사 ‘바’**

-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혔다.
-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바이다.
- 그것은 \*그/\*생각의 바와 다르다.
- 그것에 대해 내가 아는 바가 없다.
- 그가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

※ ‘\*’는 어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36. 윗글과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달음 ㉠ 주리 업스시니이다  
[다를 줄이 없으십니다]
- 眞光이 어드우며 불근 ㉡ 될 다 비취샤  
[진광이 어두우며 밝은 데를 다 비추시어]
- 부텃 일홈 念홀 ㉢ 썩네 이런 功德 도흔 利를 어드리오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할 뿐에 이런 공덕 좋은 이로움을 얻으리오]

- ① ㉠의 ‘줄’은 현대 국어 ‘줄’과 달리, 주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
- ② ㉠의 ‘줄’은 중세 국어 ‘것’과 달리,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군.
- ③ ㉡의 ‘되’는 현대 국어 ‘데’와 같이,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군.
- ④ ㉡의 ‘되’는 중세 국어 ‘디’와 달리, 목적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
- ⑤ ㉢의 ‘썩’은 현대 국어 ‘뽀’와 달리, 부사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

37. ㉠과 ㉡에 모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의 [탐구 자료]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탐구 내용]**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단어는 여러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위의 네 가지 유형 중 ㉠ 두 유형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 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탐구 자료]**

꽃향기[꼬탕기], 똑같이[똑까치],  
 흙냄새[흥냄새], 첫여름[천너름],  
 넙죽하다[넙쭈카다], 읊조리다[읍쪼리다]

- ① 꽃향기, 똑같이
- ② 꽃향기, 흙냄새
- ③ 첫여름, 넙죽하다
- ④ 첫여름, 읊조리다
- ⑤ 넙죽하다, 읊조리다



38.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학생 1: 우리 스무고개 할래? [자료]에 있는 단어 중에서 내가 무얼 생각하는지 맞춰 봐.

[자료]

높이다                  접히다                  여닫다

학생 2: 좋아. 그 단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되었니?  
 학생 1: 아니,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 2: 그렇다면 ㉠은 아니겠군. 그러면 단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같니?  
 학생 1: 아니, 이 단어의 품사는 어근의 품사와 달라.  
 학생 2: ㉡는 접사가 결합하며 품사가 달라지지 않았고, ㉢는 접사가 결합하며 품사가 달라졌네.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단어는 ㉢이구나!  
 학생 1: 맞아, 바로 그거야.

- |   | ㉠   | ㉡   | ㉢   |
|---|-----|-----|-----|
| ① | 여닫다 | 접히다 | 높이다 |
| ② | 여닫다 | 높이다 | 접히다 |
| ③ | 높이다 | 여닫다 | 접히다 |
| ④ | 높이다 | 접히다 | 여닫다 |
| ⑤ | 접히다 | 여닫다 | 높이다 |

3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동생이 내가 읽던 책을 가져갔다.  
 ㄴ. 그는 자신이 그 일의 책임자임을 주장했다.  
 ㄷ. 무장 강도가 은행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ㄹ. 이곳의 따뜻한 기후는 옥수수가 자라기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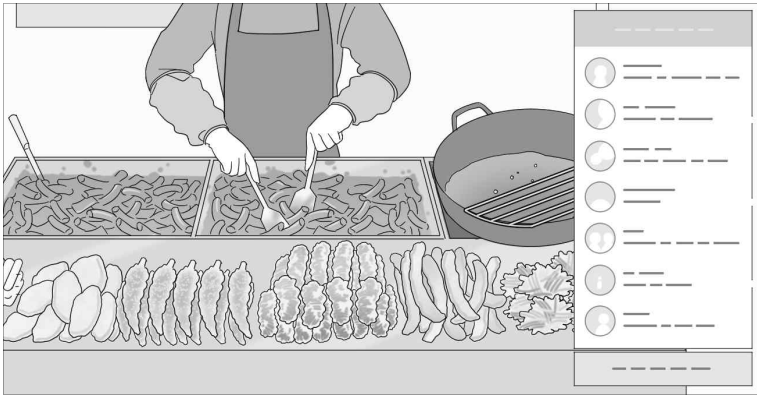
- ① ㄱ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ㄴ은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ㄱ과 ㄷ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ㄴ과 ㄹ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ㄷ은 ㄹ과 달리 문장 성분이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40~43]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이 방송을 시청한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요일마다 마을을 탐방하는 '뚜벅뚜벅 마을 여행'의 뚜벅입니다. 지난주에는 □□궁의 동쪽에 있는 ▽▽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궁의 서쪽에 있는 △△ 마을에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 함께해 주세요.  
 여기가 △△ 마을 입구입니다. △△역에서 딱 5분 걸렸어요. (실시간 채팅 창을 보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들이 많네요.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카메라에 있는 소음 제거 장치를 조절해 볼게요. (방송 장비를 조작하며) 이제 잘 들리죠? (실시간 채팅 창을 보고) 네, 다행이네요.  
 마을 입구에 이렇게 밀동만 남은 나무가 있네요. 무슨 사연이 있나 알아볼게요. 여기 안내문이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보기에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나무는 수령이 300년 된 백송으로 △△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의 역할을 해 왔으나, 20××년 태풍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 30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 마을을 지켜 주었는데, 태풍에 쓰러져 이렇게 밀동만 남은 걸 보니 안타깝네요.



자,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작은 문방구도 있고, 예쁜 카페도 있고..... 저기 예쁜 한옥이 한 채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볼게요.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여기 안내 표지판을 보니까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지금은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이래요. 잠깐 들어가 볼게요. 행랑채를 지나 사랑채로 들어섰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마당이 정말 예뻐요. 이 문을 지나면 안채가 나오는데, 별로 크지는 않아도 한옥의 아름다움을 아주 잘 간직한 곳이네요. 아, ㉡ 그런데 벌써 배가 고파졌어요. ㉢ 우선 뭐 좀 먹어야겠어요.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 시장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두리번거리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표지판을 보니까 이 길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저기 보여요. (한참 걸어간 후)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갔던 백송 바로 옆인데요. 괜히 땀 몰아서 왔네요. 여러분은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백송을 보고 △△ 시장을 먼저 둘러 본 다음에 한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 백송에서 시장까지는 5분, 시장에서 한옥까지는 10분 정도 걸리겠어요.  
 드디어 시장에 도착했어요. 전통 시장이라 그런지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 곳 같아요. 참 정겹네요. 그리고 먹거리도 참 많네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먹고 싶으세요? (실시간 채팅 창을 보고) 떡볶이가 어떤 맛인지 알려 달라는 분들이 많네요. ㉤ 제가 먹어 보고 맛이 어떤지 알려 드릴게요. (떡볶이 맛을 보고) 다른 떡볶이보다 훨씬 쫄깃해서 식감이 좋고 매콤달콤하네요.



(나)

지역 문화 탐구 동아리에서 △△ 마을을 탐방하기 전에 뚜벅 님 방송을 참고해 사전 안내용 슬라이드를 제작해야겠어. ㉠ 탐방 경로를 안내하는 슬라이드에서는 탐방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하되,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순서로 제시하고 각 장소로 이동하는 소요 시간도 제시해야지. ㉡ △△ 시장을 안내하는 슬라이드에서는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는 문구를 넣어 주고 시장 이용에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시해야겠어.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되므로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음질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개선해 정보를 전달한다.
- ② 수용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전에 제작된 자료 화면을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 ③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방송 진행자가 수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구성하여 전달한다.
- ④ 방송은 시각과 음성의 사용이 모두 가능하므로 안내문의 텍스트 정보를 방송 진행자가 읽어서 음성 언어로 전달한다.
- ⑤ 일정한 주기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방송 진행자가 지난 주에 했던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의 댓글 창이다.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냇달** 1일 전  
방송 잘 봤어요. 그런데 300년 된 백송이 쓰러진 걸 보니 대단한 태풍이었나 봐요. 그게 무슨 태풍이었나요? 댓글

↳ **뚜벅** 1일 전  
20××년에 있었던 태풍 ‘○○’ 였대요. 우리나라에서 기상을 관측한 이래 가장 강력한 것으로 기록된 태풍이에요. 댓글

↳ **냇달** 1일 전  
아! 고마워요. 댓글

**별총** 1일 전  
어렸을 적에 그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백송을 다시는 볼 수 없다니 너무 아쉽네요.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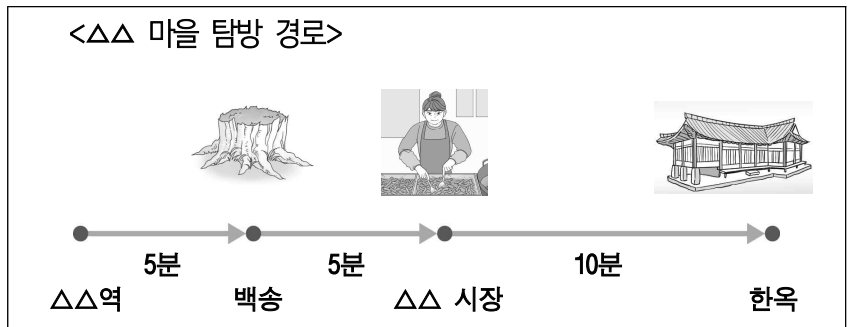
↳ **뚜벅** 1일 전  
그 백송의 씨앗을 발아시켜서 지금 어린 백송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아쉬워 마시길……. 댓글

↳ **별총** 1일 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댓글

① ‘냇달’과 ‘별총’은 ‘뚜벅’의 댓글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얻고 있다.

- ② ‘뚜벅’은 방송에서 자신이 잘못 전달한 정보를 바로잡아 ‘냇달’에게 댓글로 전달하고 있다.
- ③ ‘뚜벅’과 ‘별총’은 ‘냇달’의 생각에 동조함으로써 세 사람이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별총’은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함으로써 ‘뚜벅’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별총’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뚜벅’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사전 안내용 슬라이드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시장>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 정겨운 △△ 시장**

- ◆ 교통편
  - 지하철: X호선 △△역
  - 버스: 6X, 4X 백송 앞 하차
- ◆ 이용 시간
  - 08:00 ~ 21:00
  - 매주 화요일 정기 휴업

- ① 탐방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고 한 ㉠에는 뚜벅 님이 언급하지 않은 소재를 추가하여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
- ②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해 탐방 순서를 정하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추천한 경로를 제시하자.
- ③ 각 장소로 이동하는 소요 시간을 제시하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안내해 준 이동 시간을 구간별로 나타내 주자.
- ④ 대상의 특징을 보여 주는 문구를 넣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방송에서 언급한 말을 활용하여 만든 문구를 넣어 주자.
- ⑤ 시장 이용에 유용한 정보를 넣어 주기로 한 ㉡에는 뚜벅 님이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교통편과 이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넣어 주자.

4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조사 ‘이나’를 사용하여 백송이 △△ 마을을 지켜 주었던 긴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접속 부사 ‘그런데’를 사용하여 한옥에 대한 화제를 먹거리에 대한 화제로 전환하고 있다.
- ③ ㉠: 지시 대명사 ‘뭐’를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④ ㉡: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이동 소요 시간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인칭 대명사 ‘제’를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

[44~45]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이고, (나)는 이와 관련하여 나는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PDF 파일 다운로드  
(<https://mdlib.co.kr/exp02>)

◆ 기기 사용 안내

(1) 무인 도서 대출

도서 검색 및 선택 → 회원증 인식 → 도서 찾기 → 대출 정보 확인

(2) 무인 도서 반납

반납 도서 인식 → 도서 투입 → 반납 처리 → 반납 정보 확인

◆ 유의 사항

-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대출이 제한됨.
- 훼손된 도서는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변상 처리해야 함(기타 안내의 '훼손 도서 변상 처리' 참조).

◆ 기타 안내(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

[야간 예약 대출](#) [예약 대출 취소](#) [훼손 도서 변상 처리](#)

[회원 가입 바로 가기](#)

(나)

20XX년 X월 13일

창윤: 용주야, 너 혹시 우리 학교 도서관에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 생긴 거 아니?

용주: 응, 나는 벌써 써 봤는데.

창윤: 나는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어.

용주: 지난달에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회원 가입을 다시 하라는 안내가 있었는데 몰랐어?

창윤: 내가 지난달에 다리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어서 그 안내를 받지 못했어.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용주: 내가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공유할게. 여기 보면 '회원 가입 바로 가기'가 있으니까 그걸 누르면 돼. <https://mdlib.co.kr/service/digital02.asp>

창윤: 응, 고마워.

20XX년 X월 15일

용주: 창윤아, 회원 가입은 했니?

창윤: 응, 네 덕분에. 그런데 오늘 무인 도서 대출기로 빌린 책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책이 손상되었어. 이를 어찌지?

용주: 손상된 책은 변상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창윤: 변상 처리?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데?

용주: 내가 전에 보내 준 사용 설명서 중 '기타 안내' 항목에 '훼손 도서 변상 처리' 안내가 있어.

창윤: 13일에 보내 준 자료에 있다는 거지? 내가 찾아볼게.

창윤: 찾았다. 이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말하는 거지? <https://mdlib.co.kr/service/digital02.asp>

용주: 맞아, 거기 보면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해.

44.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작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용 설명서는 특정한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 ② 기기 사용 안내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두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 ③ 기기 사용 안내는 화살표를 활용하여 조작 순서가 드러나도록 안내했다.
- ④ 유의 사항은 회원 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 ⑤ 기타 안내는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45.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정보를 (나)의 사용자들이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유통하고 있군.
- ② (나)의 사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에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군.
- ③ (가)는 (나)와 달리 정보를 수용한 사용자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군.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과거에 소통한 이력에서 가져와 활용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간 예약 기능을 활용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수정하였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개조한다'를 대신하여 '개선한다'로 어휘를 바꾸었으므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어휘를 바꾸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② <보기>의 두 번째 문장에서 잘못된 접속어인 '그러나'를 삭제하였으므로, 잘못된 접속어를 삭제하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③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어긋나는 <보기>의 세 번째 문장을 삭제하였으므로,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치고 있는 문장을 삭제하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④ <보기>의 네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인 '에너지를'을 추가했으므로, 필요한 문장 성분을 추가하라는 조건을 반영하였다.

41. [출제의도] 발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A]의 대화에서 학생 2는 프로그램이 자료를 전시하는 데 치우쳐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만족도가 낮은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B]의 대화에서 학생 2는 학생들이 신발 발전기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대화 맥락에 맞게 내용을 정리한다.

건의 내용을 점검하는 논의에서 건의 내용이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하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회의록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작년 행사를 점검하는 논의에서 전시에 치우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자료가 일부 있었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회의록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논의에서 학생들이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신발 발전기를 제작해서 신고 걷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회의록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3문단에서 산업 진흥 정책과 함께 보육·교육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가 발전할 때 청년층 인구 증가의 효과가 컸던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시 청년층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청년층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에 관한 쟁점을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③ 청년층 인구 감소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 양상을 '초고'에서 다루었지만, 문제의 다양한 발생 원인을 근거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④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을 언급하지만 기존 방안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⑤ 청년층 인구 감소 문제의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작문의 계기가 포함되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관용구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에서 앞 문장과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대용 표현을 사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밝힌 작문의 계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③ 관용구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④ 1문단에서 밝힌 작문의 계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대용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⑤ 관용구를 활용하지 않았고, 대용 표현도 활용하지 않았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보기>의 (가)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시의 전체 인구수 변동 추이와 전년도 대비 인구 감소율 및 20~30대 청년층 인구수 변동 추이와 전년도 대비 청년층 인구 감소율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다)는 ○○시의 청년층 인구가 타 지역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주요 원인을 제시한 전문가 인터뷰 자료이다. 이 인터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함께 정주 여건의 악화를 청년층 인구 감소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가)와 (다)를 활용하더라도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청년층의 구체적인 인구 감소 속도를 비교한 값을 추가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2018년과 2022년의 전체 인구수 감소 추이를 활용하여 약 30만 명의 인구가 약 27만 명으로, 10% 가까이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문단에서 ○○시의 전체 인구가 2018년 비해 2022년에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나타낼 수 있다. ② (나)는 인구 증가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시 20~30대 청년층 주민들의 응답을 보여 주는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3문단에서 보육·교육 여건의 개선과 문화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정주 여건이 인구 유입의 장애 요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다)의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여 청년층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육, 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의 열악함을 청년층 단위에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②	37	④	38	①	39	⑤
40	②	41	①	42	①	43	③	44	④
45	④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의존 명사를 이해한다.

의존 명사 '바'는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만 결합한다. 후행 요소로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등의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또한 의존 명사 '바'는 후행 요소로 다양한 용언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의존 명사를 이해한다.

㉔의 '줄'은 현대 국어 '줄'과 달리, 주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고, 선행 요소로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다. 중세 국어 '짓'은 여러 유형의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와 두루 결합하여 쓰였다. ㉕의 '딛'은 현대 국어 '딛'과 같이,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다. 또한 목적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다. 중세 국어 '디'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지 않았다. ㉖의 '뽀'는 현대 국어 '뽀'와 달리,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었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음운 변동을 탐구한다.

'첫여름[천너름]'은 첨가('ㄴ' 첨가)가 한 번,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나고, '울조리다[읍조리다]'는 탈락(자음군 단순화)이 한 번, 교체가 두 번(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일어나므로 ㉑과 ㉒에 모두 해당한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방식과 형성 방법을 파악한다.

'여단다'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접히다'는 동사 '접다'의 어근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며 만들어진 동사이다. '높이다'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동사이다.

39.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을 파악한다.

'ㄷ'은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며 'ㄹ'은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40. [출제의도] 매체 정보의 전달 방식을 이해한다.

(가)의 방송 진행자는 수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흥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를 위해 사전에 제작된 자료 화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③ (가)에서는 수용자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떡볶이 맛을 알려 달라고 한 요구에 따라 방송 진행자가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구성하여 전달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참여자의 수용 양상에 대해 이해한다.

'낮달'과 '별총'은 방송에서 언급된 '백송'과 관련해 추가된 정보인 '태풍'과 '어린 백송'에 대한 정보를 '뚜벅'의 댓글을 통해 얻고 있다.

[오답풀이] ⑤ '뚜벅'이 '별총'의 댓글과 관련하여 '백송'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뚜벅'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별총'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한 것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㉑에 탐방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은 맞지만, 이를 위해 '뚜벅 님'이 언급하지 않은 소재를 추가하여 그림 자료로 보여 주지는 않았다. ㉒에 그림 자료로 제시된 '백송', '△△ 시장', '한옥'은 모두 '뚜벅 님'이 방송에서 언급한 소재이다.

43.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우선 뭐 줘 먹어야겠어요.'에 사용된 '뭐'는 정하지 않은 대상을 이르는 부정칭 대명사로, 방송 진행자가 아직 무엇을 먹을지 정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지 수용자에게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가)를 보면 '유의 사항' 아래에 '회원 가입 바로 가기'가 있으므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의 사항을 읽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원 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유의 사항'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PDF 파일의 형태로 '사용 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② '기기 사용 안내'는 사용자가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기'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무인 도서 대출'과 '무인 도서 반납'이라는 두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③ '기기 사용 안내'는 화살표를 활용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기기를 조작하는 순서가 잘 드러나도록 안내했다. 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통해, '기타 안내'의 각 항목은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활용 방안을 이해한다.

(나)에서는 '20XX년 X월 15일'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20XX년 X월 13일'에 소통했던 과거의 이력에서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가져왔다.

[오답풀이] ① (나)의 사용자들이 (가)에 제시된 정보를 유통하며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였으나, (가)에 제시된 내용을 수정하여 유통한 것은 아니다. ② (나)의 사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가)에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한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 정보를 수용한 사용자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수능 전에 풀어보는  
언어와 매체  
기출 모음집 2024  
21회차 220제

지은이 재옌니의 취미생활

